

한영
대역

수궁가 바디별전집 1

김연수 바디 · 유성준 바디

Kim Yeon-su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O Jeong-suk)

Yu Seong-ju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Bak Bok-nam)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수궁가바디별전집 I

2010년 11월 25일 인쇄

2010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4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 - 04810

978-89-5925- - (전4권)



수궁가
바디별전집 1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판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판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네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수궁가〉 여덟 바탕을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수궁가 바디별 전집》(1-4)을 내게 되었다.

이 성과물은 총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김연수 바디 오정숙 창 수궁가〉와 〈유성준 바디 박복남 창 수궁가〉, 2권은 〈정웅민 바디 정권진 창 수궁가〉와 〈강도근 바디 강도근 창 수궁가〉, 3권은 〈박봉술 바디 송순섭 창 수궁가〉와 〈박초월 바디 최난수 창 수궁가〉, 4권은 〈정광수 바디 정광수 창 수궁가〉와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수궁가〉이다. 이만하면 현재 전승되고 있는 〈수궁가〉 바디를 망라하고, 같은 바디인데도 창자에 따라 다른 것까지 포괄하여 자막으로 사용할 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12권의 책과 석 장의 CD를 내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분

에 넘치는 칭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동시에 받았다. 칭찬을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질책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이 작업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울 뿐이다.

판소리 사설의 번역 작업은 다른 번역 작업에 비해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각종 고사와 지명, 인명에다가 우리 민속, 그리고 한시들과 지극히 한국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번역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살려서 번역해야 한다는 명제에 수긍은 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였다. 번역자들의 능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번역은 ‘자막 제작’이라고 하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다. 자막은 공연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위해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판소리를 부르는 시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에 상관 없이 원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게 번역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사설의 예술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데 대한 질책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판소리 사설의 영어 번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일을 벌였다는 점을 해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번역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이 번역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좋은 번역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 번역이 훗날의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작은 디딤돌 노릇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명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다시 가을이 깊다. 이 작업을 시작한 후 네 번째 맞는 가을이다. 깊어가는 가을을 따라 우리의 삶도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0년 깊어가는 가을

최동현 · 박승배 씀

차 례

■ 책머리에 • 4

■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12

* 김연수 바디 수궁가(오정숙 창)

1. 용왕 득병	14
2. 도사 문병	16
3. 약성가	16
4. 용왕 병 치유 불능	22
5. 토끼 간 처방	24
6. 다른 처방 요구	28
7. 어전회의	28
8. 백의재상의 거북 천거	34
9. 도미와 물메기 천거	36
10. 조개 천거	38
11. 벌떡게 자원	40
12. 별주부 자원 상소	40
13. 궐어의 별주부 시험	42
14. 별주부 항변	44
15. 전복 불러 토끼에 대해 물음	46
16. 토끼 화상	48
17. 별주부 모친 당부	52

18. 별주부 부인 당부	54
19. 고고천변	56
20. 봉황새 상좌 다툼	62
21. 까마귀와 부영이의 상좌 다툼	64
22. 길짐승 상좌 다툼	66
23. 노루, 너구리, 멧돼지의 상좌 다툼	70
24. 토끼 등장	72
25. 호랑이 등장	74
26. 호랑이가 내려옴	76
27.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78
28. 별주부 목 내력	82
29. 호랑이 도망	86
30. 산신제 준비	88
31. 별주부 축문	90
32. 별주부 토끼 상면	92
33. 세상 나온 내력	94
34. 토끼의 자랑	102
35. 토끼의 팔난	108
36. 수궁 홍미	114
37. 여우 만류	118
38. 토끼 별주부 강가 당도	120
39. 별주부의 토끼 위협	126
40. 범피중류	128
41. 토끼 잡아들임	132
42. 토끼의 찌	138

43. 별주부 간언	148
44. 토끼의 별주부 힐난	150
45. 수궁 풍류	152
46. 별주부 애원	158
47. 토끼 생환	162
48. 별주부 봉변	166
49. 별주부 축수	168
50. 토끼가 똥을 싸 주며 욕함	170
51. 토끼의 엉터리 약	174
52. 토끼 방정	176
53. 토끼 뒷에 걸림	178
54. 초동목수 신세타령	182
55. 토끼 살아남	184
56. 토끼 독수리에게 붙잡힘	186
57. 토끼 청승	188
58. 토끼 다시 살아남	190
59. 후일담	196

*** 유성준 바디 수궁가(박복남 창)**

1. 용왕 득병	276
2. 도사 문병	276
3. 도사 진맥	278
4. 토끼 간 처방	280
5. 어전 회의	282

6. 거북 천거	284
7. 물메기 천거	286
8. 방개와 조개	288
9. 별주부 자원	290
10. 토끼 화상	292
11. 별주부 모친 만류	294
12. 별주부 부인 작별	296
13. 고고천변	298
14. 봉황새 상좌다툼	304
15.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304
16. 길짐승 상좌 다툼	308
17. 노루, 너구리의 상좌 다툼	310
18. 멧돼지와 토끼 등장	310
19. 호랑이 등장	312
20. 호랑이 내려옴	314
21.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318
22. 별주부 목 내력	320
23. 산신제	324
24. 별주부 토끼 상면	324
25. 녹수청산	328
26. 토끼의 험난한 생활	332
27. 수궁 흥미	338
28. 여우 만류	340
29. 토끼와 별주부 강가 당도	342
30. 범피중류	346

31. 토끼 잡아들임	352
32. 토끼의 피	358
33. 수궁 풍류	368
34. 토끼 방정	370
35. 별주부 애원	374
36. 토끼 생환	376
37. 토끼 별주부 조롱	380
38. 토끼 그물에 걸림	382
39. 초동목수 신세타령	388
40. 토끼 살아남	390
41.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394
42. 후일담	398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김연수 바디 수궁가(오정숙 창)

Kim Yeon-su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O Jeong-suk)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병을 얻어 나을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갑신년 늦은 봄에 남해 광리왕¹⁾이 영덕전²⁾ 새로 짓고,
낙성연³⁾을 배설⁴⁾하여 동·서·북 삼해⁵⁾ 용왕을 청하니,
군신⁶⁾ 빈객⁷⁾이 천승만기⁸⁾라.
주육⁹⁾에 잠기어 수삼일¹⁰⁾을 즐기더니,
잔치를 파헌¹¹⁾ 후에 남해 용왕이 졸연¹²⁾ 득병¹³⁾하여,
수부¹⁴⁾ 조정¹⁵⁾ 대신¹⁶⁾이 주야로 치병¹⁷⁾허되,
명의¹⁸⁾ 얻을 길이 없고,
회춘¹⁹⁾할 가망이 없는지라.
하루는 용왕이 탄식을 하신디,
[진양조] 탐상²⁰⁾을 탕탕 뛰다리며²¹⁾ 용성²²⁾으로 울음을 운다.
“천무열풍²³⁾ 좋은 시절, 해불양파²⁴⁾ 태평하여 국태민안²⁵⁾허건마는,
괴이현²⁶⁾ 병을 얻어 남해궁²⁷⁾에 누웠으니,
어느 뉘가²⁸⁾ 날 살릴꼬?
의약만세²⁹⁾ 신농씨³⁰⁾와 화타,³¹⁾ 편작³²⁾ 만났으면 나를 구원³³⁾허련
마는,
이제는 하릴없구나.³⁴⁾
이를 장차 어찌드란³⁵⁾ 말이냐?”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late spring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He invites the three dragon kings of the east, west and north seas to his party.

There are numerous kings and officials with their carriages and horses.

They enjoy meat and wine for a few days.

After the party,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suddenly gets ill.

His officials take good care of him day and night.

But they were unable to find a good doctor.

He is not likely to recover.

One day the dragon king sighs heavily.

[Jinyangjo] The dragon king pounds on the table while crying wildly.

“The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I have come down with a strange disease in the palace of the South Sea.

Is there anyone to cure me?

Famous ancient doctors - Shen Nong Shi(神農氏), Hua Tuo(華陀) and Bian Que(扁鵲) - could have saved me.

But they are not here now.

What should I do?”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 핀다.

[아니리] 이렇듯 탄식하시니,
양기³⁶⁾가 부족헌가 해구신³⁷⁾도 권해 보고,
뇌점³⁸⁾을 초잡는지³⁹⁾ 봉장어⁴⁰⁾도 대령⁴¹⁾허고,
비위⁴²⁾를 붙잡기로⁴³⁾ 부어⁴⁴⁾를 써보아도
종시⁴⁵⁾ 효험이 없는지라,
일국⁴⁶⁾이 황황허여⁴⁷⁾ 하늘께 축수⁴⁸⁾터니,
[엇도리] 하루는 오색 채운⁴⁹⁾이 궁전을 뒤덮고,
기이현 맑은 향취⁵⁰⁾가 사면으로 일어나며,
선의 도사⁵¹⁾가 청창의⁵²⁾ 떨쳐⁵³⁾ 입고,
요하⁵⁴⁾에 명월패⁵⁵⁾며 백우선⁵⁶⁾ 손에 쥐고,
표연히⁵⁷⁾ 당⁵⁸⁾에 올라 거수장읍⁵⁹⁾허고 재배이진왈,⁶⁰⁾
“약수삼천리⁶¹⁾에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의⁶²⁾ 천년 벽도⁶³⁾를 얻
으려고 지하에 왔삽더니,⁶⁴⁾
오다 풍편에⁶⁵⁾ 듣사오니, 대왕의 환후⁶⁶⁾가 만만위중타기로⁶⁷⁾ 뵈옵고
저⁶⁸⁾ 왔나이다.”

3. (약성가) 도사가 온갖 약과 침법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 가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리] 용왕이 반겨허사,⁶⁹⁾
“폐거벽루⁷⁰⁾하온데 천선⁷¹⁾이 강림⁷²⁾허시니 감사무비⁷³⁾이오나,
기동⁷⁴⁾을 못하는 병든 몸이오라
출문영접⁷⁵⁾ 못하음을 무례타⁷⁶⁾ 마옵시고,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Aniri] The dragon king sighs as said above.
Thinking he needs positive energy, the king's officials offer him
a seal penis.
Thinking he has tuberculosis, they offer him an eel.
They give him a carp to make him strong.
But none of these remedies work at all.
The whole nation worries about him and prays to God.
[Eonmori] One day, beautiful clouds surround the palace.
A queer fragrance rises over the palace.
A god wearing blue clothes shows up.
A fancy decoration is below his waist. He holds a fan of white
feathers.
He climbs the stairs elegantly, bows twice to the king, and
speaks.
"I have come to the earth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legendary pond.
I heard Your Majesty has a serious illness. I'm here to see you."

3. (Medicine Song) The god tries all sorts of medicines and needles, but the dragon king does not get better.

[Aniri] The dragon king is delighted.
"I feel honored because a god came down from the heaven to
my humble place.
I can't move because I'm sick.
Please don't blame me for not greeting you at the gate."

원컨대 황황헌⁷⁷⁾ 병세 특효지약⁷⁸⁾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 이른 말이, “우선 맥⁷⁹⁾을 보사이다.”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 제,
 “심소장⁸⁰⁾은 화⁸¹⁾요,
 간담⁸²⁾은 목⁸³⁾이요,
 폐대장⁸⁴⁾은 금⁸⁵⁾이요,
 신방광⁸⁶⁾은 수⁸⁷⁾요,
 비위는⁸⁸⁾ 토라.
 간목⁸⁹⁾이 태과⁹⁰⁾허여
 목극토⁹¹⁾허니 비위가 상하옴고,⁹²⁾
 담경⁹³⁾이 심허니⁹⁴⁾ 신경⁹⁵⁾이 미약허고,
 폐대장이 왕성허니 간담경⁹⁶⁾이 자진⁹⁷⁾이라.
 방서⁹⁸⁾에 이르기를, 비⁹⁹⁾는 일신지조중¹⁰⁰⁾이요,
 담¹⁰¹⁾은 일신지표본¹⁰²⁾인디,
 심정즉 만병이 식허고,¹⁰³⁾
 심동즉 만병이 생하오니,¹⁰⁴⁾
 심경¹⁰⁵⁾이 미약허면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칠상¹⁰⁶⁾ 급하오니
 보중탕¹⁰⁷⁾으로 잡수시오.”
 숙지황¹⁰⁸⁾ 주증¹⁰⁹⁾허여 닷 돈¹¹⁰⁾이요,
 산사육¹¹¹⁾ 천문동¹¹²⁾ 세신¹¹³⁾을 거토허고,¹¹⁴⁾
 육정용¹¹⁵⁾ 택사¹¹⁶⁾ 앵속각¹¹⁷⁾ 각 한 돈, 감초¹¹⁸⁾ 칠 푼,
 수일승전반연용¹¹⁹⁾ 이십여 첩¹²⁰⁾ 허되 소무동정¹²¹⁾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¹²²⁾을 잡수시오.”
 백출¹²³⁾을 초구¹²⁴⁾하야 서 돈이요,
 사인¹²⁵⁾을 초구하야 두 돈이요,

I am seriously ill, I wish you show me an effective medicine.”
The god responds, “Let me check your pulse first.”

[Jajinmori] The king holds out his hand, and the god checks his pulse.

“The heart and the small intestine are Fire.

The liver and the gall bladder are Wood.

The lungs and the large intestine are Gold.

The kidney and the bladder are Water.

The spleen and the stomach are Earth.

Your liver is too strong.

Wood defeats Earth, so your liver has injured your spleen and stomach.

Your gall bladder is so strong that your kidneys are weak.

Your lungs and large intestine overshadow your liver and gall bladder.

A medical book says the spleen is the most important organ.

The gall bladder is the indicator of the bodily condition.

If you aren’t anxious, all illnesses will disappear.

If you have any anxiety, all illnesses will appear.

If your heart is weak, all illnesses will appear.

All your internal organs are weak.

Please eat some medicinal soup.”

The god prepares a steamed medicinal root.

He shakes dust off medicinal fruit and a medicinal root.

He also prepares medicinal plants, 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2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medicines above in vain.

“You have serious diarrhea. Eat medicinal root soup.”

The god fries a medicinal root.

He also roasts medicinal seeds.

백복령¹²⁶ 산약¹²⁷ 오미자¹²⁸ 당귀¹²⁹ 천궁¹³⁰ 강활¹³¹ 목통¹³² 각
한 돈, 감초 팔 푼¹³³)

수일승전반연용 삼십여 첩 허되 소무동정이라.

“양감¹³⁴이 급하오니 가미강활탕¹³⁵을 잡수시오.”

마황¹³⁶ 두 돈, 진피¹³⁷ 강활 방풍¹³⁸ 백지¹³⁹ 천궁 창출¹⁴⁰ 승마¹⁴¹
갈근¹⁴² 세신 각 한 돈, 감초 오 푼

수일승전반연용 사십여 첩 허되 소무동정이라.

“신농씨¹⁴³ 백초약¹⁴⁴을 갖가지로 다 쓰라다는¹⁴⁵ 지려¹⁴⁶ 먼저 죽
을 테니,

백초약을 한 테 모아 가마¹⁴⁷에 많이 달여 한 번에 잡수시오.”

약을 한 테 모일 적에,

인삼은 미감¹⁴⁸허니 대보원기¹⁴⁹허고, 지갈생진¹⁵⁰허며 조영양
위¹⁵¹로다.

백출은 감온¹⁵²허니 건비강위¹⁵³허고, 제사제습¹⁵⁴허며 겸치담
비¹⁵⁵라.

감초도 감온허나 구즉온중¹⁵⁶허고 생직사화¹⁵⁷로다.

청심환¹⁵⁸ 소합환¹⁵⁹ 팔미환¹⁶⁰ 육미환¹⁶¹)

자음경옥고¹⁶² 백고약¹⁶³ 대황¹⁶⁴망초¹⁶⁵)

창출 승마 갈근 세신 청피¹⁶⁶ 진피

반하¹⁶⁷ 계향¹⁶⁸ 육계¹⁶⁹)

단사¹⁷⁰ 차전¹⁷¹ 연실¹⁷²)

당귀 천궁 강활

독활¹⁷³ 시호¹⁷⁴ 전호¹⁷⁵ 목통¹⁷⁶)

인삼 천문동 맥문동¹⁷⁷ 호황련¹⁷⁸ 당황련¹⁷⁹)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 tuckahoe, a yam root, a schizandra, an angelica root, a stem,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3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preceding medicines in vain.

“Your positive energy is too strong. Take medicinal soup.”

He prepares medicinal materials: an ephedra stem, an old tangerine skin, a parsnip root, diverse roots, kudzu, and a licorice root.

The king takes 40 bags of the boiled combination of the foregoing medicines in vain.

“You might die before you take all of the herbal medicines one by one.

Let’s boil all of them together in an iron pot. Take them at once.”

The god puts all the medicines together.

Ginseng is sweet, so it creates vigor, eases thirst, and strengthens the stomach.

A japonica root is warm and sweet, so it stops diarrhea and makes healthy the spleen, the stomach, and the gall bladder.

A licorice root is warm and sweet too, but it is the best when it is fried and gives off heat in a raw state.

Pills that clear one’s heart and stomach, pills that restore vigor, a medicine for promoting negative energy, white salve, a rhubarb root, niter,

roots, kudzu, a root, young and old tangerine skins,

a *Pinellia ternata* root, cinnamon fragrance, some cinnamon bark,

a medicinal mineral, a herb seed, lotus fruit,

an angelica root, a stem for alleviating pain,

a herb for removing fever, a root for alleviating fever, a vine stem,

ginseng, a medicinal root, a root increasing negative energy, a medicinal root, a peptic root,

가미육군자탕¹⁸⁰) 청서육화탕¹⁸¹) 강활탕¹⁸²)
 도인탕¹⁸³) 백사주인탕¹⁸⁴) 황금인분탕¹⁸⁵)
 두꺼비오줌¹⁸⁶) 곰의 쓰레¹⁸⁷)까지
 모도 다 써도 백약¹⁸⁸)이 무효하니,
 “침구¹⁸⁹)를 허옵시다.”
 금침 은침 빼어 들고 혈¹⁹⁰)을 잡아서 침질혈 제,
 천지지상경¹⁹¹)이니 유주¹⁹²)로 주어 보자.
 갑일¹⁹³) 갑술시여¹⁹⁴) 담경¹⁹⁵) 주유¹⁹⁶)를 주고,
 을일¹⁹⁷) 유시¹⁹⁸)에 대장경 상양¹⁹⁹)을 주고, 영구²⁰⁰)로 주어 보자.
 일 신맥,²⁰¹) 이 조해,²⁰²) 삼 외관,²⁰³)
 사 임읍,²⁰⁴) 육 공손,²⁰⁵)
 칠 후계,²⁰⁶) 팔 내관,²⁰⁷) 구 열결,²⁰⁸)
 삼기²⁰⁹)를 붙여 팔문²¹⁰)과 좌맥²¹¹)을 돌려주고,
 임맥²¹²)과 독맥²¹³)과 십이경맥²¹⁴)을 주어 보자.
 승장²¹⁵) 염천²¹⁶) 천돌²¹⁷) 구미²¹⁸)
 거궐²¹⁹) 상완²²⁰) 중완²²¹) 하완²²²) 신궐²²³) 단전²²⁴)
 곤륜²²⁵)을 주고, 족태음비경²²⁶) 삼음교²²⁷) 음릉천²²⁸)을 주되,
 병세²²⁹) 점점 위중²³⁰)하니,

4. (용왕 병 치유 불능) 도사는 용왕이 인간과 다르므로 침 과 약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니리] 도사 다시 맥을 볼 제,
 두 소매를 딱 걷고,
 양수²³¹)를 년짓²³²) 들어 온몸을 만지더니,

hematic soup, soup for the heart, Apiaceae soup,
peach seed soup, white snake soup, yellow soup,
the urine of a toad, and the gall bladder of a bear
are all tried in vain.

“Let’s try acupuncture.”

He takes out gold and silver needles and applies them to the
right spots.

He also chooses the right times for acupunctures.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gall bladder at the right time.

He applies acupuncture on the large intest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oriental medical practice.

Needles are applied to the shinbones, the ankle bones, the
wrists,

the top and bottom of the feet,

fingers, palms, a part of the wrists,

eight important parts of the king’s body,

and twelve special parts of the king’s body.

They are the lower lip, the tongue bone, the chest bone, the
space between ribs,

upper parts of the navel, the navel, a lower part of the navel,

an upper part of the ankle, and diverse parts of the feet.

But the king’s illness gets serious.

4. (Impossible to Cure the King) The god says that medicines and needles cannot cure the dragon king because he is not a human being.

[Aniri] The god checks the king’s pulse again.

He folds up his sleeves.

He slowly holds up his hands and massages the king’s whole body.

앞으로 물러앉어
 안색을 살핀 후에 용왕전²³³⁾ 여짜오되,
 [중모레] “존귀²³⁴⁾하신 대왕 옥체²³⁵⁾ 인생과는 다른지라.
 사람이라 허는 것은 오장육보²³⁶⁾ 있는 병을 춘관척맥²³⁷⁾을 보면 부침
 지삭²³⁸⁾ 있거니와,
 대왕의 귀현 옥체 게²³⁹⁾ 뉘라서 짐작허리오?
 안채²⁴⁰⁾가 영룡²⁴¹⁾허되 돌과 바우²⁴²⁾를 못 보시고,
 양각²⁴³⁾이 쟁영²⁴⁴⁾하여 말소리 뿔로 듣고,
 턱 밑에 한 비늘이 거슬러 붙었기로 분을 내면 일어나고,
 입 속에 여의주²⁴⁵⁾가 조화²⁴⁶⁾를 부리오니,
 몸을 적게 허거드면²⁴⁷⁾ 못²⁴⁸⁾ 속에도 잠겨 있고,
 변화를 허라허면 하늘에도 올라가고,
 용맹을 쓰자허면 태산²⁴⁹⁾도 부수고, 대해²⁵⁰⁾도 뒤집으며,
 운무²⁵¹⁾가 시위²⁵²⁾하여 벽력이 호령이라.
 이 형체 이 기상²⁵³⁾에 인갑²⁵⁴⁾이 굳었으니 혈이 침을 안 받으며,
 화식²⁵⁵⁾을 안 하시니 탕약²⁵⁶⁾이 부당한 듯,
 인간의 침약²⁵⁷⁾으론 구혈 길이 없나이다.”

5. (토끼 간 처방) 도사가 천년 된 토끼의 간을 먹어야 용왕 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

[아니리] “신농씨가 상백초²⁵⁸⁾ 시유의약²⁵⁹⁾허였으며,
 황제소문²⁶⁰⁾ 의학입문²⁶¹⁾ 동의보감²⁶²⁾ 있다 해도,
 대왕께 당헌²⁶³⁾ 약은 그 중에 없사운데,
 환후²⁶⁴⁾를 살피옵고 이치를 생각허온즉

He steps back and sits down.
 He checks the king's face and speaks.
[Jungmori] "Your invaluable body is different from that of a human.
 For humans, we can detect any problem with internal organs by checking their pulse.
 Who could fathom a problem with your precious body?
 Your eyes are bright, but you can't see stones and rocks.
 Your two horns are so high that you hear sounds with them.
 One scale under your chin stands up when you get angry.
 A special ball in your mouth works out a miracle.
 You can make yourself small and be immersed in a pond.
 You can change yourself and fly to the sky.
 You are brave enough to destroy a large mountain and turn a wide sea upside down.
 You are so majestic and stately as to be escorted by clouds and fog.
 In addition, your scales and skin are hard, so they don't accept a needle.
 You don't eat cooked food, so medicinal soup is inappropriate to you.
 Human medicines and needles can't save you."

5.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says only a thousand-year-old hare's liver can cure the king.

[Aniri] "An ancient king, Shen Nong Shi(神農氏), discovered medicines by tasting all sorts of herbs.
 There are three famous ancient medical books.
 But none of them is good for you.
 I checked your illness and thought about the principles of nature.

진세간²⁶⁵)에 천 년 된 퇴간²⁶⁶)이 아니오면,
 염라대왕²⁶⁷)이 동성²⁶⁸) 삼촌이요, 강림사자²⁶⁹)가 외사촌²⁷⁰) 남매간
 이라도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허겠나이다.”²⁷¹)
 용왕이 여짜오되, “어찌 신농씨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옵고, 퇴간이
 어떻게 약이 된다 허십니까?”
 도사 여짜오되, “약은 상생²⁷²) 상극²⁷³)으로 쓰는 법이온바,”
[자진모리] “토끼라고 허는 것이 묘방²⁷⁴)을 맡았기로,
 부상²⁷⁵)에 금계²⁷⁶) 울고 낮빛이 처음 날 제 양기²⁷⁷)를 받아 먹고,
 월궁²⁷⁸)에 들어가서 계수나무 그늘 속에 장생약²⁷⁹) 찜을 적으²⁸⁰) 음
 기²⁸¹)를 받아 먹어,
 일정월화²⁸²) 음양 기운이 간경²⁸³)에 들었으며,
 목속간허였삽기²⁸⁴)
 간경이 좋은 고로²⁸⁵) 토끼가 눈이 밝어 별호²⁸⁶)를 명시²⁸⁷)라 허옵
 는디,
 용왕은 진이요,²⁸⁸) 토끼는 묘라,²⁸⁹)
 묘을손은 음목이요,²⁹⁰)
 간인진은 양퇴²⁹¹)오니
 어찌 상극²⁹²)이 아니오며,
 갑인진은 대강수²⁹³)요,
 진간사산은 원속목²⁹⁴)이라,
 목극토²⁹⁵)허고
 수생목허였으니,²⁹⁶)
 퇴간 곧 자시오면,²⁹⁷) 환후가 즉차²⁹⁸)허여 장생불사²⁹⁹)할 것이요,
 만일 그 약 아니오면 화타와 편작이가 좌우로 모시와도³⁰⁰) 회춘허
 들³⁰¹) 못하오리다.”

But for a thousand-year-old hare's liver in the human world,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relative, and even if the Grim Reaper is your brother or cousin."

The dragon king responds, "How come Shen Nong Shi's(神農氏) medicine does not work, but a hare's liver does?"

The god answers, "A medicine sh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nature."

[Jajinmori] "A hare is an animal of the east.

He receives positive energy when a bird cries and the sun rises.

He receives negative energy when he makes a medicine under the cinnamon tree in the palace on the moon.

His liver contains positive and negative energies from the sun light and the moon light.

Liver represents Wood.

Hare has a great vision to see things clearly because he has a good liver.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They ar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A dragon is Wood.

A hare is Earth.

Wood overcomes Earth.

Earth and Wood create life together.

If you eat a hare's liver, you will be cured immediately and live forever.

Without the liver, famous doctors, however great they are, can't make you healthy again."

6. (다른 처방 요구) 용왕은 수궁에서 토끼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약을 처방해달라고 한다.

[아니리] 용왕이 도사 허는 말을 가만히 듣더니,
[진양조] “연하다.³⁰²⁾ 수연이나,³⁰³⁾ 묘연현³⁰⁴⁾ 수국중에³⁰⁵⁾ 약수³⁰⁶⁾ 삼천리요, 백운이 구만리³⁰⁷⁾라.
여산 송백³⁰⁸⁾ 울울창창³⁰⁹⁾ 삼천 고분³¹⁰⁾이 황제묘인디,³¹¹⁾
토끼라 하는 짐생은³¹²⁾ 해외³¹³⁾ 일월의³¹⁴⁾ 밝은 세상, 백운 청산 무정처로³¹⁵⁾ 시비없이³¹⁶⁾ 다니는 짐승을
내가 어찌 구하드란 말이오?
죽기는 쉽사ward, 토끼는 구허덜³¹⁷⁾ 못허졌으니,
달리 약명³¹⁸⁾을 일러주오.”

7. (어전회의)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한다.

[아니리] 도사 여짜오되, “수국 제신³¹⁹⁾을 불러 하교³²⁰⁾하옵시면,
용왕의 성덕³²¹⁾으로 어찌 충의지신³²²⁾이 없사오리까?³²³⁾
갈 길이 충충하와³²⁴⁾ 이만 물러가나이다.”³²⁵⁾
문밖에 나서더니 도사는 간 곳 없고,
청아현³²⁶⁾ 옥저³²⁷⁾소리만 허공에서 들리거늘,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³²⁸⁾현 후,
수부조정³²⁹⁾ 만조백관³³⁰⁾을 일시에 입시³³¹⁾허라 하교하옵시니,
우리 세상 같고 보면 일품³³²⁾ 재상님네³³³⁾가 들어오실 터이로되,
수국이라 각종 물고기 등물들이³³⁴⁾ 모다³³⁵⁾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³³⁶⁾ 들어오는데,

6. (Request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that a hare is rare in the sea palace.

[Aniri] The dragon king listens carefully to what the god says.
[Jinyangjol] “That makes sense, but rivers and clouds are very far from this sea palac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obtain one?

It’s easier to die than to acquire a hare.
Please tell me a different medicine.”

7. (Royal Meeting)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niri] The god speaks, “Please call your officials here and give an order to them.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I am in a hurry, so I must leave now.”

The god goes out the gate and disappears suddenly.

Nothing but a beautiful flute sound is heard from the air.

The king bows to the sky several times.

He orders all of his officials to come to the palace for a meeting.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But this is a sea world, so fishes come in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titles.

태호 복희씨³³⁷⁾ 때 유용서어늘 이용기관허였단³³⁸⁾ 말이 사기³³⁹⁾에
있었으니,

용궁에 벼슬 이름 상고³⁴⁰⁾에 났던³⁴¹⁾ 것이었다.

[자진모리] 동편에는 문관³⁴²⁾이요, 서편에는 무관³⁴³⁾인디,

상하를 분별³⁴⁴⁾하여 차례로 들어올 제,

좌승상³⁴⁵⁾에 거북이며,

우승상³⁴⁶⁾에 잉어로다.

이부상서³⁴⁷⁾ 농어,³⁴⁸⁾

호부상서³⁴⁹⁾ 방어,³⁵⁰⁾

예부상서³⁵¹⁾ 문어,

병부상서³⁵²⁾ 송어,³⁵³⁾

형부상서³⁵⁴⁾ 준어,³⁵⁵⁾

공부상서³⁵⁶⁾ 민어,³⁵⁷⁾

한림³⁵⁸⁾ 깔다구,³⁵⁹⁾

대사헌³⁶⁰⁾ 도로목,³⁶¹⁾

간의대부³⁶²⁾ 모치,³⁶³⁾

태사관³⁶⁴⁾ 풍어,³⁶⁵⁾

금자광록대부³⁶⁶⁾ 금치,³⁶⁷⁾

은청광록대부³⁶⁸⁾ 은어,³⁶⁹⁾

대원수³⁷⁰⁾ 고래,

대사마³⁷¹⁾ 곤어,³⁷²⁾

용양장군³⁷³⁾ 이십이³⁷⁴⁾요, 호위장군³⁷⁵⁾에 죽상어³⁷⁶⁾라.

표기장군³⁷⁷⁾ 빨덕게,³⁷⁸⁾ 유격장군³⁷⁹⁾ 새우, 함장군³⁸⁰⁾ 조개,

언참군³⁸¹⁾ 물매기,³⁸²⁾

수문장³⁸³⁾ 대구,³⁸⁴⁾

주천태수³⁸⁵⁾ 홍어,

A history book says there was once a favorable event: A dragon
came out of a river with a beautiful painting.
So the word 'dragon' came to be attached to government titles.
[Jajinmori] Civil officials are on the east side; military officials
on the west side.
They enter according to their ranks.
A turtle is a minister.
A carp is another minister
A perch is the minister of personal management.
A saurel is the minister of finance.
An octopus is the minister of education.
A mullet is the minister of defense.
A trout is the minister of justice.
A croaker is the minister of industry.
A small insect is the minister of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frigate mackerel is an imperial aide.
A fish is a record official.
Another fish is an important official.
A sweetfish is a high official.
A whale is a general.
A large fish is a defense official.
A python and a guitarfish are generals.
A crab, a shrimp, and a shellfish are also generals.
A catfish is another military official.
A cod is a gatekeeper.
A skate is a provincial official.

주부³⁸⁶) 자라,
 서주자사³⁸⁷) 서대,³⁸⁸)
 연주자사³⁸⁹) 연어,³⁹⁰)
 감옥관³⁹¹) 수달,³⁹²)
 유수³⁹³) 꺾어,³⁹⁴)
 병사³⁹⁵) 청어,³⁹⁶)
 군수 해구,³⁹⁷)
 현감 견어,³⁹⁸)
 청백리³⁹⁹) 자손 어사 뺑어,⁴⁰⁰)
 탐관오리⁴⁰¹) 자손 주서⁴⁰²) 오징어,
 금군별장⁴⁰³)에 도미,
 능성어,⁴⁰⁴) 좌우 순령수⁴⁰⁵)
 조기 수괴⁴⁰⁶) 범치⁴⁰⁷) 모지리⁴⁰⁸) 전복,
 수염 긴 대하⁴⁰⁹)로다.
 병어⁴¹⁰) 전어⁴¹¹) 명태 복쟁이⁴¹²)
 눈치⁴¹³) 멸치 삼치 쾡치
 갈치 쯔뺑어,⁴¹⁴) 미끈덕⁴¹⁵) 배암장어,⁴¹⁶)
 군로사령⁴¹⁷) 짜개사리,⁴¹⁸) 돌 밑에 꺾지,⁴¹⁹)
 산 냇물에는 중고기요,⁴²⁰) 깊은 물에는 금잉어라.
 삼천궁녀⁴²¹)에 빛 좋은 피리,⁴²²) 망똥이⁴²³)
 짱둥이⁴²⁴) 승통이⁴²⁵) 올챙이 개고리⁴²⁶)
 송사리 눈쟁이⁴²⁷)까지 반차⁴²⁸)로 들어와서 어전⁴²⁹)에 복지청령⁴³⁰)
 허는구나.

A terrapin is a low-ranking official.
 A sole is a provincial official.
 A salmon is a provincial official too.
 An otter is a prison official.
 A mandarin fish is a chief guard of an important place.
 A herring is a general.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n oceanic bonito is a provincial head.
 An ice fish is a royal inspector and descendent of an upright official.
 A squid is a record official and descendent of a corrupt official.
 A snapper is a military officer in charge of guarding the palace.
 A perch is a soldier holding a flag.
 A yellow corvina, a goby, a gray mullet, an abalone,
 and a lobster with a long whisker come in.
 A pomfret, a gizzard shad, a pollack, a blowfish,
 a cornet fish, an anchovy, a mackerel, a saury,
 a hairtail, a scorpion fish, a slippery eel,
 a kind of catfish that is a military police, a kind of perch under
 a stone,
 a kind of carp of a mountain stream, and a golden carp of deep
 underwater come in.
 Many court ladies, a shiny minnow, a goby,
 a dace, a tadpole, a frog, and
 a ricefish come in according to their ranks and kneel down in
 front of the dragon king.

8. (백의재상의 거북 천거) 용왕이 토끼 간을 가져 올 신하
를 천거하라고 하니, 잉어가 거북을 천거하는데, 백의재
상 꺾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조관⁴³¹)들이 들어오면 의관신아어로향⁴³²)에 향내가 날 터
인데,

속 뒤집히는 비린내가 과시평⁴³³) 존장치계⁴³⁴) 용왕의 비위⁴³⁵)를 어
떻게 상케⁴³⁶) 해놓았던지,

용왕이 보시더니마는, “내가 왕이 아니라, 생선전⁴³⁷) 도물주⁴³⁸) 되었
구나.

그러하나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⁴³⁹)의 병을
고치리오?”

좌우 백관제신⁴⁴⁰)이 면면상고⁴⁴¹)하며 묵묵부답⁴⁴²)이어늘,

용왕이 기가막혀 예관⁴⁴³)을 돌아보며,

“백의재상⁴⁴⁴)을 모셔오라.”

예관이 영을 들고 백의재상 꺾어⁴⁴⁵)를 모셔오는데,

어찌하여 꺾어가 백의재상이 되었는고 하니,

수궁에서 벼슬하면 환해풍파⁴⁴⁶) 무섭다고 한가히 물러가서,

도화유수 별유천지⁴⁴⁷) 백구⁴⁴⁸) 백로 벗을 삼아

삼공불환⁴⁴⁹) 풍경 속에 장지화⁴⁵⁰)와 벗이 되니,

벼슬자리에 앉어본 일 없으나,

아는 바 너무 많은 고로 선생으로 대우하며,

용왕이 백의재상으로 봉허시고, 국가 대사 있을 때면 모셔다 의논을
허는 바라.

8. (The Premier Recommends a Turtle.) The dragon king tells his officials to recommend someone to bring a hare's liver. A carp recommends a turtle. The premier gives reasons why the turtle should be rejected.

[Aniri] Pleasant smells should accompany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dragon king is upset by the unpleasant fishy smells stronger than that of fish market.

He says, "It looks like I am not a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By the way, who will go out to the world of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y disease?"

All the officials look at each others' faces without saying anything.

Stunned, the dragon king talks to a ritual official.

"Bring the premier."

The ritual official brings the premier, a mandarin fish."

The following story is how the mandarin fish became the premier.

He left the sea palace because he detested the nasty aspect of the politics.

He made friends with peach blossoms, sea gulls, and white herons.

He became friends with a god in beautiful scenery without envying high government offices.

He never served in the government before.

But he is so knowledgeable that the dragon king treated him as his teacher.

The king appointed him as the premier and consulted him on important state affairs.

백의재상 입시⁴⁵¹)커늘,
 용왕이 묻자오되, “토끼 간을 구하기가 시각이 급하오니,
 문무간에⁴⁵²) 보낼 신하 선생이 천거⁴⁵³)허오.”
 꺾어 여짜오되, “지신은 막여주⁴⁵⁴)라 허였사오니,
 대왕께서 정하소서.
 불승기임⁴⁵⁵)헐 터이면 불가타⁴⁵⁶) 아뢰오리다.”
[중모레] “남의 기능 짐작하기 좀 어려운 노릇이오?
 옛 일을 생각건대,
 요임군⁴⁵⁷)은 곤⁴⁵⁸)이 시켜 홍수를 다스리고,
 공명⁴⁵⁹)은 마속⁴⁶⁰) 보내 가정⁴⁶¹)을 지켰으며,
 할고사군⁴⁶²) 개자추⁴⁶³)와
 광초망신 기신이는⁴⁶⁴) 죽을 인군⁴⁶⁵)을 살렸는디,
 우리 나라도 능신⁴⁶⁶)이 있건만, 어느 뉘가 날 살릴꼬?”
 우승상 잉어가 아뢰는디, “좌승상 거북이 어떠허뇨?”
 백의재상 꺾어가 여짜오되, “좌승상 거북이 지략⁴⁶⁷)은 넓사오나,
 복판⁴⁶⁸)이 모도⁴⁶⁹) 다 대문고로,⁴⁷⁰)
 세상에를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어다가 복판 떨어⁴⁷¹)
 대모장도,⁴⁷²) 밀이개살짝,⁴⁷³) 탕건⁴⁷⁴) 묘또기,⁴⁷⁵) 주일쌈지⁴⁷⁶) 끈까
 지 대모가 아니면 헐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9. (도미와 물메기 천거) 신하들이 도미와 물메기를 천거하 자, 꺾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레] “그러하오면 금군별장⁴⁷⁷) 도미가 밭씨부터⁴⁷⁸) 이부상서⁴⁷⁹)
 를 원한다하오니,

The premier shows up before the king.
 The dragon king says, "I need a hare's liver urgently.
 Recommend an official, civilian or military, to be sent to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responds, "It is said that a king knows his officials
 more than anyone else.
 Please you choose, Your Majesty.
 I'll tell you whether the picked official can do the job or not."
[Jungmori] "It's difficult to fathom someone's ability.
 Let me think about the past.
 King Yao(堯) had an official control the floods.
 Kong Ming(孔明) had an officer defend a region.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I have some able officials, but who can save me?"
 The carp, a minister, says, "What about the turtle, a minister?"
 The premier says, "The turtle is smart and knowledgeable.
 But his shell is used by humans as an ornament.
 If he goes out, humans will catch him and cut his shell off.
 His shell will be widely used to make such things as knife
 ornaments, tools, skullcaps, tobacco pouches, and cords.
 So we can't send him there."

9. (Recommendation of a Sea Bream and a Catfish) **Officials recommend a sea bream and a catfish. The** **premier rejects them, giving reasons.**

[Aniri] "If so, how about the sea bream in charge of the palace
 security? He already wishes to become a minister.

다녀오면 시키기로 도미를 보내면 어떠하오리까?”
 백의재상 왈, “사월팔일 닥쳐오니,
 서울은 쑥갓이요,⁴⁸⁰⁾ 시골은 풋고사리 송기탕⁴⁸¹⁾ 찜감⁴⁸²⁾으로 나가
 먼 죽을 테니
 보내지 못하오리다.”
 “그러하오면 언참군⁴⁸³⁾ 물메기⁴⁸⁴⁾가 어떠하오리까?”
 [자진모리] 백의재상 여짜오되, “원참군 물메기는 장수구대⁴⁸⁵⁾허여 풍
 신은 종사오나,
 요사이 좁피가루⁴⁸⁶⁾ 돌 밀마다 풀어노니 민물 근처를 못 가려니와,
 아가리가⁴⁸⁷⁾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고로,⁴⁸⁸⁾
 세상에 나가면 요기감⁴⁸⁹⁾을 얻으랴고 조그만헌⁴⁹⁰⁾ 산천수⁴⁹¹⁾ 요리
 저리 다니다,
 사립⁴⁹²⁾ 쓴 어웅⁴⁹³⁾들이 사풍세우불수귀라,⁴⁹⁴⁾ 입갑⁴⁹⁵⁾ 께어서⁴⁹⁶⁾
 물에 풍덩,
 탐식⁴⁹⁷⁾으로 덜컥 삼켜 단불요대⁴⁹⁸⁾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 복통,⁴⁹⁹⁾ 설사, 배아피⁵⁰⁰⁾허는 디⁵⁰¹⁾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10. (조개 천거) 신하들이 조개를 천거하자, 꺾어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그러하오면 합장군⁵⁰²⁾ 조개가 전신⁵⁰³⁾ 갑주⁵⁰⁴⁾ 단단허니,
 보내면 어떠하오리까?”
 [중모리] 백의재상 꺾어가 여짜오되, “합장군 조개는 철갑⁵⁰⁵⁾이 꾹
 꾹,⁵⁰⁶⁾ 방신제도⁵⁰⁷⁾는 종사오나,
 옛 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허고 좌수어인지공이라,⁵⁰⁸⁾

We can give him the job if he comes back.
 The premier says, "April the 8th is around the corner.
 Humans will make soup out of the sea bream along with pine bark, a crown daisy in Seoul, and fresh bracken in the country.
 So we can't send him there."
 "If so, how about the military officer, the catfish?"
[Jajinmori] The premier responds, "The catfish looks good with big mouth and long whiskers.
 However, he can't go to a stream these days because humans spread poison under stones.
 Besides, his mouth is so big that he needs a lot of food.
 If he goes ou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with baits into water.
 The gluttonous catfish will bite the hook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as a medicine for dysentery, stomachache, diarrhea, and belly trouble.
 So we can't send him there."

10. (Recommendation of a Shellfish) At the dragon king's recommendation of a shellfish, the premier gives reasons why that is a bad idea.

[Aniri] "If so, how about the shellfish, a military general? His whole body is covered with hard shell."
[Jungmori] The premier replies, "The shellfish has strong protective gear.
 But an ancient book says a shellfish once fought with a snipe."

홀조⁵⁰⁹)라는 새가 있어 수루루 펄펄 달려들어,
 홀조는 조개 물고, 조개는 홀조 물어 서로 놓지를 아니허다,
 어부에게 모도⁵¹⁰) 다 잡히어 속절없이 죽을 터이니,
 보내지를 못 허리다.”

11. (벌떡게 자원) 벌떡게가 자원하자, 쫓아가 안 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이 때에 표기장군⁵¹¹) 벌떡게⁵¹²)란 놈이 열 발을 짹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호기⁵¹³) 있게 여짜오되,

[중중모리] “신⁵¹⁴)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⁵¹⁵) 산천수⁵¹⁶) 가만히 잠신허고⁵¹⁷) 천봉만학⁵¹⁸)을 바라봐,
 산중퇴⁵¹⁹) · 월중퇴⁵²⁰) 안면⁵²¹)이 있사오니,
 소신⁵²²)의 엄지발⁵²³)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 집어다가
 대왕전에⁵²⁴) 바치리다.”

[아니리] “벌떡게란 놈은 겁이 많사와 뒷걸음질을 잘허는고로⁵²⁵)
 보내지 못하오리다.”

종일 공론⁵²⁶)이 미결⁵²⁷)헐 제,

12. (별주부 자원 상소) 별주부가 들어와 상소를 올리며 토끼 간을 구해오겠다고 한다.

[진양조] 영덕전⁵²⁸)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죽⁵²⁹)이요, 장경오획⁵³⁰)로구나.

홍배등에다⁵³¹) 방패⁵³²)를 지고 앙금앙금 들어오더니마는,

국궁재배⁵³³)허며 상소⁵³⁴)를 올리거늘,

The snipe flew to the shell fish vigorously.
They bit each other and refused to release each other.
They were caught by a fisherman and died helplessly.
So we can't send him there."

11. (A Crab Volunteers) A crab volunteers. The premier provides reasons for dismissing him.

[Aniri] At that moment, a crab, a general, steps forward slowly and proudly with his ten legs wide open.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Immers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I watched numerous mountain peaks and valleys.

I am familiar with hares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I will grab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A cowardly creature, a crab is good at stepping backward.

So it is a bad idea to send him there."

The discussion goes on all day long in vain.

12. (Terrapin's Formal Letter) Terrapin gives a formal letter to the dragon king that he will bring a hare's liver.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comes in slowly with a cloth on his hard shell.

He bows twice to the king and gives a formal letter to him.

[아니리] 상소 받아보니 별주부⁵³⁵ 자라였다.

상소문에 허였으되, “소신 별주부 었디어 감히 지존⁵³⁶께 주달⁵³⁷하
나이다.”

[중모리] “효도는 백행⁵³⁸의 근원이요,

충성은 삼강⁵³⁹의 으뜸이온바,

정성으로 혈 바옵지⁵⁴⁰ 가르쳐 되오리까?

신의 선대⁵⁴¹ 할애비가 먹라수⁵⁴²에 사옵더니,⁵⁴³

절강⁵⁴⁴으로 취쳐⁵⁴⁵허여

굴삼려⁵⁴⁶ 충신 고기를 할애비가 얻어먹었삽고,

오자서⁵⁴⁷의 충신 고기는 할미가 얻어먹어,

부부지간⁵⁴⁸ 뱃속에 가 충훈⁵⁴⁹이 잔뜩 들었삽기,⁵⁵⁰

자손이 낳는대로 오장육부⁵⁵¹에 충훈이 어려 대대로 충신이온바,

신의 간을 잡수어서 대왕 환후⁵⁵² 나을 테면 곧 빼어 올리올데,⁵⁵³

퇴간이 좋다허오니

소신의 정성대로 한사결단⁵⁵⁴ 구하오리다.”

13. (궐어의 별주부 시험) 궐어가 별주부에게 험난한 산 속 에서 어떻게 토끼를 데려오겠느냐고 묻는다.

[아니리] 만좌⁵⁵⁵가 다 놀래어 에워서서⁵⁵⁶ 살펴보니,

평생 모다 멸시허든 말직⁵⁵⁷ 주부⁵⁵⁸ 자래어늘,

용왕이 의혹하사,⁵⁵⁹

“경⁵⁶⁰의 충성은 지극허나,

세상에를 나가면 인간의 진미⁵⁶¹가 된다 허니,

어찌 알고 보낼 수 있으리오?”

[Aniri] The letter says that he is Terrapin.

In the memorial he says, “Your Majesty, I dare to make a suggestion to you.”

[Jungmori] “To be nice to one’s parents is the basis of all human behavior.

To be loyal to one’s king is the most important ethical rule. These acts should be done voluntarily, and not coerced.

My grandfather lived in a river.

He moved to another river and got a wife.

He ate the fish which ate a loyal official, Qu San Lu(屈三閭).

My grandmother ate the fish which ate a loyal official, Wu Zi Xu(伍子胥).

Loyal spirits were fully concentrated in their bellies.

The spirits are kept in the internal organs of our family line.

If my liver could cure your disease, I would take it out for you right away.

I heard a hare’s liver is good for you.

I am ready to sacrifice my life to get one.”

13. (The Premier Tests Terrapin) The premier asks Terrapin about how to catch a hare in the steep mountains.

[Aniri] All the officials are surprised and take a look at Terrapin. They learn that he is just a terrapin of low rank, despised by them.

The dragon king wonders.

“Your loyalty is good.

But if you go to the land, you’ll fall prey to humans.

How can I send you there?”

꺾어 여짜오되, “신이 물어 시험하오리다.

주부는 들으라!

세상인즉 위방⁵⁶²)이라,

나가면 죽을 곳을 알고

어찌 보내리오!”

[엇중모리] “토끼를 잡자하면

수궁에서 양계⁵⁶³)까지 몇 만 리 될 터이요,

허다현⁵⁶⁴) 천봉만학⁵⁶⁵) 어느 산을 찾아가며,

삼백모죽⁵⁶⁶) 많은 중에 토끼를 어찌 알며,

설령 토끼를 만나기로 어찌하여 다려올지?⁵⁶⁷)

신포서⁵⁶⁸)의 충성에다 공명의 지략이며,

걸음은 과보⁵⁶⁹) 같고, 눈 밝기 이루⁵⁷⁰) 같고,

소진⁵⁷¹)의 구변⁵⁷²)이며, 맹분⁵⁷³)같은 장사라야 그 노릇을 할 터인디,

너 생긴 모양⁵⁷⁴)을 보니,

머리가 그리 적었으니

어찌 그 노릇을 허겼느냐?”

14. (별주부 항변) 꺾어가 안 된다고 하자, 별주부는 충성과 지략으로 토끼를 구해 올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리] “박절⁵⁷⁵)허게 생각 마라.

인간의 진미로,

백소주⁵⁷⁶) 안주에 왕배탕⁵⁷⁷)이 십상⁵⁷⁸)이니,

보내지 못허리라.”

별주부 듣고 분을 내어 혈안⁵⁷⁹)으로 아뢰는디,

[엇모리] “여보시오, 백의대감!

The premier says, “Let me test him with a question.
Listen terrapin!

The land is a treacherous place.
I know you will die if you go there.
How can I send you there?”

[Eotjungmori] “You have to go to the land to catch a hare.
The land is far from this sea palace.
There are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How can you identify a hare among numerous furred animals?
Even if you come across a hare, how can you bring him here?
You will have to be loyal and smart.
You will have to be fast and have a powerful vision.
You will have to be eloquent and strong to accomplish the mission.
Let me take a look at you.
Your head is small.
How can you do the job?”

**14. (Terrapin’s Defense) The premier is skeptical.
Terrapin insists he can bring a hare through his
loyalty and strategic ability.**

[Aniri] “Don’t think I’m cold-hearted.
But you’re a delicacy for humans.
You’ll surely become soup and a snack served with wine.
So we can’t send you there.”
Enraged, Terrapin speaks with bloodshot eyes.
[Eonmori] “Mr. Premier!

충성 지략 말 잘허기 방촌간⁵⁸⁰)에 들었으니,
 외모 보아 어찌 알며,
 외모로 본대도,
 과보가 길 잘 걸어 해를 쫓아 갔사오나
 그 발이 둘 뿐인디, 신의 발은 너이웁고,⁵⁸¹
 맹분이 힘이 세어 능히 구정⁵⁸²)을 들었으되
 목을 감추지 못하디, 신의 목은 출입허고,
 대가리 뽕쪽하니 백기⁵⁸³)의 예두⁵⁸⁴)웁고,
 허리가 넓었으니 오자서의 체격이요,
 콧궁기⁵⁸⁵) 좁사오나 의사⁵⁸⁶)는 넉넉허고,
 불이 아니 퍼졌으나 구변은 있사온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오?
 간뇌도지⁵⁸⁷)헐지라도 토끼를 구해 올 테오나,
 신이 수국⁵⁸⁸)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생긴 형용대로⁵⁸⁹) 화상⁵⁹⁰) 하나만 그려주오!”

15. (전복 불러 토끼에 대해 물음) 별주부가 토끼 화상을 요구하자, 전복을 불러 토끼의 얼굴을 묻는다.

[아니리] 쫓아 여짜오되,
 “누대⁵⁹¹) 충신 별주부 가문을 생각허나,
 또 그 답력⁵⁹²)을 보더라도
 주부가 가히 믿음직하오니
 주부로 정하시웁고,
 화공⁵⁹³)을 불러 화상을 그리게 하옵소서.”

I like your mention of loyalty and cleverness.
 How can you judge me by my appearance?
 Suppose going by appearance is fine.
 A legendary fast-runner is said to have chased the setting sun.
 He had two legs, but I have four.
 An ancient figure was strong enough to lift up a golden pot.
 He could not conceal his neck, but I can.
 My head is sharp, so I am smart.
 My waist is wide, so I am strong.
 My nostrils are narrow, but my mind is broad.
 My cheeks are not wide, but I am eloquent.
 How can you say I can't do the job?
 I am prepared to sacrifice my life to bring a hare here.
 I was born here, so I am not familiar with what a hare looks lik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me!"

**15. (Asking an Abalone Questions about a Hare) At
 Terrapin's request for a picture of a hare, an
 abalone is called in to be asked questions about a
 hare's appearance.**

[Aniri] The premier speaks,
 "Terrapin's family produced loyal subjects for many generations.
 Besides, he is courageous.
 He is reliable and trustworthy.
 Let's choose Terrapin.
 Please have a painter draw a picture of a hare."

용왕이 가로되, “과연 그러하오.
 그러하나 화사자⁵⁹⁴)라 혈지라도 수국 태생으로 토끼를 본 일이 없으니,
 어찌 화상을 그릴 수 있겠나뇨?”⁵⁹⁵)
 쫓아 여짜오되, “전복의 전신⁵⁹⁶)이 진세간⁵⁹⁷)의 화충⁵⁹⁸)이오라
 토끼 얼굴을 알 터이오니,
 전복으로 가르치게 하옵시고,
 화공을 불러 그리게 하옵시면
 능히 될 줄로 믿사옵니다.”
 전복을 불러들여,
 “네 토끼 얼굴을 알겠나뇨?”⁵⁹⁹)
 전복이 복지주왈,⁶⁰⁰)
[중모리] “신의 전신 평이온데,
 진세⁶⁰¹) 산중에 있을 적에
 사냥꾼의 난리든지, 독수리의 급현 변이 무리무리 일어날 적,
 산중에 만만현⁶⁰²) 게 비성즉황⁶⁰³)으로서 신이 아니면 토끼오라,
 저 아니면 나 죽기로 환난상조⁶⁰⁴) 지냈으니,
 비록 금수⁶⁰⁵)가 달랐으되 정지⁶⁰⁶)가 자별키로,⁶⁰⁷)
 토끼의 생긴 형용 눈에 삼삼하옵니다.”⁶⁰⁸)

16. (토끼 화상) 화공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린다.

[아니리] “그러면 토끼의 생긴 형용을 화공에게 잘 가르쳐,
 화상을 급히 그리게 허라!”
 “분부 거행⁶⁰⁹)하겠나이다.”
[중중모리] “화공 불러라.”
 토끼 화상을 그린다.

The king responds, "You're right.
 However, the painter was born here and has never seen a hare
 himself.
 How can he draw a picture of a hare?"
 The premier answers, "The abalone was a pheasant in his
 previous life.
 He must know what a hare looks like.
 The abalone will describe a hare.
 The painter will draw a picture as the abalone describes."
 Everything will work out."
 An abalone is called in.
 "Do you remember a hare's face?"
 The abalone kneels down and speaks.
[Jungmori] "I was a pheasant in the former life.
 I lived in mountains.
 Human hunters and eagles used to attack animals in groups.
 The animals attacked were either pheasants or hares.
 In desperate situations we relied on each other.
 We were of different species, but we were close friends.
 I have a vivid memory of what a hare looks like."

16. (A Picture of a Hare) An artist is called in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Aniri] "Tell an artist about a hare's look.
 Have him draw a picture right away!"
 "Yes, Your Majesty."
[Jungjungmori] "Bring a painter here."
 The painter draws a picture of a hare.

연 소왕⁶¹⁰ 황금대⁶¹¹ 미인 그리던 명화사,⁶¹² 난국천자능허대⁶¹³
 일월 그리던 명화사,
 화공을 불러들여, 전복은 가르치고 화공은 그릴 제,
 동정유리청홍연⁶¹⁴의 금수추파⁶¹⁵ 거북 연적⁶¹⁶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화필⁶¹⁷을 덩벽⁶¹⁸ 풀어 단청 채색⁶¹⁹을 두루 문혀서,
 백룡설화간지상에⁶²⁰ 요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승지간의⁶²¹ 경개⁶²² 보던 눈 그리고,
 난초 지초⁶²³ 원갓 향초⁶²⁴ 꽃 따 먹던 입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⁶²⁵ 소리 들던 귀 그리고,
 봉래⁶²⁶ 방장⁶²⁷ 운무⁶²⁸ 중에 내⁶²⁹ 잘 말던 코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⁶³⁰ 뛰어가던 발 그려,
 대한⁶³¹ 엄동⁶³² 설한풍의⁶³³ 어한허든⁶³⁴ 털 그려,
 신농씨⁶³⁵ 상백초⁶³⁶ 이슬 털던 꼬리라.
 두 눈은 도리도리,⁶³⁷
 두 귀는 쫓긋,⁶³⁸
 허리 늘씬허고,⁶³⁹
 꿍지⁶⁴⁰ 묘뚝⁶⁴¹허여,
 좌편⁶⁴² 청산이요,
 우편⁶⁴³은 녹순디,⁶⁴⁴
 녹수청산⁶⁴⁵의 예굽은⁶⁴⁶ 장송,⁶⁴⁷ 휘느러진 양류⁶⁴⁸ 속,
 들랑달랑⁶⁴⁹ 오락가락⁶⁵⁰ 앙그조춤⁶⁵¹ 섰는 양⁶⁵²
 아미산월의 반륜토인들⁶⁵³ 이에서⁶⁵⁴ 더할소냐?
 “아나, 였다,⁶⁵⁵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He is as skillful as the famous ancient artist who drew pictures
of beautiful girls, the sun, and the moon in a pavilion.
The abalone describes a hare; the artist draws it.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He moves the brush here and there on white paper.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es and flowers,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and the tail which was shaking off the dewdrops from herbal
plants.
The eyes are round.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and willow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back and forth and stand up.
Hare in the pictur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17. (별주부 모친 당부) 별주부가 작별 인사를 하니, 모친이
목숨을 걸고 약을 꼭 구해오라고 말을 한다.

[아니리] 별주부 화상을 받아 목을 쭉 빼가지고,
뒤틀미에다 넣고 목을 딱 움츠려노니,
물 한 점 묻을 리 없게 되었것다.
어전⁽⁶⁵⁶⁾에 하직숙배⁽⁶⁵⁷⁾하고 본댁⁽⁶⁵⁸⁾으로 돌아오니,
그 때여 별주부 자당⁽⁶⁵⁹⁾께서 별주부를 보시더니,
엄숙하게 경계를 하시넌디,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허니 노모 마음 한없이 기쁘다마는,
부디 뉘시를 조심하여라.
너희 부친도 세상에 가서 뉘싯밥을 물었다가 청춘조사⁽⁶⁶⁰⁾허였기로,
독수공방⁽⁶⁶¹⁾ 설움 중에 너 하나만 믿는 마음,
취면 꺼질까 불면 날까⁽⁶⁶²⁾ 애지중지⁽⁶⁶³⁾ 기를 적에,
일찍 나가 늦게 오면 문에 빗겨⁽⁶⁶⁴⁾ 기다리고,
늦게 나가 아니오면 여⁽⁶⁶⁵⁾에 비겨⁽⁶⁶⁶⁾ 바랬더니마는,
네가 이제 등과⁽⁶⁶⁷⁾허여 인군⁽⁶⁶⁸⁾을 섬기다가,
인군이 환후⁽⁶⁶⁹⁾ 계서 약 구허러 간다허니,
군위신충⁽⁶⁷⁰⁾ 당당헌 네 직분⁽⁶⁷¹⁾이 가륙하고 장허도다.
아무쪼록 정성대로 수이⁽⁶⁷²⁾ 구하여 돌아오되,
만일 약을 못 구허면 골폭사장⁽⁶⁷³⁾에 계서⁽⁶⁷⁴⁾ 죽지 돌아오지 말지
어다.”

17. (The Wish of Terrapin's Mother)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mother. She tells him to bring the
medicine even at the cost of his life.

[Aniri] Terrapin takes the picture and stretches his neck out.
He puts the picture on the back of his neck and draws his neck
in.

The picture won't get wet.

Terrapin says good-bye to the king and comes back home.

His mother takes a look at him.

She gives him solemn advice.

[Jinyangjo] "Hello, my son!

I'm pleased to hear you're going to the land.

Watch out for hooks.

Your father went there and bit a baited hook and died.

I lived a solitary life, relying only on you.

You were the most precious thing to me when I reared you.

If you came home late, I leaned against the house gate waiting
for you.

If you didn't come home at all, I leaned against the village gate
waiting for you.

After passing a state exam, you are serving the king.

The king is sick, and you are going to the land to bring a
medicine for him.

I'm proud you are doing your job as a loyal subject should.

Please come back with a hare without any difficulty.

If you fail to get a hare, bury yourself in the sand and die."

18. (별주부 부인 당부) 별주부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부인이 집안 걱정은 말고 반드시 토끼를 구해 임금의 병을 낫게 할 것을 당부한다.

[아니리] “선영⁽⁶⁷⁵⁾의 누덕⁽⁶⁷⁶⁾ 끼칠 것이 살아와서 무엇하리!”
별주부 여짜오되, “정성을 다하와서⁽⁶⁷⁷⁾ 위로 임금님 환후,
아래로 모친님 마음 모도 다 편케 하오리다.”
모친께 배별⁽⁶⁷⁸⁾ 후에 침실로 돌아와 아낙⁽⁶⁷⁹⁾의 손을 잡고,
“당상⁽⁶⁸⁰⁾의 학발노친⁽⁶⁸¹⁾ 기체안강⁽⁶⁸²⁾허시기는 마누라의 정성이니,
마누라만 믿고 가오.
내 이번 가는 길에 만일 약을 못 구하면 죽고 오지 않을 테니,
내가 오지 못한대도 설위 말고 잘 있으오.”
주부 마누라 또한 얌전허여 태연히 허는 말이,
[중모리] “종고지락⁽⁶⁸³⁾ 금슬지우⁽⁶⁸⁴⁾ 잠시 이별이 어렵사오나,
오륜⁽⁶⁸⁵⁾을 마련혈 제 군신유의⁽⁶⁸⁶⁾ 먼저 쓰고,
부부유별⁽⁶⁸⁷⁾ 후에 쓰니,
군신의 중한 의⁽⁶⁸⁸⁾가 부부보담⁽⁶⁸⁹⁾ 더헌지라,
인군을 섬기다가 분골쇄신⁽⁶⁹⁰⁾ 되온대도⁽⁶⁹¹⁾ 무슨 한이 있으리까?
당상의 학발노친 첩⁽⁶⁹²⁾이 봉양⁽⁶⁹³⁾혈 것이요,
슬하의 어린 자식 내가 길러낼 것이니,
가사⁽⁶⁹⁴⁾ 일념⁽⁶⁹⁵⁾ 아예 말고,
토끼를 얻어다가 임금님 환후만 구허소서.
휘편만리거 안득염향규⁽⁶⁹⁶⁾를 낭군도 웅당 아시리다.”
주부 듣고 허는 말이, “충신의 아내 듣직하오.
마누라 말대로 허려니와,

18. (The Wish of Terrapin's Wife) Terrapin bids farewell to his wife. She asks him not to worry about the family, to get a hare without fail, and to cure the king.

[Aniri] "To come back alive without a hare will only be a disgrace to our ancestors."

Terrapin says, "I'll do my best to cure the king.

I'll do my best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

After saying goodbye to his mother, he goes to his bedroom and grasps his wife's hands.

"My old mother is in your care now.

I trust you will take good care of her.

If I fail to get a hare, I'll die without coming back.

Don't feel bad even if I don't come back. Be strong."

Virtuous, Terrapin's wife speaks calmly.

[Jungmori] "We're a good couple, so it is hard to be separate from each other.

Of the five moral virtues, loyalty to a king comes first.

The order between a husband and wife comes next.

Being loyal to a king is more important than to a spouse.

I won't feel sad even if you die while serving the king.

I will take good care of your old mother.

I will rear our young children.

Don't worry about the family.

Bring a hare and cure the king's disease.

You must know I don't even think about a fragrant room when you go far away.

Terrapin responds, "How reliable. You are a loyal subject's wife.

I will do as you told me to.

세상의 흥한 놈들 말굽자래⁶⁹⁷) 맛 좋다고 얼른하면⁶⁹⁸) 건져가니,
어린것들 자주 찾아 멀리 가지 말게 하오.”

19.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 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아니리] 윈 집안 종족⁶⁹⁹)들을 차례로 하직한 연후,
별주부 발정⁷⁰⁰)하여 세상을 찾아 나갈 적에,
수국 풍경은 조석으로⁷⁰¹) 보던 바나,
세상 경치가 아조⁷⁰²) 기이허든 것이었다.

[중중모리] 고고천변일륜홍⁷⁰³) 부상⁷⁰⁴)에 높이 떠,
양곡⁷⁰⁵) 잣은⁷⁰⁶) 안개 월봉⁷⁰⁷)으로 돌고,
어장춘⁷⁰⁸) 개 짓고,
회안봉⁷⁰⁹) 구름이 떠,
노화⁷¹⁰) 눈 되고,⁷¹¹)
부평⁷¹²)은 물에 등실,
어룡⁷¹³)은 잠자고,
자고새⁷¹⁴) 펄펄 날어든다.
동정여천파시추⁷¹⁵) 금색추파⁷¹⁶)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⁷¹⁷)를 짚어 당기며, 뒷발로 창랑⁷¹⁸)을 탕탕.
요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⁷¹⁹) 당실⁷²⁰) 떠 사면 바라보니,
지광⁷²¹)은 칠백 리요,
파광⁷²²)은 천일색⁷²³)이라.
천외무산십이봉⁷²⁴)은 구름 밖에 가 멀고,
해외소상⁷²⁵)은 일천 리 눈 앞의 경이로다.⁷²⁶)

If you are careless, ugly humans pick up young terrapins,
thinking they are delicious.
Make sure our children don't go far from here."

19.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Aniri] Terrapin says goodbye to all of his relatives.
He goes out to the land.
He is familiar with the scenery of the sea world.
The scenery of the land is marvelous to him.
[Jungjungmori]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 valley moves around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오초는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여 일야에 등실 떠,⁷²⁷⁾
 남훈전⁷²⁸⁾ 달 밝은 밤 오현금⁷²⁹⁾도 끊어지고,
 황룡묘⁷³⁰⁾ 저문 비⁷³¹⁾의 이십오현탄금성⁷³²⁾은 이비⁷³³⁾의 애원⁷³⁴⁾
 인가?
 낙포⁷³⁵⁾로 가는 저 배,
 쪼각달 무강 속의⁷³⁶⁾ 초 회왕⁷³⁷⁾의 원혼이오.
 모래 속에 가 장신허고⁷³⁸⁾ 천봉만학⁷³⁹⁾을 바라봐.⁷⁴⁰⁾
 만경대⁷⁴¹⁾ 구름 속 학선⁷⁴²⁾이 울어 있고,
 칠보산⁷⁴³⁾ 비로봉⁷⁴⁴⁾은 허공에 솟아,
 계산과무울차아⁷⁴⁵⁾ 산은 칭칭칭⁷⁴⁶⁾ 높고,
 경수무풍야자과⁷⁴⁷⁾ 물은 술령⁷⁴⁸⁾ 깊었는디,
 만산⁷⁴⁹⁾은 우루루루루,⁷⁵⁰⁾
 국화는 점점, 낙화⁷⁵¹⁾는 동동,
 장송⁷⁵²⁾은 낙락,⁷⁵³⁾ 늘어진 잡목,
 평퍼진⁷⁵⁴⁾ 떡갈, 다래몽동,⁷⁵⁵⁾
 칩넌출, 머루, 다래,
 으름넝쿨, 능수버들이, 뱃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⁷⁵⁶⁾ 대추,
 갓은⁷⁵⁷⁾ 과목⁷⁵⁸⁾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⁷⁵⁹⁾ 칭칭 감졌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⁷⁶⁰⁾ 분비,⁷⁶¹⁾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⁷⁶²⁾ 원앙새,
 강성⁷⁶³⁾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⁷⁶⁴⁾
 소호시절에⁷⁶⁵⁾ 기관허든⁷⁶⁶⁾ 만수문전의⁷⁶⁷⁾ 봉황새,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Twenty five-stringed lute in a shrine in the night rain seems to generate the cry of two ancient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a wide oak trees, stumpy actinidia argutas,

kudzu vines, actinidia arguta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schizandra, gardenias, potatoes,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intertwined firmly and disorderly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양양창과점점⁷⁶⁸)의 사랑허다⁷⁶⁹)고 원앙새,
 칠월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⁷⁷⁰)
 목파리, 해오리, 너수,⁷⁷¹) 징경새,⁷⁷²) 아옥 따옥 날아들 적에,
 저 뻘쭙새가 울음 운다.
 이리로 가며 뻘쭙,
 저리로 가며 뻘쭙 뻘쭙 뻘쭙,
 소탕이⁷⁷³) 쑥국, 공맹이⁷⁷⁴) 뚜루루,
 호반새⁷⁷⁵) 수루루루루루, 방울새⁷⁷⁶) 떨렁,
 좌우로 모다 날아들 적에,
 또 한 경개를 바라봐.
 쳐다보니 만학천봉이요,⁷⁷⁷)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장⁷⁷⁸)이라.
 에구부러진⁷⁷⁹) 늙은 장송 광풍⁷⁸⁰)을 못 이기어서 우줄우줄⁷⁸¹) 춤을
 출 제,
 원산⁷⁸²)은 암암,⁷⁸³)
 근산⁷⁸⁴)은 중중,⁷⁸⁵)
 기암⁷⁸⁶)은 축축,⁷⁸⁷)
 메사니⁷⁸⁸) 울었다.
 시내 유수는⁷⁸⁹) 청산으로 휘돌아,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루, 저 골 물이 꺾꺾,⁷⁹⁰)
 열의 열두 골 물이 한 테로⁷⁹¹) 합수쳤다,⁷⁹²)
 천방자 지방자 월터져 구부져,⁷⁹³) 방울이 버름져,⁷⁹⁴)
 건너 병풍석⁷⁹⁵)에다 마주 팡팡 마주 때려,
 대해수중⁷⁹⁶)으로 떠나가느라고 버름⁷⁹⁷)이 북쩍,⁷⁹⁸)
 물너울⁷⁹⁹)이 뒤뚱, 우루루루루 꺾꺾 뒤뚱그러져⁸⁰⁰) 산이 울렁거
 려⁸⁰¹) 떠나간다.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river,
crows and magpies which formed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fly in.
A cuckoo cries.
It flies to one place and cuckoos.
It flies to another place and calls “cuckoo, cuckoo.”
A scops owl and an unknown bird sing a song.
A kingfisher and a goldfinch cry.
Birds come down from the left and right.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Distant mountains are dusky.
Close mountains are deep.
Bizarre rocks are steep.
Echoes are heard.
Streams flow around green mountains.
Flowing water makes sound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어디메로⁸⁰²) 가잔 말?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 경개가 또 있나!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 경개가 또 있나!

20. (봉황새 상좌 다툼)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는 데, 봉황새가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이렇듯 별주부는 사면 경치를 구경한 연후⁸⁰³) 또 한 편을 바라보니,
원갓 날짐생⁸⁰⁴)들이 모두 모여들어 저희끼리 서로 상좌⁸⁰⁵)에 앉겠다고 상좌다툼⁸⁰⁶)을 허는디,
이런 가관⁸⁰⁷)이 없든 것이었다.
앵무새 나왔으며,
“자,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연치⁸⁰⁸) 찾아 상좌에 앉기로 허는디, 내가 상좌에 앉겠소.”
봉황새 꾸짖어 왈,
“어라, 이놈 물렸거라.⁸⁰⁹)
내가 상좌를 허리라.”
앵무새 대답허되, “나는 능히 말을 허여 이 세상 사람들과 언사⁸¹⁰)가 상통⁸¹¹)허니 상좌감이 되지마는,
당신은 무슨 연유로 상좌에 앉는단 말이오?”
봉황새 대답허되,
[중모리] “네 내 말을 들어봐라.
순인군⁸¹²) 남훈전⁸¹³)에 오현금⁸¹⁴) 가지시고 소소귀성⁸¹⁵) 노래혈 제,

This is the scenery we have been looking for.
What a spectacle this is!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this is!

20. (A Phoenix Vies for the Top Seat) The birds compete for the top seat. A phoenix explains why he deserves it.

[Aniri] After looking at the scenery in the four directions, Terrapin spots something.
All sorts of birds come and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a high seat.
This is quite a show.
A parrot steps forward.
“In this meeting today, let’s give the high seat to the oldest. Therefore, I will sit on it.”
A phoenix scolds the parrot.
“You villain. Step back.
I will take the high seat.”
The parrot answers, “I am qualified to take the high seat because I can speak with human beings.
What makes you deserve the high seat?”
The phoenix speaks.
[Jungmori] “Listen to my words!
King Shun(舜) played a pentachord in a palace, making a dreary sound.

내 가서 화답⁸¹⁶)하고,
 기산⁸¹⁷) 높은 봉 아침 별에 내 또한 울음 울어,
 팔백 년 문물이 울울헐⁸¹⁸) 제 주 문무⁸¹⁹) 나 계시고,
 만고대성⁸²⁰) 공부자⁸²¹)도 날로 인해 탄식하고,
 천 길⁸²²)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⁸²³)허여 있고,
 영주산⁸²⁴) 높은 오동⁸²⁵) 훨훨 날아 올라 내 앓어 길들였고,⁸²⁶)
 소상반죽⁸²⁷)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었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21.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까마귀와 부엉이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툼다.

[아니레] 가마귀 나앉으며,
 “그 다음에는 내가 앉을 내력이 있소.”
 부엉이 꾸짖어 왈,
 “어라 이놈, 물렸거라.
 전신⁸²⁸)에 흰 빛 없고,
 눈구멍⁸²⁹)에 거명창⁸³⁰)뿐인 놈이
 어디라고 상좌에 앉는단 말이나?”
 가마귀 왈, “대구리⁸³¹) 크고, 몸에 털 넓죽허면 어른이나, 이놈?
 우리 근본⁸³²)을 따지기로 허자.”
 [엇중모리] “내 근본 들어라. 네 내 근본을 들어라.
 이 주둥이 길기는 월왕 구천⁸³³)이 방불⁸³⁴)하고,
 이 몸이 검기는,⁸³⁵) 산음⁸³⁶)땅 지내다가 왕희지⁸³⁷) 세연지⁸³⁸)에 풍
 덩 빠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삼긴⁸³⁹) 후에 그 물에 다리를 놓아 전우 직녀 건너주고,

I responded to him with my song.
 I sang a song on a peak in the morning sun.
 Two great kings of Zhou(周) were born when the nation
 prospered for eight hundred years.
 The greatest saint, Confucius, sighed because of me.
 I flew high without eating food even if I was hungry.
 I flew to and sat in a high paulownia tree in a legendary
 mountain
 I fed on the good fruit of variegated bamboo on a river.
 Aren't I older than you?"

21. (A Crow and an Owl Fight for the High Seat) A crow and an owl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A crow moves forward.
 "Let me tell you why I deserve the high seat."
 An owl rebukes him.
 "You villain. Step back.
 There is no white color in your entire body.
 Even your eyes are all black.
 How dare you sit on the high seat?"
 The crow responds, "Do a big head and wide feathers ensure
 the high seat? You scoundrel!"
 Let's talk about our roots."
[Eot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My beak is long like an ancient Chinese king.
 My body is black because I fell into the pond on which an
 ancient calligrapher washed his ink stone, and was dyed with
 ink.
 Ever since the galaxy was created, I served as a bridge between
 Herdsman and Vega.

오는 길에 적벽강⁸⁴⁰ 선유⁸⁴¹혈 제,
 남비⁸⁴² 둥둥 떠 삼국홍망⁸⁴³ 의논하고,
 공림⁸⁴⁴의 반포은⁸⁴⁵을 내 홀로 알었으니,
 천하의 비금주수⁸⁴⁶ 효도는 나뿐이라.
 아 아 아이고, 설운지고.
 아 아 아아아이고. 설운지고.”
[자진모리] 부엉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대도, 네 심성⁸⁴⁷ 불측허여⁸⁴⁸
 열두 가지 울음을 내어,
 과부집 남개⁸⁴⁹ 앓어 울음 울어 동할 제,⁸⁵⁰
 짝 짝 까박까박 또락또락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 과부⁸⁵¹ 유인하고,
 네 소리 짹짹 나면,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 너 날릴 제,
 너 날자 배 떨어지니,⁸⁵²
 세상의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빈 통이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불길허다.”

22. (길짐승 상좌 다툼) 한편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리] 한참 이럴 즈음에, 이날인즉 갑신년 유월 십오일 모족⁸⁵³들
 의 모임날이라.
 또 한 편을 바라보니 왼갖 길짐생⁸⁵⁴들이 모두 모여드는데,
 별주부 겁이 나서 혼자 가만히 었져⁸⁵⁵ 바라볼 제,
[중모리] 공부자 작춘추⁸⁵⁶에 절필⁸⁵⁷허든 기린이요,⁸⁵⁸

On my way back, I relaxed on a boat on Chibi River(赤壁江).
 Hovering in the south sky, I pondered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countries of ancient China.
 I take care of my old parents in an empty forest.
 I am the only animal supporting its parents.
 Alas, How sad I am!
 Alas, How sorrowful I am!"

[Jajinmori] An owl laughs at the crow.
 "Even so, you are born wicked.
 You make twelve sounds.
 You sit in a tree of a widow's house and confuse her.
 With a weird voice, you entice a widow faithful to her deceased
 husband.
 If your unpleasant cry is heard, humans throw stones in hatred
 and drive you away.
 If you fly, a pear falls down.
 Who else is so detested?
 Go and find empty stump.
 You bring bad luck to this seat."

**22. (Furr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that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Meanwhile, today is June the 15th when the furred
 animals have a meeting.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gathered together.
 Scared, Terrapin lies on his belly and peeks at them.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삼군삼영⁸⁵⁹⁾ 거동시⁸⁶⁰⁾ 천자 옥련⁸⁶¹⁾의 코끼리며,
 옥경신관⁸⁶²⁾ 승필⁸⁶³⁾허던 풍채 좋은 노사자⁸⁶⁴⁾와
 서백⁸⁶⁵⁾이 위수⁸⁶⁶⁾ 사냥할 제 비웅비표⁸⁶⁷⁾ 곰이로다.
 문왕의 덕화⁸⁶⁸⁾ 장허시사⁸⁶⁹⁾ 유원유복⁸⁷⁰⁾ 사슴이요,
 옥엽마허다 오염장허든⁸⁷¹⁾ 공명 탄식 저 노루와
 한 문공⁸⁷²⁾이 족보⁸⁷³⁾ 짓든 모영⁸⁷⁴⁾ 후손 토끼로다.
 산간에 쥐잡기는 기린마⁸⁷⁵⁾를 못 당허리.
 무호동중⁸⁷⁶⁾에 살가지⁸⁷⁷⁾며,
 진시황⁸⁷⁸⁾을 뉘 아느냐, 분묘천창⁸⁷⁹⁾의 백여호⁸⁸⁰⁾며,
 창해박랑사중 저복하든⁸⁸¹⁾ 저 다람쥐,
 강수동류원야성⁸⁸²⁾의 슬피 울든 잔내비라.⁸⁸³⁾
 뿔 좋은 고라니,⁸⁸⁴⁾
 털 좋은 너구리,
 기름 많은 멧돼야지,
 상황모⁸⁸⁵⁾ 족제비며,
 부리 흰 조아기,⁸⁸⁶⁾
 날담비,⁸⁸⁷⁾ 길담비,⁸⁸⁸⁾
 승냥이,⁸⁸⁹⁾ 오소리,
 이러한 등물들이⁸⁹⁰⁾ 사면에서 모여들어,
 좌우로 늘어앉어 상좌다툼을 허는구나.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king came across a competent subject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When he ruled the country, deer were happy.
 Kong Ming(公明) sighed after mistakenly killing a roe deer
 instead of a horse.
 An ancient poet wrote his family's genealogy with a brush made
 of hare fur.
 A good horse is the best animal to catch a rat in a mountain.
 A wildcat was in a cave which a tiger left.
 A white fox dug a hole in an ancient emperor's tomb.
 A killer lay down like a squirrel when he tried to kill the King
 Shi Huang(秦始皇).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n elk has good horns.
 A raccoon has great fur.
 A wild pig has much fat.
 A weasel has a great furred tail.
 An animal has a long beak.
 A jumping marten, a crawling marten,
 a dhole, a badger,
 and so forth gather from all directions.
 They sit on the left and right in lines, and compete for the high
 seat.

23. (노루, 너구리, 멧돼지의 상좌 다툼) 노루, 너구리, 멧돼지가 상좌에 앉으려고 다툼다.

[아니리] 이렇듯 모여들더니,

노루가 허는 말이, “자,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연치⁸⁹¹⁾ 찾아 상좌에 앉기로 협시다.”

그 말이 옳다하고,

“그러면 장도감⁸⁹²⁾은 언제 났소?”

[중모리] 노루가 나왔어 대답하되,

“내 나이를 셀작시면,⁸⁹³⁾

기경상천⁸⁹⁴⁾ 이태백이 날과⁸⁹⁵⁾ 둘이 동접⁸⁹⁶⁾하여 광산⁸⁹⁷⁾ 십리⁸⁹⁸⁾ 글을 짓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⁸⁹⁹⁾으로 상천⁹⁰⁰⁾하고,

나는 미물⁹⁰¹⁾ 짐승이라 이리 천케⁹⁰²⁾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⁹⁰³⁾이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겠나?”

달파총⁹⁰⁴⁾ 너구리 나왔으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달파총은 언제 났소?”

“내의 연세를 들어보오.

동작대⁹⁰⁵⁾ 지은 집이 좌편은 청룡각⁹⁰⁶⁾이요, 우편은 금봉루라.

이교녀에⁹⁰⁷⁾ 뜻을 두고,

조자건⁹⁰⁸⁾의 글을 지어 동작대부⁹⁰⁹⁾ 운허던⁹¹⁰⁾

조맹덕⁹¹¹⁾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겠나?”

멧돌⁹¹²⁾이란 놈이 척⁹¹³⁾ 나왔으며,

23. (A Roe Deer, a Raccoon, and a Wild Pig's Quarrel)

A roe deer, a raccoon, and a wild pig fight for the
high seat.

[Aniri] Animals gather together.

A roe deer says, "In today's meeting, let's give the high seat to the most elderly."

Everyone is persuaded.

"Mr. Roe Deer, when were you born?"

[Jungmori] The roe deer answers.

"Let me estimate my age.

Li Bai(李白) wrote poems with me for ten years and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He was a talented man, so he ascended to the capital city of heaven.

Being an animal, I am worthless and humble here.

I am as old as the poet, so I deserve the high seat."

A raccoon jumps in.

"Mr. Roe Deer, you are younger than I."

"Mr. Raccoon,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Cao Cao(曹操) built a pavilion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The premier had two girls in his mind.

He told his son to write a poem about the pavilion.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 wild pig steps forward without hesitation.

꺼시려눈⁹¹⁴)을 끄적끔적⁹¹⁵)
 나발⁹¹⁶)같은 주둥이로 입맛을 찌찌 다시며,
 “달과총도 내 아래요.”
 “저낭청⁹¹⁷)은 언제 났소?”
 “내의 연세를 들어보오.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⁹¹⁸)에 사신 갔다,
 주린 충절 십구년에 수발이 진백허여,⁹¹⁹)
 고국 산천 험한 길로 허위허위⁹²⁰) 돌아오던
 소중량⁹²¹)의 연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겠나?”

24. (토끼 등장) 토끼가 나서며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토끼란 놈이 깡깡 뛰어 나왔더니,
 “제낭청도 내 아래올세.”⁹²²)
 “퇴공⁹²³)은 언제 났소?”
 [중중모리]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봐.
 한 광무⁹²⁴) 시절의 간의대부⁹²⁵)를 마다허고,
 부운⁹²⁶)으로 채일⁹²⁷)을 삼고, 백구로 벳을 삼아,
 동강의 칠리탄⁹²⁸) 뉘싯줄을 담겨놓고 고기 뉘기 힘써 허던
 엄자릉⁹²⁹)의 시조허고⁹³⁰) 날과 둘이 동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겠나?”

He slowly blinks his thorny eyes.
 He moves his mouth which looks like a bugle.
 “Mr. Racoon, you are younger than I.”
 “Mr. Pig,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this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of Han(漢) dynasty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24. (A Hare Turns Up.) A hare shows up and explains why he deserves the high seat.

[Aniri] A hare jumps up and sits down.
 “Mr. Pig, you are younger than I.”
 “Mr. Hare, when were you born?”
[Jung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folks.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and white sea gulls as his
 friends.
 He dipped a fishing line in a river and engrossed himself in
 picking up fish.
 The fishing man and I are of the same age.
 Isn’t the high seat mine?”

25. (호랑이 등장) 늑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니, 모든 짐승들이 얼른 상좌를 양보한다.

[아니리] 한참 이럴 즈음에, 저 아래에서 여러 날 굶은 늑은 호랑이 한 마리가 궁기총⁹³¹⁾ 방아쇠 꺾아놓듯헌⁹³²⁾ 코를 사방으로 흔들고 올라오더니,

‘으르르르르르 어형’ 허고 달려드니,

야들이⁹³³⁾ 어찌 겁이 났던지 한 쪽으로 우 몰려 똥 오줌을 질금질금⁹³⁴⁾ 싸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⁹³⁵⁾ 오십니까?”⁹³⁶⁾

“오, 이놈들. 너희가 지금 똥허는 셈이냐?”

“예, 우리 오늘 잔치합니다.”

“거 잔치 잘 한다.

너희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잔치로구나.

살집⁹³⁷⁾ 좋은 놈 두어 놈 이리 나오너라.

우선 거 시장기 좀 면허자.”

토끼란 놈이 저 바우틈에서 살쩍이⁹³⁸⁾ 내다보며,

“장군님! 오늘은 연치 찾아 상좌에 앉기로 했으니,

잡수셔도 상좌에 앉아서 잡수시오.

장군님 언제 나셨소?”

[중모리]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봐라.

혼돈미분태극초⁹³⁹⁾에

사정없이 너룬⁹⁴⁰⁾ 하늘 한편 짝이 모자라서

광석⁹⁴¹⁾을 다듬어서 하늘을 때우시든 여화씨⁹⁴²⁾ 동갑이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으르르르르릉 어흥.”

25. (A Tiger Comes Out.) When an old tiger shows up, all the other animals yield the high seat to him.

[Aniri] At that moment, an old tiger who had not eaten for several days comes out, shaking his nose looking like the trigger of a rifle.

He roars and moves fast.

All the animals are so horrified that they move to a corner while taking a shit and a pee.

“General, where have you been?”

“You rat! What on earth are you up to here?”

“We are having a party, sir.”

“Bravo. Great.

This party is not for you but for me.

I’d like two fat ones of you. Come out.

Let me relieve myself of hunger.”

A hare between rocks peeks furtively at the animals.

“General, the eldest animal will take the high seat in today’s party.

You can enjoy your food in the high seat.

When were you born, sir?”

[Jungmori] “You villains.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things were in chaos.

The sky was vast, but the half of it was destroyed.

I am as old as Nu Wa Shi(女媧氏) who fixed the sky with an iron ore.

Aren’t I the oldest?

Come here.”

허고 달려드니,
야들이 모도 다 깜짝 놀래여,
“장군님, 상좌로 앉으시오.”

**26. (호랑이가 내려옴)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을 부르니, 호랑이가 듣고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리] “장군님은 어저께 났드래도 그냥 상좌로 앉으시오.”
호랭이가 상좌에 턱⁹⁴³⁾ 앉더니,
“거 우선 한 입가심⁹⁴⁴⁾헐 거 먼저 이리 하나 가져오너라.”
이럴 적에, 그때에 별주부는 그곳을 보고 있다가,
‘옳지, 저기는 웅당 토끼가 있을 터이니, 내 한번 불러보리라.’
허고, ‘저기 퇴생원⁹⁴⁵⁾ 계시오?’허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만리⁹⁴⁶⁾를 아랫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랫턱이 뺏뺏혀여,
토 자가 살짝 늘어져 호 자가 되었것다.
“저기 저기 호, 호생원 계시오?”허고 불러노니,
첩첩산중⁹⁴⁷⁾ 호랭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⁹⁴⁸⁾ 깊은 골로⁹⁴⁹⁾ 한 짐생이⁹⁵⁰⁾ 내려온다.
누에머리⁹⁵¹⁾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⁹⁵²⁾
몸은 얼쑹덜쑹,⁹⁵³⁾
꼬리는 잔뜩 한 발⁹⁵⁴⁾이 넘고,
동개⁹⁵⁵⁾같은 뒷다리,
전동⁹⁵⁶⁾같은 앞다리,

He is ready to attack them.
They are all petrified.
“General, the high seat is yours.”

**26. (The Tiger Comes Down.)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by mispronouncing Hare’s nam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General, the high seat is yours even if you were born
yesterday.”

The tiger sits on the top seat.
“First of all, bring me an appetizer.”

Meanwhile, Terrapin has been watching them.
‘Good. A hare must be there. Let me call him and see what
happens.’

He intended to say ‘Is Mr. Hare there?’
His lower jaw is stiff because he pushed water with it to travel
thousands of miles.

He mispronounced Hare’s name.
He says “Is Mr. Tiger there?”

This is the first time the tiger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Pleased, he comes down.

[Eonmori] The tiger comes dow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His hind legs are strong.
His fore legs are robust.

쇠낫⁹⁵⁷)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⁹⁵⁸ 백설격으로⁹⁵⁹ 잔디 뿌리 왕모래
를 좌르르르르 흘들며,⁹⁶⁰

주홍 입 짝 벌리고

‘홍앵앵’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 ‘홍앵앵’허는 소리 강산이 뒤눕고,⁹⁶¹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래가 깜짝 놀래어 목을 움치고⁹⁶² 가만히 었졌을 제,⁹⁶³

27.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 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엉겁결에 자신의 이름 을 말한다.

[아니레 호랑이가 턱⁹⁶⁴ 내려와 보니, 아무 것도 없고 누어 마른 쇠똥
같은 거뼤에는 없것다.

“이것이 날 불렀는가?

그것 묘하게 생겼다.

두루평관⁹⁶⁵에 부쳐놓은 부꺼미⁹⁶⁶ 같다마는,

고순내⁹⁶⁷가 아니 나니 그도 아니요,

누어 마른 쇠똥 같으면 요참⁹⁶⁸ 소낙비에 비 맞은 터⁹⁶⁹)가 있을 터인
디, 그도 아니요,

이리 보아도 둥굴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둥굴,

둥굴둥굴 우둥굴⁹⁷⁰)아!”

허고 불러도 대답이 없제.

하늘을 보고, 이놈을 보더니,

“웁다. 이거 하느님 똥인가보다.

하느님 똥 먹어놓으면 약될 터이니,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as if he splattered snow in cold winter.
He opens his red mouth.
It looks as if a stream and a mountain tremble and turn upside
down, and the ground collapses.
Terrapin is so scared that he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27. (The Tiger and Hare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it. Terrapin's name
escapes his own mouth.**

[Aniri] The tiger has come down and realizes that there is only
something which looks like dry cow dung.
“Did this thing call me?
It looks funny.
It looks like a pancake on a wide round plate.
It isn't a pancake because it doesn't smell good.
It isn't dry cow dung because a recent shower would have left
a trace on it.
It looks round in this direction.
It looks round in that direction.
Hey Mr. Round!”
He doesn't answer no matter how the tiger calls.
The tiger looks up to the sky and back to Terrapin.
“Yes, this must be God's dung.
God's dung is a good medicine.

시장도 헌 김에 한 입가심허여 불끄나?”
 먹자는 통에⁹⁷¹⁾ 자래가 깜짝 놀래어,
 저 속에서 입부리⁹⁷²⁾만 겨우 열어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이 뉘라 하시오?”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 봐라.
 거 생긴 모양은 보리등치⁹⁷³⁾ 속에 배암 잡아 넣어진 것같이 생긴 것이,
 기중의⁹⁷⁴⁾ 인사성⁹⁷⁵⁾은 밝네.
 요것이 나허고 통성명⁹⁷⁶⁾을 허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어른이로다.
 너는 명색⁹⁷⁷⁾이 무엇인고?”
 자래가 호랑이란 말을 듣더니 겁짐에⁹⁷⁸⁾ 바로 일러버렸것다.⁹⁷⁹⁾
 “예! 나는 명색이 자래새끼요!”
 호랑이 듣고 좋아라고,
[중중모리] “얼씨고나 절씨고. 절씨구나 절씨고.
 내 평생 원허기를 왕배탕⁹⁸⁰⁾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맞진⁹⁸¹⁾ 진미를 먹어보자. 으르르르르 어흥!”
 허고 달려드니,
 자래 듣고 깜짝 놀래어,
 “아이고 나 자래 아니오!”
 “이놈,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⁹⁸²⁾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⁹⁸³⁾ 명약이라니,
 내가 그저 너를 먹으리라.”

I'm hungry, so let me eat it as an appetizer."
 Terrapin is astonished at the tiger's word about eating.
 Terrapin barely opens the end of his mouth in his body.
 "Hello, sir! Who are you?"
 The tiger is taken aback.
 'Gee, look at this.
 He looks like a snake in a bowl which is used for keeping
 barley.
 He is small but courteous.
 Does he want to exchange names with me?"
 "Oh, I am Mr. Tiger, the ruler of this mountain.
 What is your name?"
 Terrapin is so startled at the word 'tiger' that he gives him his
 name.
 "Yes! I am a terrapin!"
 The tiger is pleased.
[Jungjungmori]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I met you today.
 Let me taste this cuisine. Come here!"
 The tiger makes a move.
 Terrapin is astonished at the tiger's word.
 "Oh, I am not a terrapin!"
 "You rat! Then, what are you?"
 "I am a toad!"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gain my health
 back.
 I will eat you without fail."

“아이고, 두꺼비도 아니고 남생이⁹⁸⁴오!”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⁹⁸⁵에는 제일이라하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28. (별주부 목 내력)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면서 호랑이에게 겁을 주고, 불알을 짹 물자,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맥혀 혼잣말로 허는 말이,

“아이고 이 급살⁹⁸⁶ 맞아 죽을 놈이

동의보감⁹⁸⁷을 얼마나 달통을 허였간디,⁹⁸⁸

보는 대로 약 취해만⁹⁸⁹ 먹기로 드니,

이제는 하릴없이⁹⁹⁰ 죽었구나.”

‘예라, 내가 기왕 죽을 바에는 패술⁹⁹¹이나 한 번 써보고 죽을 밖에 수가 없다.’하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랑이 깜짝 놀래,

“이크, 이거 목 나온다.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여보시오, 아, 그놈의 모가지가 그렇게 나을렀다가는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도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⁹⁹² 공신⁹⁹³ 사대손⁹⁹⁴ 별주부 별나리⁹⁹⁵로다!”

무식헌 호랑이가 자래 별 자를 알 리가 있으리오.

‘별나리여? 별나리, 별나리.

“Oh, I am not a toad but a tortoise!”

“A tortoise is even better.

It is the best medicine for the diseases of wet energy.

I will eat you alive.”

28. (Story about Terrapin's Neck) Terrapin narrates a story of how his neck became long, and then bites the tiger's balls. The tiger begs for his life.

[Aniri] Terrapin is dumfounded and talks to himself.

“Oh, this villain should die a sudden death.

He must have mastered the classic medical books.

He sees everything in terms of medical purpose.

I am going to die for sure.”

‘Oh well. I am going to die. I have no choice but to play a trick on him before I die.’

He sticks his neck out.

“Tiger, you fool! Here comes my neck!”

The tiger is startled.

“Jesus! A neck comes out. Stop coming out.

Hello, if your neck comes out at that pace, it might extend a few kilometers a day.

What on earth is your name?”

“Oh, I am Mr. Terrapin, a descendent of a meritorious prison official in the sea world!”

The ignorant tiger does not understand what Terrapin says.

‘Mr. Terrapin? Mr. Terrapin.

아, 그거 조그만헌 것이 직품⁹⁹⁶)은 장히⁹⁹⁷) 높은디?

“별나리 같으면 어째서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뒤웅치기⁹⁹⁸)를 잘 하시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이를 테니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국 퇴락⁹⁹⁹)허여 영덕전¹⁰⁰⁰)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¹⁰⁰¹)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¹⁰⁰²) 끝에 똑 떨어져 뱅뱅 내려오다,
 목으로 잘각¹⁰⁰³)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었기로,
 명의다려¹⁰⁰⁴) 문의¹⁰⁰⁵)한즉,
 호랭이 쓸개를 열 보¹⁰⁰⁶)만 먹으면 목이 직효¹⁰⁰⁷)한다기로
 우리 수국 도리랑귀신¹⁰⁰⁸) 잡아 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왔다가,
 명나라 들어가 곤륜산 호랑이, 수양산 호랑이 잡아먹고,
 구룡산 영산 화산 아미산 봉래산 돌아들어 겨우 두 마리 먹은 후에,
 동해로 건너와서
 황해도 들어가 구월산 호랑이,
 함경도 들어가 백두산 호랑이,
 강원도로 들어가서 금강산 호랑이 잡아먹고,
 서울로 들어가 삼각산¹⁰⁰⁹) 호랑이,
 전라도로 내려와서 지리산 호랑이 잡아먹고,
 해남으로 내려가면 열 마리 채울 게 있다기로 너를 찾아 예 왔노라.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비수검¹⁰¹⁰)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싹 달려들며,
 ‘도리랑 도리랑 도리랑’허고 달려들어,

He is small, but his rank seems to be very high?
 “Mr. Terrapin, how can you move your neck in and out freely?”
 “You fool! Let me tell you how I got this neck. Listen.”
[Jajinmori]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so we were building
 a palace again.
 I lifted 18,000 m² tiles up to the roof with my hands.
 I fell down from the corner of an eave.
 My neck touched the ground first, and it became like this.
 I consulted a famous doctor.
 If I eat tigers’ ten gall bladders, my neck will be cured
 immediately.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of the sea world to hunt
 down tigers.
 I have eaten two tigers in famous mountains in China.
 I managed to eat two more tigers in famous mountains.
 I moved over to the east sea.
 I entered Hwanghae Province and ate a tiger in Guweol
 Mountain.
 I went into Hamgyeong Province and ate a tiger in Baegdu
 Mountain.
 I got into Gangweon Province and ate a tiger in Geumgang
 Mountain.
 I arrived in Seoul and ate a tiger in Samgak Mountain.
 I came to Jeolla Province and ate a tiger in Jiri Mountain.
 I heard I could eat the 10th tiger in Haenam, so I came here,
 looking for you.
 Don’t you want to give me your gall bladder?
 Is the stream dea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in half with a sharp knife!”
 Terrapin moves close to the tiger.
 He approaches him unsteadily.

호랭이 알불¹⁰¹¹)을 짹 물고 뺑 돌아노니,
 호랑이 질색¹⁰¹²)허여,
 “아이고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꼼짝말뻑을 못하고,
 그 육중한 놈이 자래에게 매달려 애걸¹⁰¹³)을 허는디,

29. (호랑이 도망) 별주부가 애원하는 호랑이를 놓아주니, 호랑이가 재빠르게 도망한다.

[중모리] “비나니다. 비나니다. 별나리전에 비나니다.
 내가 오대독신이오.
 사십이 이미 넘어 오십이 장근토록¹⁰¹⁴) 슬하¹⁰¹⁵) 일점 혈육¹⁰¹⁶)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손세¹⁰¹⁷)를 막게 되오니
 원통한 일이 아니오며,
 불효삼천에 무후위대¹⁰¹⁸)라 허였으니,
 선영의¹⁰¹⁹) 득죄¹⁰²⁰)가 망극¹⁰²¹)허오.
 차라리 이것 대충으로¹⁰²²) 내 왼 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못 될 말이로다.
 아생연후의 살타라니,¹⁰²³)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아따,¹⁰²⁴)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쓸개 주겠다고 놓아달라는 것이,
 별주부 생각헌즉 얼죽음¹⁰²⁵)은 된 모양이라.
 짹 물었던 호랭이 알불을 슬그머니 늦추어노니,¹⁰²⁶)

He bites the tiger's balls hard and turns around.
The tiger is shocked.
"Oh, Mr. Terrapin. Let go of these!"
"You villain! Cut the noise out and take out your gall bladder."
The tiger can't move at all.
The massive animal begs Terrapin.

**29. (The Tiger Runs Away.) Terrapin release the
entreating tiger, and the tiger runs away fast.**

[Jungmori] "I beg you. I beg you, Mr. Terrapin.
I am the only child for five generations in my family.
I went past forty and am approaching fifty, but I don't have a
child.
If I die, my family line will stop.
Wouldn't that be deplorable?
Not having a child is the worst thing we can do to our parents.
My crime against my ancestors is immeasurable.
Please take out my left eye and eat it instead my balls!"
"You scoundrel. No way.
If I release you, you will kill me.
Shut up and take out your gall bladder!
Gosh, if you let go of my balls, I'll give you my gall bladder
right away."
[Aniri] The tiger agrees to offer his gall bladder.
Terrapin thinks that the tiger is in excruciating pain.
He slowly releases the tiger's balls that he has bitten.

[휘모리] 호랑이 몽구렸다¹⁰²⁷⁾ 후닥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단듯,¹⁰²⁸⁾
 오림¹⁰²⁹⁾에서 조조 단듯,
 조총¹⁰³⁰⁾에서 철환¹⁰³¹⁾ 단듯,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그저 인홀불견¹⁰³²⁾ 간 곳 없네.
[아니리] 전후 사연이야 어찌 되었던지,
 해남 관머리¹⁰³³⁾에서 냇다¹⁰³⁴⁾ 뽀뽀 뉘이 의주 압록강 가에를 막 가는
 배,¹⁰³⁵⁾
 한편에서 남생이란 뉘이 뽀쫄롬허고¹⁰³⁶⁾ 내다보니,
 호랭이가 별주부로 알았것다.
 “이크! 저놈 그새¹⁰³⁷⁾ 여기 또 쫓아왔구나.”
 게서¹⁰³⁸⁾ 또 후닥딱 빼논¹⁰³⁹⁾ 것이,
 함경도 세수람고개¹⁰⁴⁰⁾에 가 덜름¹⁰⁴¹⁾ 올라 얹어
 쫓겨온 뉘이 기중에¹⁰⁴²⁾ 장담¹⁰⁴³⁾을 허것다.
 “에, 그놈 징그런 놈 보았다.
 내 용맹이나 된께¹⁰⁴⁴⁾ 여기까지 살아왔제,
 다른 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들어가서 똥 되었으렀다.
 그러나 저러나, 그놈 이빨 심¹⁰⁴⁵⁾ 참 좋다.
 의수이¹⁰⁴⁶⁾ 쪽쪽 애리는¹⁰⁴⁷⁾ 걸.”
 이려고 있을 적에,

30. (산신제 준비) 별주부가 산신제를 지낼 준비를 한다.

[중모리] 그 때여 별주부는 간신히 뱀을 쫓은 후에 곰곰히 생각허니,

[Hwimori] The tiger prepares to run and moves fast.
 He moves like an arrow in a war.
 He moves like Cao Cao (曹操) in a forest.
 He moves like a bullet from a rifle.
 He moves over a mountain and a sea.
 He is faintly seen, and then not seen anymore.
[Aniri] We don't know how this happened.
 The tiger ran fast from Haenam, the southernmost part, to Abrok
 River, the northernmost part of Korea.
 A tortoise pulls out his head a little and looks at the tiger.
 The tiger takes it to be Terrapin.
 "Gosh! H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 runs fast from there.
 He climbs and sits on a mountain pass in Hamgyeong Province.
 Although he is a fugitive, he speaks with confidence.
 "He is an awful bastard.
 I am alive now because I was brave.
 Others would have been in Terrapin's belly and become a shit.
 By the way, his teeth are really strong.
 My balls are hurt."
 The tiger does these things.

30. (Ritual to Mountain God). Terrapin prepares for a ritual to a mountain god.

[Jungmori]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he managed to
 chase the tiger away.

‘호랑이라 허는 것이 산중지영물¹⁰⁴⁸)인디,
 내가 정성이 부족하여 산신님이 변화¹⁰⁴⁹)를 붙였나?
 아서라, 이것 안 될 일이로다.
 지성이면 감천¹⁰⁵⁰)이라니,
 산신제¹⁰⁵¹)를 내가 모실란다.’
[아니레] 별주부는 수국 충신지후예¹⁰⁵²)라,
 일편단심¹⁰⁵³) 굳은 충성 시냇물에 들어가 목욕부터 한 연후에,
 지성으로 산신제를 모시는데,
[진양조] 계변양류¹⁰⁵⁴) 늘어진 한 가지를 앞니로 잘끈¹⁰⁵⁵) 꺾어내어
 진토¹⁰⁵⁶)를 쓱쓱 쓸어버리고, 암상¹⁰⁵⁷)으로 제판¹⁰⁵⁸) 삼고,
 낙엽으로 먼지¹⁰⁵⁹)를 깔고,
 산과목실¹⁰⁶⁰)을 주워다가
 흥동백서¹⁰⁶¹)로 갈라 놓고,
 도토리껍질에 청계수¹⁰⁶²)를 제주¹⁰⁶³) 삼어 받쳐 놓고,
 은어 한 마리 잡어내어 동두서미¹⁰⁶⁴)로 진설¹⁰⁶⁵)을 허더니,

31. (별주부 축문) 별주부는 축문을 지어 읽으며, 토끼 만나 기를 기원한다.

[아니레] 축문¹⁰⁶⁶) 지어 읽었으되,
 (축문) “유세차¹⁰⁶⁷) 갑신 유월 경인¹⁰⁶⁸) 삭¹⁰⁶⁹) 십오일 갑진¹⁰⁷⁰)
 남해 수궁 별주부 감소고우.¹⁰⁷¹)
 상천일월¹⁰⁷²) 명산 신령전¹⁰⁷³) 지성발원.¹⁰⁷⁴)
 남해 용왕 우연득병¹⁰⁷⁵)

'A tiger is a divine animal in mountains.
 I was not respectful to a mountain god, so he appeared in the
 form of the tiger.
 That should not have happened.
 A conscientious effort moves heaven.
 Let me hold a ritual to a mountain god.'
[Aniri] Terrapin is a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He is devoted to his king, so he gets into a stream and takes
 a bath.
 He conscientiously performs a ritual to a mountain god.
[Jinyangjo] Terrapin cuts a drooping willow branch off by a
 stream with this front teeth.
 He brushes dirt off a flat rock with the branch and uses it as
 a ritual table.
 He puts fallen leaves on the rock.
 He picks up mountain fruits.
 He puts red fruits to the east, and white fruits to the west.
 He pours water from the stream in an acorn shell.
 He catches a fish and places it on the rock with its head to the
 east and its tail to the west.

31. (Terrapin's Written Prayer) Terrapin writes a prayer and reads it, wishing to meet a hare.

[Aniri] Terrapin writes a prayer and reads it.
 (Ritual Prayer)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June 15th today.
 Terrapin from the sea palace prays to you.
 I pray to the gods of the sun, the moon, and famous mountains.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천의도사¹⁰⁷⁶) 문병¹⁰⁷⁷) 후 천년퇴간운.¹⁰⁷⁸)
중산¹⁰⁷⁹) 천년퇴일수¹⁰⁸⁰) 허급지지¹⁰⁸¹) 천만축수.¹⁰⁸²)
근이청작¹⁰⁸³) 상사¹⁰⁸⁴) 상향.”¹⁰⁸⁵)
빌기를 다한 후에,

32.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묻자,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중중모리] 한 곳을 바라보니
묘헌 짐승이 앉았다.
두 귀는 쫘긋,
두 눈 도리도리,¹⁰⁸⁶)
허리는 늘씬,¹⁰⁸⁷)
꽂지¹⁰⁸⁸)는 묘목,¹⁰⁸⁹)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디,¹⁰⁹⁰)
녹수 청산의 에굽은¹⁰⁹¹) 장송 휘늘어진 양류수,¹⁰⁹²)
들랑달랑¹⁰⁹³) 오락가락 앙그주춤¹⁰⁹⁴) 섰는 양,
화상¹⁰⁹⁵)을 보고 토끼를 보니,
산중퇴¹⁰⁹⁶) 월중퇴¹⁰⁹⁷)가 분명한 토끼라.
자라가 보고서 반겨라고,¹⁰⁹⁸)
“저기 있는 게 퇴생원이오?”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
“게¹⁰⁹⁹) 뉘가¹¹⁰⁰) 날 찾나? 거 누구가 날 찾어?
기산¹¹⁰¹) 영수¹¹⁰²) 소부¹¹⁰³) 허유¹¹⁰⁴) 피서 가자고¹¹⁰⁵) 날 찾나?

A god from heaven recommended a thousand year old hare's liver.

I pray for a one-thousand-year-old hare from a mountain.
Please drink this clear wine.”

Terrapin finishes the ritual.

32. (Terrapin Meets a Hare.) Terrapin spots a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Jungjungmori] Terrapin looks at a place.

A strange animal is sitting.

His two ears are long.

His two eyes are round.

His waist is thin.

His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A tall pine tree and a willow droop down by a blue stream and in the green mountain.

It moves in and out of the trees and stands up straight.

Terrapin looks at the picture and Hare.

The animal is certainly a hare from a mountain or the moon.

Terrapin is delighted to see Hare.

“Isn’t that Mr. Hare?”

Hare is happy to hear Terrapin.

“Who is looking for me? Who are you?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join them to live in a mountain and by a river?

수양산¹¹⁰⁶) 백이 숙제¹¹⁰⁷)가 재미허자고¹¹⁰⁸) 날 찾나?
 백화심처일승귀라 춘풍석교화림중¹¹⁰⁹)에 성진¹¹¹⁰)화상¹¹¹¹)이 날
 찾나?
 완월장취¹¹¹²) 강남 태백¹¹¹³)이 기경상천¹¹¹⁴)허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날 찾나?
 청산기주백록탄¹¹¹⁵) 여동빈¹¹¹⁶)이 날 찾나?
 차산중¹¹¹⁷) 운심처¹¹¹⁸) 대접허는 이 전혀 없고,
 평생 멀리만 당허는 몸을
 천만 의외 거 누가 생원이라고 날 찾나?
 건년산 과부 토끼가 연분¹¹¹⁹)을 맺자고 날 찾나?”
 이리로 깡깡, 저리로 깡깡, 깡깡깡깡 내려온다.

33. (세상 나온 내력) 별주부는 세상에 인재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면서, 토끼가 용궁에 가면 큰 벼슬을 할 것 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이렇듯 토끼는 내려올 제,
 그 때에 별주부는 호랑이에게 놀랜 가슴이라
 목을 딱 움츠리고 납죽¹¹²⁰) 엎졌을 제,
 토끼가 턱 내려와보더니,
 “야, 이것 두루리방석¹¹²¹) 같다.
 한번 앉어 보자.”
 왈각 뛰어 앉어논 것이,
 자래라 허는 건 등을 누르면 목이 나오는 법이라,

Are ancient brothers asking me to join them picking up brackens
for food in a mountain?

Are you the Buddhist monk who came back to a place where
there are all sorts of flowers, a spring wind, and a stone bridge?
Is the ancient poet Li Bai(李白) who enjoyed wines and the
moon asking me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heaven riding
a whale?

Are you the ancient hermit who lived in a green mountain and
feared a blue shallow stream?

I am not treated well in this deep mountain covered with clouds.
I have been looked down upon here.

Who is unexpectedly calling me Mr. Hare?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Hare jumps here and there, and comes to Terrapin.

**33. (Reason for Coming to the Land) Terrapin tells Hare
that he has come to the land to recruit a talented
animal, and that if Hare goes to the sea palace, he
will be offered a high government position.**

[Aniri] Hare approaches Terrapin.

Meanwhile, Terrapin was scared because of the tiger.

He shrinks his neck and stays down.

Hare is close to Terrapin.

"Gee, this looks like a round cushion.

Let me sit on it."

Hare sits hard on it.

A terrapin's neck comes out if his back is pressed.

목이 실그머니¹¹²²⁾ 나왔겠다.

토끼 깜짝 놀래,

“이크, 이것 봐라!

아니, 어떤 놈이 여기에다 배얍¹¹²³⁾을 갖다 잡어다 넣어놨구나, 여.”

자래 못 건디어 궁덩이를 들썩해 노니,

토끼 발딱 자빠지며,

“야, 그거 나무젓시 같은 것이 등심¹¹²⁴⁾은 대단헌디!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명색이 뭇이오?”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라 하오.”

토끼 듣고 허는 말이,

“예. 나는 천상에서 이음양순사시¹¹²⁵⁾허여 화초를 분별허던 예부상
서¹¹²⁶⁾ 월퇴일러니,¹¹²⁷⁾

도약주¹¹²⁸⁾ 대취하여¹¹²⁹⁾

장생약¹¹³⁰⁾ 그릇 짓고

적하중산¹¹³¹⁾허여 머무른 지 오렐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이 토선생이라 하오.”

자라 토명¹¹³²⁾을 반겨 듣고,

“하, 금일¹¹³³⁾에야 상봉허니

하상견지만만무고불측¹¹³⁴⁾

네기미 똥방땡이아들놈의 자식이오.”

토끼 듣고 혼잣말로,

‘야, 그놈 참 문장¹¹³⁵⁾이다.

저놈이 단문¹¹³⁶⁾허고야 저렇게 문자¹¹³⁷⁾를 쓸 수가 있나?

내 만일 저놈 앞에서 문자 하나라도 단문허게 썼다가는, 나 하나로

말미암아 세상 문장들이 모두 망신을 허겠구나’허고,

두서없는¹¹³⁸⁾ 문자를 내놓는다,

Terrapin's neck also comes out.
Hare is startled.
"Gosh, look at this!
Somebody caught a snake and put it inside this thing."
Terrapin can't withstand any longer, so he raises his hip up.
Hare falls over.
"That thing looks like a wooden plate, but its back is strong!
Hello. Who on earth are you?"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There hare responds,
"I am Hare on the moon. I was a ceremonial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mooth change of seasons and distinguishing between
flowers.
I was drunk by a medicinal wine.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I have been relegated to the earth for long time.
People on the earth call me Mr. Hare."
Terrapin is glad to hear the name of hare.
"Oh, I finally meet you today.
I didn't expect it would take so long to meet you.
How cruel you are!"
Hare talks to himself.
'Gee, he speaks a high level language.
He must be knowledgeable to speak such a language.
If I speak a low level language in front of him, I will bring
disgrace to the famous writers of the world.
Hare throws out profound sentences incoherently.

“여보, 별주부. 우리가 피차¹¹³⁹⁾ 이리 만나기는
 여필중부¹¹⁴⁰⁾요,
 출가외인¹¹⁴¹⁾이요,
 숙불환생¹¹⁴²⁾이요,
 여담절각¹¹⁴³⁾이요,
 세모방천¹¹⁴⁴⁾이요,
 친사돈통가문¹¹⁴⁵⁾이요,
 당구삼년¹¹⁴⁶⁾이요,
 우이독경¹¹⁴⁷⁾이요,
 어동육서¹¹⁴⁸⁾
 홍동백서¹¹⁴⁹⁾
 좌포우혜¹¹⁵⁰⁾
 분향재배¹¹⁵¹⁾요,
 오류칠 두루송이,¹¹⁵²⁾
 일삼오대감¹¹⁵³⁾이요,
 명기위적¹¹⁵⁴⁾은 전라감영¹¹⁵⁵⁾이요,
 일구이언은 백부지자라고.”¹¹⁵⁶⁾
 동서에도¹¹⁵⁷⁾ 닿지 않는 문자를 엮어 썼다, 뒤집어 썼다 이런 야단이
 없지.
 별주부 듣고 함소왈,¹¹⁵⁸⁾
 “대체 퇴선생 높은 위명¹¹⁵⁹⁾ 들은 지 오렐러니,
 금일에야 화답¹¹⁶⁰⁾허니
 글도 문장이려니와
 풍신¹¹⁶¹⁾이 선평도골¹¹⁶²⁾이요,
 발뺨씨가 오입쟁이¹¹⁶³⁾요,
 선차¹¹⁶⁴⁾ 귀를 보니 만고에 드문 귀골¹¹⁶⁵⁾이오.

“Hello, Mr. Terrapin. I have just met each other.
A wife should follow her husband.
Once a woman is married, she is no longer a member of her
biological family.
Once a food is cooked, it can't become raw.
My ox's horn is broken because of your fence.
A hair can prevent a leakage of water through a bank.
There is an open gate between two families-in-law.
If a dog lives in a school for three years, it can read and write.
You can't teach a cow how to read.
Fish to the east, and meat to the west.
Red fruit to the east, and white fruit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We burn incense and bow twice.
Five, six, and seven are lucky in gambling.
One, three, and seven are lucky in gambling.
The confession of a theft should be done in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Contradicting oneself is like having one hundred fathers.”
Hare utters profound sentences in a senseless and disorganized
manner.
Terrapin laughs loudly.
“I heard about your high fame long time ago.
I finally respond to you today.
Your sentences are profound.
Besides, your bodily appearance is that of a god.
Your feet indicate you are virile.
Your ears signify you are of a rare nobility.

훈련대장 꼭 허겼소.

잘났다, 잘났어.”

추어논 배,¹¹⁶⁶⁾ 토끼란 놈 좋아라고,

“헤헤헤헤. 무슨 그럴 수야 있소마는,

그런디 별주부는 수국 조관¹¹⁶⁷⁾으로

세상에 어찌 나오셨소?”

별주부 듣고 대답허되,

[중모리] “조유복해요 모창오라.¹¹⁶⁸⁾

아침엔 북해에 놀다가도, 저물면 창오산 노는 몸이 어데는 못 가겼소?

우리 용왕 성덕¹¹⁶⁹⁾으로 팔천 리를 진무¹¹⁷⁰⁾허니 일일만기¹¹⁷¹⁾ 되옵

는디,

신자¹¹⁷²⁾가 재조¹¹⁷³⁾ 없어 보좌허기 어렵기로,

대왕의 분부 모와¹¹⁷⁴⁾ 보익지재¹¹⁷⁵⁾ 구하려고 천하 명산을 편답¹¹⁷⁶⁾

허다,

오늘에야 모족 모임 천행으로 만났으나,

만좌¹¹⁷⁷⁾를 다 보아도 패왕지보¹¹⁷⁸⁾는 비웅비표¹¹⁷⁹⁾ 선생 하나뿐이

기로,

퇴선생을 모셔가자 불고체면¹¹⁸⁰⁾ 불렀으니,

바라건대 퇴선생은 범수¹¹⁸¹⁾의 왕계¹¹⁸²⁾ 딸뒸,¹¹⁸³⁾ 한신¹¹⁸⁴⁾이 소

하¹¹⁸⁵⁾ 딸뒸 나를 따라서 가사이다.”

토끼 제 모양에 감지덕지¹¹⁸⁶⁾헌 말이나,

제 소견도 있는지라,

“어떻기에 내 형용¹¹⁸⁷⁾이 꿈보다 더 나으며, 표범보다 나를 테요?”

별주부가 대답허되, “곰의 몸이 비록 크나, 눈이 적고 털이 덮혀 태양

정기¹¹⁸⁸⁾ 부족기로 미련허여 못 쓸 테요,

You will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Excellent.”

Flattered, Hare is pleased.

“Hehehe. I can’t believe I will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By the way, you are an official in the sea world.

What brought you to the land?”

Terrapin answers.

[Jungmori] “I relax in the northern sea in the morning and on a mountain in the evening.

Since I can go in the sea and on a mountain, I can go wherever I want to go.

My virtuous dragon king rules a large area where numerous events occur everyday.

He doesn’t have any talented subjects to assist him.

By my king’s order, I have been traveling around to famous mountains to bring a good official to him.

I was lucky today to come across animals in a party.

Among the animals, you are the only one who is more competent than a bear or a leopard to assist my king to rule the world.

I called you at the cost of my honor because I wanted to take you to the sea world.

I hope you follow me like the ancient people who followed loyal subjects and acquired high government offices.”

Considering his situation, Hare should be thankful to Terrapin. However, he has his own opinion.

“On what grounds do you say I look better than a bear or a leopard?”

Terrapin answers, “A bear is large, but his eyes are small and his body is covered with hair blocking solar energy, so he is stupid and useless.

범이 비록 용맹하나, 코 자릅고,¹¹⁸⁹⁾ 줄기¹¹⁹⁰⁾ 없고, 중악¹¹⁹¹⁾이 저
 함¹¹⁹²⁾허니 단명¹¹⁹³⁾하여 못 쓸 테나,
 선생의 기상¹¹⁹⁴⁾을 살펴보니 치세지능신¹¹⁹⁵⁾이요, 난세지간웅¹¹⁹⁶⁾이라,
 눈이 밝고 충민¹¹⁹⁷⁾하여 천문지리¹¹⁹⁸⁾ 다 알 테요,
 몸이 적고 발이 빨라, 산도 넘고 물도 뛰어 따라갈 이 없을 테요,
 첩첩한¹¹⁹⁹⁾ 그 구변¹²⁰⁰⁾은 소진¹²⁰¹⁾ 장의¹²⁰²⁾ 옷줄¹²⁰³⁾이요,
 가끔가끔 조으난¹²⁰⁴⁾ 건 공명선생 춘수¹²⁰⁵⁾인 듯,
 생긴 것이 모도¹²⁰⁶⁾ 정신,¹²⁰⁷⁾
 불수록 귀골¹²⁰⁸⁾이라
 모족 중의 제일이니,
 우리 수궁 가시오면 출장입상¹²⁰⁹⁾
 그 공명¹²¹⁰⁾을 따라갈 이 뉘 있을꼬?”

34. (토끼의 자랑)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삼아 얘기한다.

[아니래] 이렇듯 말을 하니,
 토끼 가만히 듣고 생각현즉,
 제가 수궁을 가면 놀릴 데는 없겠으나,
 슬쩍 한번 빼보는¹²¹¹⁾ 말이,
 “주부를 따라가면 좋기는 좋겠으나,
 산림지략¹²¹²⁾ 풍월지흥¹²¹³⁾ 내가 잊고 어찌 가리?
 내사¹²¹⁴⁾ 안 갈라요.”
 별주부 듣고 허는 말이,
 “진세간¹²¹⁵⁾에 흥미가 그렇게 좋을진대, 나도 우리 수궁 안 갈 테니,
 어디 얘기 좀 해보시오.”

A leopard is brave, but his nose is short and flat, the center of his face is hollow, and his life is short, so he is useless.
Your majestic look goes well with a talented official of a well-ordered country and a hero of a chaotic world.
Your eyes and mind are sharp, so you must know the principles of nature.
You are small, and you run fast, so you go over mountains and across rivers, leaving everybody behind you.
You are more eloquent than ancient politicians.
You sometimes fall into a doze like Kong Ming(孔明), a famous military strategist.
You look like an ethical government official.
The more I see you, the more you look noble.
You are the best of all the animals.
If you go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great official.
Who will beat you in terms of fame?"

34. (Hare's Bragging)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Terrapin just finished speaking.
Listening to Terrapin, Hare ponders.
He will be happy if he goes to the sea palace.
However, he says he declines the offer to see how Terrapin reacts.
"It might be good to follow you.
However, how can I forget delights in the mountains and pleasures in nature?
I'll not go with you."
Hearing Hare, Terrapin says,
"If the life in land is that good, I'll not go to the sea palace either.

토끼 제가 도리어 주부를 못 가게 도르기로¹²¹⁶⁾ 산림풍월¹²¹⁷⁾ 사랑을
허는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냉수 먹듯 허든 것이었다.

[중모레] “이 내 몸이 한가하여 산림풍경 구경할 제,
청산에 봄이 오면, 만자천홍¹²¹⁸⁾ 그림병풍¹²¹⁹⁾
앵가접무¹²²⁰⁾ 좋은 풍류¹²²¹⁾ 세월 간 줄을 알 수 없고,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음방초승화시¹²²²⁾라,
공자왕손¹²²³⁾ 답청놀이¹²²⁴⁾와 피서임천¹²²⁵⁾의 목욕 구경,
여름을 다 보내고 금풍¹²²⁶⁾이 일어나면,
옥로¹²²⁷⁾가 서리 되어
상엽홍어이월화¹²²⁸⁾라,
중양추색용산음¹²²⁹⁾의 황국¹²³⁰⁾ 단풍 구경이요,
가을 가고 겨울이 되면,
낙목한천¹²³¹⁾ 찬 바람에
천산조비 끊어지고, 만경인종 없을 적에,¹²³²⁾
용문¹²³³⁾에 상설¹²³⁴⁾허던 구양공¹²³⁵⁾도 따라가고,
나귀 타고 방매¹²³⁶⁾허던 맹호연¹²³⁷⁾도 따라가서,
산간사시¹²³⁸⁾ 좋은 경¹²³⁹⁾을 닦친 대로 모두 구경하고,
임자 없는 녹수청산¹²⁴⁰⁾ 집 삼아 왕래하며,
값 없는 산과목실¹²⁴¹⁾ 양식을 삼아 감식¹²⁴²⁾하고,
신여부운¹²⁴³⁾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완경¹²⁴⁴⁾할 제,

Please tell me more about your life.”

In order to deceive Terrapin into staying on land, Hare boasts of his life in nature.

Hare tells a lie to Terrapin without hesitation.

[Jungmori] “I freely enjoy seeing the beautiful scenery.

If spring comes, the land is beautiful with flowers of diverse colors.

I enjoy a nightingale’s song and a butterfly’s dance, losing track of time.

Spring goes and summer comes.

It is the time when the verdure is in its prime.

Descendents of nobility take a walk in the green field, avoid the summer heat in the mountains, and bath in streams.

Summer goes and a fall wind arises.

Clear dewdrops become frost.

Red leaves with frost are redder than February flowers.

I watch yellow chrysanthemums and red leaves in a mountain on September 9th.

Autumn goes and winter comes.

All leaves are on the ground, and a cold wind blows.

No bird flies in the mountain, and no human is seen on the road.

I follow an ancient poet who used to watch snow at the neck of the rapids.

I follow another ancient poet who rode a donkey looking for Japanese apricots.

I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mountain at random all the year around.

I move around in unowned nature, taking it as my home.

I eat the delicious fruits in mountains, taking it as my food.

Like a cloud, I freely visit famous mountains and enjoy beautiful scenery.

여산¹²⁴⁵) 동남¹²⁴⁶) 오로봉¹²⁴⁷)과
 진국명산¹²⁴⁸) 만장봉¹²⁴⁹)이며,
 석교무산십이봉¹²⁵⁰)과,
 봉래·방장·영주 삼산¹²⁵¹)이며,
 태산·승산·형산·화산¹²⁵²) 만학천봉,¹²⁵³)
 수양·아미산¹²⁵⁴)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두 놓고,
 영주 상상봉¹²⁵⁵)을 완완히¹²⁵⁶) 기어올라,
 흑운¹²⁵⁷)을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여산의 낙조경¹²⁵⁸)과 위수¹²⁵⁹)의 일출경¹²⁶⁰)을 안하¹²⁶¹)에 삼열허
 니,¹²⁶²)
 등태산소천하¹²⁶³)허던 공부자¹²⁶⁴)의 대관¹²⁶⁵)인들 이어서¹²⁶⁶) 더하
 드란 말인가?
 밤이면 완월¹²⁶⁷)허고,
 낮이 되면 유산¹²⁶⁸)혈 제,
 안기생¹²⁶⁹)·적송자¹²⁷⁰)를 나의 제자를 삼어두고,
 이따끔 심심허면 종아리도 때려보니,
 강산 풍경 흥미간의¹²⁷¹)
 지상신선¹²⁷²)이 나뿐이라.
 수궁이 좋다 해도 이향즉위천¹²⁷³)이라,
 만리타국¹²⁷⁴) 들어갔다 그 천대를 어찌허리?
 회수¹²⁷⁵)를 건너면은 유자도 탕자 된다허니,
 나는 나는 안 갈라요.”

I visit Five Peaks which looks like old men,
the high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the twelve peaks pricking the sky,
and the three divine mountains,
and numerous valleys and other peaks.
There is not a famous mountain I didn't visit.
I slowly climbed a divine mountain peak.
I kicked away a black cloud and faced a white cloud.
I watched the sunset over a mountain and the sunrise over a
river below me.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 Shan(泰山).
I watch the moon at night.
I visit mountains by day.
I treat two legendary gods as my students.
When bored, I lash their calves.
I enjoy the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I am the only living god on land.
You say the sea palace is great, but we become humble as soon
as we leave our hometown.
How can I bear the ill-treatment in a distant foreign country?
It is said the status of fruit goes down if it crosses a river.
I won't follow you."

35. (토끼의 팔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삶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듣고 생각현즉,

‘저놈을 너무 훨쩍¹²⁷⁶ 추어논 배¹²⁷⁷

방정맞은¹²⁷⁸ 저 소견에 교만이 나서 저 모냥이니,

한번 탁 질러¹²⁷⁹ 저 놈 기를 꺾어보리라’ 하고,

“퇴선생. 말 다 허셨소?”

“예, 다 했소.”

“몹시 불어제치요.¹²⁸⁰

산중에서 부는 바람 해풍¹²⁸¹보다 훨씬 세어,

귀가 시려 못 들었소.

수궁에 있는 내가 산중 일을 어찌 알라하고 그렇게 과장을 허지마는,

당신 입을 본깨¹²⁸² 거짓말 잘허게 생겼고,

또 눈알이 붉어서 화망살기¹²⁸³가 있소.

고향을 떠나 타국을 가면 그 살기도 면허고, 훈련대장을 꼭 헐 터이나,

만일에 진세간¹²⁸⁴에 오래 머물다가는 그 살기로 인하여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허셨소.”

“어, 그분 초면에¹²⁸⁵ 방정맞은 소리 허는고?”

“여보, 퇴선생. 당신 팔난살기¹²⁸⁶를 내 일러줄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자진모리] “일개 한퇴¹²⁸⁷ 그대 신세

삼춘구추¹²⁸⁸ 다 지나고,

대한¹²⁸⁹ 엄동¹²⁹⁰ 설한풍¹²⁹¹ 만학에¹²⁹² 눈 쌓이고,

천봉¹²⁹³에 바람 칠 제,¹²⁹⁴

화초목실¹²⁹⁵ 없어지고,

앵무·원앙¹²⁹⁶이 끊쳤는디,¹²⁹⁷

35. (Hare's Eight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Listening to Hare, Terrapin ponders.

'I flattered this bastard too much.

He speaks like that because he became arrogant.

I will give him a hard blow and dispirit him.'

"Mr. Hare, did you finish talking?"

"Yes, I did."

"You stretched reality too much.

Your stretch is stronger than a sea wind.

My ears are hurting.

You thought I don't know about the mountain life because I
am from the sea, so you exaggerated.

Your mouth tells me you are good at lying.

Your red eyes mean you are fated to die by fire.

If you leave your hometown and live in a foreign country, you
will avoid the fate and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f you stay on land for long time, you are fated to go through
eight critical hardships."

"We just met. How dare you make such a rude remark?"

"Hello, Mr. Hare. Let me tell you about your eight hardships.
Listen carefully."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Flowers, grasses, and fruits are gone.

All birds disappear.

어둑한 바위 밑에 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¹²⁹⁸ 더진 듯
 이¹²⁹⁹ 앓은 거동,
 진나라 함곡관¹³⁰⁰의 초희왕¹³⁰¹의 신세런가?¹³⁰²
 북해상¹³⁰³ 대교중의¹³⁰⁴ 소중랑¹³⁰⁵의 고생인가?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삼동¹³⁰⁶ 고생을 겨우 지나,
 벽도홍행¹³⁰⁷ 춘이월¹³⁰⁸에 주린 구복¹³⁰⁹을 채우랴고, 심산궁
 곡¹³¹⁰ 찾고찾어 이리 저리 기대갈 제,
 골골이¹³¹¹ 묻은 것이 목다래¹³¹² 엄찰개¹³¹³요,
 봉봉이¹³¹⁴ 섰는 게 매 받은¹³¹⁵ 응주¹³¹⁶로다.
 목다래 채거드면¹³¹⁷ 결항치사¹³¹⁸ 대랑대랑 제수¹³¹⁹ 고기가 될 것
 이요,
 청천¹³²⁰에 뗏은 게, 토끼 대구리¹³²¹ 덮치려고 옥크리고¹³²² 드는
 수리¹³²³ 지 으로¹³²⁴ 휘어들고,
 물이꾼 사냥개 엄산골¹³²⁵로 기어들어서 퍼긋퍼긋¹³²⁶ 뛰어갈 적에,
 토끼 놀래 호도독독,¹³²⁷
 수월자¹³²⁸ ‘매 놓아라!’
 해동청¹³²⁹ 보라매¹³³⁰ 깃두루미¹³³¹ 빼지새¹³³² 공작우¹³³³ 마
 루¹³³⁴ 도리당사 저 꿀치 방울을 떨쳐,¹³³⁵
 쭉지 치고 수루루루루루,
 그대 컷전¹³³⁶ 양 발로 당그랑게¹³³⁷ 집어다,
 꼬부랑한 주둥이로 양미간¹³³⁸ 골치대목¹³³⁹을 콕 콕콕!”
 “어, 그 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허는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뉘가 게¹³⁴⁰ 있가디요?¹³⁴¹
 산 중둥¹³⁴²으로 돌제.”
 “중둥으로 가는 토끼, 송하에¹³⁴³ 숨은 것이

In a dark place under a rock, you hold your hungry belly and
lick the bottom of your feet feebly, while sitting weakly.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in
pris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survive winter.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Hunters stand up, holding up hawks on every peak.

If you are caught in a snare, you will be strangled to death and
be served on a ritual food table.

From the high sky, an eagle intending to grab your head swoops
down on the foot of a mountain.

Hunters and hunting dogs run to a dark valley, panting heavily.
Petrified, you move fast.

A hunter releases a hawk.

The young hawk has a tag of a crane's feather, a decoration of
a peacock's feather, and a leather cord on its leg.

It moves its wings and flies.

It catches you around your ears with two legs

With the curved beak it punches the bone between your two
eyebrows!"

"I told you to stop the rude talk!"

"Then, where do you go?"

"If so,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middle of a mountain."

"You hide under a pine tree in the middle of a mountain.

오는 토끼를 놓으랴하고¹³⁴⁴ 불 채리는¹³⁴⁵ 도포수¹³⁴⁶라.
 풀감투¹³⁴⁷ 푸삼¹³⁴⁸ 입고,
 상사방물에¹³⁴⁹ 왜물¹³⁵⁰ 조총¹³⁵¹ 화약 덮사실¹³⁵²을 얼른 넣어,
 반달같은 방아쇠,
 고초같은¹³⁵³ 불을 엮어,¹³⁵⁴
 한 눈 찌그리고¹³⁵⁵ 반만 일어서며,
 단는¹³⁵⁶ 토끼 징구리¹³⁵⁷ 보고, 꾸르르르 탕!”
 “어, 그 분이 방정맞인 소리 말래도 점점 허는고!
 그러면 뉘가 게 있가디오?
 흰헌 들로 내리지.”¹³⁵⁸
 “들로 내리면, 초동 목수¹³⁵⁹ 아이들이 몽둥이 드리메고,¹³⁶⁰
 없는 개 호구리며¹³⁶¹ 위리¹³⁶² 두둑¹³⁶³ 쫓는 양 선술¹³⁶⁴ 먹은 초
 군¹³⁶⁵이요,
 그대 간장¹³⁶⁶ 생각허니 백등칠일궁곤 한태조 간장,¹³⁶⁷
 적벽강상화진중¹³⁶⁸ 조맹덕¹³⁶⁹ 정신이라.
 거의 잡혀 죽을 토끼
 충암절벽¹³⁷⁰ 석간¹³⁷¹ 틈 기운 없이 올라갈 적,
 짜룬¹³⁷² 꼬리 살에¹³⁷³ 꺾¹³⁷⁴ 요리 깡짱, 저리 깡짱, 깡짱접둥¹³⁷⁵
 뛰놀 제
 콧궁기¹³⁷⁶ 찌내¹³⁷⁷ 나고,
 목궁기¹³⁷⁸ 톱질허며,¹³⁷⁹
 밀궁기¹³⁸⁰ 조총 노니¹³⁸¹
 그 아니 팔난?¹³⁸²
 팔난 세상 내사¹³⁸³ 싫어.
 조삼모사¹³⁸⁴ 자네 신세
 한가허다고 뉘 이르며,

A head hunter ready to fire a rifle waits for you.
 He wears a hat and clothing made of grass.
 He loads a Japanese rifle with powder and a bullet right away.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aims at your head and pulls the trigger. Bang!"
 "Gosh, I told you to cut out this unpleasant talk!
 Who would stay there?
 I would run to the open field."
 "If you go down to the field, young woodcutters and cow-herds
 carry a stick on their shoulders.
 There is no dog, but they call dogs and chase you fast like drunk
 woodcutters.
 You feel like the ancient king surrounded by an enemy for seven
 days.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defeated by
 a fire attack in Chibi(赤壁) River.
 You narrowly escape death.
 You climb weakly a rugged cliff through the spaces between the
 rocks.
 Your short tail is attached to your groin, and you jump around
 here and there.
 A bad smell comes out of your nose.
 Your throat makes harsh sounds due to panting.
 You are shot on the back.
 These are the eight hardships.
 I hate the eight hardships.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have any leisure time?

무슨 정¹³⁸⁵)으로 유산?

무슨 정황¹³⁸⁶)에 완월?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뿌렁이¹³⁸⁷)를 뉘 앞에다가 내어놓나?

수궁을 가거드면 태평행락¹³⁸⁸)헐 터기에¹³⁸⁹) 모서가라 허였더니,

화망살기¹³⁹⁰) 사주팔자¹³⁹¹)라 못 간다 허시오니,

선생 신세 생각허니 불쌍허기 짝이 없소.”

36. (수궁 홍미) 별주부가 수궁 사랑을 늘어놓으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래 토끼 가만히 듣더니마는,

“대체 별주부 관상¹³⁹²) 잘허시오.¹³⁹³)

내 팔자가 영락없이 그 뿐이오.¹³⁹⁴)

그래 고향을 떠나면은 팔난살긴가 허는 그것은 면헐 수가 있겠소?”

“아, 그 알기 쉬운 오행¹³⁹⁵) 이치 수극화¹³⁹⁶)를 모르시오?”

“그는 그렇다 치고,

그럼 그 수궁 홍미는 어떠하오?”

“우리 수궁 홍미야 퇴선생이 들으면 대번¹³⁹⁷) 환장¹³⁹⁸)헐 것이오.”

“거 한번 이르시오.¹³⁹⁹) 들어봅시다.”

“그러면 한번 들어나 보시오.”

[진양조] “우리 수궁 별천지¹⁴⁰⁰)라.

천양지간에¹⁴⁰¹) 해내최대¹⁴⁰²)허고,

만물지중의¹⁴⁰³) 신위최령¹⁴⁰⁴)이라.

무변대해¹⁴⁰⁵)에 천여 간¹⁴⁰⁶) 집을 짓고,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Did you think I would buy such a blatant lie?
I wanted to take you to the sea palace because you will be
happy there.
You say, however, you can't go there because you are fated to
die by fire.
Think about your fate, I feel pity for you."

36. (Good Things about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o Hare to go with him.

[Aniri] Hare has been listening.
"Mr. Terrapin, you are good at reading somebody's fate by his
appearance.
My fate is exactly as you described.
Is it true I am going to avoid the eight hardships if I leave my
hometown?"
"Don't you know one of the five principles of nature is that
water defeats fire?"
"That makes sense.
What is great about the sea place?"
"If you hear about it, you will fall in love with it immediately."
"Tell me about it. I want to hear."
"Then, listen to my story."
[Jinyangjo] "My sea palace is a paradise.
The sea is the largest thing between heaven and earth.
God is the most sacred thing in the world.
My palace is wide in the limitlessly large sea.

유리 지등,¹⁴⁰⁷ 호박 주초,¹⁴⁰⁸ 주란화각¹⁴⁰⁹)이 반공예¹⁴¹⁰) 솟았는데,
우리 용왕 즉위허사¹⁴¹¹) 만족¹⁴¹²)이 귀시하고,¹⁴¹³ 창줄¹⁴¹⁴)이 앙
덕¹⁴¹⁵)이라.

왕모 금병 천일주¹⁴¹⁶)와
천빈옥반¹⁴¹⁷) 담은 안주,
불로초¹⁴¹⁸) 불사약¹⁴¹⁹)을 싫도록 먹은 후에,
취흥¹⁴²⁰)이 도도허여¹⁴²¹)
미색¹⁴²²) 기악¹⁴²³) 갖은 풍류¹⁴²⁴)를 대흥선¹⁴²⁵)에다 가득 실코 자언
거수승거산¹⁴²⁶)이라.

요지¹⁴²⁷)로 돌아드니,
칠백 리 군산¹⁴²⁸)은 물 속에 벌여 있고,
삼천사장¹⁴²⁹) 해당화는 약수에¹⁴³⁰) 불었는데,
해내태평¹⁴³¹) 월청명¹⁴³²)
추강상에¹⁴³³) 어적소리¹⁴³⁴)를 화답¹⁴³⁵)하고,
경수¹⁴³⁶) 위수¹⁴³⁷) 낙수¹⁴³⁸) 회수¹⁴³⁹) 양진¹⁴⁴⁰) 포진¹⁴⁴¹) 팽예¹⁴⁴²)
소상¹⁴⁴³) 흑거흑래¹⁴⁴⁴) 왕래헐 적,
적벽강¹⁴⁴⁵) 소자침¹⁴⁴⁶)과 채석강¹⁴⁴⁷) 태백¹⁴⁴⁸) 흥취¹⁴⁴⁹) 예¹⁴⁵⁰) 와
서 알았으면 진세간에¹⁴⁵¹) 왜 있으며,
채약허던¹⁴⁵²) 진시황¹⁴⁵³)과 구선허든¹⁴⁵⁴) 한 무젠들¹⁴⁵⁵) 이런 흥미
를 알았으면, 이 세상에 있을손가?
원컨대 퇴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¹⁴⁵⁶) 저 풍골
예¹⁴⁵⁷) 좋은 벼슬을 헐 것이요,
미색 기악을 밤낮으로 다리고¹⁴⁵⁸) 만세동락¹⁴⁵⁹)을 헐 터이나,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오.”

Glass pillars, jade cornerstones, and multicolored towers rise to the sky.

When my king came to the throne, all the people treasured him and looked up to him.

A thousand-day-old wine brewed by a goddess is in a golden bottle.

A food that can be served to a thousand valuable guests is on a jade tray.

We help ourselves to the elixir of youth and elixir of no death. We drink and feel good.

We enjoy ourselves with beautiful girls on a shiny pleasure boat, thinking the water is better place to live in than a mountain. The boat arrives at a divine pond.

Many mountains are reflected on the pond.

Wild roses are red on a long sandy field of a divine river.

The sea is peaceful, and the moon is bright.

We respond to a fisherman's flute on an autumn river.

We travel to and come back from famous rivers, their tributaries, ports, lakes, and sites famous for scenic beauty.

If ancient poets, Su Dong Po(蘇東坡) and Li Bai(李白), had known the excitement of the sea world, they would not have lived on the land.

If the ancient king who collected medicinal herbs and the ancient king who wanted to become a god had known the pleasures of the sea life, they would not have lived on the land. Given that you look far more majestic than the average,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acquire a high government position.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and music day and night forever.

I don't care whether you come or stay."

37.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를 따라 수궁을 가는데, 여우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한다.

[아니리] 이렇듯 말을 허고 앙금앙금¹⁴⁶⁰ 내려가니,
토끼 따라가며, “여보, 별주부.
그러면 내 우리 산중 친구들한테 인사나 하고 오리다.”
별주부 듣고 허는 말이, “큰 일을 여기저기 묻는 법이 아니오.
각각 소견이 달라
위방¹⁴⁶¹)이니 가지 말라는 이도 있을 테요,
그 일 장히¹⁴⁶² 좋다하고 가라는 이도 있을 테니,
길가에 집짓기란 삼년불성¹⁴⁶³)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우리 아내에게나 말허고 오리다.”
“허허이! 큰일을 아내와 피허다가는 망허는 법이어늘,
아, 수궁 가서 귀히 된 후 쌍교¹⁴⁶⁴) 보내 모셔가면
그 얼마나 좋을 일리오?”
“그러면 그냥 갑세.”¹⁴⁶⁵)
흑선후후¹⁴⁶⁶) 내려갈 제,
[중모리] 자래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쨍깡쨍
원로수변¹⁴⁶⁷)을 내려갈 제,
건년산 바위틈에 여호¹⁴⁶⁸)란 놈이 나았으며,
“여봐라, 토끼야!”
“왜야!”¹⁴⁶⁹)
“너 어디 가느냐?”

37. (Fox's Dissuasion) While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shows up and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After finishing his talk, Terrapin toddles down the mountain.

Hare follows him. "Hello, Terrapin.

If so, let me say goodbye to my friends in mountains and come back."

Terrapin responds, "It is a bad idea to publicize an important matter.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Some might tell you not to go, saying the sea is a dangerous place.

Others might tell you to go, saying that's a great idea.

You can't build a house near a road even in three years."

"If so, let me say goodbye to my wife and come back."

"My goodness! You will fail if you discuss an important matter with your wife.

After you become noble in the sea palace, you can bring her there in a wagon.

How great would that be!"

"If so, let's go."

They go down the mountain alternately ahead and behind.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lair between rocks.

"Hello, hare!"

"Yes!"

"Where are you going?"

“나 수궁 간다.”

“수궁은 무엇허로 가느냐?”

“나 수궁에 베틀하러 간다!”

“허허, 자식 실업인¹⁴⁷⁰ 놈.

불쌍허다, 저 퇴공아.¹⁴⁷¹

녹록헌¹⁴⁷² 네놈 마음 말려 무엇허라마는,

고인¹⁴⁷³이 이르기를 토사호비¹⁴⁷⁴라 허여 있고,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¹⁴⁷⁵에 길들이고,¹⁴⁷⁶

임천¹⁴⁷⁷에 같이 늙어,

비 오고 안개 낀 날 발자취 서로 찾아

일시 이별 마셨더니,¹⁴⁷⁸

저 지경이 웬 일이냐?

옛일을 모르느냐?

자고로¹⁴⁷⁹ 타국에 구사¹⁴⁸⁰ 갔다 못 되면 굶어 죽고, 잘 되면 오
사¹⁴⁸¹허느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라고 하는 데가 한번 가면 못 오느니라.

위방불입¹⁴⁸²이요

난방불거¹⁴⁸³라니,

수궁길을 가지 마라.”

38. (토끼 별주부 강가 당도) 별주부가 토끼를 달래어 산에 서 내려와 강가에 당도한다.

[아니래] 토끼 듣더니 뒤로 발짝 자드라지는데,¹⁴⁸⁴

“여보, 별주부. 잘 가시오.

“I am going to the sea palace.”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I am going there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My goodness. You are a fool.
 How pitiful you are, Mr. Hare!
 You are worthless, so it is of no use to try to stop you.
 A proverb says, however, that if a hare dies, a fox mourns.
 We lived together in a burrow under a rock in this mountain.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here.
 We depended on each other on rainy and foggy days.
 We promised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emporarily.
 I can’t believe what is happening now.
 Don’t you know the old saying?
 If you get a job in a foreign government, you will die of hunger
 at best and die of disaster at worst.
 Don’t go there!
 The sea palace is a place of no return.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A disorderly country is not to be lived in.
 Don’t go to the sea palace.”

**38.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Riverside) Terrapin
 persuades Hare, and they come down from a
 mountain and arrive at a riverside.**

[Aniri] Hearing the fox, Hare falls over on his back.
 “Hello, Mr. Terrapin. Goodbye.

벼슬하면 죽는다니,
 객사¹⁴⁸⁵)하러 갈 수야 있소?
 내 저 여호 사촌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보았소.”
 별주부 기가맥혀,
 “예, 퇴공. 갈라면 잘 가시오.
 좋은 친구 두었으니,
 둘이 가서 잘 지내시오.”
 썩 돌아서며 남의 오장¹⁴⁸⁶) 쭈시는¹⁴⁸⁷) 웃음을 한 번 턱¹⁴⁸⁸) 웃고
 혼잣말로,
 “허허허. 제 복이 아닌 것을 권한다고 될 일인가?”
 양금양금 내려가니,
 토끼 따라가며,
 “여보, 별주부. 내 복이 아니라니,
 그 어떻게 허는 말이오?”
 주부 힐끗이¹⁴⁸⁹) 돌아보며,
 “남의 친구 좋은 정리¹⁴⁹⁰) 낮은¹⁴⁹¹) 말이 부당허나,
 당신이 물으니 내 말이나 허리다.
 사실은 내가 육지에 온 지가 여러 날이오.
 처음에 여호 저 늑을 만나가지고
 저를 데려가 달라 허나,
 간교한 저놈 심술 불가근¹⁴⁹²)하겠기로 못하겠다 떼었더니,¹⁴⁹³)
 이 속을 어찌 알고
 퇴선생을 떼어버리고 제가 따라가볼라고 허는 짓이오.”
 토끼 듣더니, “여보, 별주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저놈 심술이 영낙없이 그렇소.
 내 열 놈이 백 말을 해도 따라가겠소.”

He says I am going to die if I get the government job.
I don't want to die in a foreign country.
But for my cousin, the fox, I would have gotten into big trouble.”
Terrapin is speechless.
“Mr. Hare. Suit yourself.
You have a good friend.
Live happily with him here.”
Turning around, Terrapin bursts into a laughter that hurts Hare's feeling.
He talks to himself.
“Hahaha. It is of no use to offer him a windfall that does not belong to him.”
Terrapin slowly goes down the mountain.
Hare follows Terrapin.
“Hello, Mr. Hare. You said the windfall doesn't belong to me.
What made you say so?”
Turning around, Terrapin glances at Hare.
“It is bad to speak ill of someone's close friend.
Let me do it, though, because you asked.
To be frank, several days have passed since I came to the land.
That fox is the first animal I met.
He asked me to take him to the sea palace.
I rejected his request, thinking he is cunning and bad-tempered.
He knows my thoughts.
He tries to push you off and follow me to the sea palace.”
Hare says, “Hello, terrapin.
Speaking of the fox's character, he is certainly bad-tempered.
I will follow you no matter how many animals try to stop me.”

한참을 따라가더니,

“그러나 저러나 여, 너무 멀어서 다리 아파졌고 어디 가졌소?”

“허허, 또 저런 소리를 허네그려.”

[중모레] “수궁 천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¹⁴⁹⁴) 양혜왕¹⁴⁹⁵)을 가 보았고,

위수¹⁴⁹⁶) 어부 강태공¹⁴⁹⁷)도 문왕¹⁴⁹⁸) 따라 입주¹⁴⁹⁹)허고,

한기도창축도란의 황면장군 한신이¹⁵⁰⁰)도 소하¹⁵⁰¹) 따라 한중¹⁵⁰²)

가서 대장단¹⁵⁰³)에 올랐으니,

퇴선생도 나를 따라 우리 수궁 들어가면, 소년대장¹⁵⁰⁴)을 혈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잡세.”

“그러면 갑세.”

강상¹⁵⁰⁵)을 바라보니,

도용도용¹⁵⁰⁶) 뗏는 배는

한가헌 추강¹⁵⁰⁷) 어부 풍월¹⁵⁰⁸) 실코¹⁵⁰⁹) 가는 뱃가?

십리 장강 벽파상¹⁵¹⁰)에 왕래허던 거래선가?¹⁵¹¹)

야박진회근주가¹⁵¹²)의 술 사 실코 가는 뱃가?

양양창과¹⁵¹³) 노니난¹⁵¹⁴) 게 쌍쌍백구¹⁵¹⁵)가 흘리뗏네.¹⁵¹⁶)

“소소구성양안군¹⁵¹⁷)의 슬피 우는 저 기력아.

가지 말고 게¹⁵¹⁸) 잠판¹⁵¹⁹) 머물러 내의 한 말을¹⁵²⁰) 들어서라.¹⁵²¹)

백운청산¹⁵²²) 노든¹⁵²³) 토끼가 벽해 용궁에¹⁵²⁴) 베풀하러 가드라고,

우리 벗님 앵무전에¹⁵²⁵) 섭섭타 안부를 전하여라.

수궁 가서 귀히¹⁵²⁶) 되면 첫째로 마누라와 벗님도 데려가지.”

잔말¹⁵²⁷)을 허고 내려갈 적,

그 날사말고¹⁵²⁸) 풍일¹⁵²⁹)이 되어,

물결이 ‘위르르르르르 출렁 쉼’ 뒤둥그려¹⁵³⁰) 흘러간다.

They walk for a while.

“By the way, the sea palace is too far. My legs hurt too much.”

“Gosh, you are making the same complaint.”

[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Mencius visited a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followed his king and became his premier.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to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general.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young
general, so don’t worry.”

“Then, let’s go.”

They look at the surface of the river.

A boat moves gently by the waves.

Is it carrying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s it the barge that crossed a wide blue river back and forth?

Is it the boat carrying wine to a bar at night?

Sea gulls fly in pairs over the endlessly wide blue water.

“Wild geese, you sing sadly in a lonely autumn wind.

Don’t go, stay ther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e.

A hare who lived in a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is
going to the dragon palace to get a government position.

Please tell my friend, a parrot, I regret to leave him.

If I become noble in the sea palace, I will take my wife and
my friend there.”

Hare walks along, while whining.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Strong waves of water move away, twisted and crushed.

39. (별주부의 토끼 위협) 토끼가 물이 무섭다고 망설이자,
별주부가 토끼를 힐난하며 포수의 총에 맞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아니리] 토끼 깜짝 놀래,

“아이고, 저 물 봐라.

저 물속에 들어가서 훈련대장은 말고, 날더러 용왕 노릇 허래도 내
저 물 무서워 못 가겠소.

저 물이 짜기한질라¹⁵³¹) 허다는디,

두어 모금만 먹어놓으면 창자가 녹을 테라. 아이고.”

허더니, 따듯헌 양지끝에로 가서,

그 잘 생긴 낫짝을 요리 되작¹⁵³²) 저리 되작 허고 앉었것다.

별주부 기가맥혀,

“예레이,¹⁵³³) 순 잡녀르 자식!

벼슬하러 가자니께 용댕기¹⁵³⁴) 뒷줄 썩기듯¹⁵³⁵) 너무 자썩다.¹⁵³⁶)

올라면 오고, 갈라면 썩 가거라, 이놈!”

[자진모리] “어따,¹⁵³⁷) 이놈아. 썩 가거라!

벼슬하러 간단 놈이 다리 아프다, 물 쓰겼다¹⁵³⁸) 갇은 핑계를 헌단
말이나?

장부¹⁵³⁹) 의심이 많거드면 대소성사¹⁵⁴⁰) 못 허느니라.

너 생긴 모냥새¹⁵⁴¹)가 무슨 복이 들었으랴?

인중¹⁵⁴²) 밑 짜룬¹⁵⁴³) 것은 단명격¹⁵⁴⁴)이 분명허고,

눈에는 화망살¹⁵⁴⁵)이라.

내일 일모시¹⁵⁴⁶)에 김포수¹⁵⁴⁷) 날랜 총 네놈의 징구리¹⁵⁴⁸) 들이대
고,¹⁵⁴⁹) 우루루루루 쿵!”

39. (Terrapin Threatens Hare.) Hare hesitates, saying he is afraid of water. Terrapin threatens Hare, saying Hare will be shot by a hunter.

[Aniri] Hare is frightened.

“My goodness. Look at that water.

The water is so frightening that I can’t get in even if I were to become the dragon king himself, let alon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Besides, I heard that water is salty.

If I take a few sips of it, my intestines will melt. My god.”

After he finishes talking, Hare goes to a sunny place.

He sits down and brushes his good-looking face with his fore legs.

Terrapin is dumfounded.

“How stupid and foolish you are!

I just want to get you a government job, but you are not pliable.

Follow me or get lost. You villain!”

[Jajinmori] “You scoundrel! Gest lost!

How can you, a prospective employee, complain your legs hurt and you might gulp water?

If you doubt a lot, you can accomplish nothing.

There is nothing fortunate about your look.

The short line in your upper lip indicates you will surely die young.

Your red eyes signify you will die by fire.

At sunset tomorrow, a fast hunter will point his rifle at your head. Bang, bang!”

40. (범피중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수궁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토끼 깜짝 놀래,

“아이그, 여보시오. 그 콧 소리 좀 빼고 말 좀 하시오.

그런디 수궁에는 총 없소?”

“여보시오. 아, 총이라 허는 것이 불이 일어나야 나가는 것인디,
물 속에서 총이 있은들 어떻게 쏠 것이오?”

“그러면 좋은 수¹⁵⁵⁰)가 있소.

내가 버드나무가지 하나를 딱 잡고 몸을 물에다 점거보아¹⁵⁵¹)

물이 목물¹⁵⁵²)만 지면¹⁵⁵³) 가려니와,

더 깊으면 갈 수 없소.”

“아, 그는 처분대로¹⁵⁵⁴) 하시오.”

토끼가 버드나무가지 하나를 딱 잡더니,

“자, 내려가오.

어디만큼 닿는가 보시오. 자!”

자라라 허는 건 물에서 나는 짐생¹⁵⁵⁵)이라,

편전¹⁵⁵⁶) 살같이 쭈루루루루 들어가서,

토끼 뒷다리를 짹 물고 물 속으로 울룩울룩¹⁵⁵⁷) 울룩울룩 울룩울룩
들어가니,

토끼 일변 물을 키면서,¹⁵⁵⁸)

“아푸! 아푸! 아이고, 이놈 나 죽겠다. 좀 놓아라!”

“네 이놈 잔소리 마라.”

“아이고, 똥 싸겠다!”

“똥 싸라.”

“뒷지¹⁵⁵⁹)는 뭘로 허고야?”

**40. (On the Sea).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Aniri] Hare is horrified.

“My goodness. Cut the word ‘bang’ out of your language.

By the way, aren’t there rifles in the sea palace?”

“Look, a rifle can’t be triggered without fire.

A rifle can’t be fired in water.”

“Then, I’ve got an idea.

I will hold a willow branch and dip myself in the water.

If the water stays below my neck, I will go.

If the water is deeper, I won’t go.”

“Regarding the matter, suit yourself.”

Hare holds a willow branch.

“I am going down.

Check for yourself how deep the water is.”

Terrapin is a marine animal.

It slides down to water like a swift arrow.

It bites one of Hare’s hind legs and goes into the water
forcefully.

Hare swallows water.

“Help me! I am dying. Let go of me!”

“You fool! Shut up.”

“Oh, I have to take a shit!”

“Go ahead.”

“Is there any toilet paper?”

“너른 물에 훌렁훌렁허면 목욕 삼아 좋으니라.
 아가리 벌리지 마라.
 잔물 들어가면 병어리 될 것이다, 이놈.
 내 등에 가만히 얹져¹⁵⁶⁰⁾ 세상 구경이나 허소.”
 별주부 토끼를 업고 수궁을 들어가는데,
 [진양조] 범피중류¹⁵⁶¹⁾ 등등등¹⁵⁶²⁾ 떠나간다.
 망망¹⁵⁶³⁾헌 창해¹⁵⁶⁴⁾이며,
 탕탕헌¹⁵⁶⁵⁾ 물결이로고나.
 백빈주¹⁵⁶⁶⁾ 갈매기는 홍요안¹⁵⁶⁷⁾으로 날아들고,
 삼강¹⁵⁶⁸⁾의 기러기는 한수¹⁵⁶⁹⁾로 돌아든다.
 요량헌¹⁵⁷⁰⁾ 남은 소리 어적¹⁵⁷¹⁾인가 여겼더니,
 곡종인불견에¹⁵⁷²⁾ 수봉¹⁵⁷³⁾만 푸르렀네.¹⁵⁷⁴⁾
 애내성중만고수¹⁵⁷⁵⁾는 날로 두고 이름인가?
 장사¹⁵⁷⁶⁾를 지내가니 가태부¹⁵⁷⁷⁾는 간 곳 없고,
 먹라수¹⁵⁷⁸⁾를 바라보니 굴삼려¹⁵⁷⁹⁾ 어복충훈¹⁵⁸⁰⁾ 무량¹⁵⁸¹⁾도 허시든
 가?
 황학루¹⁵⁸²⁾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쳐시오?
 연파강상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인가?¹⁵⁸³⁾
 봉황대¹⁵⁸⁴⁾를 다다르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¹⁵⁸⁵⁾는 이태백이 노든¹⁵⁸⁶⁾ 데요,
 심양강¹⁵⁸⁷⁾을 돌아드니, 백락천¹⁵⁸⁸⁾ 일거후에¹⁵⁸⁹⁾ 비파성¹⁵⁹⁰⁾도 끊
 어졌다.
 적벽강¹⁵⁹¹⁾을 그저¹⁵⁹²⁾ 가랴?
 소동파¹⁵⁹³⁾ 놀던 풍월¹⁵⁹⁴⁾ 의구히¹⁵⁹⁵⁾ 있다마는,
 조맹덕¹⁵⁹⁶⁾ 일세지웅¹⁵⁹⁷⁾ 이금의 안재재요?¹⁵⁹⁸⁾

“Shake your body in water. That will be a good bath.
 Don’t open your mouth.
 Salty water can make you dumb, you villain.
 Just enjoy the beautiful scenery on my back.”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Jinyangjo] Terrapin and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watch a river and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hey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Terrapin and Hare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drop by Chibi River(赤壁江).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Su Dong Po(蘇東坡) enjoyed himself.
 Cao Cao(曹操), a hero in ancient times was here, but he has
 gone.

월락오제¹⁵⁹⁹) 깊은 밤에 고소성¹⁶⁰⁰)에 배를 매니,
 한산사¹⁶⁰¹) 쇠북소리¹⁶⁰²)는 객선에¹⁶⁰³) 텅텅 이르는구나.¹⁶⁰⁴)
 진회수¹⁶⁰⁵)를 건너가니,
 격강¹⁶⁰⁶)의 상녀들¹⁶⁰⁷)은 망국한¹⁶⁰⁸)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헌디¹⁶⁰⁹) 후정화¹⁶¹⁰)만 부르더라.¹⁶¹¹)
 한 곳을 당도허니 금계소리¹⁶¹²)가 쟁그랑쟁 들리거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백옥¹⁶¹³) 현판¹⁶¹⁴)에 황금 대자¹⁶¹⁵)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뚜렷이 새겼거늘,
 토끼가 보고 좋아라 한다.

41. (토끼 잡아들임) 나졸들이 토끼를 잡아들이려 하자, 자 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리] “과연 갇기는 갇소마는, 들어와보니 별유천지¹⁶¹⁶)요.
 이러한 좋은 경치에 풍월 한 수¹⁶¹⁷) 못해서야 훈련대장 허겠느냐?”
 (시창) “산중유객이 도수궁허니, 사해풍광이 입안중을.”¹⁶¹⁸)
 [아니리] “좋소, 좋아.
 어서 들어가 하관말직¹⁶¹⁹)이라도 좋으니 참석이나 좀 시켜주시오.”
 “아, 글랑¹⁶²⁰) 그리허오.”
 땅을 동고름허게¹⁶²¹) 그려주며,
 “여기 가만히 앉어 계시다가,
 ‘토끼 잡어들여라’허는 청령¹⁶²²)이 내리드래도 부디 놀래지 마시오.”
 토끼 깜짝 놀래,
 “아니, 거 어떻게 허는 말이요?”

A boat casts an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boat with
a traveler.
They cross a canal.
Bar girls across the river did not know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only sang a song when thick fog hung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was shiny on the sandy field.
They arrive at a place and hear the sound of a golden pheasant.
They raise their eyes and see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Hare is pleased to see it.

41. (The Arrest of Hare) Guards try to arrest Hare, and Hare denies he is a hare.

[Aniri] This place is deep, but it is a paradise.
How can I become a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f I can't recite
a poem in this beautiful site?"
(Poetic Mode) "A guest from a mountain arrives in the sea
palace. Marine scenes enter eyes from all directions."
[Aniri] "Good, good.
I wouldn't mind a low position if you just let me in the sea
palace."
"Oh, don't worry about that."
Terrapin draw a circle on the ground.
"Sit tight right here.
Don't be surprised even if you hear an official order 'Arrest
Hare.'
Hare is astonished.
"What on earth are you saying?"

“예, 저세상¹⁶²³ 같거든¹⁶²⁴ ‘훈련대장 입시¹⁶²⁵ 들래라’¹⁶²⁶허는
 분부이니,
 부디 놀래지 마시오.
 내 들어가서 남여¹⁶²⁷ 가지고 나오리다.”
 “그렇다니 그리허오리다마는 법인즉 드립소.
 내가 훈련대장 되면, 내 기양¹⁶²⁸ 그 법 착 뜯어고칠랴요.”
 “하, 그는 처분대로 허시오.”
 별주부 영덕전 너룬¹⁶²⁹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¹⁶³⁰이오!”
 용왕이 반겨허사,¹⁶³¹
 “수로 만리를 무사히 왕래하였으며,
 토끼는 어찌 되었는고?”
 “토끼를 생금¹⁶³²하여 삼문¹⁶³³ 밖에 대령¹⁶³⁴허었나이다.”
 “그러면 네 토끼 바빠 잡아들여라.”
 영이 내려노니,
[자진모리] 좌우 나줄¹⁶³⁵에 별군직¹⁶³⁶과 수많은 도루목¹⁶³⁷ 금
 군¹⁶³⁸ 모조리¹⁶³⁹ 순령수¹⁶⁴⁰ 영을 듣고,
 청사¹⁶⁴¹ 홍사¹⁶⁴² 오랏줄¹⁶⁴³을 허리 아래 빗겨¹⁶⁴⁴ 차고,
 와르르르르 내달아서 퇴끼를 에워쌀 제
 진황¹⁶⁴⁵ 만리장성¹⁶⁴⁶ 쌓듯,
 산양 싸움에 마초 쌓듯¹⁶⁴⁷ 첩첩이 둘러쌓고,¹⁶⁴⁸
 퇴끼 들입다¹⁶⁴⁹ 잡는 거동¹⁶⁵⁰ 영문출사¹⁶⁵¹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꼭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막혀 벌렁벌렁 떨어,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The order means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see the dragon king in the place' in the language of the land."

Don't be surprised.

I will go inside and bring a carriage."

"I'll do as you told me to do, but the law is sick.

If I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 will change the law without hesitation."

"Oh, suit yourself on that matter."

Terrapin kneels down in the wide yard in the palace.

"Your Majesty, this is Terrapin from the land!"

The king is glad to see him.

"How was your long trip in the sea?

Did you bring a hare?"

"I brought a hare alive. He is waiting outside."

"If so, bring the hare here right away."

The order is given.

[Jajinmori] Sailfin sandfish and gray mullets are royal soldiers and guards. They carry out the king's order.

They carry blue and red ropes around their waists.

They rush to Hare and surround him,

as if an ancient Chinese emperor constructed the Great Wall,

and as if an ancient warrior was surrounded by his enemy.

They treat Hare harshly as if they had arrested a bandit.

They grab Hare by his ears tightly.

"Are you a hare, bastard?"

Stunned, Hare trembles.

"My goodness! I am not a hare."

“이놈, 그러면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달음¹⁶⁵²)에 너를 잡아 약개장¹⁶⁵³)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¹⁶⁵⁴) 달여¹⁶⁵⁵) 먹고,
네 껌줄¹⁶⁵⁶) 벗겨내어 잘량¹⁶⁵⁷) 무어서¹⁶⁵⁸) 깔거드면,¹⁶⁵⁹)
어혈¹⁶⁶⁰) 내종¹⁶⁶¹) 혈담¹⁶⁶²)에는 만병회춘¹⁶⁶³)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고 송아치¹⁶⁶⁴)요!”

“소 같으면은 더욱 좋다.

도탄¹⁶⁶⁵)에 너를 잡아
두피,¹⁶⁶⁶) 족,¹⁶⁶⁷) 살찐 다리,
양,¹⁶⁶⁸) 횃간,¹⁶⁶⁹) 처넙,¹⁶⁷⁰) 콩팔
후박없이¹⁶⁷¹) 노뽕¹⁶⁷²) 먹고,
네 속에 든 우황¹⁶⁷³)은 값 중헌¹⁶⁷⁴) 약이 되고,
네 뺨 빼어서 활도 매고,¹⁶⁷⁵)
네 가죽 벗겨내어 신도 짓고,¹⁶⁷⁶) 복도 매고,
똥 오줌은 거름허니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 송아치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고 망아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죽이라,¹⁶⁷⁷)
요단향장천리마로다.¹⁶⁷⁸)
연인¹⁶⁷⁹)은 오백금¹⁶⁸⁰)으로 죽은 뼈도 사갔으니,¹⁶⁸¹)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¹⁶⁸²)에 바쳤으면 천금상¹⁶⁸³)을 아니 주랴?

“You rat!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liver will be boiled down with a black chicken.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as a mat.

It is effective for slow blood flow, sore organs, and bloody phlegm.

Let’s take this puppy to the king.”

“Oh my god. I am not a dog but a calf!”

“A calf is far better.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plump leg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n expensive medicine.

Your horn will be used to make a bow.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Alas! I am not a calf but a colt!”

“A colt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man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들거라, 우!”

토끼를 결박¹⁶⁸⁴하여 빨그란 주장대¹⁶⁸⁵로 꼭 찢러 드리메니,¹⁶⁸⁶

토끼 하릴없어 대랑대랑 매어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오야!”¹⁶⁸⁷

“나 탄 것, 이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궁 남여다.”

“아이고, 이 네기를 붙을¹⁶⁸⁸ 남여를 두 번만 타거드면 옹두리뻘¹⁶⁸⁹

도 안 남겠다.”

영덕전 너룬¹⁶⁹⁰ 뜰에 동맹이쳐,¹⁶⁹¹

“토끼 잡어들었소!”

42. (토끼의 피) 용왕이 배를 가르라고 하니, 토끼가 피를 내어 뱃속에 간이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토끼 잡혀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지장¹⁶⁹²과 천택지신¹⁶⁹³이며 무수헌 어병지줄¹⁶⁹⁴이 좌우로 옹
위¹⁶⁹⁵하였거늘,

저양¹⁶⁹⁶이 축번¹⁶⁹⁷에 진퇴유곡¹⁶⁹⁸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되라.¹⁶⁹⁹

눈만 깜작깜작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분부하시되,

“토끼 네 들으라.

내 우연히 병이 들어 사경¹⁷⁰⁰에 이르러,

명의다려¹⁷⁰¹ 문의한즉¹⁷⁰²

Carry him inside!"

They tie Hare with a rope, push a red stick between his legs,
and carry him on their shoulders.

Unavoidably, Hare hangs on the stick.

"Alas! You scoundrel! Terrapin!"

"Yes!"

"What is this thing I am on?"

"Oh, that i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Ouch. If I ride this darn carriage twice, my bod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We have brought Hare here!"

**42. (Hare's Trick) The dragon king gives the order to
open Hare's belly. Hare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Taken inside, Hare takes a look around.

On the left and right are numerous soldier fishes from rivers,
streams, and ponds.

Hare can move neither forward nor backward.

He cannot help dying.

He blinks his eyes in anxiety.

The dragon king speaks.

"Hare, listen to me.

I happened to catch a serious disease.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어오게 하였으니,
 죽노라 설워 말라.
 네가 이제 죽드래도 너의 그 몇몇한 이름 사기¹⁷⁰³⁾ 중에서 찾게 될
 것이요,
 너의 육신은 안장¹⁷⁰⁴⁾헌 연후 기린각¹⁷⁰⁵⁾ 능허대에¹⁷⁰⁶⁾ 너의 이름을
 새기게 할 것이며,
 정조¹⁷⁰⁷⁾ 한식¹⁷⁰⁸⁾ 단오¹⁷⁰⁹⁾ 추석에는 너의 제사도 받들게 할 것이니,
 죽노라 설워 말라.
 네 토끼 배 급히 갈라,
 간을 더운 짐에¹⁷¹⁰⁾ 소금 찍어 올려라!”
 토끼란 놈 훈련대장 혈 줄 알고 들어갔다
 이 말을 들어노니 기가 콕 맥힐 지경이라.
 한 피를 얼른 생각해 가지고,
 배를 대왕 앞에 톱¹⁷¹¹⁾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¹⁷¹²⁾
 아, 용왕이 생각현즉, ‘저놈이 배를 안 때일라고¹⁷¹³⁾ 발싸심¹⁷¹⁴⁾을 혈
 터인디,
 서슴없이 저렇게 배를 톱 내미는 것이 필유곡절¹⁷¹⁵⁾이라.’
 “아니, 그 어떻게 된 일인지, 혈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
 “아니오. 내 뱃속에 간이 없다 해도 곧이듣지¹⁷¹⁶⁾ 안혈 모양이요,
 내 배를 따보아야 알 일이니,
 내 배를 따보시오.”
 “그리 말고 말을 해보아라!”
[중모레]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He said your liver is the best medicine.
 I sent a loyal official to bring you here.
 Don't resent your death.
 You will die, but your shiny name will be found in a history book.
 Your body will be respectfully buried, and your name will be engraved on a tower.
 Rituals will be held for you on New Year's Day, April 4th, and May 15th, and August 15th.
 Don't grieve over your death.
 Open Hare's belly immediately.
 Put his warm liver on salt and bring it to me!"
 Hare came to the sea palace, believing he would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After hearing the dragon king, he is struck dumb.
 He thinks up a trick right away.
 He sticks out his belly boldly.
 "Well, open my belly."
 The king thinks Hare should go wild, refusing to have his belly opened.
 There must be reason why Hare sticks out his belly without hesitation.
 "What is going on?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go ahead."
 "Well, you will not believe it, but I don't have a liver in my belly.
 Open my belly and check for yourself.
 Open my belly."
 "Cut it out, and talk to me!"
[Jungmori] "Let me tell you the truth, Your Majesty.
 Let me tell you the truth, Your Majesty.

태산이 봉퇴허고¹⁷¹⁷⁾ 오성¹⁷¹⁸⁾이 음음힌디,¹⁷¹⁹⁾
 시일갈상¹⁷²⁰⁾ 노래소리 억조창생¹⁷²¹⁾ 원망 중에,
 탐학한¹⁷²²⁾ 상주임군¹⁷²³⁾이 성현¹⁷²⁴⁾의 뱃속에 칠궁기¹⁷²⁵⁾ 있다 허고,
 비간¹⁷²⁶⁾의 배를 갈라 무고히¹⁷²⁷⁾ 죽였은들 일곱 궁기¹⁷²⁸⁾ 없었으니,
 소퇴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뉘를 다려¹⁷²⁹⁾ 달라허며, 어찌 다시 구하리오?
 당장의 배를 따 보옵소서.”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이놈! 네 말이 당찮허다.¹⁷³⁰⁾
 의서¹⁷³¹⁾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¹⁷³²⁾허고,
 담수병즉설불능언¹⁷³³⁾허고,
 신수병즉이불능청¹⁷³⁴⁾허고,
 간수병즉목불능시¹⁷³⁵⁾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어찌 보느냐?”
 “소퇴가 아뢰리다.
 천상의 영허지리¹⁷³⁶⁾ 달이 말아 있삽기로,
 망전¹⁷³⁷⁾에는 차옴다가 망후¹⁷³⁸⁾ 되면 줄어지니 달의 별호¹⁷³⁹⁾ 옥
 토¹⁷⁴⁰⁾웁고,
 지상에 진퇴지리¹⁷⁴¹⁾ 조수¹⁷⁴²⁾가 맡엿기로,
 사리¹⁷⁴³⁾에는 물이 많고 조금¹⁷⁴⁴⁾에는 적삽기로¹⁷⁴⁵⁾ 조수 별호 삼
 토¹⁷⁴⁶⁾온 바,
 소퇴의 간인즉 달빛 같고, 조수 같아
 망전에는 배에 넣고, 망후 되면 밖에 두어
 진퇴영허허는고로¹⁷⁴⁷⁾ 영약이라 허옵니다.
 간을 내어 밖에 둘 때에는, 소퇴만 얼른허면¹⁷⁴⁸⁾ 세상의 병객¹⁷⁴⁹⁾들
 이 간 좀 달라고 보채기로,¹⁷⁵⁰⁾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f you open my belly but can't find a liver, how would you get a liver?
 Open my belly right away."
 Listening to him, the dragon king gets mad.
 "You rat! That's nonsense.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 Majesty.
 The moon becomes large and small in heaven.
 It becomes large before the full moon and small after the full moon, so it has another name.
 On earth, tide becomes high and low.
 There is a lot of water at high tide and a little water at low tide, so tide has another name.
 My liver is tuned to the moon and the tide.
 I put my liver inside my belly before the full moon and outside my belly after the full moon.
 My liver is a wonder medicine because of the phases of the moon and the tide.
 I take great care when I take my liver out because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간을 내어 파초 앞에다 꼭꼭 싸서,
 취노¹⁷⁵¹⁾로 칭칭 동여,¹⁷⁵²⁾
 예수¹⁷⁵³⁾ 석산¹⁷⁵⁴⁾ 계수나무 느리진 상상가지¹⁷⁵⁵⁾ 끝끝터리에¹⁷⁵⁶⁾
 달아매고,
 도화유수¹⁷⁵⁷⁾ 옥계변¹⁷⁵⁸⁾에 탁족허로¹⁷⁵⁹⁾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서,
 수궁 흥미가 좋다허기로
 완경차로¹⁷⁶⁰⁾ 왔나이다.”
 용왕이 듣고 분¹⁷⁶¹⁾을 내어,
 “이놈! 네가 그 말이 모두 다 거짓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¹⁷⁶²⁾은 다를 바가 없는데,
 어찌 네가 간을 내고¹⁷⁶³⁾ 들이고 임의로¹⁷⁶⁴⁾ 출입현단 말이냐?”
 “소퇴가 아뢰리다.”
 토끼가 당돌히 여짜오되,
 “대왕은 도지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¹⁷⁶⁵⁾
 태호 복희씨¹⁷⁶⁶⁾는 어찌하여 사신인수¹⁷⁶⁷⁾가 되었으며,
 염제 신농씨¹⁷⁶⁸⁾는 어떤 일로 인신우수¹⁷⁶⁹⁾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허웁고,¹⁷⁷⁰⁾
 소퇴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리 묘뚝¹⁷⁷¹⁾허웁고,
 대왕의 옥체¹⁷⁷²⁾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퇴의 몸에는 털이 요리¹⁷⁷³⁾ 송살송살,¹⁷⁷⁴⁾
 까마구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쓸개 있고, 오후 까마구 쓸개 없는데,
 인생 만물 비금주수¹⁷⁷⁵⁾가 한 가지라 뻑뻑¹⁷⁷⁶⁾ 우기니 답답치 아니허
 나이까?¹⁷⁷⁷⁾
 당장에 배를 따 보옵소서.”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I can have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am here for sightseeing.”
 After hearing Hare, the dragon king gets infuriated.
 “You bastard! All of what you said is a lie.
 For humans and beasts, a liver is no different from other organs.
 How can you take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Let me explain, Your Majesty.”
 Hare speaks boldly.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long tail?
 What made my tail this short?
 Why does Your Majesty have shiny scales?
 Why is my body covered with soft hair?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Open my belly quickly.”

용왕이 그제야 돌리느라고,¹⁷⁷⁸⁾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란 궁기¹⁷⁷⁹⁾가 셋이 나란히 있으니,

“저 궁기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궁기로는 힘을 주어 간을 임의로 내나이다.”

“그러하면 네 간을 어느 궁기로 넣고, 어느 궁기로 내느냐?”

“입으로 삼켜 넣사옵고, 밑궁기¹⁷⁸⁰⁾로 내웁기에¹⁷⁸¹⁾

만물시생¹⁷⁸²⁾

동방삼팔목,¹⁷⁸³⁾

남방이칠화,¹⁷⁸⁴⁾

서방사구금,¹⁷⁸⁵⁾

북방일육수,¹⁷⁸⁶⁾

중앙오십토,¹⁷⁸⁷⁾

천지 음양 오색광채,¹⁷⁸⁸⁾ 아침 안개, 저녁 이슬에 화하여¹⁷⁸⁹⁾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웁기에,¹⁷⁹⁰⁾

만병회춘¹⁷⁹¹⁾ 명약이라.

으뜸 약이 되나이다.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허였으면, 간을 콩알만치 들여다

가 대왕 환후¹⁷⁹²⁾ 즉차¹⁷⁹³⁾허고,

The dragon king is finally taken in,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Yes, I have.”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in detail.
I used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e.
I squeeze my belly and take my liver out at my will through my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harmonized with the negative and positive energy of the earth and the sky, the five brilliant colors, the morning fog, and the evening dew.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last hole.
My liver is a panacea.
It is the best medicine.
How stupid Terrapin is!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while we were on land, I would have brought a little bit of my liver and the king would be cured instantly.

너도 나도 충성이 나타나 양주¹⁷⁹⁴) 양합¹⁷⁹⁵) 좋을 것을.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¹⁷⁹⁶)이 쓸 데가 없구나.”

43. (별주부 간언) 별주부가 토끼의 말이 거짓이라며 배를 가르자고 주장한다.

[아니래] 이렇듯 토끼가 말을 하니,
용왕이 가만히 들어본즉 이치가 그럴 듯한지라.
나졸들을 불러, “네 토끼 해박¹⁷⁹⁷)하라!”
토끼 결박을 끄른¹⁷⁹⁸) 후에 사정조로¹⁷⁹⁹) 물으시되,
“네 간이 아니면 짐¹⁸⁰⁰)의 병을 못 고친다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소퇴가 나가오면 소퇴 간뿐만 아니오라, 한 데 걸린 다른 간을 많이
가져오련마는,
소퇴 먹은 마음 대왕께서 짐작 못하시리니,
소퇴는 옥에 가두어 두시고 별주부 혼자 보내시되,
소퇴 지어미¹⁸⁰¹)에게 소퇴 편지 써서 보내면 간 찾아 보낼 테니,
그리하게 하옵던지,
소퇴를 민사웁거든 별주부와 같이 보내주시던지
처분대로 하옵소서.”
[진양조] 별주부가 곁에 서서 전후 문답을 가만히 듣더니만 혼잣말로,
‘저놈을 데려올 때에도 술한 고생을 허였는디,
하물며 저놈의 계집이란 지면¹⁸⁰²)도 없는 터에 어디 가서 찾아 보며,
설령 만나본다기로 그 동안에 개가¹⁸⁰³)허여 다른 서방¹⁸⁰⁴) 얻었으면,

You and I would have become loyal subjects and good friends.
Terrapin, how stupid you are!
It is of no use however regretful you are.”

**43. (Terrapin’s Counsel) Terrapin proposes to open
Hare’s belly, saying Hare is telling a lie.**

[Aniri] Hare finishes talking.

Listening to Hare’s story, the king is convinced.

He says to the guards, “Set Hare free!”

After releasing Hare, the king asks nicely.

“Without your liver, my disease can’t be cured.

What should I do?”

“If I go out, I will bring not only my liver but also a lot of other
livers hanging with my liver.

Your Majesty, I suppose you don’t trust me.

Confine me in a prison and send Terrapin for the livers.

If I write a letter to my wife, she will find the livers for Terrapin.

There is an alternative.

If you trust me, you can send me and Terrapin together to the
land.

It’s up to you, Your Majesty.”

[Jinyangjo] Listening to the conversation, Terrapin talks to
himself.

‘I went through a lot of hardships to bring that bastard over
here.

Besides, I have never seen his wife, so it is not clear where I
can find here.

Even if I find her, she might already be remarried to another
hare.

그 전 서방 생사여부¹⁸⁰⁵)를 생각할 리 있겠느냐.’
 용왕전 여짜오되,
 “퇴간 출입헌단 말이 사기¹⁸⁰⁶)에도 없사오며,
 이치¹⁸⁰⁷)에도 부당허니,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소신¹⁸⁰⁸)이 양계¹⁸⁰⁹)에 다시 나가 망전
 퇴¹⁸¹⁰)를 한사결단¹⁸¹¹) 잡아다 탐전에¹⁸¹²) 대령을 할 것이니,
 배를 갈라 보옵소서.”

44. (토끼의 별주부 할난) 토끼가 별주부의 죄를 들먹이며 할난한다.

[아니래] 토끼 가만히 들어본즉
 다시 죽을 고비에 걸린 모양이라.
 또 한 피를 얼른 생각해 가지고,
 별주부 저놈을 말을 못하게 참소¹⁸¹³)를 시키리라 하고,
 “별주부 네 이놈!
 네 소행¹⁸¹⁴)을 아까부터 대왕전에 사뢰려다가,¹⁸¹⁵
 그래도 정리¹⁸¹⁶)를 생각하여 개구치¹⁸¹⁷) 앓았더니,
 네 놈의 허는 거동 갈수록 꽤썸쿠나, 이놈!”
 [자진모리]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통정¹⁸¹⁸)을 허였으면, 그날이
 보름날이라, 우리들 수백 명이 함께 간을 내는 날이니,
 그 중에 나이 먹고 약이 가득 찬 좋은 간을 열 보¹⁸¹⁹)라도 얻었을 걸,
 네 놈이 음흉¹⁸²⁰)하여 혼련대장하러 가자 돌아오려고¹⁸²¹) 속였으니,
 첫째, 그것이 네놈의 죄요,
 환후가 위중¹⁸²²)허니,

She won't care whether her exhusband is alive or dead.'
Terrapin speaks to the king.
"A history book doesn't say anything about a hare's removing
and replacing his liver.
That does not stand to reason either.
If his belly is cut open and there is no liver, I will go back to
the land, catch a hare before the full moon at all costs, and bring
him to you.
Please cut his belly open, Your Majesty."

44. (Hare Scolds Terrapin.) Hare reproaches Terrapin, bringing up his wrongdoing.

[Aniri] Hare has been listening to Terrapin.
His life seems to be in jeopardy again.
He hits upon another trick.
He intends to silence Terrapin by bringing a false charge against
him.
"Terrapin, you scoundrel!
For a while now, I wanted to speak to the king about your bad
deeds.
However, I didn't open my mouth because of our friendship.
The way you behave grows disgusting. You villain!"
[Jajinmori] "When we first met, it was full moon when hundreds
of hares took out their livers.
If you had told me the truth, we would have gotten ten mature
livers full of medicinal power.
Wicked, however, you made a false proposal that I will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That's your first fault.
The king is seriously ill.

너와 같이 또 나가서 간을 속히 가져와야 환후 쾌차¹⁸²³허실 텐디,
또 고생 안 하려고 나만 어서 죽이라 하느냐?

네놈의 생긴 모양 은목단죽,¹⁸²⁴

장경오훼,¹⁸²⁵

콧구멍이 그다지 좁고

무슨 국량¹⁸²⁶이 들었으며,

날 죽여 간 없으면 어떤 토끼를 다시 보며, 또 그런 피로 돌르랴
냐?¹⁸²⁷

수궁에 베풀하러 너를 따라 내가 간 줄을 산중이 다 아는데,
나는 다시 아니 가고 너 혼자만 또 나가면, 산중의 친구들이 날 데려
다가 어디에다 두고 누구를 호리려¹⁸²⁸ 또 왔느냐?

선차¹⁸²⁹ 목줄기¹⁸³⁰ 따귀¹⁸³¹ 치고,

후차로¹⁸³² 덜미¹⁸³³ 삼리¹⁸³⁴ 걸이치고,¹⁸³⁵

네 다리 종지뻘,¹⁸³⁶ 신다리¹⁸³⁷ 복성씨¹⁸³⁸ 후닥¹⁸³⁹ 지끈¹⁸⁴⁰ 달려
들면,

토끼는 고사허고

네 목숨이 위태허리니,

네놈은 네 죄려니와

대왕 환후는 어찌허랴?

네놈이 충신이나?

나라 망혈 망신¹⁸⁴¹이로다.”

45.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에 속아, 큰 잔치를 베풀 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레] 별주부는 말이 없고,

His Majesty will recover only if you and I bring a liver quickly.
 You, however, don't want to go through the hardship, only
 trying to kill me.
 Your eyes are small, and your legs are short.
 Your neck is long, and your mouth is curved.
 Your nostrils are narrow.
 You are not broad-minded.
 If you kill me and there is no liver, how can you come across
 another hare and what trick will you play on him?
 All the animals in the mountain know I followed you to the sea
 palace to get a government job.
 If I stay here and you go there alone, my friends in the mountain
 will ask you where I am and whom you will deceive again.
 They will hit you on the back of your neck and cheeks.
 They will kick you on the backbone and the back of your knees.
 They will attack swiftly the front of four knees, your legs, and
 your ankle bones.
 Forget about a hare.
 Your life will be in danger.
 Forget about your guilt.
 What are we to make of the king's disease?
 Are you a loyal official?
 You are a bad official."

**45.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Fooled by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Terrapin is silent.

용왕이 가만히 들어본즉 모두가 사리에 합당¹⁸⁴²)한지라,
 별주부를 꾸짖어 왈,
 “당초에¹⁸⁴³) 통정을 못한 경¹⁸⁴⁴)이 미련허였도다.
 그러나 왕사¹⁸⁴⁵)는 물론하고,¹⁸⁴⁶)
 네 퇴생원님을 부엌¹⁸⁴⁷)하여 이 전상¹⁸⁴⁸)으로 모시어라.”
 용왕 좌우에 모신 시녀¹⁸⁴⁹) 일시에 내려가서
 토끼를 부엌¹⁸⁴⁷)하여 전상으로 모신 후에,
 용왕 다시 분부하시되,
 “네 대연¹⁸⁵⁰)을 배설¹⁸⁵¹)하여 퇴생원님을 위로하라!”
 잔치를 채리는데,
 운모¹⁸⁵²) 병풍 둘러 치고,
 수정렴¹⁸⁵³) 높이 걸고,
 차담상¹⁸⁵⁴)을 올리고,
 팔선녀¹⁸⁵⁵)를 부르고,
 수국 풍악¹⁸⁵⁶)이 낭자¹⁸⁵⁷)할 제,
[엇모레] 왕자 진¹⁸⁵⁸)의 봉피리,¹⁸⁵⁹)
 광처사¹⁸⁶⁰) 죽장고,¹⁸⁶¹) 성연자¹⁸⁶²) 거문고,
 장량¹⁸⁶³)의 옥통소,¹⁸⁶⁴) 해강¹⁸⁶⁵)의 해금¹⁸⁶⁶)이며,
 완적¹⁸⁶⁷)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¹⁸⁶⁸)
 능과사¹⁸⁶⁹) 보허사¹⁸⁷⁰)
 우의곡¹⁸⁷¹) 채련곡¹⁸⁷²)을 곁들여 노래할 적,
 낭자¹⁸⁷³)헌 풍악¹⁸⁷⁴)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토끼도 신명내어¹⁸⁷⁵) 앞발을 뻗적 들고 출랑출랑¹⁸⁷⁶) 논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약일레라, 약이여.
 퇴간이 명약일레.

Hearing Hare out, the dragon king is persuaded of all of his story.

The king criticizes Terrapin.

“It was stupid of you not to tell Hare the truth.

Let’s forget about the past.

Help Mr. Hare to move up here in front of me.”

Maids on the left and right of the dragon king go down at once.

They help Hare to walk to face the dragon king.

The dragon king gives an order again.

“Throw a big party and serve Mr. Hare!”

They prepare for a party.

A shiny screen is placed around.

A crystal blind hangs high.

A large dining table is brought.

Eight goddesses are called in.

Sea palace music shakes the palace.

[Eonmori]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owl-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 jade flute, a Korean fiddle,

a whistle,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 dragon pipe,

a devine pond song, and a legendary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Exuberant,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acts flippantly.

“Oh boy! What a pleasure!”

Medicine, medicine!

A hare’s liver is a famous medicine.

신선 공부하는 이들 퇴간을 못 먹으면 성사를 못허는디,
 안기생¹⁸⁷⁷⁾ 적송자¹⁸⁷⁸⁾ 모두 우리집 문인¹⁸⁷⁹⁾으로
 우리 선조 간 씻은 물 얻어 먹고 신선 되야,
 우금껏¹⁸⁸⁰⁾ 명절 때면 도리화조¹⁸⁸¹⁾ 좋은 실과로 세찬¹⁸⁸²⁾을 봉허
 고,¹⁸⁸³⁾
 동방삭¹⁸⁸⁴⁾도 문하인¹⁸⁸⁵⁾으로
 콩알만치 얻어 먹고 삼천 갑자,¹⁸⁸⁶⁾ 육만 년 죽었던 말이 없었고,
 위수의 어부 강태공도 날 만나 간 좀 먹고 궁팔십 달팔십¹⁸⁸⁷⁾ 일백육
 십을 살았으니,
 대왕의 환후도 나의 간을 잡수시면, 천천만만세¹⁸⁸⁸⁾ 태평으로 누릴
 테니,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좋다.”
 토끼란 놈 거동 보소.
 전주¹⁸⁸⁹⁾를 많이 먹고 취흥¹⁸⁹⁰⁾이 도도하여,¹⁸⁹¹⁾
 선녀들과 춤을 추며 음흉한 말을 허는디,
 “얼씨구나 좋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 지화자 좋다.
 수궁에서는 몰라도, 나의 간은 고사하고 입만 한 번 맞추어도, 몸살
 고뿔¹⁸⁹²⁾ 바이없이¹⁸⁹³⁾ 삼사백 년을 산다네.”
 선녀들이 이 말 듣고 서로 다투어 달려들어,
 토끼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다시 세상에 나가실 땐 소녀가 모시리다.”
 갖은 아양을 다 떨며 청¹⁸⁹⁴⁾을 허는구나.

You can't become a god without eating a hare's liver.
Two ancient people were students of the same teacher as my ancestor.
They became gods after drinking water in which my ancestor's liver was washed.
Good fruits, such as peaches, plums, and red jujubes, have been offered to my family on every big holiday.
An ancient official was also a student of the same teacher as my ancestor.
He ate a little bit of a hare's liver, lived for 180,000 years and died 60,000 years ago.
An ancient fisherman of a river met my ancestor, ate a little bit of a hare's liver, and lived for 160 years.
Your Majesty, if you eat my liver, you will get well, and live happily forever.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Behold Hare.
Drinking a lot of divine wine, he is drunk.
He dances with goddesses and speaks lewdly to them.
"What a pleasure! What a delight! Hurrah!"
Forget eating my liver. If you only kiss me on land, not in the sea palace, you can live hundreds of years without even a cold.
Hearing Hare, the goddesses scramble to Hare.
They hug Hare and kiss him.
"I will serve to get you back to the land, sir."
They play the coquette and propose to serve him.

46.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속은 것을 눈치채고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아니리] 용왕이 보시더니,

“어라,¹⁸⁹⁵⁾ 어라, 어라.

너희들이 모시고 갔다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마는,

만일 퇴선생 아낙¹⁸⁹⁶⁾께서 알으시면 다시 수궁 못 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다녀오신 다음에 모시도록 허라.”

무엄¹⁸⁹⁷⁾한 일이 많건마는,

어쨌든 토끼 환심¹⁸⁹⁸⁾만 사려고 손수 술을 부어 권하시며,

“퇴선생. 금년 춘추¹⁸⁹⁹⁾는 어찌 되시었소?”

“춘추랄 게 있사옵니까? 겨우 일천구백구십네 살이옵니다.”

“그러면 선생 간은 약이 많이 들었겠소.”

“두 말씀 하오리까.

간 빼내는 날은 원 산중에 향내가 진동허옵지요.”

“그러면 주부는 퇴선생을 모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 간을 속히¹⁹⁰⁰⁾

가져오도록 하라.”

별주부 아무 말 없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토끼 뺏속에 분명히 든 간을 용왕이 꼭 속으신 모양이라.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¹⁹⁰¹⁾ 간사허오!¹⁹⁰²⁾

뺏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면은, 초목금수¹⁹⁰³⁾라도 비소¹⁹⁰⁴⁾할 것이요,

46. (Terrapin's Entreaty) Having an inkling that Hare fooled them,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Aniri] The dragon king has been watching Hare and the maids.
"No way. Don't do that.

I wish you could take Mr. Hare to the land and back here.
However, if Mr. Hare's wife sees you, she will stop him from coming back here.

You can serve him after he is back here."

Hare is bold and arrogant.

The dragon king, however, pours wine in his glass to win his favor.

"Mr. Hare, how old are you this year?"

"No honorific expression, please. I am only 1999 years old."

"If so, there must be a lot of medicine in your liver."

"I don't want to repeat myself.

Fragrance spreads all over the mountain when I take my liver out."

"Terrapin, escort Mr. Hare back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as soon as possible."

Terrapin has been with them without talking.

No matter how hard he thinks, he is sure the dragon king is fooled about Hare's liver.

[Jungmori] Terrapin speaks in tears.

Terrapin speaks in tears.

"A hare is originally a wicked animal!

If we don't take the liver out of Hare's belly now, grasses, trees, and animals will laugh at us.

맹획¹⁹⁰⁵⁾을 칠종칠금¹⁹⁰⁶⁾허든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허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종사옵고,
 만일에 간이 없사오면 소신의 구족¹⁹⁰⁷⁾을 멸하여¹⁹⁰⁸⁾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¹⁹⁰⁹⁾허드래도 여한¹⁹¹⁰⁾이 없사오니,
 당장의 배를 따¹⁹¹¹⁾ 보옵소서.”
 토끼란 놈 듣고 기가맥혀,
 “어따,¹⁹¹²⁾ 이놈 별주부야!
 너 날과 무삼¹⁹¹³⁾ 원수더냐?
 왕명이 지중헌디¹⁹¹⁴⁾ 내가 어찌 기망허리!¹⁹¹⁵⁾
 옛일을 모르느냐?
 하걸¹⁹¹⁶⁾이 학정¹⁹¹⁷⁾으로 용방¹⁹¹⁸⁾을 살해고¹⁹¹⁹⁾ 미구에¹⁹²⁰⁾ 망
 국¹⁹²¹⁾이 되었으니,¹⁹²²⁾
 너도 이 놈 내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너희 용왕 백년 살 테¹⁹²³⁾ 하루도 못 살 테요,
 불쌍헌 이 내 혼백¹⁹²⁴⁾ 너의 나라의 사¹⁹²⁵⁾가 되어, 너희 수궁 만조백
 관¹⁹²⁶⁾ 한 날 한 시에 모두 다 몰사¹⁹²⁷⁾시키리라.
 아나 였다,¹⁹²⁸⁾ 배 갈러라!
 아나 였다, 배 갈러라!
 아나 였다, 배 갈러라!
 아나 였다, 배 갈러라.
 똥밖에는 든 것이 없다.
 내 배를 갈라 네 보아라.”

I am not th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will I be able to get the hare once we set him free?

Cut his belly open now. It would be good if a liver is in it.

If there is no liver, you can kill all of my family and relatives.

I will not resent you even if you chop my body into pieces.

Please cut Hare's belly open immediately."

Hearing Terrapin, Hare is struck dumb.

"My goodness! You bad terrapin!

Why did you become my enemy?

The king's order is to be respected. How can I deceive him?

Don't you know the old story?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China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in it,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My poor soul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this country and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e tim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Open my belly and check for yourself."

47. (토끼 생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세상으로 나온다.

[아니리] 용왕이 대경하여,¹⁹²⁹⁾

“네 다시 퇴공을 해치는 자는 정배¹⁹³⁰⁾를 보내리라.”

별주부 하릴없어,

“여보, 퇴공. 왕명이 지중허니 이제는 하릴없소.

내 등에 업히시오.”

토끼를 업고 다시 세상을 나가는디,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¹⁹³¹⁾를 건너 백로주¹⁹³²⁾를 어서 가자.”

토끼 이제는 살았으니,

기왕 온김에 구경이나 착실히 하여 산중 여러 동료들께 자랑이나 허
랴하고,

주부더러 허는 말이,

“을 때에는 총총허여¹⁹³³⁾ 어텐 줄 몰랐으나,

오늘은 그리 말고

만경창파¹⁹³⁴⁾ 좋은 경¹⁹³⁵⁾을 낱낱이 알려주면, 주부도 먹고 오래 살
게 좋은 간을 한 보 주지.”

주부가 좋아라고 사면 경치를 이르는구나.

“저 건너 보이는 집은 봉거대공강자류¹⁹³⁶⁾라, 저게 금릉¹⁹³⁷⁾ 봉황
대¹⁹³⁸⁾요,

우편에 높은 누각은 석인기승황학거¹⁹³⁹⁾라, 연파강상¹⁹⁴⁰⁾ 황학륜
디,¹⁹⁴¹⁾

그 너머로 앵무주¹⁹⁴²⁾요.”

소상강¹⁹⁴³⁾을 돌아들며,

47. (Hare Returns Alive) Terrapin comes back to the land with Hare on his back.

[Aniri] The dragon king is astonished.

“I will banish anyone who hurts Hare.”

Terrapin has no choice.

“Hello, Mr. Hare. The king’s order is to be obeyed.

Get on my back.”

Terrapin goes to the land with Hare on hi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up.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Hare is out of danger now.

He thinks while he is in the sea world, he should visit beautiful sites so that he can brag about them to his friends in the mountains.

He speaks to Terrapin.

“When I came here, we were in a hurry, so I couldn’t appreciate the scenery.

Let’s not do that today.

If you show me the beautiful places in detail, I will give you a liver so that you can live long.”

Joyous, Terrapin explains the beautiful sites to Hare.

“The building you see over there is a tower associated with a great ancient poet.

The high tower on your right is associated with another great ancient poet.

Over the tower is a sandy island.”

They enter a river.

“저 건너 좌편으로 운무¹⁹⁴⁴) 자욱한 높은 산과 은은히¹⁹⁴⁵) 보이는
집은

이십오현탄야월¹⁹⁴⁶)의 이비¹⁹⁴⁷) 한¹⁹⁴⁸)이 맺혀 있는 창오산¹⁹⁴⁹) 황
릉묘¹⁹⁵⁰)요,

낙하여고목제비¹⁹⁵¹)허니 따오기 우는 등왕각¹⁹⁵²)이며,

저것은 창파연월야¹⁹⁵³)의 범상국¹⁹⁵⁴) 지나가든 호상정¹⁹⁵⁵)이라 허나
이다.”

[중중모리] 백로주¹⁹⁵⁶) 바빠 지나 적벽강¹⁹⁵⁷)을 다다르니,

소자침¹⁹⁵⁸) 범중류¹⁹⁵⁹)로다.

동산상¹⁹⁶⁰) 달 떠나,

두우간¹⁹⁶¹) 배회¹⁹⁶²)허여 백로횡강¹⁹⁶³) 종을씨고.

소지노화월일선¹⁹⁶⁴) 초강¹⁹⁶⁵) 어부 빈 배.

기경선자¹⁹⁶⁶) 간 연후 공추월지단단.¹⁹⁶⁷)

자래 등에다 저 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¹⁹⁶⁸)

원해근산¹⁹⁶⁹) 종을시키고.

한 곳을 돌아드니, 어조¹⁹⁷⁰)허던 강태공¹⁹⁷¹) 위수¹⁹⁷²)로 돌아들고,

은린옥척¹⁹⁷³)뿐이라.

벽해수변¹⁹⁷⁴)을 다다라

깡짱 뛰어내려 모르는 체로 가는구나.

“On your left, you can see a cloudy and foggy high mountain,
and a faint building.

A shrine of two ancient queens is in the mountain where a zither
expresses their sorrow on moonlit nights.

An ibis flies along with the setting evening glow over a tower.
An ancient premier passed by a pavilion on a blue foggy lake
at moonlit night.”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pass by the sandy island fast
and reach a river.

An ancient poet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A white heron loiters between Herdsman and Vega and crosses
the river.

An empty boat in a river is loaded with white reed blossoms
and the moonlight.

There is only the full moon in the empty autumn sky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Carry that moon on Terrapin’s back.

Let’s go back to our hometown quickly.

Let’s go back to the mountain and enjoy the bright moon.

It is good that the mountain is close and the sea is distant.

Hare and Terrapin get to another river where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in it.

They arrive at a blue shore.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to
Terrapin.

48. (별주부 봉변)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 목을 올라 미에 걸어 매달고 조롱한다.

[아니리] 토끼란 놈 짱짱 뛰어내리더니,
모른 척하고 가던 것이었다.
별주부 기가맥혀,
“아이구, 여보 퇴공!
아, 어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혼자 가시오?”
토끼 돌아다보며,
“예, 나 시방¹⁹⁷⁵ 간 가질러¹⁹⁷⁶ 가요.”
짱짱짱짱 뛰어 층암절벽¹⁹⁷⁷ 우에 가 턱 앉더니, 별주부를 내려다보며,
“여보, 별주부! 이리 올라오시오.”
별주부 쳐다보며,
“아이구, 여보시오. 아,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것ियो?”
“예, 좋은 수¹⁹⁷⁸가 있소.”
침녕쿨로 흘룽개¹⁹⁷⁹를 만들어 내려주며,
“여기에다 목을 걸으시오.
그러면 내가 잡아다녀 줄 텅개¹⁹⁸⁰ 붙잡고 올라오시오.”
“네 이놈. 내가 나를 해칠라고 그러지야,¹⁹⁸¹ 이놈?”
“원, 그게 말씀이오?
아, 충신이란 하늘이 아시는 법인디,
별주부같은 충신을 해칠 리가 있소?
붙잡고 올라오면,
저기 저 파초 앞에 싸서 둔 간 좀 줄 테니 붙잡고 올라오시오.”
별주부가 간 준다는 통에 또 돌려¹⁹⁸²
흘룽개에다 목을 실그머니¹⁹⁸³ 걸어노니,

**48. (Terrapin's Disgrace) After arriving on the land,
Hare derides Terrapin, hanging him in a snare.**

[Aniri] Hare jumps down from Terrapin's back.

He leaves without saying goodbye to Terrapin.

Terrapin is speechless.

"My goodness, Mr. Hare.

Why on earth do you take off without saying anything?"

Hare turns his head around.

"Yes, I am going to get my liver."

Hare jumps up a steep cliff, sits down, and looks down at Terrapin.

"Hey Mr. Terrapin. Come up over here."

Terrapin looks up at Hare.

"Hello, Mr. Hare. How can I climb up there?"

"Oh, I've got an idea."

Hare makes a snare with a vine and drops it to Terrapin.

"Put your neck in it.

I will pull you up. Hold it and come up."

"You villain. You are trying you hurt me. You rat!"

"Gee, what are you saying?

Heaven can recognize a loyal subject.

How can I hurt a loyal official like you?

Hold the vine and come up here.

Then, I will give you my liver kept in a plantain leaf."

Terrapin is again fooled by Hare's promise to give the liver.

Terrapin slowly puts his neck in the noose.

[중모리] 토끼란 놈 거동 보아라.

홀룡개를 추켜들고¹⁹⁸⁴⁾ 화화¹⁹⁸⁵⁾ 돌려 당겨노니,

별주부 모양 보소.

네 발을 물에 헤엄치듯 내저으며,

나무쟁반 떠나가듯 공중에 높이 떠서 뱅뱅 돌아 올라간다.

낙낙장송¹⁹⁸⁶⁾ 느리진 가지에다 칭칭 감아 매어노니,

가련허다 별주부는 하릴없이¹⁹⁸⁷⁾ 죽었구나.

그 때여 토끼란 놈은 그늘 밑에 앉아 바라보며 별주부를 조롱¹⁹⁸⁸⁾하
는디,

“네 이놈, 별가 놈아!

네가 나를 유인하여 너희 나라 데려가서,

내 배를 따고 간을 내어 너희 용왕을 먹인다고?

네 이놈아, 동풍¹⁹⁸⁹⁾에 음건¹⁹⁹⁰⁾ 되어 바싹 말라 돼지거라.¹⁹⁹¹⁾

왕배탕¹⁹⁹²⁾이 좋을씨고.”

49. (별주부 축수) 별주부가 하느님께 용왕을 살려달라고 축수한다.

[아니리] “네 이놈. 잘 죽어라.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네 목을 꼭 늘여 죽여서 꼭 삶어가지고,

국물은 왕배탕으로 훌훌 마시고,

건더기는 백소주¹⁹⁹³⁾ 안주에 초장¹⁹⁹⁴⁾ 찍어 먹어버릴란다.”

이래노니 이제는 하릴없이 죽었구나.

[진양조] 별주부 기가맥혀,

두 눈에 눈물이 뜰거니¹⁹⁹⁵⁾ 맺거니¹⁹⁹⁶⁾

방성통곡¹⁹⁹⁷⁾으로 하느님전에 축수¹⁹⁹⁸⁾를 허는디,

[Jungmori] Behold Hare.

He yanks on the noose strongly, winds it, and pulls it up.

Behold Terrapin.

He moves his four legs as if he swam in water.

He spins around like a wood tray in the air as he goes up.

Hare ties the vine on a drooping pine branch tightly.

Poor Terrapin has no choice but to die.

Meanwhile, Hare watches Terrapin, sitting in a shade, and derides him.

“Terrapin, you bastard!

You deceived me into your country.

Did you plan to open my belly, take my liver out, and give it to the dragon king?

You scoundrel! You should dry to death by the east wind.

I like a terrapin soup.”

49. (Terrapin’s Prayer) Terrapin prays to God to save the dragon king.

[Aniri] “You rascal. Have a nice death.

I will stretch your neck that moves in and out, and then boil it hard.

I will drink the soup fast.

I will put the meat in a hot sour sauce and eat it along with white wine.”

With Hare’s intention, Terrapin is sure to die.

[Jinyangjo] Terrapin is shocked.

Tears are formed in his eyes and run down.

He prays to God loudly in tears.

목을 줄에다 매었으니 축순들 어이 할 수 있으리오마는,
 목은 소리꾼 성악에 쓰는 목이요,
 말은 별주부 축수하는 말이라.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느님전에 비나니다.
 저의 충성이 부족하여 이 죽음을 당허오니
 나 죽기는 싫잖으나,¹⁹⁹⁹⁾
 영덕전에 신음허신 대왕의 환후를 어찌드란²⁰⁰⁰⁾ 말시오?
 우리 용왕을 살려 주오.”

50. (토끼가 똥을 싸 주며 욕함) 토끼가 별주부에게 똥을 싸 주면서, 용왕의 미련함을 욕한다.

[아니리] 이렇듯 빌며 탄식하니,
 토끼란 놈 놀다가 내려와 끌러주며 허는 말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각기 제 임군²⁰⁰¹⁾ 위하는 마음 십분²⁰⁰²⁾ 짐작하
 여 살려주는 것이니,
 잘 가거라.
 가거라마는, 내가 너희 용왕께 약을 가져오마허고 언약²⁰⁰³⁾을 허였는데,
 점잖은 내 도리에 어찌 허언²⁰⁰⁴⁾을 허겠느냐?
 간보다도 내 똥이 청열지재²⁰⁰⁵⁾로,
 사람들이 주워다가 독감 홍역²⁰⁰⁶⁾ 앓는 애들을 먹여
 모두 다 직효²⁰⁰⁷⁾를 보는데,
 거 너희 용왕 눈을 보니
 열기가 과하더라.²⁰⁰⁸⁾
 갖다 먹이면 즉시 나을 것이다.”

His neck is tied by the noose, so he can't make a prayer.
The singer uses the singer's neck.
The singer says the prayer instead of Terrapin.
"I pray to you, God. I pray to you, God.
I am facing this death because my loyalty was insufficient.
I don't resent my death.
However, what should I do about the ill king in the sea palace?
Please help my dragon king."

**50. (Hare Insults Terrapin) Hare takes a shit on
Terrapin and ridicules the stupidity of the dragon
king.**

[Aniri] While praying, Terrapin sighs.
After having fun, Hare sets Terrapin free and speaks.
"I am releasing you because for humans and animals being loyal
to one's king is praiseworthy.
So long.
You can go, but I promised your king that I would bring a
medicine for him.
Given that I am ethical, I don't make a false promise.
My shit is a better fever reducer than my liver.
Humans pick up my shit and give it to their children with the
flu and measles.
All of them enjoy an immediate effect.
I saw your dragon king's eyes.
His fever is too high.
If he eats my shit, he will be cured instantly."

허더니, 철환²⁰⁰⁹⁾같은 똥을 누어 칩앞에 단단히²⁰¹⁰⁾ 싸서 자래 등에
 올려놓고 칩닝쿨로 동여주니,
 ‘고맙소’ 허고 썩 갔으면 하련마는,
 별주부는 원체 충성이 지극한지라, 또 토끼를 보고 사정을 허는디,
 “여보시오, 퇴선생. 거 파초앞에 싸서 두었다는 간 요만큼만 좀 떼어
 주고 가시오.”
 토끼 허허 웃더니,
 “아, 간을 주면 나는 죽으라고?”
 토끼가 욕을 한 자리²⁰¹¹⁾ 내놓는디,
 욕을 어떻게 허는고허니,
 옛날 우리나라 팔명창²⁰¹²⁾ 선생님이 계실 시절에, 팔명창 선생님 중
 염계달²⁰¹³⁾ 명창 선생님의 더늠²⁰¹⁴⁾인디,
 이 더늠을 후에 참봉 유성준²⁰¹⁵⁾ 선생님 전통으로, 우리나라 인간문
 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계시다가 이미 고인이 되신 동초 김연수²⁰¹⁶⁾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바,
 도저히 저희 선생님같이 할 수는 없지마는,
 되든지 안 되든지 흉내라도 한 번 내보던 것이었다.
[중모리] “에이, 시러베 발기를 갈 녀석.²⁰¹⁷⁾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냐?
 병든 용왕을 살리려헌들, 성한²⁰¹⁸⁾ 토끼 내가 죽을소냐?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너의 용왕이 미련허드라.
 너의 용왕 실겁기²⁰¹⁹⁾ 날 깔고,²⁰²⁰⁾ 내 미련키 너의 용왕 같었으면
 영락없이²⁰²¹⁾ 죽었지.
 내 밑궁기²⁰²²⁾ 셋이 아니었으면, 내 목숨이 어이 살아오리?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²⁰²³⁾으로 나는 간다.”

After finishes talking, Hare passes out round dung on a leaf, puts it on Terrapin's back, and fastens it with a vine.

It would be good if Terrapin said "Thank you" and took off. However, Terrapin's loyalty to his king is so high that he begs to Hare again.

"Hello, Mr. Hare. Please give me a little piece of your liver wrapped in a plantain leaf."

Hare laughs at Terrapin.

"Oh, if I give you my liver, I would die."

Hare speaks a curse at Terrapin.

He curses at Terrapin as follows:

When eight celebrated singers were alive in this country, of them Mr. Yeom sang this part the best.

This part was later sung in Mr. Yu's fashion by late Mr. Kim Yeon-su who was designated as the fifth human cultural asset

There is no way I can sing like Mr. Kim Yeonsu.

I can, however, try to imitate him wether I succeed or not.

[Jungmori] "You are a scoundrel to be torn apart to death.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the belly?

How can a healthy hare die to save the ill dragon king?

How stupid! How foolish!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as as smart as I, and if I was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if I didn't hav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white cloud."

51. (토끼의 엉터리 약) 간을 달라는 별주부의 말에 토끼가 엉터리 약을 일러주고 떠난다.

[아니리] 별주부 기가맥혀,

“아이고, 저 퇴가눔²⁰²⁴⁾ 가네!

여보시오, 퇴선생. 아, 간 요만큼만 떼어주고 가란 말이오!”

토끼 돌아보며,

“아, 저눔이 또 간 말을 허네, 저?

네 이눔, 네 소행을 생각하면,

네 복판²⁰²⁵⁾을 내민 바우²⁰²⁶⁾에다 그냥 탁 부득트려서²⁰²⁷⁾ 옹기
짐²⁰²⁸⁾ 부서지는 소리가 나게 혈 일이로되,

수로 만리를 네 등에 왕래한 정리를 생각하여 살려주기는 살려주거니와,
다시는 그런 보추때기 없는²⁰²⁹⁾ 짓 허지 말아라.

그러나 내 간보다도 더 좋은 약을 내 일러주마.

그 약은 다른 약이 아니라, 그 너희 수궁에 그 암자라 이쁜 놈 많더구나.”

[자진모리] “하루 일천오백 마리씩 석 달 열흘만 잡아 먹이고,

복쟁이²⁰³⁰⁾ 쓸개 간을 천 석만 구하여서,

오자대²⁰³¹⁾ 환²⁰³²⁾을 지어²⁰³³⁾

삼일만에 다 먹이면 좌우간 끝나리라.

그 약을 써보아서 만일 듣지 앓거들랑, 또 한 가지 약 있는디,

화제²⁰³⁴⁾를 이를 테니 자세히 들어보아라.

화제는 가미허랑탕²⁰³⁵⁾인디,

두꺼비 쓸개 열 보,

빈대 오줌 한 그릇에다,

새새끼 발톱 작말²⁰³⁶⁾ 서 되,

**51. (Hare's Absurd Medicine) Terrapin asks for a liver.
Hare speaks about an absurd medicine and takes
off.**

[Aniri] Terrapin is stunned.

"Alas, Hare is leaving!

Hello, Mr. Hare. Give me a little piece of your liver before you go!"

Hare turns his head around.

"That punk is again asking for my liver.

You rascal! Thinking about your behavior,

I feel like pushing your back against a protruding rock hard,
breaking it into pieces like a pottery.

I am letting you live because you carried me on your back on
the long journey in the sea.

Don't act stupid like that again.

Let me tell you about a medicine better than my liver.

The medicine is none other than the beautiful female terrapins
in the sea palace."

[Jajinmori] "Your king should eat 1,500 female terrapins a day
for 100 days.

Get 1,000 bags of gall bladders of blowfish.

Make balls as large as the fruit of a paulownia tree.

If he eats them all for three days, he will be cured or die.

If that medicine doesn't work, there is another medicine.

Listen carefully to my prescription.

The medicine is called Absurd Soup.

Prepare ten gall bladders of toads,

a bowl of housebug's pee,

three packs of young birds' nail powder,

병아리 윈 눈²⁰³⁷⁾ 눈물 한 그릇,
 벼룩 간 다섯 보와
 하루살이 염통 서른 개,
 그것을 흰구름 단지에다 은하수 물을 붓고,
 번갯불에다 얼른 달여,
 그림자 수건으로 아드득²⁰³⁸⁾ 짜서 먹이면은
 즉효를 보려니와,
 만일에 못 구하면 염라대왕이 네 할아버요, 강림사자²⁰³⁹⁾가 네 애비
 래도 너희 용왕 살기는 다 틀렸다.
 잘 가거라. 나는 간다!”

52. (토끼 방정) 토끼가 살아난 기쁨에 방정을 떨며 산으로 올라간다.

[아니리] 별주부 하릴없어
 퇴분²⁰⁴⁰⁾ 그놈 짊어지고 울며불며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²⁰⁴¹⁾을 떨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중중모리] “얼씨고나, 절씨고. 절씨고나, 졸씨고.
 항적²⁰⁴²⁾은 천하장사²⁰⁴³⁾로되,
 팔천 자제²⁰⁴⁴⁾ 거나리고²⁰⁴⁵⁾ 한 태조와 싸우다가,
 시불리혜추불서²⁰⁴⁶⁾라 패전지죄²⁰⁴⁷⁾ 되었으나
 오강²⁰⁴⁸⁾ 도로 못 건넜고,
 형가²⁰⁴⁹⁾는 만고²⁰⁵⁰⁾ 험객²⁰⁵¹⁾으로,
 삼척검²⁰⁵²⁾ 빼어 들고 진시황을 찌르려다가
 역수²⁰⁵³⁾를 도로 못 건넜다.

a bowl of young chicken's tears from its left eye,
five bags of flea livers,
and 30 hearts of day flies.
Put them in a cloud urn and pour water of the Milky Way in
it.
Boil it with lightning.
Squeeze it with a shadow towel and have your king drink it.
There will be an immediate effect.
If the medicine doesn't work, your dragon king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grandfather, and his messenger is
your father.
So long. I am leaving!"

52. (Hare's Flippancy) Glad to return alive, Hare goes up a mountain flippantly.

[Aniri] Terrapin has no choice.
He goes back to the sea palace in tears with Hare's shit on his
back.
Hare jumps around.
He climbs a mountain flippantly.
[Jungjungmori]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There was a strong warrior in ancient times.
He led 8,000 soldiers and fought against a king.
His horse wouldn't move, and he lost the battle.
He couldn't cross a river back.
There was a brave warrior in ancient times.
He pulled out a long sword to kill an emperor.
But he couldn't come back.

신통헌 이 내 채주 경각간²⁰⁵⁴ 구변²⁰⁵⁵으로 용왕을 돌려놓고²⁰⁵⁶
 이 물 도로 건넜으니,
 내가 진정 영웅이라.
 반갑다, 반가워. 우리 고향이 반가워.
 구름 밑에 높은 산은 내가 앓어 졸던 데요,
 년출과실²⁰⁵⁷ 나무열매는 내가 먹던 양식이라.
 너구리 아저씨 평안허오?
 오소리 형님 잘 있었나?
 벼슬허기 원치 말고,
 이사헐 생각 부디 마소.
 벼슬하면 몸 위덥고,²⁰⁵⁸
 이사허면 천대 받네.
 몸 익은 청산 풍경,
 낮 익은 우리 동류²⁰⁵⁹ 주야 상봉²⁰⁶⁰으로 즐겨볼거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이런 좋은 일이 또 있나!”

53. (토끼 뒷에 걸림) 토끼가 뒷에 걸려 쉬파리들에게 쉬를 슬어주면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쉬파리는 결코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아니레] 이렇듯 거들먹거리고²⁰⁶¹ 올라가다가,
 산짐승 잡을라고 채려논²⁰⁶² 뒷에 가서 발목이 꼭 치었것다.²⁰⁶³
 토끼 기가막혀,
 “아이고, 이를 어쩔꼬나!
 내가 차라리 수궁에서 죽었드라면 죽음이나 곱게 허고,

Marvelous, I fooled the dragon king with my brief eloquence
 and crossed the sea again.
 I am the real hero.
 I am glad to see my hometown.
 A high mountain below clouds is the place where I used to
 sleep.
 Fruits in vines and trees are the food I used to eat.
 How are you doing, Mr. Raccoon?
 How have you been, Mr. Badger?
 Don't try to get a government job.
 Don't think about moving out here.
 A government position is dangerous.
 Moving out incurs contempt.
 I am used to the green mountain.
 My close friends, let's enjoy the company with each other.
 What a pleasure! What a delight!
 How fantastic this is!"

**53. (Hare Gets Trapped.) Trapped, Hare tells flesh flies
 to lay eggs on him so that he can escape. The flesh
 flies say he cannot defeat a human being.**

[Aniri] Hare joyously goes up the mountain.
 His foot gets caught in a trap set for an animal in the mountain.
 Hare is shocked.
 "Oh, I am trouble!
 If I had died in the sea palace, my death would have been a
 splendid one.

육신이나 안장허고, 제사나 착실히 받아먹을 것을,
 이제는 뉘 놈의 뱃속에다가 장사를 헐꼬냐?”
 이려고 있을 적에, 어디서 쉬파리떼가 웅허고 날라오니,
 “아이고, 쉬낭청²⁰⁶⁴ 사촌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이놈 너 하릴없이 꼭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쉬낭청 사촌들.
 어렵소마는 내 등에다가 쉬만 좀 슬어주면,²⁰⁶⁵
 살어날 피가 있겠소.”
 “네 아무리 피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를 당할쏘냐?
 사람의 손이라 허는 것이 너 잡아먹는 데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천지 음양지조화²⁰⁶⁶가 그 장중²⁰⁶⁷에 다 있느니라.
 이를게²⁰⁶⁸ 들어보아라.”
[자진모리]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손이라 허는 게 엮어노면²⁰⁶⁹ 하늘이요,
 뒤썰노면²⁰⁷⁰ 땅인디,
 이리저리 금²⁰⁷¹이 있기는 일월²⁰⁷² 다니는 길이요,
 엄지 잔가락²⁰⁷³이 두 마디기는²⁰⁷⁴ 천지인²⁰⁷⁵ 삼재²⁰⁷⁶요,
 집가락²⁰⁷⁷이 장가락²⁰⁷⁸만 못허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 중에 질기는²⁰⁷⁹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²⁰⁸⁰ 가락이 장가락만 못허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²⁰⁸¹가 그 중의 찌름기는²⁰⁸² 시월, 동지, 섣달인디,
 자오묘유²⁰⁸³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²⁰⁸⁴ 선천팔괘²⁰⁸⁵가 여기 있고,

My body would have been buried and honored by reliable rituals.

In whose belly am I going to be buried?"

At this moment, a group of flesh flies come to Hare fast.

"Oh, my flesh flies.

Where have you been?"

"Oh, it appears you will certainly die."

"Oh, my cousins.

I know this is difficult, but please drop some eggs on my back.

I've got a great idea to save myself."

"No matter what trick you play, you can't defeat a human hand.

A human hand is a fearful thing that can catch and kill you.

It also contains the principles of nature in the middle of it.

Let me tell you about it."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a human being.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일천륙, 이안손, 삼식신, 사징패, 오오귀, 육합식, 칠진귀, 팔관인, 구
태식의 후천구궁²⁰⁸⁶)이 기장중²⁰⁸⁷)에 들어 있고,
불도²⁰⁸⁸)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²⁰⁸⁹) 간상연²⁰⁹⁰) 여기 있고,
육도기문²⁰⁹¹)에 대장경,²⁰⁹²)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라.²⁰⁹³)
네 아무리 피를 낸들 사람 손 하나 못 당허리라.
두 말 말고 너 죽어라.”

54. (초동목수 신세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풀 베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리]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
쉬²⁰⁹⁴)나 조깨²⁰⁹⁵) 실어주시오.”²⁰⁹⁶)
“네 원이 그렇다면 죽어도 한이나 없게 그래라.”
쉬를 빈틈없이 슬어놓고 다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 쉬 한 짐 짊어지고 죽은 듯이 가만히 었졌을 제,
그 때 초동목수²⁰⁹⁷) 아이들이 낮 갈아 짊어지고 메나리소리²⁰⁹⁸) 허며
올라오던 것이었다.

[중모레] “어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넘차, 어이 가리 너 너화로구나.
천지가 삼기고²⁰⁹⁹) 사람이 삼겨날²¹⁰⁰) 제, 별로 후박²¹⁰¹)이 없건마는,
우리는 무슨 팔자로 이 지경이 웬 일이나?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희는 그 꼴을 베고,
나는 이 꼴을 베어
부러진 잡목, 떨어진 낙엽을 긁고,
베고, 엄똥그려²¹⁰²) 힘끗대로²¹⁰³) 짊어져다,

The eight principles used in fortune 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54.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It's up to my ability whether I live or die.
Please lay some eggs on me."

"If you insist, we will do that so that you feel better."

The flesh flies lay a thick layer of eggs and fly away.

With a lot of eggs on the back, Hare remains still as if he were dead.

At that moment,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ome up to the mountain with sharp sickles on their backs, as they sing a folk song.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When the universe and humans were created, there was not much inequality.

How come our fate is miserable?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at valley.

I will work in this valley.

Let's rake broken scrubs and fallen leaves.

Let's cut down, wrap up, and carry as much as we can.

위부모처자식²¹⁰⁴)을 극진공대²¹⁰⁵)허여 보세.
어이 가리 너 너화로다. 어이 가리 너 너화로구나.”

55.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리] 이렇듯 올라오다가
“옛끼야,²¹⁰⁶ 야, 여기 토끼 치었다.
우리 오늘 잔치 잘 된다.
불 피워라. 이것 바싹 구워 먹고 올라가자.”
그 중에 건방진 놈 한 놈이 들어가서 토끼 뒷다리를 쑥 빼 들고 보더니,
“야, 이것 걸린 지 오래 되었다.
쉬를 빈 틈 없이 슬어놓았구나.”
그 중에 목청 잔뜩 된²¹⁰⁷ 놈 한 놈이 쑥 나오며,
“야, 이 저석아.²¹⁰⁸ 그러면 거 썩었겠다.
거 말어봐라, 말어봐.”
이놈이 다른 테다 코를 대고 말었으면 무사히 구워 먹고 올라가는
것인디,
해필²¹⁰⁹) 토끼 똥구멍에다가 코를 진득이²¹¹⁰) 대고 말어논 것이,
피많은 토끼란 놈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 뚫었겠다.
“옛기야! 이거 썩어서 못 먹겠다.
가마귀 밥이나 되어라!”
허고 획 던져노니,
토끼란 놈 저 건너 가 깡뽕 뛰며,
“네 이놈들, 내가 썩어야?
네놈들 눈이 썩었다, 이놈들.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55. (Hare Survives) Wit saves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The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climb the mountain.

"Look! A hare is in a trap.

We will have a good party.

Make fire. Let's roast the hare, eat it, and go up the mountain."

A rude one of them goes to the hare and holds up one of its hind legs.

"Oh, it must have been trapped for a long time.

It is teeming with fly eggs."

A man with a high voice steps forward.

"Hey my friend. It must have gone bad.

Take a smell at it."

If this boy smelt a different part of its body, they would eat it and climb the mountain.

However, he moves his nose slowly to the hare's anus and smells it.

The cunning hare slowly releases an acorn fart.

"My goodness! It's gone bad, so we can't eat it.

This can only be a crow's food!"

The throws the hare away.

Hare jumps up away from the boys.

"You villains. Am I rotten?

Your eyes are rotten. You fools.

내가 느그보담²¹¹¹) 더헛 수궁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디,
 네까짓놈들 손에 내가 죽을 성싶으냐?”
 이놈이 또 죽을 목심²¹¹²) 살았다고
 귀를 타달탈탈 떨고 또 한 번 방정²¹¹³)을 떨어보는디,
[중중모리] “관대장자²¹¹⁴) 한 고조²¹¹⁵) 국량²¹¹⁶) 많기 날만허며,²¹¹⁷)
 운주결승²¹¹⁸) 장자방²¹¹⁹)이가 의사²¹²⁰) 많기 날만해?²¹²¹)
 난세간웅²¹²²) 조맹덕²¹²³)이가 께 많허기가 날만허여?
 육국²¹²⁴) 달랜 소진²¹²⁵) 장의²¹²⁶)가 말 잘허기가 날만해?
 신출귀몰²¹²⁷) 제갈선생²¹²⁸)이 조화²¹²⁹) 많기 날만허며,
 무릉도원²¹³⁰) 신선인들 한가허기가 날만해?
 그러나 지난 일을 생각허니, 시리허고²¹³¹) 아기자기허다.
 영산홍록²¹³²) 봄바람에 넘노나니²¹³³) 도화²¹³⁴)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영강수²¹³⁵)를 그림허고,²¹³⁶)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흥²¹³⁷)을 자랑헌다.
 기산²¹³⁸) 광야²¹³⁹) 너른 곳 금잔디 자르르르 깔린 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깡 뛰고 놀세.
 얼씨고나 절씨고. 얼씨고 좃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고나 졸씨고.”

56. (토끼 독수리에게 붙잡힘) 독수리가 토끼를 채가면서 좋아한다.

[아니레] 이렇듯 거들거리고 노는디,
 어디서 ‘위’허더니

The dragon king is more formidable than you, but I deceived him out of the sea palace.

Would I die in your hands?"

Hare just escaped another critical danger.

He shakes off his ears, and behaves flippantly.

[Jungjungmori] "I am more broad-minded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have more idea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I am smarter than an ancient wicked hero of China, Cao Cao(曹操).

I am more eloquent than the ancient politicians who persuaded six nations.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Zhu Ge Kong Ming(諸葛孔明).

My life is more leisurely than that of gods in paradise.

Reflecting on the past, my life was dangerous and pleasant.

Red and green peach blossoms dance in the spring wind in a distant mountain.

Red blossoms and green leaves are reflected in the river like a picture.

Flying butterflies and singing birds boast of the spring excitement.

A golden lawn is spread over a mountain and a wide field.

Let's have fun, jumping here and there.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56.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 eagle is thrilled to catch Hare.

[Aniri] Hare dances joyously.

Suddenly, a sound is heard.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글뺨²¹⁴⁰)을 후닥딱 차 놔졌다.
 토끼 대그르르르 굴굴어졌는디,²¹⁴¹
 독수리란 놈 내려다보더니 제 손수 옹골져라고,²¹⁴²
[중중모리] “얼씨고나 절씨고. 절씨고나 얼씨고.
 삼사 일을 주렸더니마는 좋은 요기감²¹⁴³)을 얻었네.
 팔진미²¹⁴⁴) 갓은 차담²¹⁴⁵) 이에서 더 좋으며,
 홍문연²¹⁴⁶) 높은 잔치 죽물상²¹⁴⁷)이 이 같으랴?
 눈을 먼저 빼 먹을까, 코를 먼저 내 먹을까,
 배를 갈러 간을 내어 식기 전에 내가 먹어볼까?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이런 좋은 일이 또 있나!”

57. (토끼 청승) 토끼가 또 한 피를 내어, 독수리에게 원통함을 호소하며 청승을 떠난다.

[아니레] 이렇듯 좋아서 노는디,
 토끼란 놈 제 혼자 말로,
 ‘이제는 내가 하릴없이²¹⁴⁸) 꼭 죽는구나.
 죽기는 죽는다마는,
 날보고 팔난살기²¹⁴⁹) 있다고 허던 별주부 그놈 관상²¹⁵⁰) 뚱어지게²¹⁵¹) 잘 보는 놈이다.’
 또 한 피를 얼른 생각해가지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까요?”
 “오, 네 그 맛진²¹⁵²) 골치대목에서부터²¹⁵³) 그냥 통채로 먹어버릴란다.”
 “장군님, 그러시면 내가 분허고 원통허고 설은 설음타령이나 한 번 헌 다음에 잡수시오.”

An eagle kicks Hare in the head fast.
 Hare rolls over.
 The eagle looks down with satisfaction.
[Jungjungmori] “Oh boy! What a pleasure!
 I went hungry for a few days, but I just got some nice food.
 This hare is more delicious than any other food and drink.
 Can the food on a bamboo food table in a splendid party be
 better than this hare?
 Which should I eat first, the eyes or the nose?
 Do I open the belly and eat the liver before it gets cold?
 Hurrah, hurray! Yippee, whoopee!
 What a delight!”

57. (Hare's Pitiful Act) Hare thinks up a trick, talking about his sorrow and acting pitifully.

[Aniri] The eagle is happy.
 Hare talks to himself.
 ‘I am now bound to die.
 I am dying.
 ‘talking about the eight hardships, Terrapin is good at reading
 one's fate from a face.’
 Terrapin hits upon another trick in a minute.
 “General, which part do you want to eat first?”
 “Oh, I will eat your whole body without tearing it apart,
 beginning with the delicious head.”
 “General, if so, please eat me after I sing a sad song. I feel
 resentful and sorrowful.”

“그래라. 그조차 못하겠다 허겼느냐마는,

너무 많이 울면 살 내린다.²¹⁵⁴⁾

조끄만치만²¹⁵⁵⁾ 울어라.”

이놈이 또 공연헌 청승²¹⁵⁶⁾을 한 번 떨어보는디,²¹⁵⁷⁾

[중모레]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아이고, 이 일을 어이힐거나?

나 죽기는 썩잖허나²¹⁵⁸⁾ 차마 눈을 못 감겼네.

수궁 천리 먼먼 길에 겨우 얻어내 온 것을 무주공산²¹⁵⁹⁾에다 더져두고,²¹⁶⁰⁾

임자 찾아 못 전허니,

아이고 원통허여라!

여보시오, 장군 나리.

어서 빨리 잡수시오.

차라리 어서 죽어 이 설음을 잊을라요.

어서 잡수시오!”

58. (토끼 다시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를 속이고 다시 살아난다.

[아니레] 독수리 듣더니,

“여봐라, 토끼야.

너 죽기보담도²¹⁶¹⁾ 더 아깝다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보물이냐?”

“장군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궁을 들어갔었지요.”

“음, 그 말은 나도 들었다.”

“수궁 용왕께서 의사쥬치²¹⁶²⁾ 하나를 주십디다.”

“No problem. I am willing to let you do that.
If you cry too much, you will lose weight.
Cry only a little.”
Hare acts pitifully, arousing pity in others.
[Jungmori] “Alas. Alas. I can’t believe this. What should I do?
I don’t grieve my death, but I can’t close my eyes.
A thing I managed to bring from the distant sea palace is kept
in an empty mountain.
I can’t hand it over to its owner.
I feel resentful!
Hello, general.
Please eat me right away.
Let me die and shake off this sorrow right away.
Please eat me now!”

58. (Hare Escapes Again.) Hare fools the eagle and escapes again.

[Aniri] The eagle has been listening.
“Hey hare.
What on earth is that thing more precious than your life?”
“General, please listen to me.”
“Go ahead.”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I have heard of that.”
“The dragon king gave me Wish-Granting Bag.”

“의사줍치가 무엇이나?”

“아, 글씨, 들어보시오.

의사줍치를 짹 펴노면²¹⁶³ 구녕²¹⁶⁴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궁기²¹⁶⁵를 탁 텅김서,²¹⁶⁶ ‘병아리 새끼 나오너라’ 허면

하루 일천오백 마리라도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툇 텅김서, ‘썩은 개 창자나 돼지 새끼 죽은 것 나오너라’

허면

몇 날 며칠이라도 나오니,

그런 좋은 보물이 어디가 있소?

헌디 그런 보물을 무주공산에다 더져두고,²¹⁶⁷

임자 찾아 못 전허고 죽게 되니,

이 아니 썩소이까?”²¹⁶⁸

독수리 듣더니 딱 반허것다.²¹⁶⁹

“여봐라, 토끼야. 너를 살려줄 텅개²¹⁷⁰ 그것 나 줄래?”

“글쎄요. 그런디, 그것 뺏은 다음에 나 마저 잡어 잡술라고요?”

“아, 이 미련헌 놈아!

아, 너를 먹으면 한 때 요기²¹⁷¹밖에 안 되지마는,

아, 그 의사줍치를 가졌으면 내 평생 양식 걱정은 없을 텐디,

뿔허로 내가 너를 잡어 먹을 것이냐?

그것 어딴냐?”

“저기 저 석산²¹⁷² 바우 틈에 가 들었소.

저, 저, 저것 보시오, 저.

까막²¹⁷³ 까치가 그것 냄새를 맡고 저렇게 넘노니고²¹⁷⁴ 야단 났소,

시방.”

“그러면 가자.”

“What is Wish-Granting Bag?”

“Listen to me, sir.

If you unfold Wish-Granting Bag, you can see several holes on it.”

“So?”

“Flick one of the holes and say ‘Come out, chicks.’

1,500 chicks come out continuously all day.

Flick another hole and say ‘Come out, rotten dog’s intestines or dead baby pigs.’

They come out for many days.

What can be more precious than Wish-Granting Bag?

The treasure is kept in an empty mountain.

I am dying before handing it over to its owner.

How sad this is!”

Hearing the story, the eagle is excited.

“Hey hare. If I set you free, will you give it to me?”

“Well, I am afraid you will take the bag and then eat me.”

“How stupid you are!

If I eat you, you can fill my stomach only once.

If I have Wish-Granting Bag, I will not worry about food for my whole life.

What would I eat you for?

Where is it?”

“It is between rocks in the rocky mountain over there.

Look at that.

Crows and magpies smelt it and are hovering over it now, fussing about it.”

“Let’s go there, then.”

독수리가 토끼 대글뺨을 좋은 소주병 들듯 꺾 चु켜들고,
 훨훨 날아가서 바우 앞에 툇 놓으며,
 “자, 어서 들어가서 내오너라.”
 토끼란 놈 좋아서 막 들어갈라고 허는디,
 독수리가 토끼 대그뺨²¹⁷⁵을 딱 흠침서,²¹⁷⁶
 “네 이놈. 너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라고?”
 “어따,²¹⁷⁷ 장군님. 그렇게 못 믿겼거든 내 뒷발목을 꺾 잡으시오.”
 “그래라.”
 “잡었소?”
 “오냐. 잡었다.”
 “쪼끔만 놓으시오. 깊이 들었소.”
 “자.”
 “쪼끔만 더 놓으시오.”
 “자.”
 “쪼끔만.”
 “자.”
 “쪼끔만 쪼끔만 쪼끔만 쪼끔만”
 하더니, 뒷발로 탁 차버리고 안으로 쑥 빠져 들어가서,
 제 손수²¹⁷⁸ 한가헌 체라고²¹⁷⁹ 시조를 툇 내놓것다.
[시조창] “반 남아²¹⁸⁰ 늙었으니,”
[아니레] 독수리 듣더니,
 “네 이놈, 토끼야! 나 지금 시장허다.²¹⁸¹
 얼른 가지고 나오너라.”
 토끼가 그제는²¹⁸² 큰소리를 치것다.
 “네 이놈, 독술아! 내가 너한테 하릴없이 죽게 된 것을,
 너를 살살 유인허여 이 바우 틈으로 살어 들어왔으니,

The eagle lifts up Hare's head like a wine bottle.
 He flies up and puts Hare in front of the rocks.
 "Go in and bring the bag out."
 Delighted, Hare is about to get in.
 The eagle kicks Hare in the head.
 "You bastard. You will come out, won't you?"
 "My goodness, general. If you can't trust me, you can hold my
 hind leg tightly."
 "Good."
 "Are you holding them?"
 "Yes, I am holding them."
 "Release them a little. The bag is in a deep place."
 "Okay."
 "Release them a little more."
 "Okay."
 "A little more."
 "Okay."
 "A little more. A little more."
 After saying this, Hare kicks the eagle with his hind legs and
 goes deep inside.
 He recites a poem of his own to pretend that he is at leisure.
[Poetic Mode] "Half of my life is gone."
[Aniri] The eagle heard Hare.
 "Hare, you scoundrel! I am hungry now.
 Bring the bag out quickly."
 Hare now shouts back at the eagle.
 "Eagle, you bastard! I was about to be killed by you.
 I enticed you to let me into this space between rocks.

아, 이런 것이 모두 의사중치 아니냐?
 어서 날아가거라.
 내 발길이 나가면 해골이 절단날²¹⁸³⁾ 것이다, 이놈!”
 독수리 기가맥혀,
 “네 이놈. 너 내 성질 알지?
 내가 화가 나면 발로 찢어낼²¹⁸⁴⁾ 것이다, 이놈!”
 “오냐, 이놈 발만 들여놓아라.
 돌로 네 발등을 날날이 깨칠²¹⁸⁵⁾ 것이다.”
 독수리 듣고 화가 나서,
 “네 이놈 토끼야.
 네가 생전 그 속에서 안 나올래?
 나오면 나오는 그 날 너는 죽는 날인 줄 알아라, 이놈아!”
 “야야, 이놈아.
 내가 지금 노경²¹⁸⁶⁾에 출입할 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들았어서²¹⁸⁷⁾ 손자나 봐줄란다.
 잔소리 말고 날아가거라!”

59.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고, 토끼는 월궁에 가서 지내게 된다.

[옛중모리] 독수리 그제야²¹⁸⁸⁾ 돌린²¹⁸⁹⁾ 줄을 알고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는 퇴분²¹⁹⁰⁾을 지고 가서
 용왕 환후²¹⁹¹⁾ 즉차하고,²¹⁹²⁾
 토끼는 완연히²¹⁹³⁾ 그 산중에서 늙다가
 신선 따라 월궁²¹⁹⁴⁾에 가서 도약²¹⁹⁵⁾하고 지낸다니,

Isn't this Wish-Granting Bag?
Fly away immediately.
If I kick you, your skull will be broken into pieces. You villain!"
The eagle is stunned.
"You rat! Don't you know about my temper?
If I am angry, I can pick you out with my legs. You bastard!"
"Go ahead. Put your legs inside.
I will break your feet into pieces with a stone."
Hearing Hare, the eagle is upset.
"Hare, you rat,
Do you think you can stay there until you die?
If you come out, you will die right away. You villain!"
"Hey punk,
Since I am old now, I can't move in and out.
I am weak, so I will just take care of my grandchildren.
Cut the noise out and fly away!"

59.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dragon king gets cured. Hare lives on the moon.

[Eotjungmori] The eagle finally realizes he was deceived and flies away.
Terrapin carried Hare's dung to the sea palace.
The king's illness is cured immediately.
Hare clearly grows old in the mountains.
He follows a god to the moon and lives there making a medicine.

그 뒤야 뉘 알리오?

언재무궁²¹⁹⁶)이나

고수 팔도 아프실 테요, 소리꾼 목도 아플 지경이니,

어질더질.²¹⁹⁷)

Who knows what happens thereafter?
There are more things to say.
However, the drummer's hands and the singer's throat must be
tired.
Let me finish.

-
- 1) 廣利王. 중국 신화에서 남쪽 바다를 맡고 있다는 축융(祝融) 신. 당나라 현종이 광리왕에 봉했다고 함.
 - 2)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3) 落成宴. 집을 다 지은 것을 기념하여 베푸는 잔치.
 - 4)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재구를 벌여 베풀어 놓음.
 - 5) 三海. 세 방향의 바다.
 - 6) 君臣. 임금과 신하.
 - 7) 賓客. 손님.
 - 8) 千乘萬騎. 천 대의 수레와 만 마리의 말. 곧 수많은 수레와 말.
 - 9) 酒肉. 술과 고기.
 - 10) 數三日. 여러 삼일. 여러 날.
 - 11) 罷한. 끝마침.
 - 12) 猝然. 갑자기.
 - 13) 得病. 병을 얻음. 병에 걸림.
 - 14) 水府. 물을 맡아 다스린다는 전설 속의 신의 궁전. 용궁.
 - 15) 朝廷. 궁궐 안에 있는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또는 그에 따르는 기구.
 - 16) 大臣. 지위가 높은 신하. 대개 판서 이상을 일컬음.
 - 17) 治病. 병을 치료함.
 - 18) 名醫. 훌륭한 의원.
 - 19) 回春. 중한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20) 榻床. 걸상이나 침대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21) 두드리며.
 - 22) 龍聲. 용의 소리.
 - 23) 天無烈風. 하늘에 거센 바람이 불지 않음.
 - 24) 海不揚波.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음. 중국 주나라 성왕 때, 성왕이 어려서 섭정을 맡은 주공이 나라를 잘 다스리므로, 바다에 큰 파도가 일지 않고 나라가 평화로웠다는 데서 비롯되어, 성인이 나서 나라가 태평스러움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음.
 - 25)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살기가 평안함.
 - 26) 怪異한. 이상야릇한.
 - 27) 南海宮. 남해바다에 있는 용궁.
 - 28) 누구가. 누가.
 - 29) 醫藥萬歲. 의약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이 높음.
 - 30)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31) 華佗.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평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음.

- 32) 扁鵲. 이름은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33) 救援. (곤란을 겪고 있는 고비에서) 도와 건져줌.
- 34) 어찌할 수 없구나.
- 35) 어떻게 하라는.
- 36) 陽氣. 몸 안의 양(陽)과 관계된 기운, 또는 남자의 성적 정력.
- 37) 海狗腎. 물개 수놈의 생식기. 강장제로 좋음.
- 38) 癆漸. 한의학에서 폐결핵을 이르는 말.
- 39) 시초를 잡는지. (병이 들어 아프기) 시작하는지.
- 40) 뱀장어와 비슷한 바닷물고기. 몸길이는 약 90cm로 넓적하고 입이 크며 이가 날카로움. 등은 회갈색, 배는 회백색이고, 옆줄의 작은 구멍이 흰 점 모양으로 되어 있음.
- 41) 待命. 준비하고 기다림.
- 42) 脾胃. 지라와 위. 음식을 소화내거나 일을 상대하여 견뎌내는 성미.
- 43) 여기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기'라는 의미로 쓰였음
- 44) 鮓魚. 붕어.
- 45) 終是. 끝끝내.
- 46) 一國. 한 나라.
- 47) 遑遑.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지둥하여.
- 48) 祝手. 두 손을 모아 빌.
- 49) 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 50) 香臭. 향기로운 냄새.
- 51) 仙衣道士.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
- 52) 青氍毹衣. 푸른색 창의. '창의'는 소매가 넓고 가에 검은색 천을 댄 선비의 옷옷.
- 53) 늘어뜨려.
- 54) 腰下. 허리 아래.
- 55) 明月佩. 달 모양의 옥으로 만들어 가슴에 차던 패물의 한 가지.
- 56) 白羽扇. 새의 흰 깃털로 만든 부채.
- 57) 飄然히. 바람에 나부끼듯 가볍게.
- 58) 堂. 여러 사람이 집회하는 일정한 건물.
- 59) 舉手長揖. 손을 들어 길게 읊을 함. '읍'은 인사하는 예의 하나로,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 60)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61)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62)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63)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64) 왔사옵더니.
- 65) 風便에. 소문에.
- 66) 患候. 옷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67) 萬萬危重타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기로.
- 68) 뵈고자 해서.
- 69) 반가와 하시어.
- 70) 弊居僻陋. 자기 집이 궁벽지고 누추함. ‘폐거’는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71) 天仙. 하늘에 계시는 신선.
- 72) 降臨. 신이나 부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
- 73) 感謝無比. 비할 데 없이 감사함.
- 74) 起動. (병석에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키어 움직임.
- 75) 出門迎接. 문밖에 나가서 손님을 맞음.
- 76) 無禮하다. 예의에 어긋난다.
- 77) 遑遑한.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지둥하는.
- 78) 特效之藥. 특효약.
- 79) 脈. 손목이나 발목의 맥박.
- 80) 心小臟. 심장과 소장.
- 81) 火. 오행의 화를 가리킴.
- 82) 肝膽. 간과 쓸개.
- 83) 木. 오행의 목.
- 84) 肺大臟. 허파와 대장.
- 85) 金. 오행의 금.
- 86) 腎膀胱. 생식기와 오줌보.
- 87) 水. 오행의 수.
- 88) 脾胃는. 지라와 위는.
- 89) 肝木. 오행의 목에 해당하는 간.
- 90) 太過. 아주 지나치게 심하거나, 많거나, 큼.
- 91) 木克土. 음양오행설에서 목이 토를 이긴다는 말.
- 92) 傷하옴고. 다쳐 상처를 입고.
- 93) 膽經. 쓸개의 경락. ‘경락(經絡)’은 오장 육부의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침이나 뜸,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계된 장부의 병이 낫게 됨.
- 94) 甚하니. 보통의 정도보다 더하니.
- 95) 腎經. 생식기의 경락.
- 96) 肝膽經. 간과 쓸개의 경락.
- 97) 自盡. 저절로 없어짐.
- 98) 方書. 약방문을 적은 책. ‘약방문’은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 99) 脾. 지라.
- 100) 一身之祖宗. 한 몸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

- 101) 膽. 쓸개.
- 102) 一身之標本. 한 몸의 표본임.
- 103) 心靜則 萬病이 息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 104) 心動則 萬病이 生하오니. 마음이 움직이면 모든 병이 생기오니.
- 105) 心經. 심장의 경락.
- 106) 五勞七傷. 오로와 칠상. ‘오로’는 심(心)이 피로하면 혈(血)이 약해지고, 간이 피로하면 혈이 약해지고, 폐가 피로하면 기(氣)가 약해지고, 신(腎)이 피로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방광(오줌보)이 피로하면 먹는 것이 약해지는 것임. 허하고 약한 병이 스스로 오로를 낳고, 오로가 육극(六極)을 낳고, 육극이 칠상을 낳는데, 칠상의 1은 음한(陰寒), 2는 음위(陰痿), 3은 이급(裡急), 4는 정루(精漏), 5는 정소(精少), 6은 정청(精淸), 7은 소변삭(小便數)을 말함.
- 107)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한의학에서 원기를 도우며 외감(外感. 한의학에서 감기를 가리키는 말.)을 푸는 데 쓰는 탕약.
- 108) 熟地黃. 한약재의 한 가지. 생지황을 술에 담갔다가 여러 번 찌는 것. 보혈(補血), 보음(補陰)에 효과가 많음.
- 109) 酒蒸. 술을 뿌려 찌م.
- 110) 다섯 돈. ‘돈’은 무게의 단위. 관(貫)의 1/1000로 약 3.75g.
- 111) 山查肉. 한약재로서, 씨를 빼낸 산사나무의 열매. 위장을 튼튼하게 하거나 소화제로 씀.
- 112) 天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 호라지쫄의 뿌리. 성질은 찬데, 진해제(鎮咳劑)·강장제(強壯劑) 등으로 쓰임.
- 113) 細辛. 한약재의 일종. 족두리풀이나 민족두리풀의 뿌리. 말려서 두통(頭痛), 발한(發汗), 거담(祛痰) 등의 약재로 씀.
- 114) 去土하고. 흙을 떨어내고.
- 115) 肉蓯蓉. 열당과(列當科)에 딸린 기생식물의 한 가지. 줄기는 살지고 기둥 모양이며, 잎은 비늘같이 나는데, 줄기와 함께 엽록이 없어 누런 갈색을 띰. 깊은 산속에 나는데, 폐병의 특효약이라고 함.
- 116) 澤瀉. 한약재의 일종으로, 택사의 덩이뿌리를 가리킴. 성질이 차며, 이수도(利水道), 임질(淋疾), 습진, 부종 따위의 약재로 씀.
- 117) 罌粟殼. 한약재의 한 가지로, 양귀비 열매의 껍질. 거담(祛痰), 진경약(鎮莖藥) 또는 설사, 이질 따위에 약재로 씀.
- 118) 甘草. 한약재의 일종으로 감초의 뿌리. 비위(脾胃)를 돕고,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임.
- 119) 水一升煎半連用.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계속 복용함.
- 120) 貼. 약봉지에 쓴 약의 뭉치를 세는 말.
- 121) 小無動靜. 조금도 효과가 없음.
- 122) 加減白朮湯. 백출탕의 원방에서 다른 약재를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여 지은 탕약. ‘백출’은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 123) 白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삼주의 덩어리진 뿌리. 성질이 따뜻하며, 비위(脾胃)를 돕고, 소화불량, 구토, 설사, 습증 등에 씀.
- 124) 炒灸. 불에 볶음.

- 125) 砂仁. 한약재의 일종으로, 측사밀(縮砂密. 키가 1m 쯤 되는 생강과에 딸린 풀)의 씨.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제로 좋은 약재.
- 126) 白茯苓. 한 약재의 한 가지로, 빗갈이 흰 복령. 땀이 알맞게 나도록 하고, 오줌을 순하게 하며, 담증(痰症), 부증(浮症), 습증(濕症), 설사 따위에 쓰는데, 보(補)하는 효험이 있음.
- 127) 山藥. 한약재의 하나로, 마의 뿌리. 강장제의 약재로서 유정, 몽설, 대하, 요통, 설사 따위에 씀.
- 128) 五味子.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미자나무의 열매. 폐를 돕는 효험이 있으므로 기침, 갈증에 쓰며, 땀과 설사를 그치게 하는 데에도 씀.
- 129) 當歸.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이며, 강장제, 진정제로도 쓰임. 특히 부인병에 좋음.
- 130) 川芎. 한약재의 한 가지로, 천궁이·궁궁이의 뿌리. 성질이 따뜻하고, 신맛이 있으며,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로 순혈·청혈제로 쓰임.
- 131) 羌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강활의 뿌리. ‘강활’은 미나리과에 딸린 두해, 세해살이풀. 깊은 산골짜기에 절로 나는데, 그 뿌리를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132) 木通. 한약재의 한 가지로,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증(몸이 통통하게 붓는 병)에 쓰임.
- 133) 돈의 1/10.
- 134) 陽減. 양의 기운을 줄임.
- 135) 加味羌活湯. 강활탕의 원방에 다른 약재를 넣은 탕약.
- 136) 麻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마황의 줄기. 성질은 따뜻하며, 땀을 내게 하는 힘이 강하며, 기침, 두통, 오한 따위에 약재로 쓰임.
- 137) 陳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오래 묵은 귤껍질. 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약효가 있음.
- 138) 防風.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방풍나물의 말린 뿌리. 고뿔(감기), 풍병 등에 약으로 씀.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세해살이풀.
- 139) 白芷. 한약재의 한 가지로, 구리때의 뿌리. 감기로 인한 두통·요통·비연(鼻淵. 코에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때때로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는 병) 따위에 쓰며, 외과 약으로도 널리 쓰임.
- 140) 蒼朮. 한약재로 쓰는 삼주(영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의 뭉치지 않은 뿌리. 백출보다 땀을 내는 힘이 강하여 소화를 범한 외감(外感.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감기.)을 푸는 데 많이 씀.
- 141) 升麻. 한약재의 한 가지로, 승마·왜승마·쫘대승마 따위의 뿌리. 열을 내리게 하거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쓰여, 외감·설사·하혈·변혈·탈음·탈항 따위에 많이 쓰임.
- 142) 葛根. 한약재의 한 가지로, 칩의 뿌리. 갈증·두통·요통·항강증(項強症) 및 상한(傷寒) 등에 발한·해열제로 쓰이며, 가루로 하여 복용함.
- 143)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44) 百草藥. 온갖 약초로 만든 약.

- 145) 쓰러고 하다가는.
- 146) 지레.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47) 가마솥.
- 148) 味甘. 단맛.
- 149) 大補元氣. 원기를 크게 분돋아 줌.
- 150) 止渴生津. 갈증을 멎게 하고 진액을 생기게 함.
- 151) 造榮養胃. 영양을 조성하고 위를 건강하게 함.
- 152) 甘溫. 달고 따뜻함.
- 153) 健脾強胃. 지라를 건강하게 하며, 위를 강하게 함.
- 154) 除瀉除濕. 설사를 멎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
- 155) 兼治膽脾. 쓸개와 지라의 병도 아울러 치료함.
- 156) 灸則溫中. 볶으면 따뜻함이 알맞고.
- 157) 生則瀉火. 생것은 열기를 내보냄.
- 158) 清心丸.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 159) 蘇合丸. 소합향을 원료로 하여 만든 환약의 한 가지. 위장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함.
- 160) 八味丸. 육미환에다 육계(肉桂)와 부자를 더한 약. 정력을 돕는 데 쓰임.
- 161) 六味丸. 가루로 만든 육미탕을 꿀에 반죽하여 만든 환약. '육미탕'은 숙지황·산약·산수유·백복령·목단피·택사 따위로 된 가장 흔히 쓰이는 보약. '환약(丸藥)'은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동글동글하게 빚은 약.
- 162) 滋陰瓊玉膏. 음기를 보충해 주는 경옥고. '경옥고'는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기 위한 보약의 한 가지로, 생지황·인삼·백복령·백밀 따위의 약재를 씀.
- 163) 白膏藥. 흰 고약인 듯. '고약'은 끓은 곳이나 흰 데에 붙이거나 바르는 끈끈한 약.
- 164) 大黃. 한약재의 한 가지로, 장군풀의 뿌리.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통리(通利, 대소변이 통함)하는 힘이 많아 대소변 불통·조열(燥熱,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열기가 남)·헛소리·잠꼬대·적취(積聚, 오랜 체증으로 인하여 배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징가(癥瘕, 여자의 배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어혈(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같은 병에 씀.
- 165) 芒硝.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박초(朴硝)를 두 번 달여서 만든 약재. 성질은 차고, 훑어 내리는 작용을 함. '박초'는 초석(硝石, 질산칼륨)을 한 번 구워서 만든 약재.
- 166) 青皮. 청귤피(青橘皮). 한약재의 한 가지로, 아직 익지 아니한 푸른 귤의 껍질.
- 167) 半夏.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반하의 뿌리. '반하'는 천남성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땅속에 둥근 뿌리가 있으며, 꽃줄기는 높이 30cm 안팎임. 둥근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담, 구토, 습증, 해수 등에 쓰임.
- 168) 桂香. 한약재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계향'은 계수나무의 향기라는 뜻임.
- 169)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 170) 丹砂. 주사(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171) 차전자(車前子). 이노제로 쓰이는 질경이의 씨앗.
- 172) 蓮實. 연꽃의 열매.
- 173) 獨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땃두릅의 뿌리. 감기나 습증으로 팔다리의 근육이 쑤시고

- 아픈 데에 쑤.
- 174) 시호(柴胡).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그 뿌리를 발한, 해열제로 쑤.
- 175) 前胡.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바다나물의 뿌리. 성질이 약간 차며, 외감에서 오는 두통·담·해소·해열 따위에 쑤.
- 176)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증(몸이 통통하게 붓는 병)에 쓰임.
- 177) 麥門冬. 한약재의 한 가지로, 맥문동이나 소엽맥문동의 뿌리. 보음(補陰. 음기를 도움)·청폐(淸肺. 폐를 깨끗이 함)·거담 및 자양제 따위로 쑤.
- 178) 胡黃蓮. 한약재의 한 가지로, 미나리아재비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인 호황련의 뿌리. 성질은 매우 차고, 열로 인한 골증(骨蒸. 뼈가 몹시 쑤시는 병)과 도한(盜汗. 잠자는 사이에 저절로 나는 식은 땀)·안질·치질 등에 약으로 쑤.
- 179) 唐黃蓮. 한약재의 하나로,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황련(깁깁이풀)의 뿌리. 여러 해묵은 황련의 뿌리를 캐어 잔털을 따서 벌에 말림. 권위제로 쓰임.
- 180) 加味六君子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181) 清暑六和湯. 더위에 상한 심장을 다스리는 데 쓰는 탕약.
- 182) 羌活湯. 강활의 뿌리를 달인 탕약. 해열 및 진통제로 쑤.
- 183) 桃仁湯. 복숭아씨의 알맹이를 달인 탕약으로, 어혈과 혈관을 다스리는 약. ‘도인’은 복숭아씨의 알맹이.
- 184) ‘백사주(白蛇酒)’의 잘못된 뜻. ‘백사주’는 백사(흰 뱀)를 넣고 담근 약술.
- 185) 黃金人糞湯. 황금과 같이 누린 인분(똥)으로 끓인 탕약이라는 뜻으로, 지어낸 이름인 듯.
- 186) 두꺼비오줌.
- 187) 쓸개.
- 188) 百藥. 온갖 약.
- 189) 鍼灸. 한의학에서 침질과 뜸질을 함께 이르는 말.
- 190) 穴. 경혈(經穴). 경락에 있어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기에 좋은 자리. ‘경락(經絡)’은 오장 육부의 병이 몸 거죽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를 침이나 뜸,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면 관계된 장부의 병이 낫게 됨.
- 191) 天地之上經.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경락’이란 의미인 듯.
- 192) 流注. ‘자오유주침법(子午流注針法)’을 가리킨 말. ‘자오유주침법’은 천간·지지·음양·오행·장부·경락과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의 오수혈(五輸穴)을 연합하여 조성된 일종의 날짜와 시간에 따라 침질을 하는 침법.
- 193) 甲日. 일진에 ‘갑’이 들어가는 날.
- 194) 甲戌時에. 육십갑자 중에서 갑술에 해당하는 시에.
- 195) 膽經. 쓸개의 경락.
- 196) 불명.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는 44혈이 있는데, 여기에 ‘주유’는 없다.
- 197) 乙日. 일진에 ‘을’이 들어간 날.
- 198) 酉時.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 199) 大腸經 商陽. 수양명대장경에 속하는 상양혈. ‘상양’은 둘째 손가락 노뼈 쪽 손톱 뒷모서리에서 일分寸(0.3cm 정도) 뒤에 있다.

- 200) 靈龜. ‘영구팔법(靈龜八法)’을 이름. 옛날에 쓰던 배혈방법의 하나로서, 고대에 쓰던 팔괘·구궁도·기경팔맥의 이론에 따라 침을 놓을 때의 날짜와 시간을 천간과 지지의 숫자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를, 이미 붙여놓은 팔맥교회혈의 숫자에 대입하여 혈을 선택하는 배혈방법.
- 201) 一 申脉.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1은 신맥에 해당된다는 말. ‘신맥’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로서, 바깥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4푼 아래 인 가는정장이뼈 머리의 아래 기슭 우묵한 곳이다.
- 202) 二 照海.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2는 조해에 해당된다는 말. ‘조해’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혈. 안쪽 복사뼈의 중심에서 4푼 아래인데, 안쪽 복사뼈의 아래 우묵한 곳.
- 203) 三 外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3은 외관에 해당된다는 말. ‘외관’은 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의 혈. 손등 쪽 손목 가로간 금의 중간에서 2치 위 자뼈와 노뼈 사이에 있다.
- 204) 四 臨泣.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4이면 임읍에 해당된다는 말. ‘임읍’은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혈. 임읍혈에는 머리 임읍혈과 발 임읍혈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리 임읍혈을 가리킴. 머리 임읍혈은 눈동자로부터 5푼 위에 있으며, 다리 임읍혈은 발등에서 제4, 제5 발목뼈가 갈라진 사이이며, 소지신근건의 바깥쪽에 있다.
- 205) 六 公孫.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6이면 공손에 해당된다는 말. ‘공손’은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발 안쪽에서 제1 발목뼈바닥의 안쪽 전하방과 단모지굴근 사이에 있는 우묵한 곳이다.
- 206) 七 後谿.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7이면 후계에 해당된다는 말. ‘후계’는 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의 혈. 새끼손가락뼈 쪽 제5 손목 손가락뼈마디의 뒤에 있는 금 끝에 있다.
- 207) 八 內關.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8이면 내관에 해당된다는 말. ‘내관’은 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의 혈 이름. 손목의 손바닥쪽 가로 간 금의 가운데로부터 2치 올라가서 장장근건과 노뼈 쪽 수근굴근간 사이에 있다.
- 208) 九 列缺. 구궁팔괘와 팔맥교회팔혈의 배합에서 숫자가 9이면 열결에 해당된다는 말. ‘열결’은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의 혈 이름. 손목의 가로 간 금에서 1.5치 올라가 요골 정상돌기 위에 정맥이 있는 곳이다.
- 209) 불명.
- 210) 불명. 혹 ‘奇經八脉’의 잘못인지도 모르겠음. ‘기경팔맥’은 십이경맥과 달리 다른 길로 자기 혼자 행하는 경맥. 여덟 갈래인데, 임맥, 독맥, 충맥, 대맥, 음교맥, 양교맥, 양유맥, 음유맥이다.
- 211) 불명.
- 212) 任脈.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몸의 앞 정중선에 분포된 경맥이다.
- 213) 督脈. 기경팔맥의 하나로서, 미추골 아래에서 시작하여 척추 속을 따라 올라가다가 풍부혈 부위에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정수리로 나온 다음, 이마와 콧마루를 지나 윗잇몸 속으로 들어간다.
- 214) 十二經脈. 모든 경맥들 중 기본이 되는 12개의 경맥. 분포된 부위, 연계된 장부에 따라

- 음경, 양경, 수경, 족경으로 나눈다.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수소음신경(手少陰腎經)·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수태양소장경(手太陽小腸經)·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수궐음심포경(手厥陰心包經)·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수소양삼초경(手少陽三焦經)·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의 열두 가지임.
- 215) 承漿. 입맥의 혈. 정중선에서 아랫입술 아래 가장 깊숙한 곳이다.
- 216) 廉泉. 입맥의 혈. 혀뿌의 윗변연 중심부이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침을 놓는다.
- 217) 天突. 입맥의 혈. 앞 정중선상에서 흉골병의 경절혼으로부터 위로 5푼 되는 우묵한 곳이다.
- 218) 鳩尾. 입맥의 낙혈 이름. 검상돌기와 갈비뼈가 갈라진 사이를 연결한 중심에서 1치 아래에 있다.
- 219) 巨闕. ‘거궐’은 입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6촌 되는 곳이다.
- 220) 上脘. 입맥의 혈로서, 앞 정중선 배꼽 위 5촌 되는 곳이다.
- 221) 中脘. 입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4촌 되는 곳이다.
- 222) 下脘. 입맥의 혈 이름. 앞 정중선 배꼽 위 2촌 되는 곳이다.
- 223) 神厥. 입맥의 혈 이름. 배꼽 중앙이다.
- 224) 丹田. 입맥의 혈인 석문(石門). 앞 정중선 배꼽 아래 2촌 되는 곳), 음교(陰交.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촌 되는 곳), 기해(氣海. 앞 정중선 배꼽 아래 1.5촌 되는 곳), 관원(關元. 앞 정중선 배꼽 아래 3촌 되는 곳) 혈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관원혈을 이른다.
- 225) 崑崙.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의 혈 이름. 바깥 복숭아뼈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 높이에서 바깥 복숭아뼈의 뒷기슭과 뒤축뼈힘줄의 바깥기슭과의 중간 점에 있다.
- 226) 足太陰脾經. 십이경맥의 하나.
- 227) 三陰交. 족태음비경의 혈 이름. 안쪽 복숭아뼈의 중심에서 세 치 올라가 굽은정강이뼈의 안쪽 후연과 긴발가락굽 힘살 사이에 있다.
- 228) 陰陵泉.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의 혈 이름. 굽은정강이뼈 안쪽 뒤 아래 우묵한 곳이다.
- 229) 病勢. (더하고 덜한) 병의 형세.
- 230)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231) 兩手. 두 손.
- 232) 넉지시. 걸으려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 233) 龍王前. 용왕께.
- 234) 尊貴. 높고 귀함.
- 235) 玉體. 임금의 몸.
- 236) 오장육부(五臟六腑). 내장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과 담, 위, 대장, 소장, 삼초(위의 윗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 부분), 방광.
- 237) 寸關尺脈. 촌·관·척의 맥. ‘촌·관·척’은 손목에서 맥을 보는 세 자리. 촌부(寸部)에서 상초(上焦), 관부(關部)에서 중초(中焦), 척부(尺部)에서 하초(下焦)의 증세를 봄.
- 238) 浮沈遲數. 한의학에서 부맥(浮脈), 침맥(沈脈), 지맥(遲脈), 삭맥(數脈)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부맥’은 살 거죽에 손끝을 대기만 하여도 맥이 뛰는 것을 알 수 있는 맥. ‘침맥’은 손 끝으로 눌러 보아야만 뛰는 것을 알 수 있는 맥. ‘지맥’은 보통보다 뛰는 회수가

- 적은 맥인데, 동맥경화 등에서 볼 수 있음. '삭맥'은 보통보다 뛰는 회수가 많은 맥.
- 239) 그것이.
- 240) 眼彩. 눈에서 비치는 생생한 기운. 안광(眼光).
- 241) 玲瓏. 눈부시게 찬란함.
- 242) 바위.
- 243) 兩角. 두 개의 뿔.
- 244) 崢嶸. 높고 가파름.
- 245) 如意珠. 부처의 사리에서 나와 용의 턱 아래에 있다는 구슬. 이것을 지니면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하여 붙은 이름.
- 246)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 247) 한다면.
- 248) 연못.
- 249) 泰山. 중국에 있는 이름난 산. 산동성 태안의 북쪽에 있음.
- 250) 大海. 큰 바다.
- 251) 雲霧. 구름과 안개.
- 252) 侍衛. 곁에서 호위함. 임금을 호위함, 또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
- 253)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
- 254) 鱗甲. (동물의) 비늘과 껍데기.
- 255) 火食. 불에 익힌 음식, 또는 그 음식을 먹음.
- 256) 湯藥. 달여서 먹는 한약.
- 257) 鍼藥. 침과 약.
- 258) 嘗百草. 온갖 풀을 맛봄.
- 259) 始有醫藥. 비로소 의학이 있게 되었음.
- 260) 皇帝素門. 《황제내경(皇帝內經)》 일부. 《황제내경》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인데, 원래 18권으로 '소문(素門)'과 '영추(靈樞)'로 나뉘어 있었음. '소문'은 자연철학의 차지에서 병리학설을 주로 다루었으며, 실제의 치료에 관한 서술이 적음. '영추'는 침구에 관한 서술이 주요 내용임.
- 261) 醫學入門. 중국 명나라 목종(穆宗) 5년(1571)에 이정(李梴)이 편집하고, 10년 후인 신종(神宗) 8년(1580)에 출간된 의학 입문서. 《동의보감》보다도 약 31년 앞서 편찬된 것으로, 《동의보감》의 편찬에도 많이 참고되었다고 하며, 조선시대 의과 과거시험에 기본과목으로 채택된 바도 많았다고 한다.
- 262)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263) 當한. 합당한.
- 264) 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265) 塵世間. 인간이 사는 세상.
- 266) 兔肝. 토끼의 간.

- 267) 閻羅大王. 염라국의 임금. 염라국은 죽음의 세계. 염라대왕은 지옥에 살며 18장관(十八將官)과 팔만 옥졸을 거느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의 생전의 선악을 다스려 악을 방지하는 대왕임.
- 268) 同姓. 성씨가 같음.
- 269) 강림使者. 강림도령.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로 염라대왕의 사자라고 함.
- 270) 外四寸. 외삼촌의 아들이나 딸.
- 271) 누를 황(黃), 샘 천(泉), 돌아갈 귀(歸)하시겠소.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겠다는 말.
- 272) 相生. 음양오행설에서 '金은 水를, 水는 木을, 木은 火를, 火는 土를, 土는 金과 잘 화합하여 복돌아줌'을 이르는 말.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화, 비장은 토, 간장은 목, 신장은 수, 폐장은 금에 결부시키고, 그 상호간의 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상생이라고 함.
- 273) 相剋. 음양오행설에서 '金은 木를, 木은 土를, 土는 水를, 水는 火를, 火는 金을 이김'을 이르는 말.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화, 비장은 토, 간장은 목, 신장은 수, 폐장은 금에 결부시키고, 그 상호간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을 상극이라고 함.
- 274) 卯方. 이십사방위의 하나로, 정동쪽을 중심으로 15도 각도 안의 방위.
- 275) 扶桑. 해가 뜨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276) 金鷄. 중국 신화 속의 새. 도도산(桃都山)에 도도수(桃都樹)라는 큰 나무가 있고, 나무 가지와 가지 사이가 삼천리나 되는데, 그 위에 금계가 있어, 해가 처음 뜰 때에 햇빛이 그 나무에 비치면 우는데, 금계가 올면 천하의 닭들이 모두 따라 울어 새벽이 왔음을 알린다고 함.
- 277) 陽氣. 햇 의 기운. 생동하는 기운.
- 278) 月宮.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궁전.
- 279) 長生藥. 오래도록 살아 죽지 않게 하는 약.
- 280) 적에.
- 281) 陰氣. 음침하거나 어둡고 찬 기운.
- 282) 日精月華. 햇빛과 달빛.
- 283) 肝經. 간의 경락.
- 284) 木屬肝하였삽기에. 간은 오행으로는 木에 해당되기 때문에.
- 285) 좋기 때문에.
- 286) 別號. 별명.
- 287) 明視. '무엇을 똑똑하게 봄. 분명히 봄.'이라는 의미.
- 288) 龍王은 辰이요. 용은 십이지(十二支)에서 진이요. 辰은 십이지의 하나로 용을 나타내기 때문임.
- 289) 토끼는 卯라. 토끼는 십이지의 묘임. 卯는 십이지의 하나로 토끼를 나타냄.
- 290)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는 말.
- 291) '간진술(辰辰戌)은 陽土요'의 잘못.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 292) 相剋. 오행설에서 쇠는 나무를, 나무는 흙을, 흙은 물을, 물은 불을, 불은 쇠를 이김을

이르는 말.

- 293) 甲寅辰은 大江水. 십간과 십이지의 갑과 인과 진은 큰 강의 기운을 나타낸다. 육십갑자 병납음(竝納音)에는 '갑인을묘(甲寅乙卯) 대계수(大溪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의 잘못된 생각됨.
- 294) 辰艮巳山은 元屬木. (점술이나 택일에 쓰이는 홍범 오행에) 진과 간과 사와 산은 원래 목에 속한다는 말.
- 295) 木剋土. 오행의 목이 토를 이김.
- 296) 水生木하였으니. 오행으로 보았을 때, 용은 진이고, 진은 원래 목에 속하며, 토끼는 묘이고, 묘는 대계수에 속하므로, 상생이 되어 수생목이 된다는 말.
- 297) 잡수시면.
- 298) 卽瘥. 병이 곧 나음.
- 299) 長生不死.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삶.
- 300) 모시어도.
- 301) 回春하지를. '회춘'은 중한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302) 然하다. 그렇다.
- 303)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304) 渺然한. 그윽하고 멀어서 눈에 아물아물한.
- 305) 水國中에. 용궁 속에.
- 306) 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가진 청조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307) 白雲이 九萬里.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음.
- 308)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 309) 鬱鬱蒼蒼. 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따라서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로 해야 옳음.
- 310) 三千 古墳. 삼천 개나 되는 옛 무덤. 황제도 다 죽어 수많은 무덤이 있다는 말.
- 311) 皇帝墓인데. 황제의 묘인데.
- 312) 짐승은.
- 313) 海外. 바다 밖. 곧, 육지.
- 314) 日月의. 해와 달의. 해와 달이 있는.
- 315) 無定處로.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 316) 是非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317) 求하길. 구하지를.
- 318) 藥名. 약의 이름.
- 319) 諸臣. 여러 신하.
- 320) 下敎. 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쳐 보임.
- 321) 聖德. 훌륭한 덕.
- 322) 忠義之臣.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

- 323) 없겠습니까?
- 324) 恩惠하여. ‘충충’은 몹시 급하고 바쁜 모양.
- 325) 물러갑니다.
- 326) 清雅한. 속되거나 상스러운 티를 벗어 맑고 아름다운.
- 327) 玉笛. 옥으로 만든 피리.
- 328) 謝禮. 감사의 예를 올림.
- 329) 水府朝廷. 물을 다스리는 조정.
- 330)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331)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332)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333) 宰相님네. 재상님들.
- 334) 等物들이. 여러 사물들이.
- 335) 모두.
- 336) 얻어가지고.
- 337) 太昊 伏羲氏. ‘태호’는 매우 밝다는 뜻. 따라서 복희씨는 덕이 높은 천자로서 매우 밝아 해나 달과 같다는 뜻. ‘복희씨’는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338) 有龍瑞어늘 以龍紀官하였다는. 용마가 그림을 짙어지고 강에서 나온 상스러운 징조가 있어서, 벼슬 이름에 ‘용’ 자를 붙였다고 하는.
- 339) 史記. 여기서는 한나라 때 사마천이 쓴 역사서인 《사기》를 말함.
- 340) 上古. 오랜 옛날.
- 341) 생겨났던.
- 342) 文官. 문과 출신의 벼슬아치. 동반(東班).
- 343) 武官. 무사(武事)·군사(軍事) 관계를 맡아 보는 관리. 무과 출신의 벼슬아치. 서반(西班).
- 344) 分別. 서로 구별을 지어 가름.
- 345) 左丞相. 우리나라의 좌의정과 같은 중국의 벼슬.
- 346) 右丞相. 우리나라의 우의정과 같은 중국의 벼슬.
- 347) 吏部尙書. 중국에서 이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이부’는 문관의 선임과 공훈, 봉작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348) 농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1m 가량.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큼.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온몸에 잔비늘이 많음. 등은 검푸르고, 배쪽은 은백색인데, 어릴 때는 등과 등지느러미에 검은 갈색의 점이 많음.
- 349) 戶部尙書. 중국에서 호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호부’는 국가의 재정을 맡아보던 관청.
- 350) 魴魚. 전갱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길이 1m쯤, 몸은 긴 방추형이고, 주둥이는 뾰족함. 몸빛은 등쪽이 철색을 띤 푸른색, 배쪽은 은백색인데, 주둥이 끝에서 꼬리자루 사이에 연노랑의 세로 띠가 하나 있음.
- 351)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받아보던 관청.

- 352) 兵部尙書. 중국에서 병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병부’는 군사에 관한 일을 받아보던 관청.
- 353) 송어과에 딸린 물고기. 몸길이가 70cm 안팎으로 기름하고, 등은 거의 직선형이지만 배쪽은 휘어 있고 기름진 두꺼운 눈꺼풀로 덮여 있음. 몸빛은 등쪽이 회청색, 배쪽은 은백색이며, 온몸에 뾰뾰한 비늘이 있음.
- 354) 刑部尙書. 중국에서 형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형부’는 법률과 소송, 감옥, 노예에 관한 일을 받아보던 관청.
- 355) 鱧魚. 송어(松魚)를 잘못 일컫는 말. ‘송어’는 연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길이 60cm 가량. 연어와 비슷한데, 주둥이가 좀 둔하며, 눈알에 검은 반점이 흩어져 있고, 몸빛은 등이 짙은 남빛, 배는 은백색이며, 옆구리에는 암갈색의 작은 점이 많음.
- 356) 工部尙書. 중국에서 공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공부’는 공업과 치산치수의 일을 받아보던 관청.
- 357) 民魚. 민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모양은 송어와 비슷하나, 대가리가 덜 넓적하고, 빛깔이 검음. 길이 60~70cm. 몸빛은 등쪽이 회청색이고 배쪽은 희옅스름함. 짧은 수염이 있고, 등지느러미의 앞쪽이 잘록하며, 꼬리지느러미는 참빛 모양임.
- 358)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359) 모기붙이. 모기 비슷한데, 몸길이 6mm 안팎. 피를 빨아먹지 않으며, 애벌레는 연못이나 흐르는 물에 살.
- 360) 大司憲. 정치를 논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벼슬아치를 탄핵하는 사헌부의 우두머리.
- 361) 도루묵. 양도루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15~16cm로, 몸빛은 등은 황갈색에 불규칙한 황갈색 흐름 무늬가 있고, 몸 옆과 배 쪽은 은백색임.
- 362) 諫議大夫. 중국의 옛 관직 이름. 천자의 잘잘못을 따지며,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 아지. 고려 때 문하부의 정4품 벼슬 이름이기도 함.
- 363) 물치. 다랭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고등어와 비슷한데 길이 30cm 안팎이며, 입은 작고 다소 쳐들렸음. 몸 빛은 등은 남록색에 물결 모양의 세로 띠가 있고, 배는 은백색임.
- 364) 太史官. 옛날 중국에서 기록을 맡아 보던 관리.
- 365) 물고기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66) 金紫光祿大夫. 고려 때 문관의 종이품 벼슬. ‘금자’는 따로 금인(金印, 황금으로 만든 도장)과 자수(紫綬, 정삼품 이상의 당상관이 차는 호패의 자줏빛 술실이나 술띠)를 가리키는 말로, ‘귀한 사람’을 이름.
- 367) 물고기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68) 銀青光祿大夫. 고려 때 정삼품 문관의 품계.
- 369) 銀魚. 은어과에 딸린 물고기. 몸 길이 20~30cm, 몸 빛은 어두운 녹황색 바탕에 배 쪽으로 갈수록 담백색임. 어릴 때는 바다에서 지내고, 이른 봄 하천으로 다시 올라와 여울에 많이 살며, 가을에 알을 모래나 자갈 밑에 낳음. 향기가 있고, 맛이 좋음.
- 370) 大元帥. 전군(全軍)을 통솔하는 대장.
- 371) 大司馬. 병조판서를 옛스럽게 이르는 말.
- 372) 鯢魚. 중국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큰 물고기.
- 373) 龍驤將軍. 진(晉)나라 때 장군의 이름. 여기서는 ‘용처럼 날뛰는 용맹스런 장군’이란

의미로 만든 말임.

- 374) 이무기. 전설상의 동물. 용이 되려다 못 되고, 깊은 물 속에 산다는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
- 375) 虎威將軍. ‘호랑이처럼 위세 있는 장군’이란 뜻으로 만든 장군 이름.
- 376) 가래상어. 수구리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60cm 정도. 꼬리가 살지고,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잘 발달되어 있어 상어 무리와 비슷하나, 아가미 구멍이 배 쪽에 있으므로 가오리 무리에 속함. 몸빛은 흑갈색이고 얼룩무늬가 없음. 난태생으로 6월 경에 여섯 마리 가량의 새끼를 낳음.
- 377) 驃騎將軍. 장군의 이름. 고려 때 무관 중 종일품 무관은 표기대장군이라고 하였음.
- 378) 벌떡게. 게의 일종.
- 379) 遊擊將軍. 장군 이름. 고려 때 종오품 무관의 품계.
- 380) 蛤將軍. ‘대합조개 장군’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장군 이름.
- 381) 鰐參軍. ‘인’은 메기이며, ‘참군’은 정칠품, 혹은 종칠품 무관 벼슬. 따라서 ‘인참군’은 ‘메기 참군’이란 의미로 지어낸 이름.
- 382) 물에 사는 메기.
- 383) 守門將. 대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 384) 大口. 대구과에 딸린 한대성 바닷물고기. 깊은 바다에 사는데, 몸 길이 70~75cm의 넓적하고 길면서 둥근 모양으로 명태 비슷함.
- 385) 酒泉太守. 주천 고을의 태수. ‘태수’는 지방 관리의 하나.
- 386) 主簿. 조선조 때 종육품 벼슬 이름.
- 387) 徐州刺史. 서주 고을의 자사. ‘자사’는 중국의 지방 관리의 하나.
- 388) 서대기. 양서대과와 참서대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나뭇잎처럼 납작하고 신바닥 모양으로 생겼는데, 두 눈이 모두 왼쪽에 달렸음. 몸 빛은 어두운 갈색에 얼룩점이 흩어져 있으며, 눈 있는 쪽의 입술에 수염이 많음.
- 389) 兗州刺史. 연주 고을의 자사. ‘연주’는 ‘구주(九州. 옛 중국을 아홉 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의 하나로, 지금의 하북성 및 산둥성의 일부.
- 390) 鰻魚. 연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이 살지고, 길이 75cm 안팎. 등은 회색이 섞인 남색이고, 배는 은백색임. 하천 상류에 올라와 알을 낳으며, 산란 후에는 몸이 쇠약해져 죽음.
- 391) 監獄官. ‘형벌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리’라는 뜻으로 지어낸 말.
- 392) 水獺. 족제비과에 딸린 포유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몸통의 길이는 60~80cm, 꼬리는 40~50cm이고, 몸의 위쪽은 광택이 나는 갈색, 아래쪽은 담갈색임.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교묘히 헤엄치며, 물고기, 개, 조개 등을 잡아먹음. 강기슭이나 늪가에 굴을 파고 살며, 봄에 1~5 마리의 새끼를 낳음.
- 393) 留守. (임금을 대신하여 머물러 지키다는 뜻) 수도 이외의 요긴한 곳을 다스리던 특수한 벼슬아치의 이름.
- 394) 鰻魚. 쏘가리. ‘쏘가리’는 농어과에 딸린 민물고기. 몸길이 40~50cm로 몸은 아주 납작하며, 입이 크고 아래 턱이 좀 길. 몸은 검은 빛을 띤 누른 빛이고, 머리와 등에 보라·회색 무늬가 많아 몹시 곱게 보임.
- 395) 兵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조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 지휘하던 종이

품 무관.

- 396) 靑魚. 청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이 좀 늘씬하고 옆으로 넓적함. 길이 35cm 안팎.
- 397) 海狗. 물개.
- 398) 鰹魚. 가다랭이. 다랭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90cm 가량, 무게 25kg에 이름. 몸은 물레가락 모양이며, 살찌고 등굼. 등은 검은 청자색, 배는 은백색임.
- 399) 清白吏. 청렴한 벼슬아치.
- 400) '백어(白魚)'라고도 함. 뱀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은 앞 쪽이 등글고, 뒤 쪽으로 가면서 납작함. 길이 10cm 안팎.
- 401) 貪官汚吏.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탐욕이 많은 관리.
- 402) 注書. 조선조 때 승정원의 정칠품 벼슬. 사초(史草)를 쓰는 일을 맡아 보았음.
- 403) 禁軍別將. 조선조 때 용호영(龍虎營. 대궐을 지키던 군대)의 우두머리 장수로, 품계는 종이품 가선대부.
- 404) 농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는 40cm 정도. 몸 빛은 자주빛이 도는 회옅스름한 갈색이며, 옆구리에 일곱 줄의 폭이 넓은 검은 갈색 띠가 있음.
- 405) 左右 巡手. 좌 순령수와 우 순령수. '순령수'는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406)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 407) 망둥이. 망둥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민물과 바닷물에 나며, 대개 몸길이 20cm 로 물밑에 사는데, 배 쪽은 납작함.
- 408)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409) 大蝦. 보리새우과에 딸린 새우의 하나. 우리나라 새우 중 가장 큰 새우로, 맛이 좋음. 전체 길이는 23~27cm. 몸빛은 분홍빛이 도는 흰빛이고, 수명은 일 년임.
- 410) 병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은 길이 60cm, 길이 40cm 가량으로 몹시 넓적하며, 등그스름한 마름모꼴이고, 입과 눈이 아주 작음. 병치.
- 411) 錢魚. 청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약 25cm. 몸은 높고 옆으로 납작하며, 등지느러미의 마지막 여린 줄기가 특히 길어서 긴 실 모양으로 꼬리까지 이름.
- 412) 복. 복어.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똥똥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413)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름.
- 414) '솜뱅이'의 잘못인 듯. 양볼락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약 20cm. 몸은 쏘가리와 비슷하며, 몸빛은 살고 있는 곳에 따라 변화가 심한데,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홍색이거나 흑갈색이며, 복잡한 무늬가 있음.
- 415) 아주 미끄러운 느낌을 표현하는 말.
- 416) 뱀장어.
- 417) 군뢰사령(軍牢使令). 군대 안에서 죄인을 다루던 병졸.
- 418) 자가사리. 민물고기의 한 가지로, 동자개와 비슷하나 몸이 작고, 입 둘레에 네 쌍의 수염이 있으며, 몸빛은 누르다.

- 419) 돌 밑에 사는 꺾저기. ‘꺾저기’는 농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쏘가리와 비슷하나 좀 작음.
- 420) 산에 있는 냇물에는 중고기가 있고. ‘중고기’는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몸은 가름하고 납작하며, 길이는 10~16cm, 몸빛은 등 쪽이 암록갈색이고, 배는 희며, 옆구리 중앙에 암색의 세로띠가 있음.
- 421) 三千宮女. 삼천 명의 궁녀.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 명의 궁녀가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함.
- 422) 피라미.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 몸길이는 10~14cm,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현저한 혼인색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빛 좋은’이란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임.
- 423) 망둥이.
- 424) 찡뚱어. 망둥이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15~18cm. 몸은 말뚝망둥이 비슷하여 가늘고 길며, 머리 폭이 넓음.
- 425) 물고기 이름인 듯하나 불명.
- 426) 개구리.
- 427) 송사리의 경상도 사투리.
- 428) 班次. 품계의 차례.
- 429) 御前. 임금의 앞.
- 430) 伏地聽令. 땅에 엎드려 명령을 들음.
- 431) 朝官. 조정에 몸을 바치고 있는 모든 관리. 조선(朝臣).
- 432) 衣冠身惹御爐香. 의관을 정제한 몸이 어로에서 나는 향에 이끌린다. 당나라 때 시인 가지(賈至)의 시 <조조대명궁정양성요우시(早朝大明宮呈兩省僚友詩)>에 있는 구절. ‘어로’는 천자가 쓰는 향로.
- 433) 波市坪. 파시가 열리는 장소. ‘파시’는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
- 434) 尊長치계. ‘존장’이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이르는 말이므로, ‘존장치다’는 ‘훨씬 낫거나 더하다’는 뜻.
- 435) 脾胃. 음식을 삭여 내거나 또는 일을 상대하여 견뎌내는 성미.
- 436) 傷하계. 마음이 괴롭고 언짢게.
- 437)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438) 都物主.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밀전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키는 우두머리.
- 439) 朕. 임금이 자기자신을 ‘나’라는 뜻으로 스스로 일컫는 말.
- 440) 百官諸臣. 모든 관리와 여러 신하.
- 441)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442) 默默不答.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443) 禮官. 예의, 제사, 조회, 과거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관리.
- 444) 白衣宰相. 선비로 있던 사람이 순서를 밟지 않고 대변에 재상 벼슬에 오른 사람.
- 445) 鰻魚. 쏘가리. ‘쏘가리’는 농어과에 딸린 민물고기. 몸길이 40~50cm로 몸은 아주 납작하며, 입이 크고 아래 턱이 좀 굽. 몸은 검은 빛을 띤 누른 빛이고, 머리와 등에 보라·회색 무늬가 많아 몹시 곱게 보임.
- 446) 宦海風波. 벼슬살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 447) 桃花流水 別有天地. 복숭아꽃이 물에 떠내려오는 별천지.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고기잡이배를 타고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갔다가 선경을 발견했다고 하였음.
- 448) 白鷗. 갈매기.
- 449) 三公不換. 삼공과 바꾸지 않음. 곧 높은 벼슬자리와 바꾸지 않음. ‘삼공’은 삼정승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는 말.
- 450) 張志和. 중국 당나라 때의 선인. 물위에 자리를 깔고 그 위에서 술을 마시면, 머리 위에서는 학이 춤을 추었다고 함.
- 451)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452) 文武間에. 무신이든 문신이든 간에 아무나.
- 453) 薦擢. 어떤 자리에 인재를 추천하는 일.
- 454) 知臣은 莫如主.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 곧 임금이 신하를 제일 잘 안다.
- 455) 不勝其任.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함.
- 456) 不可하다. 옳지 못하다.
- 457) 요(堯)임금.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서 제왕의 모범으로 일컬어짐.
- 458) 鯀.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인물. 요임금의 신하. 전욱(顓頊)의 아들이며, 우(禹)임금의 아버지. 치수 사업에 종사한 지 9년이 되어도 그 보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음.
- 459) 孔明. 제갈 양(諸葛 亮. 181-234)의 자.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 유비를 도와 오나라와 협세하여 조조의 위군(魏軍)을 쳐부수고 촉한을 세움. 후에 사마의가 이끄는 위군과 대전 중 병으로 사망하였음. 뛰어난 지략과 충의로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460) 馬謖(190-228).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 자는 유상(幼常). 재주가 뛰어나고, 병략(兵略)에 밝아 제갈 양의 명을 받고 일군의 통수가 되었음. 촉한의 요지 가정의 싸움에서 위나라 장수 장합에게 크게 패하여 중원 공략의 웅대한 계획도 허사로 돌아가매, 제갈 양은 그를 애석히 여겼으나 눈물을 흘리며 목을 베었음.
- 461) 街亭. 중국 협서성 성고현 서쪽에 있는 지명으로 촉한의 마속과 위나라의 장합이 싸운 곳.
- 462)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였다고 함.
- 463) 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464) 誑楚亡身 紀信이는.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이는.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465) 임금.
- 466) 能臣. 능력 있는 신하.
- 467) 智略. 슬기로운 계략. 슬기와 꾀.
- 468)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껍데기를 말함.
- 469) 모두.
- 470) 대모(玳瑁)인고로. 대모이기 때문에.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공예품이나 장식품의 고급 재료로 쓰임.
- 471) 떼어내어.
- 472) 玳瑁粧刀. 대모로 손잡이와 칼집을 만든 장도. ‘장도’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주머니나 옷고름 따위에 차고 다니면서 주머니칼처럼 썼음.
- 473)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 살쩍을 망건 밑으로 밀어넣는 데 쓰는 도구. ‘살쩍’은 귀 밑에 난 털.
- 474)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집안에서는 이것만 쓰기도 했음.
- 475) 탕건에 붙이는 장식물인 듯하나 불명.
- 476) 칠쌈지. 담배를 넣어서 옷 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쌈지의 하나. 장방형(長方形)의 형질로 한 쪽에만 넣을 자리가 있는데,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음. 혹은 끈을 달아 묶기도 함.
- 477) 禁軍別將. 용호영(龍虎營)의 우두머리 장수. ‘용호영’은 조선시대 대궐을 호위하던 부대.
- 478) 벌써부터.
- 479) 吏部尙書. 중국의 이부의 장관. ‘이부’는 문관의 선임과 공훈 봉작, 성적 등을 평가하는 일을 맡아보는 부서.
- 480) 서울에서는 송기탕의 찜감으로 속갓을 쓴다는 말.
- 481) 松肌湯. ‘송기’가 ‘소나무의 속껍질’이므로, ‘소나무의 속껍질을 넣고 끓인 탕’을 가리킨 듯.
- 482) 찜을 하기 위한 재료.
- 483) 언참군(鰐參軍). ‘언’은 메기이며, ‘참군’은 정철품, 혹은 종철품 무관 벼슬. 따라서 ‘언참군’은 ‘메기 참군’이란 의미로 지어낸 이름.
- 484) 물에 사는 메기.
- 485)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486) 독약의 한 가지. 산초의 줄기·잎·열매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물에 풀면 물고기가 견뎌내지 못함.
- 487) 주둥이가.
- 488)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의 뜻.
- 489) 療飢飢. 시장기를 면할 재료.
- 490) 조그마한.
- 491)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492) 蓑笠. 도롱이나 샛갓.
- 493)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 494) 斜風細雨不須歸. 비스듬히 부는 바람과 가는 비에도 (세월을 잊고) 돌아갈 줄을 모름.
당나라 시인 장지화(張志和)의 시 〈어부(漁夫)〉의 한 구절.
- 495) 미끼.
- 496) 꿰어서.
- 497) 食食. 먹을 것을 탐냄.
- 498) 斷不饒貸.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
- 499) 腹疾. 배를 앓는 병.
- 500) 배앓이.
- 501) 데.
- 502) 蛤將軍. ‘대합조개 장군’이란 뜻으로 만들어낸 장군 이름.
- 503) 全身. 온몸.
- 504) 甲冑. 갑옷과 투구.
- 505) 鐵甲. 쇠붙이를 겹에 붙여 만든 갑옷.
- 506) 굳굳하고. 단단함.
- 507) 防身制度. 제 몸을 지키는 방법.
- 508) 觀蚌鷸之勢하고 坐收漁人之功이라. 홀조(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으며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어부가 둘 다 손쉽게 잡는다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다가 마침내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말함.
- 509) 鷸鳥. 도요새.
- 510) 모두.
- 511) 驃騎將軍. 장군의 이름. 고려 때 무관 중 종일품 무관은 표기대장군이라고 하였음.
- 512) 게의 일종.
- 513) 豪氣. 씩씩한 의기.
- 514) 臣.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일컫는 말.
- 515) 靑林碧溪. 푸른 숲 속 푸른 시내.
- 516)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 517) 潛身하고. 몸을 잠그고.
- 518)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 519) 산중토(山中兔). 산 속의 토끼.
- 520)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 521) 顏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 522)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523) 엄지발가락.
- 524) 大王前에. 대왕 앞에.
- 525) 잘하기 때문에.
- 526) 公論. 여럿이 모여 의논함, 또는 여럿이 하는 의논.
- 527) 未決. 결정되지 아니함.
- 528)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

등신화》의 〈수궁경회록〉 편에 나온.

- 529)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530) 長頸烏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531) ‘호흉배(虎胸背) 등에다’의 잘못. ‘호흉배’는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 조각.
532)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533)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534)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535) 鼈主簿.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536) 至尊. 더할 수 없이 존귀하다는 뜻으로 임금을 공경하여 이르는 말.
537) 奏達. 임금에게 아뢰м.
538) 百行. 모든 행동.
539) 三綱.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세 가지 도리. 곧,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함.
540) 것이웁지. 것이지.
541) 先代. 조상. 조상의 세대.
542)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감.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굴원이 주위의 참소를 입고 분함을 못이겨 이곳에 빠져 죽은 것으로 유명함.
543) 사시더니.
544) 浙江. 전당강(錢唐江)의 다른 이름. 중국 절강성을 북동으로 흘러 항주만으로 흐르는 강. 경치가 좋음.
545) 娶妻.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음.
546)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먹라 수에 빠져 죽었다.
547) 伍子胥. 초나라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 오사(伍奢)와 형 오상(伍尚)이 초나라 평왕에게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로 망명한 후 장군이 되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간신 백비(伯嚭)의 참소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가죽 부대에 담겨져 강물에 버려졌다. 자서는 그의 자(字)이며, 이름은 원(原)이다.
548) 夫婦之間. 부부간. 부부 사이. 여기서는 ‘부부 모두’라는 의미로 썼음.
549) 忠魂. 충성스런 혼.
550) 들었사옵기에. 들었기 때문에.
551) 오장육부(五臟六腑). 내장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과 담, 위, 대장, 소장, 삼초(위의 위 부분, 위 부근, 배꼽 아래 부분), 방광.
552) 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553) 올릴 텐데.
554) 限死決斷. 죽기를 한하고 기어코 결정함. 목숨을 걸고 기어이.
555) 滿座. 전 좌석에 늘어앉아 있는 사람들.

- 556) 둘러서서.
- 557) 末職. 맨 끝자리의 벼슬이나 직위.
- 558) 主簿. 조선조 때 종6품 벼슬.
- 559) 疑惑하시어. 의심스럽게 생각하시어.
- 560) 卿. 임금이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대하여 이르는 말. 따라서 여기서는 잘못 사용되었다.
- 561) 珍味. (음식의) 아주 좋은 맛.
- 562) 危邦. 위험한 나라.
- 563) 陽界. 사람이 사는 세상.
- 564) 許多한. 수많은.
- 565)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 566) 三百毛族. 삼백 종류나 되는 수많은 털이 난 짐승.
- 567) 데려올지?
- 568) 申包胥.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의 대부. 오나라가 침범했을 때 진(秦)나라의 원조로 오나라를 격파했음.
- 569) 夸父.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인물. 자기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해와 경주를 하다가 목말라 죽었음.
- 570) 離婁. 눈이 밝아 백 보 앞의 터럭을 분간했다는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
- 571) 蘇秦.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낙양 사람으로 연변이 뛰어났다. 진(秦)나라에 대항하는 다른 여러 나라의 동맹책(合從)을 성공시켜 6국의 재상을 겸임하였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5년 동안 진의 세력을 방비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동서 연횡설(連橫說)을 주장하는 장의(張儀)에 의해 깨졌다.
- 572) 口辯. 말솜씨.
- 573) 孟賁.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용사.
- 574) 모양.
- 575) 迫切. 인정이 없고 매몰스러움.
- 576) 白燒酒. 색깔을 내지 않은 흰 소주.
- 577) 차라탕.
- 578) ‘십상팔구(十常八九)’의 준말. (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이 그러하다는 뜻으로)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의 뜻.
- 579) 血眼. 기를 쓰고 달려들어 핏발이 선 눈.
- 580) 方寸間. ‘사방으로 한 치 되는 사이’라는 뜻으로 ‘마음’, ‘마음속’을 가리키는 말.
- 581) 넷이웁고.
- 582) 九鼎. 중국 우(禹) 임금 때에 구주(九州. 옛 중국을 아홉 개의 구역으로 나눈 데서 나온 말로, 중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에서 금을 모아 만든 술. 하나라 은나라 이래로 천자에게 전해 내려오는 보물임.
- 583) 白起.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사람으로 용병을 잘하였다고 함.
- 584) 銳頭. 뾰족한 머리. 머리가 좋은 것을 이르는 말.
- 585) 콧구멍.
- 586) 意思. (무엇을 하고자 하여) 마음먹은 바의 뜻.

- 587) 肝腦塗地. (참살을 당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나라 일을 위하여
는 참혹한 죽음도 꺼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588) 水國. 물의 나라.
- 589) 形容대로. 생긴 모양대로.
- 590) 畫像. 그림으로 그린 초상.
- 591) 累代. 여러 대. 오랜 기간.
- 592) 膽力. 겁을 모르는 용감한 기운.
- 593) 畫工. 화가.
- 594) 畫師子. 화가.
- 595) 있겠는가?
- 596) 前身. 전세(前世)의 몸.
- 597) 塵世間. 인간이 사는 세상.
- 598) 華蟲. 평.
- 599) 알겠느냐?
- 600) 伏地奏曰. 땅바닥에 엎드려 아뢰.
- 601) 塵世. 인간이 사는 세상.
- 602) 만만한. 힘들이지 않고 아주 손쉽게 다룰만한.
- 603) 非成則壞.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나라의 재상을 위성(魏成)·적항(翟璜) 두 사람 중
에서 정했다는 옛일에서 나온 말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고른다는 뜻.
- 604) 患難相助. 걱정거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움.
- 605) 禽獸. 날짐승과 길짐승.
- 606) 情地. 정다운 처지.
- 607) 自別하기로. 친분이 남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 608) 삼삼하옵니다. 잊혀지지 않고 눈앞에 보는 것같이 또렷하옵니다.
- 609) 舉行. 명령에 따라 시행함.
- 610) 燕昭王.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의 소왕. 이름은 평(平)이며,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어진 선비를 후하게 대했으며, 악의(樂毅)를 장군으로 삼아 제(齊)나라의 70여 성을
빼앗았다.
- 611) 黃金臺. 연나라 소왕이 천하의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놀던 곳. 그 누대를 짓는
데 천금이 들었다하여 '황금대'라고 하였음.
- 612) 名畫師. 이름난 화가.
- 613) 鸞國天子凌虛臺. 불명.
- 614) 洞庭琉璃青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 색과 붉은 색이 나는 고운
벼루.
- 615)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616)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은 그릇.
- 617)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618) 덧석. 무엇을 큼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619)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갈.

- 620) 白綾雪花箋紙에. 눈꽃 무늬가 있는 흰 비단으로 된 좋은 종이 위에.
- 621) 天下名山勝地間의. 온 세상의 이름난 산과 뛰어난 경치 속의.
- 622) 景概. 경치.
- 623) 芝草. 지치. 쌍떡잎 식물 갈래꽃류에 속하는 한 과(科)로, 염료나 약재용으로 쓰임.
- 624) 香草. 향기나는 풀.
- 625) 지자귀어 울 제.
- 626)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627)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628) 雲霧. 구름과 안개.
- 629) 냄새.
- 630)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 631) 大寒.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소한의 다음이며, 양력 1월 21일 경으로 가장 추운 때임.
- 632) 嚴冬. 매우 추운 겨울.
- 633) 雪寒風에.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 추위에.
- 634) 禦寒하던. 추위를 막던.
- 635)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636) 嘗百草. 온갖 풀을 맛봄.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인 신농씨가 온갖 풀을 먹어 보아 약초를 찾아냈다고 함.
- 637) 동글동글함.
- 638) (입술이나 귀 따위를) 뻣뻣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히 내미는 모양.
- 639) 늘씬하고. 미끈하게 길고.
- 640) 꼬리.
- 641)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642) 左便. 왼쪽.
- 643) 右便. 오른쪽.
- 644) 녹수(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 645) 綠水靑山. 푸른 물과 푸른 산.
- 646) 조금 휘어져 굽은.
- 647)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648) 楊柳. 버드나무.
- 649)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 650) 자꾸 왔다갔다하는 모양.
- 651) 엉거주춤.
- 652) 樣. 모양.
- 653) 아미산월(峨眉山月)의 반륜토(半輪兔)인들.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에 보이는 토끼인

들.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으로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이 구절은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인 ‘아미산월반륜추(峨眉山月半輪秋)’의 변형임.

- 654) 이에서. 이보다.
- 655) 오타.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656) 御前. 임금의 앞.
- 657) 肅拜.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던 일.
- 658) 本宅. 본집. 자기 가족이 있는 집.
- 659) 慈堂. 상대자의 어머니를 높이어 이르는 말.
- 660) 青春早死.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음.
- 661) 獨守空房. 결혼한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새는 일.
- 662) 날아갈까.
- 663) 愛之重之.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
- 664) 비스듬히 기대어.
- 665) 閭. 마을의 문. 주나라 때의 제도에 스물다섯 집을 이(里)라 하고, 그 문을 ‘여’라고 하였음.
- 666) 비스듬히 기대어.
- 667) 登科. 과거에 급제함.
- 668) 人君. 임금.
- 669) 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670) 君爲臣忠. 임금을 위하여 신하는 충성을 함.
- 671) 職分. 마땅히 해야 할 본분.
- 672) 쉬. 빨리.
- 673) 骨曝沙場. 죽어서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 674) 거기서.
- 675)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676) 陋德. 덕을 더럽힘.
- 677) 다하여서.
- 678) 拜別. 이별의 인사를 드림.
- 679) 아낙네. 남의 집 부녀자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 680) 堂上.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681) 鶴髮老親.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부모.
- 682) 氣體安康. (웃어른의) 기력과 몸의 상태가 편안함.
- 683) 鐘鼓之樂. (‘음악의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부부의 화목한 정을 이르는 말.
- 684) 琴瑟之友.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정.
- 685) 五倫.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도리.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함),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할 일이 따로 있음), 장유유서(長幼有序: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음), 봉우유신(朋友有信: 친구 사이에는 신

- 의가 있어야 함)의 다섯 가지 도리.
- 686) 君臣有義. 오륜의 하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 687) 夫婦有別. 오륜의 한 가지. 부부 사이에는 할 일이 따로 있음.
- 688) 義. 떳떳한 도리.
- 689) 夫婦보다.
- 690) 粉骨碎身. 목숨을 내놓고 있는 힘을 다함.
- 691) 되신다고 해도.
- 692) 妾.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693) 奉養.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섬김.
- 694) 家事. 집안 일.
- 695) 一念.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의 생각. 여기서는 '단 한 가지의 생각도'라는 뜻으로 썼음.
- 696) 揮鞭萬里去 安得念香閨. 채찍을 휘둘러 만 리 밖으로 나아가니, 어찌 향기로운 안방을 생각하겠는가?
- 697) '말굽 크기만한 자라'인 듯.
- 698) 언뜻하면. '언뜻'은 어떤 물체가 잠깐 동안 희미하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양.
- 699) 宗族. 동성 동본의 겨레붙이. 일가친척.
- 700) 發程. 길을 떠남.
- 701) 朝夕으로. 아침저녁으로. 늘.
- 702) 아주.
- 703)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 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704)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705)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706) 자욱하게 긴.
- 707) 月峰.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708) '예장촌(豫章村)'의 잘못된 듯.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709) 回雁峯.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 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710) 蘆花. 갈대꽃.
- 711) 갈대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모양을 표현한 구절임.
- 712)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713)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714) 꿩과에 딸린 새.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715) 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리다.
- 716) '금성추파(金聲秋波)'의 잘못된. 가을 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
- 717) 碧波. 푸른 물결.
- 718) 滄浪. 맑은 물결.
- 719) 어린아이나 다리가 짧은 동물이 느리게 걷거나 기어가는 모양.
- 720) 등실.

- 721) 地廣. 땅 넓이.
 722) 波光. 물 빛깔.
 723) 天一色. 하늘과 같은 색깔.
 724) 天外巫山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 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725)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상강.
 726) 景이로다. 경치로구나.
 727)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拓)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728)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729)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730) 黃陵廟. 요임금의 두 딸이자, 순임금의 두 왕후였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731) 날이 저물어 밤에 내리는 비.
 732) 二十五絃彈琴聲. 스물다섯 개의 줄이 있는 비파를 타는 소리.
 733) 二妃. 요임금의 두 딸로 순임금의 두 왕비였던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734) 哀怨. 애절히 원망함. 슬프게 원망함.
 735)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틀 걸리는 거리임.
 736) ‘무관수(武關囚)’의 잘못.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737) 楚懷王.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때임.
 738) 藏身하고. 몸을 숨기고.
 739)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740) 바라봐. 바라본다.
 741)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742)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743)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744) 毘蘆峯. 산봉우리 이름.
 745)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賀知章)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746) 층층층. 층층으로. 겹겹이 쌓인 모양.
 747)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賀知章)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748) 액체가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모양.
 749) 萬山. 모든 산.

- 750) ‘울울(鬱鬱)’을 표현한 말인 듯. ‘울울’은 나무가 뻗뻗이 우거진 모양.
- 751) 落花. 떨어진 꽃잎.
- 752) 長松. 키가 큰 소나무.
- 753)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754) 옆으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넓적한
- 755) 뚝뚝한 다래 나무.
- 756) 柑子. 감자나무의 열매. 감자나무는 귤과 비슷하나 열매가 귤보다 작음.
- 757) 온갖.
- 758) 果木. 과일나무.
- 759) 굽이져.
- 760) 白鷗는. 갈매기는.
- 761)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 762)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763) ‘강상(江上)’의 잘못. 강물 위.
- 764) 때로 다니는 고니.
- 765) 少昊時節에. 소호 금천씨(金天氏)의 시절에.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이름을 붙였다고 함.
- 766) 紀官하던. 벼슬을 기록하던.
- 767)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 768) 양양창과점점동(洋洋滄波點點動). 넓고 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서 움직인다.
- 769) 사랑롭다. 사랑스럽다.
- 770) 鳥鵲이. 까마귀와 까치.
- 771) 너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 772)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 773) 소쩍새.
- 774) 새이름인 듯한데, 불명.
- 775) 湖畔새. 물총새과에 딸린 물새. 날개 길이 12cm, 부리 5.5cm 쯤 되며, 등은 적갈색에 자줏빛을 띠었고, 등의 아랫부분과 허리는 회고, 아랫도리는 황갈색, 부리는 붉은데 굵고 크며, 다리도 붉음.
- 776) 참새과에 딸린 새. 장박새와 비슷한데, 몸뚱이가 아주 작고 방울 소리같은 고운 소리로 울. 날개의 길이는 44mm 가량임.
- 777)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 778) 白沙之場. 흰 모래사장.
- 779) 약간 휘우듬하게 구부러진.
- 780) 狂風. 사나운 바람.
- 781) 몸이 큰 사람이나 짐승이 몸 전체를 율동적으로 멋있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
- 782) 遠山. 멀리 있는 산.
- 783) 暗暗. 깊고 그윽함.

- 784) 近山. 가까이 있는 산.
 785) 重重. 거듭거듭으로나 겹겹으로 되어 있는 모양.
 786) 奇巖. 기이한 바위.
 787) 轟轟. (산봉우리 따위가) 높이 솟아 뻗죽뻗죽함.
 788) 메아리.
 789) 流水는. 흐르는 물은.
 790) 물줄기 따위가 계속해서 힘차게 흘러내리는 소리.
 791) 한 곳으로.
 792) 합수(合水)졌다가. 물이 합쳐졌다가.
 793) 천방저 지방저 월터저 구부저.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794) 거품이 일어.
 795) 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796)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
 797) 거품.
 798) 술 식혀 등이 꺾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799) 바다 같은 넓은 물에 크게 움직이는 물결.
 800)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801)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여기서는 물 속에 비친 산 그림자가 물결에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됨.
 802) 어느 곳으로.
 803) 然後. (그러한) 후.
 804) 날짐승. 날개가 있어 날아 다니는 짐승. 새.
 805) 上座. 윗자리 또는 높은 자리.
 806) 上座다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
 807) 可觀. 구경거리로 될 만함.
 808) 年齒.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809) 물러나 있거라.
 810) 言辭. 말.
 811) 相通. 서로 통함.
 812) 舜 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813) 南薰殿.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
 814) 순임금이 탔다는 줄이 다섯인 비파.
 815) 蕭蕭鬼聲. 쓸쓸한 귀신 소리.
 816)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817)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도읍을 삼은 곳.
 818) 鬱鬱할. ‘울울’은 나무가 매우 배게 들어서 무성함. 여기서는 ‘매우 무성할’이라는 의미로 쓰였음.
 819) 周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며, 무왕은 은나라 폭군 주(紂)를

- 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주나라를 세웠음.
- 820) 萬古大聖.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대 성인.
- 821)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822) 길. 사람의 키만한 길이.
- 823) 飢不啄粟.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음.
- 824) 瀛洲山. 신선이 산다는 중국의 삼신산의 하나.
- 825) 梧桐. 오동나무.
- 826) 짓들었고. 봉황새는 오동나무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함.
- 827)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 828) 全身. 온몸.
- 829) 눈을 속되게 이르는 말.
- 830) 검은 창. 검은 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 831) 대가리.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 832) 根本. 자라는 환경과 경력.
- 833) 越王 句踐.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했음. 그 후 명신 범려와 와신상담(臥薪嘗膽) 20년에 마침내 부차를 죽여 회계의 치욕을 씻고, 패자(霸者)가 되었음.
- 834) 彷彿. 아주 비슷함.
- 835) 검기는. 검은 것은.
- 836) 山陰. 중국의 지명.
- 837) 王羲之(307?-365?).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자는 일소(逸少). 그의 전아하고 힘차며 품위 있는 서풍은 일찍부터 안팎의 존경을 받았음.
- 838) 洗硯池. 벼루를 씻은 연못.
- 839) 생긴.
- 840)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841) 船遊. 배를 타고 놀.
- 842) 南飛. 남쪽으로 날아감.
- 843) 三國興亡. 위·오·촉 세 나라의 흥망.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지은 시 〈단가행(短歌行)〉의 ‘月明星稀 烏鵲南飛 遶樹三匝 無枝可依(달은 맑고 별은 희미한 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다)’를 두고 한 말임. 〈단가행〉은 패하여 도망칠 유비를 조롱하여 지은 것임.
- 844) 空林. 빈 숲. 낙엽이 진 숲.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한적한 숲.
- 845) 反哺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길러준 은혜를 갚는 일.
- 846)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847) 心性.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 848) 不測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어서. 엉큼하고 꾀셈하여.
- 849) 나무에.
- 850) 動할 제. 어지럽게 할 때.

- 851) 守節 寡婦. 남편이 죽은 뒤 결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과부.
- 852) ‘오비이락(鳥飛梨落)’을 가리킴. ‘오비이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의심을 받게 됨을 이룸.
- 853) 毛族. 몸에 털이 난 짐승.
- 854) 길짐승.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짐승.
- 855) 었드려.
- 856)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 857) 絶筆. 붓을 놓고 글 쓰기를 그만둠.
- 858)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대[획린(獲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 859)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 860) 舉動時.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 861) 天子 玉輦.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
- 862) 玉京仙官.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 863) 乘匹. 타고 다님.
- 864) 老獅子. 늙은 사자.
- 865) 西伯. 주나라의 문왕.
- 866)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867)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 868) 德化. 덕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킴.
- 869) 壯하시어. 훌륭하시어.
- 870) ‘영유유복(靈囿攸伏)’의 잘못. 《시경》 대아편 〈영대〉에 나오는 ‘왕재영유(王在靈囿) 우록유복(麀鹿攸伏)(임금님께서 영유에 계시니 암사슴 숫사슴 었드려 노네.)’를 줄여 말한 것임. ‘영대’는 문왕이 지은 누대. ‘유’는 새와 짐승을 기르는 곳. ‘영유’는 문왕이 지은 영대에 있는 동산.
- 871) 欲獵馬하다 誤獵獐하딘. 말을 잡으려다가 잘못해서 노루를 잡딘.
- 872) 韓 文公. 당나라 때의 문장가 한유(韓愈). 자는 퇴지(退之), 호는 창려(昌黎). 당·송의 여덟 대가 중의 한 사람. 몇 차례나 좌천을 당했으나, 만년에는 이부시랑에 오름. 유학을 숭상하고 고문의 부흥을 제창함. 시에서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호탕·기발한 작품이 많음.
- 873) 族譜. 한 족속의 계통과 혈통에 관한 것을 적은 책.
- 874) 毛穎. 붓.
- 875) ‘기기마(騏驎馬)’의 잘못.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좋은 말.
- 876) 無虎洞中. 호랑이가 없는 굴 속.
- 877) 샅쟁이. 고양이과에 딸린 짐승. 고양이와 비슷한데, 몸통은 40~50cm, 꼬리는 18~25cm, 몸빛은 갈색 바탕에 많은 흑색·암갈색의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있음.

- 878) 秦始皇. 진나라 시황(BC 259-210). 중국 진나라의 초대 황제. 이름은 정(政), 장양왕(莊襄王)의 아들. 기원 전 246년 열세 살 때에 진나라의 왕이 되어 기원전 233-221년에 동방 여러 나라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했음.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폐하고, 군현제도를 실시했으며, 화폐·도량형·문자·물품의 규격 통일, 무기의 물수, 사상 통일을 위해 분서갱유(焚書坑儒).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묻어 죽임)를 하는 등 중앙 집권의 확립에 힘썼음.
- 879) 분묘천착(墳墓穿鑿). 묘에 구멍을 뚫음.
- 880) 백여우. 흰 여우. 여우가 시신을 먹으려고 묘를 판다는 얘기가 있음.
- 881) 창해(滄海) 박랑사중(博浪沙中) 저복(低伏)하든. 창해군이 박랑사 가운데서 낮게 엎드려. 한 고조의 모사였던 장량이 젊었을 적 진시황을 죽이려고 창해군이라고 하는 장사를 만나 박랑사에서 시황이 탄 수레를 철퇴로 내리쳤으나, 실패한 일을 가리킴. '박랑사'는 하남성 양무현(陽武縣)에 있는 지명.
- 882)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 883) 원숭이라.
- 884) 사슴과에 딸린 짐승. 노루의 일종으로 몸이 작으며 암수 모두 뿔이 나지 않음. 송곳니가 유난히 길게 자라서 입밖으로 나오며, 이것으로 나무뿌리를 캐 먹음. 따라서 '뿔 좋은 고라니'는 잘못된 표현임.
- 885) '황모(黃毛)'는 족제비의 꼬리털인데, 이것으로 붓을 만들. '상황모'는 '上黃毛'로 품질 좋은 황모를 가리킨 듯.
- 886) 짐승 이름인 듯하나 불명.
- 887) 족제비과 담비속에 딸린 만주날담비와 목도리날담비의 속칭.
- 888) 날담비에 이어서 기어다니는 담비라는 의미로 쓴 말. '담비'는 족제비과에 딸린 동물. 족제비와 비슷한데 조금 크고 빛깔이 고옴.
- 889) 개과에 딸린 산짐승. 이리와 비슷한데 몸통의 길이 1m 안팎이고, 몸 빛은 붉은색을 띠는 회갈색에서 황갈색·홍갈색 등으로 변하며, 몸의 아랫면은 회백색임.
- 890) 등등의 것들이.
- 891) 年齒. '나이'의 높임말.
- 892)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 893) 센다고 하면.
- 894)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 895) 나와.
- 896) 同接. 같은 곳에서 함께 공부함.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관계.
- 897) 匡山. 이태백이 십 년 동안 글공부를 했다고 하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산.
- 898) '십년(十年)'의 잘못.
- 899) 玉京. 도가에서 옥황상제가 있다는 신선 세계의 서쪽.
- 900) 上天. 하늘로 올라감.
- 901) 微物. 보잘 것 없는 물건.
- 902) 賤계. 천하계.

- 903) 年甲. 나이가 같음.
- 904) 撻把撻. ‘파충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너구리를 의인화한 표현임.
- 905) 銅雀臺. 조조가 위나라 수도 업도에 세운 누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안치하였음.
- 906) ‘옥룡각(玉龍閣)’의 잘못.
- 907) 二喬女.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한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주유가 손권의 형인 손책을 따라 완성을 칠 때 포로로 잡아 대교는 손책이, 소교는 주유가 차지했다. 본래 <동작대부>의 마지막 구절에 ‘연이교어동서해(連二橋於東西兮)여 약장공지체동(若長空之蛟螭)’(동서로 다리를 이어놓으니, 마치 하늘에 뜬 무지개인 듯하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공명이 ‘攬二喬於東南兮 樂朝夕之與共(대교와 소교를 동남에서 데려와 밤낮으로 함께 즐기며 지내리라)’으로 슬쩍 바꾸어 주유를 격노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용한 것임.
- 908) 曹子建. 이름은 식(植). 조조의 아들로서 글재주가 뛰어나, 조조가 <동작대부>를 짓게 했음.
- 909) <동작대부(銅雀臺賦)>. 동작대를 두고 조자건이 지은 시.
- 910) 韻하던. 읊던.
- 911)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912) 멧돼지.
- 913)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하거나, 첫눈에 언뜻 보이는 모양.
- 914) 거스러미 눈. ‘거스러미’는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러미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는 말임.
- 915) 연이어 천천히 꺾박이는 모양.
- 916) 唳呌. 옛날 관악기의 한 가지. 쇠붙이로 긴 대롱처럼 만들되, 위는 가늘고 끝이 퍼졌음.
- 917) 猪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돼지’라는 뜻으로, 돼지를 의인화한 표현.
- 918)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919) 주린 忠節 十九年에 首髮이 盡白하여. 굶주리면서 충성스런 절개를 지킨 지 19년만에 머리털이 모두 희어져.
- 920) 허위적허위적. (벗어나거나 헤어하려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921) 蘇中郎. 중랑장 벼슬의 소무(蘇武). ‘소무’는 한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절을 지키다, 19년만에 백발 노인이 되어 돌아왔음.
- 922) 아래로세. 아래이네.
- 923) 토공(兔公). 토끼를 의인화한 표현.
- 924)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 925) 諫議大夫. 중국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 926) 뜯구름.
- 927) 차일(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928) 桐江의 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여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

- 질을 하였다고 함.
- 929)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릉은 그의 자(字)인.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930) '시조(始釣)'는 낚시질을 시작함. 따라서 여기는 '시조하고'를 빼버리고 '엄자릉과 낚과 돌이'로 해야 어법에 맞음.
- 931) '군기총(軍器銃)'인 듯.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
- 932)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밑을 받쳐 안정시켜 놓듯 한. 호랑이의 코의 모양이 총의 방아쇠를 꺾어놓은 모양과 흡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임.
- 933) 애들이.
- 934) 액체가 자꾸만 조금씩 흐르거나 또는 쏟아졌다 그쳤다 하는 모양.
- 935) 이제.
- 936) 오십니까?
- 937) 살의 부피.
- 938) 살짝.
- 939) 混沌 未分 太極初에. 우주가 생겨서 혼돈이 아직 태극으로 나뉘어지기 전의 태초에.
- 940) 넓은.
- 941) 鑽石. 쇠붙이를 유리하게 채취할 수 있는 광물이나 또는 그 집합체.
- 942) '여왜씨(女媧氏)'의 잘못. '여왜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 동생으로, 복희씨 다음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제후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하늘 한 쪽이 부서져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자, 돌을 다듬어 부서진 곳을 메우고, 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 943) (여러 사람 앞에) 태연스럽거나 어엿한 태도를 나타내는 모양.
- 944) 입맛 나게 하려고 음식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먹는 일, 또는 그러한 물건.
- 945) 兔生員. '생원을 하는 토끼'라는 뜻으로, 토끼를 의인화한 표현. '생원'은 과거 소과(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또는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는 뜻으로 그 성 밑에 붙여 부르던 말.
- 946) 水路萬里. 만 리나 되는 먼 물길.
- 947) 疊疊山中.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 속.
- 948) 松林. 소나무 숲.
- 949) 골짜기로.
- 950) 짐승이.
- 951) 누에처럼 생긴 머리.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툭 볼거진 모양을 가리킴.
- 952) 찢어지고.
- 953) 얼룩덜룩.
- 954)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 955)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 956) 箭筒. 화살을 넣는 통.

- 957) 쇠로 만든 냇.
 958) 嚴冬雪寒.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
 959) 白雪格으로. 흰 눈처럼.
 960) 흠어 뿌리며.
 961) 뒤집혀 쓰러지고.
 962) 움츠리고.
 963) 엎드려 있을 때.
 964) (여러 사람 앞에서) 태연스럽거나 어엿한 태도를 나타내는 모양.
 965) 둥글고 평평한 판.
 966) 부꾸미. 찹쌀·밀·수수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번철(지짐질을 하는 데 쓰는 무쇠 그릇)에 지진 음식.
 967) 고소한 냄새.
 968) 이 참. 이번 참. '참'은 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사이.
 969) 곳. 장소.
 970) 두루뭉술.
 971) 바람에. 무슨 일에 따라 일어나는 기세에.
 972) 입의 내민 부분.
 973) 보리둥우리. 보리를 넣어두는 둥우리. '둥우리'는 짚이나 대나 싸리 등으로 바구니 비슷하게 만든 그릇.
 974) 其中에. 그 가운데. '하찮거나 시원찮은 것'을 가리킬 때 씀.
 975) 人事性. 인사를 차리는 품성이나 성질.
 976) 통성명(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977)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978) 겹김에. 겹이 나는 바람에.
 979) 말해버렸겠다.
 980) 자라탕.
 981) 맛있는.
 982) 살라. 불에 태워.
 983)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984)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985) 濕氣. 한의학에서 습한 기운을 이르는 말.
 986) 急煞. 갑자기 닥쳐오는 재액.
 987)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988) 하였기에. 했기에.

- 989) 藥으로 取해서만. 약이라는 방책으로만 지향함.
- 990) 어찌할 수 없이.
- 991)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992)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993)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994) 四代孫. 4대 후손.
- 995) 鼈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996) 職品. 벼슬의 품계.
- 997) 壯히. 굉장히. 매우.
- 998) 되움치기.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여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999)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1000)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1001) 간(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 1002) 처마 네 귀의 기둥 위에 걸리는 네모지고 긴 끝이 번쩍 들린 서까래.
- 1003)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 1004) 名醫에게. 이름난 의원에게.
- 1005) 問醫.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봄.
- 1006) 돼지나 곰의 쓸개를 썰 때 쓰는 수효.
- 1007) 즉효(卽效). (약 같은 것의) 즉시 나타나는 효력.
- 1008)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1009) 三角山. 서울 북쪽에 있는 북한산의 다른 이름.
- 1010) 匕首劍. 날카롭고 짧은 칼.
- 1011) 불알.
- 1012) 窒塞. (숨이 꼭 막히거나 속이 터질 지경으로) 몹시 싫거나 놀라거나 꺼림.
- 1013) 哀乞. 슬프게 사정함.
- 1014) 將近도록. 곧 가깝도록. 다 되도록.
- 1015)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 1016) 血肉. 자기가 낳은 자식.
- 1017) 孫世. 자손의 늘어가는 정도.
- 1018) 不孝三千에 無後爲大. 삼천 가지의 불효 중에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큼.
- 1019) 先塋에. '선영'은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여기서는 '조상님께'라는 의미.
- 1020) 得罪. 죄를 지음.
- 1021) 罔極. 한이 없음.

- 1022) 代充, 다른 것으로 대신 채워 넣음.
 1023) 我生然後에 殺他라고 하니. 내가 산 뒤에 남을 죽인다고 하니.
 1024) 마음에 못마땅할 때 조금 빈정거림을 나타내는 소리.
 1025) 반죽음. 거의 죽게 된 상태.
 1026) 바삭 졸라맨 것을 험겁게 해놓으니.
 1027) 몽글렸다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1028) 달려가듯.
 1029) 鳥林. 중국 적벽강의 북쪽 맞은 편 언덕에 있는 숲. 지금의 호북성 가어현(嘉魚縣) 서쪽에 있음. 조조가 오나라 주유와 공명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도망간 곳.
 1030) 鳥銃. 구식 장총.
 1031) 鐵丸. 처란. 잘게 만든 총알.
 1032)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져 보이지 않음.
 1033) 지명인 듯하나 불명. '관문'의 의미로 보기도 함.
 1034) 몹시 세차게.
 1035) 가놓은 바. 갔더니.
 1036) 뽕족한 끝을 약간 내밀어.
 1037) 그 사이에.
 1038) 거기서.
 1039) 내빼놓은. 도망간.
 1040) 고개 이름이나 불명.
 1041) 어울리지 않게 홀로 우뚝 서 있는 모양.
 1042) 其中에. 그 가운데. '하찮거나 시원찮은 것'을 가리킬 때 씬.
 1043) 壯談.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함. 또는 그 말.
 1044) 되니까.
 1045) 힘.
 1046) 불명.
 1047) 아리는. (상처 따위가) 알알하여 찌르듯이 아픈.
 1048) 山中之靈物. 산 속의 신령스런 짐승.
 1049) 變化.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1050)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킴.
 1051) 山神祭.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
 1052) 忠臣之後裔. 충신의 후손.
 1053) 一片丹心.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충성된 마음이나 절개.
 1054) 溪邊楊柳. 시냇가의 버드나무.
 1055) 작고 단단한 석불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1056) 塵土. 먼지와 흙.
 1057) 巖床. 상처럼으로 생긴 바위.

- 1058) 祭板. 제물을 차려놓는 상.
 1059) 面紙. 제사 때 제사상 위에 까는 종이.
 1060)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1061) 紅東白西.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1062) 淸溪水. 맑은 시냇물.
 1063) 祭酒. 제사지낼 때 올리는 술.
 1064) 東頭西尾. 머리를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음.
 1065) 陳設. 잔치나 제사 때 법식에 따라 음식을 상 위에 벌여 놓음.
 1066)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1067) 維歲次.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1068) 庚寅. 6월에 해당하는 간지일. 월건(月建).
 1069) 朔. 초하루. 축문에서 월건 다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일.
 1070) 甲辰. 15일 날의 일진에 해당하는 간지.
 1071) 敢昭告于. 감히 고하나이다.
 1072) 上天日月. 하늘에 있는 해와 달.
 1073) 名山 神靈前. 이름난 산의 신령께.
 1074) 至誠發願. 지극한 정성으로 바라는 마음을 나타냄.
 1075)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1076) 天醫道士. 하늘나라의 의사와 도사.
 1077) 問病. 앓는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함.
 1078) 千年兎肝云. 천 년 묵은 토끼의 간을 이르기예. 천 년 묵은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말했다는 뜻.
 1079) 中山. 깊은 산 속.
 1080) 千年兎一首. 천 년 묵은 토끼 한 마리.
 1081) 許給之地. 허락하여 내어줌.
 1082) 千萬祝手. 천만 번 축수함. 천만 번 두 손 모아 빌.
 1083) 勤以淸酌. 삼가 맑은 술 한 잔으로.
 1084)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1085) 尙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양하시옵소서.
 1086) 동글동글.
 1087) 미끈하게 깊.
 1088) 꼬리.
 1089) 몽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1090) 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1091) 조금 휘어져 굽은.
 1092) 楊柳樹. 수양버드나무.
 1093)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1094) 엉거주춤.

- 1095) 畫像. 그림으로 그린 초상.
- 1096) 산중토(山中兔). 산 속의 토끼.
- 1097)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전설에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함.
- 1098) 반가와라고.
- 1099) 거기.
- 1100) 누가. 누가.
- 1101)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 1102)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찢은 곳.
- 1103)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이름 높은 선비.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 1104) 許由. 중국 요임금 때 숨어서 살던 선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을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 1105) '피세(避世)가자고'의 잘못. 세상을 피해 숨자고.
- 1106) 首陽山. 중국의 산서성(山西省)에 있는 산으로 백이 숙제가 굶어 죽은 곳.
- 1107) 白夷 叔齊. 중국 은(殷)나라의 처사. 고죽군(孤竹君)의 두 아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려고 하자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효(孝)가 아니며, 신하로서 임금을 살해하려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무왕이 은(殷)을 평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수양산에 숨어 살면서 고사리를 캐먹다가 결국 아사했다.
- 1108) 採薇하자고. 고사리를 캐자고.
- 1109) 백화심처일승귀(百花深處一僧歸)라, 춘풍석교화림중(春風石橋花林中)에. 온갖 꽃이 피어 있는 곳에 한 중이 돌아온다, 꽃수풀 속 봄바람 부는 돌다리.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에서 성진이 육판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을 다녀오다가,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돌다리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게 된 일을 가리킨 것임.
- 1110) 性眞.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의 천상계에서의 이름.
- 1111) 和尚. 중을 높여 부르는 말.
- 1112) 玩月長醉. 달을 즐기면서 늘 술에 취해 있음.
- 1113) 太白.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
- 1114)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은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 1115) 靑山夔洲白礫灘. 청산에 살면서 섬과 회고 푸른 여울을 두려워함.
- 1116) 呂洞賓. 당나라 때 사람으로 호는 순양자(純陽子). 64세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강호를 떠돌았는데, 목숨을 연장하는 술법을 배워 여덟 명의 신선 중 하나로 일컬어짐.
- 1117) 此山中. 이 산 속.
- 1118) 雲深處. 구름이 겹겹이 싸인 곳.
- 1119)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1120) 넓죽. 몸을 바짝 바닥에 대고 얼른 엎드리는 모양.
- 1121) 도리방석. 둥글게 생긴 방석.

- 1122) 슬그머니.
- 1123) 뱀.
- 1124) 등으로 따받치는 힘.
- 1125) 理陰陽順四時. 음양을 맡아서 사계절의 변화를 순조롭게 함.
- 1126)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127) 月兔일러니. 달 속의 토끼이더니(토끼인데).
- 1128) 搗藥酒. 약초를 넣어 빻은 술.
- 1129) 大醉하여. 크게 취하여.
- 1130)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1131) 謫下中山. (하늘에서) 산으로 귀양을 옴.
- 1132) 兎名. 토끼라는 이름.
- 1133) 今日. 오늘.
- 1134) 何相見之晩晩無故不測.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지 못했음.
- 1135) 文章. 문장가. 글을 잘 짓는 사람.
- 1136) 短文. 글을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 1137) 文字.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자로된 숙어나, 문장.
- 1138) 頭緒없는. 말이나 글이 조리에 맞지 않는
- 1139) 彼此. 서로.
- 1140) 女必從夫.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야 함.
- 1141) 出嫁外人. 시집간 여자는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
- 1142) 熟不還生. 한번 익힌 음식은 다시 날것으로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왕 장만한 음식은 먹어 치울 수밖에 없다는 뜻.
- 1143) 汝啗折角. 네 담(담장) 아니면 내 소뿔 부러졌겠느냐? 남에게 억지로 책임을 지우는 말.
- 1144) 細毛防川. 가는 털 하나가 냇물을 막는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표현한 말.
- 1145) 親查頓通家門. 친가와 사돈집이 서로 대문이 통해 있음. 그렇게 가깝다는 말.
- 1146) 堂狗三年. '당구삼년폐풍월(堂狗三年吠風月)(서당개 삼년이면 시를 읊는다.)'의 일부.
- 1147) 牛耳讀經. 소 귀에 경 읽기. 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
- 1148) 魚東肉西. 제사상을 차릴 때 물고기는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다 놓는 것을 이르는 말.
- 1149) 紅東白西.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1150) 左脯右醢. 고기를 말린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 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 1151) 焚香再拜. 향불을 피우고 두 번 절함.
- 1152)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5, 6, 7을 합해서 여덟끗이 되는 갯수를 가리키는 말.
- 1153) 일삼오대갑. 노름의 일종인 투전의 가보잡기에서 1, 3, 5를 합해서 아홉끗이 되는 갯수를 가리키는 말.
- 1154) 明其爲賊. 도적질한 것을 밝히는 일.

- 1155) 全羅監營. 전라감사가 업무를 보는 곳.
- 1156) 一口二言은 百父之子라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은 백 명의 아버지를 둔 자식이다.
- 1157) 東西에도. 동쪽이나 서쪽 어느 쪽에도. 아무쪼록에도.
- 1158) 含笑曰. 웃음을 머금고 말함.
- 1159) 威名. 위엄을 떨치는 명성.
- 1160)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1161) 風身. 생김새.
- 1162) 仙風道骨. 신선의 풍채와 도사의 몸매.
- 1163) 오입장이. 여자와 방탕하게 놀아나기를 잘하는 사람.
- 1164) 先次. 차례에서의 먼저.
- 1165) 貴骨.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모습.
- 1166) 추어주어 놓은 바. 추어주어 놓았더니. 실지 이상으로 훨씬 부풀려 칭찬하여 주었더니.
- 1167) 朝官. 조정에 몸을 바치고 있는 모든 관리. 조신(朝臣).
- 1168) 朝遊北海요 暮蒼梧라. 아침에는 북해에서 놀다가, 어두워지면 창오산에서 늙.
- 1169) 聖德. 성스러운 덕. 임금의 덕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
- 1170) 賑撫. 어루만져 편안하게 함.
- 1171) 一日萬機.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남.
- 1172) 臣子. 신하. '군부(君父, 임금)'에 대하여 쓰는 말.
- 1173) 才操. 재주.
- 1174) 모시어.
- 1175) 補益之材. 보충하고 늘어 도움이 되게 하는 인재.
- 1176) 遍踏. 널리 돌아다님.
- 1177) 滿座. 전 좌석에 늘어앉아 있는 사람들.
- 1178) 霸王之輔. 패권을 잡아 천하를 다스리는 왕을 도울 사람.
- 1179)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점을 쳤는데,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 1180) 不顧體面. 체면을 생각지 아니함.
- 1181) '범저(范雎)'의 잘못. '범저'는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사람. 위나라와 제나라에서 쫓겨진(秦)나라에 와서 소왕(昭王)의 재상이 되었음.
- 1182) 王稽.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사람. 소왕(昭王)을 섬겨 위나라에서 현인 범저를 얻음.
- 1183) 따라가듯.
- 1184) 韓信.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와 서한(西漢)을 세운 명장. 회음(淮陰) 출신. 처음에는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유방에게로 돌아섰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등용되어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초한(楚漢) 전쟁 무렵 제왕(齊王)에 봉해졌으며, 해하(垓下)에서 초패왕 항우의 군사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의 기틀이 완성된 뒤 고조 유방은 그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지위가 낮은 회음후

- (淮陰侯)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살해하였다. 이때 그는 ‘교토사주구팽(狡兔 死走狗烹.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 1185) 蕭何. 한나라 고조 유방의 참모, 명재상. 강소성 출생. 장량(張良), 한신(韓信), 조참(曹參)과 함께 고조의 공신 중의 한 사람.
- 1186) 感之德之. 분에 넘치는 듯 싶어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 1187) 形容. 생김새.
- 1188) 精氣. 만물이 생성하는 근본이 되는 기운.
- 1189) 짧고.
- 1190) 여기서의 코의 즐기, 곧 콧날을 말함.
- 1191) 中巔. 얼굴의 중심부.
- 1192) 低陷. 낮게 꺼져 있음.
- 1193) 短命. 목숨이 짧음.
- 1194) 氣像.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
- 1195) 治世之能臣. 잘 다스려진 세상의 능력이 있는 신하.
- 1196) 亂世之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1197) 聰敏. 총명하고 민첩함.
- 1198) 天文地理. 우주와 천체의 온갖 현상과 바다·강·산·육지 등의 땅의 모든 상태.
- 1199) 喋喋한. 민첩하게 잘하는 말재주.
- 1200) 口辯. 말솜씨.
- 1201) 蘇秦.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낙양 사람으로 연변이 뛰어났다. 진(秦)나라에 대항하는 다른 여러 나라의 동맹책(合從)을 성공시켜 6국의 재상을 겸임하였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5년 동안 진의 세력을 방비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동서 연횡설(連橫說)을 주장하는 장의(張儀)에 의해 깨졌다.
- 1202) 張儀.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정치가이자 유세가. 소진과 더불어 종횡(縱橫)의 술책을 귀곡(鬼谷) 선생에게서 배웠음. 진나라 혜문왕의 신임을 받아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중심으로 횡으로 여섯 나라가 진나라를 섬기자고 주장하여, 여러 나라를 진나라에 복종시키려 노력하였음.
- 1203) 보다 위에 있음.
- 1204) 조는.
- 1205) 春睡. 봄날에 자는 잠.
- 1206) 모두.
- 1207) 貞臣. 지조가 곧고 바른 신하.
- 1208) 貴骨. 귀하게 될 사람의 골격.
- 1209) 出將入相.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무를 아울러 갖추어 장수와 재상의 벼슬을 모두 지냄을 이르는 말.
- 1210) 功名.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림.
- 1211) 거짓으로 행동을 꾸며서 해보는.
- 1212) 山林之樂. 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 1213) 風月之興.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

- 1214) 나는, ‘나’를 강조한 표현.
 1215) 塵世間. 인간이 사는 세상.
 1216) 속이기로.
 1217) 山林風月.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
 1218) 萬紫千紅.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의 빛깔. 흔히 가지각색의 꽃이 만발한 것을 이룸.
 1219) 그림屏風. 그림을 그려 넣은 병풍과 같이 아름다운 강산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1220) 鶯歌蝶舞. 피꼬리의 노래와 나비의 춤.
 1221) 風流. 속된 일을 떠나서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1222) 綠陰芳草勝花時. 푸른 나뭇잎이 우거진 그늘과 꽃처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도 더 좋은 때. 곧 신록이 우거진 때.
 1223) 公子王孫. 지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손과 임금의 자손.
 1224) 봄날에 파릇파릇하게 난 풀을 밟으며 산보함. 들로 산보함.
 1225) 避暑林泉. 산과 들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더위를 피함.
 1226) 金風. ‘가을 바람’을 달리 이르는 말.
 1227) 玉露. 매우 맑고 깨끗하게 방울진 이슬.
 1228) 霜葉紅於二月花. 서리 맞은 단풍잎이 이월에 피는 꽃보다 붉음. 당나라 때 시인 두목의 〈산행(山行)〉의 한 구절.
 1229) 重陽秋色龍山吟. 구월 구일(중양절)날의 가을 빛 속에서 용산에 올라가 시를 읊음.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九日龍山吟 黃花笑逐臣(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가 시를 읊으니, 국화꽃이 쫓겨난 신하를 비웃는다.)’를 변형한 것임.
 1230) 黃菊. 노란 국화.
 1231) 落木寒天. 나뭇잎이 다 떨어진 추운 겨울.
 1232) 千山鳥飛 萬徑人蹤 없을 적에. 모든 산에 새가 날지 않고, 모든 길에 사람의 자취 없을 적에. 당나라 때의 시인 유종원의 시 〈강설(降雪)〉에 있는 구절을 변형한 것임. 원문은 ‘千山鳥飛絕 萬徑人蹤滅 孤舟簑笠翁 獨釣寒江雪(모든 산에 새가 날지 않고, 모든 길에 사람 자취 끊어졌는데, 사립 쓴 늙은이 조카배 타고, 눈 속에서 혼자 낚시질한다.)’임.
 1233) 龍門. 중국 황하 중류의 물살이 센 여울목. 물고기가 이곳을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등용문’이라는 말이 나왔음.
 1234) 賞雪. 눈을 구경함.
 1235) 歐陽公. 구양수(1007-1072). 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가, 학자, 문인으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 또는 육일거사(六一居士).
 1236) 訪梅. 매화꽃을 찾아감.
 1237) 孟浩然(689-740).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호(浩). ‘호연’은 그의 자(字)임. 양양 사람으로, 그의 시는 왕유와 함께 높이 평가되며, 특히 오언시에 뛰어났음.
 1238) 山間四時. 산 속의 사계절.
 1239) 景. 경치.
 1240)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1241)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1242) 甘食. 달게 먹음. 맛있게 먹음.
 1243) 身如浮雲. 몸이 뜬구름과 같음.
 1244) 玩景. 경치를 즐김.
 1245)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1246) 東南. 동남쪽.
 1247) 오로봉(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1248) 鎮國名山. 나라의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1249)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1250) ‘천외무산십이봉(天外巫山十二峯)’의 잘못된 듯. ‘천외무산십이봉’은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라는 말.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1251) 三山. ‘삼산’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1252)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을 가리킨 듯함.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동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향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룸.
 1253)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1254)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1255) 瀛洲 上上峰을. 영주산의 꼭대기를.
 1256) 緩緩히. 천천히.
 1257) 黑雲. 검은 구름.
 1258)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1259)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1260) 日出景. 해 뜨는 경치.
 1261) 眼下. 눈 아래.
 1262) 森列하니. 뽐뽐히 늘어서니.
 1263)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1264)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1265)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1266) 이에서. 이보다.
 1267)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1268) 遊山. 산으로 놀러 다님.
 1269)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1270)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1271) 江山 風景 興味間에. 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흥미 속에서.
 1272) 地上神仙. 땅에 사는 신선.

- 1273) 離鄉則爲賤. 고향을 떠나면 천하게 됨.
- 1274) 萬里他國. 만 리나 떨어진 먼 타국.
- 1275)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 1276) 훨씬. (어떤 것에 비하여) 그 정도가 썩 더하게.
- 1277) 추어놓은 바. 추어놓았더니. 추어 올려 칭찬하였더니.
- 1278) 몹시 경망스럽게 구는.
- 1279) 힘찬 기세를 꺾어.
- 1280) 불어제끼오. 심하게 과장을 하오.
- 1281) 海風. 바닷바람.
- 1282) 보니까.
- 1283) 火亡煞氣.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1284) 塵世間. 인간이 사는 세상.
- 1285) 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 1286) 八難煞氣. 여덟 번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1287) 一介寒兎.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 1288)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구추’는 음력 구월을 가을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
- 1289)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 1290) 嚴冬. 아주 추운 겨울.
- 1291) 雪寒風. 눈 내리고 찬 바람 부는 추위.
- 1292) 萬壑에. 수많은 골짜기에.
- 1293) 千峰. 수많은 산봉우리.
- 1294) 바람이 세차게 불 때에.
- 1295) 花草木實. 꽃, 풀, 나무열매.
- 1296) 鸚鵡鴛鴦. 앵무새와 원앙새.
- 1297) 끊어졌는데.
- 1298) 힘없이 흐는 모양.
- 1299) 던진 듯이. 내던져진 듯이.
- 1300) 函谷關. 중국 하남성 북서쪽에 있는 관문. 동쪽의 중원으로부터 서쪽의 관중으로 통하는 요지임.
- 1301)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1302) 신세이던가.
- 1303) 北海上. 북해의. ‘북해’는 카스피해.
- 1304) 大窖中の. 대교 속의. ‘대교’는 땅을 파서 만든 큰 움막.
- 1305) 蘇中郎.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북해로 귀양을 갔는데, 기러기 발에 편지를 묶어 소식을 전하여, 19년만에 늙어 돌아옴.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1306) 三冬. 겨울 석 달.
- 1307) 碧桃紅杏. 복숭아꽃과 붉은 살구꽃.
- 1308) 春二月. 봄 이월달. 음력으로로는 이월이 봄철임.
- 1309) 口腹. 뱃속.
- 1310) 深山窮谷. 깊은 산 속 깊은 골짜기.
- 1311) 골짜기마다.
- 1312) 올가미.
- 1313) 엄착귀.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 1314) 峰峰이. 산봉우리마다.
- 1315) 매를 받쳐 들고 있는.
- 1316) 鷹主. 매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매사냥꾼을 가리킴. 고려와 조선 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웅방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그곳에 소속된 매사냥꾼은 ‘웅사(鷹師)’라고 하였음.
- 1317) 채인다고 하면. 채이면.
- 1318) 結項致死. 목이 졸려 죽음.
- 1319)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이나 음식.
- 1320) 青天. 푸른 하늘.
- 1321) 대가리. ‘머리’의 속된 표현.
- 1322) 웅크리고. 몸을 우그려 작게 하고.
- 1323) 독수리.
- 1324) 기슭으로. 산기슭으로.
- 1325) 불명. 혹 ‘음삼(陰森)골’이라면, 나무가 우거져 어두침침한 골짜기.
- 1326) 지쳐서 힘들게 뛰어가는 모양.
- 1327) 짐승등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소리.
- 1328) ‘수알치’의 잘못. ‘수알치’는 매사냥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알치
혹은 수할치라고도 한다.
- 1329) 海東青.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색깔이 푸른 매.
- 1330) 그 해에 갓 새끼 매로, 길이 잘 든 매. 가슴의 깃이 보라색임.
- 1331) 불명. ‘빼깃’은 가벼운 새의 깃털로 만들기 때문에, ‘두루미의 깃털’을 가리킬 수도
있음.
- 1332) 빼깃. 빼깃. 닭이나 기러기 깃에다가 각을 붙인 것. ‘각’은 ‘시치미’라고도 하는데,
매가 날아가버렸을 때 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매의 꼬리에다 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의 이름을 적어 달아두는 꼬리표.
- 1333) 孔雀羽. 공작의 깃털.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매의 꼬리에 단다.
- 1334) 불명.
- 1335) ‘도래 장스치 바까치 떨쳐’여야 함. ‘바까치’는 매의 발목을 맨 가죽끈. ‘도래’는 매의
발목을 묶은 바까치와 장스치를 연결하는 쇠고리. 회전이 자유스러워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음. ‘장스치’는 도래에 연결된 가죽 줄.
- 1336) 컷바퀴의 가.
- 1337) 덩그렇게. 높이 솟아 당당하게.

- 1338) 兩眉間. 두 눈썹 사이.
 1339) 머릿골이 있는 부분.
 1340) 거기.
 1341) 있나요?
 1342) 중턱.
 1343) 松下에. 소나무 밑에.
 1344) 불을 놓으려고. 총을 쏘려고.
 1345) 불을 차리는. 총을 쏘 준비를 하는.
 1346) 都砲手. 포수 중의 우두머리.
 1347)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풀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1348)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입는, 풀을 꼴은 적삼.
 1349) 불명. 혹 '상사(相思) 밤'으로 보아, '토끼를 생각하며 지새는 밤'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함.
 1350) 倭物. 일본 물건.
 1351) 鳥銃. 구식 화승총의 옛 이름.
 1352) 덧사슬. 이중 탄환.
 1353) 고추같은. 고추같이 붉은.
 1354) 붙여.
 1355) 쩡그리고.
 1356) 달려가는.
 1357) 불명. '징구리'는 '정수리'가 아닌가 생각됨. '정수리'는 머리 위 한가운데. '징구리 보고'를 '쨍그려 보고'로 해석하기도 함.
 1358) 내려가지.
 1359)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
 1360) 둘러메고.
 1361) '서로 부르며'의 뜻인 듯하나 분명치 않음.
 1362) 개를 부르는 말.
 1363) 후드득. 의성어.
 1364) 술청 앞에 서서 마시는 술.
 1365) 樵軍. 나무꾼.
 1366) 肝腸. 마음.
 1367) 白登七日窮困 漢太祖 肝腸.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 당해 7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 태조의 마음. 기원 전 200년 흉노가 한나라에 침입해 왔는데, 이때 한 고조 유방은 친히 3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섰다가, 흉노의 모돈선우(冒頓單于)의 40만의 군사에 의해 백등에서 포위당하였다. 7일이 지난 후에 진평(陳平)이 밀사를 보내어 모돈에게 뇌물을 주어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1368) 赤壁江上火陣中の. 적벽강 불 속의. 조조가 적벽강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 불로 공격을 당해 대패했음. '적벽강'은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으로,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369)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 1370) 層巖絶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높은 절벽.
- 1371) 石間. 돌 사이. 바위 사이.
- 1372) 짧은.
- 1373) 사타구니에.
- 1374) 끼고.
- 1375)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양.
- 1376) 콧구멍.
- 1377) 쓴내.
- 1378) 목구멍.
- 1379) 숨이 차서 톹질하는 것같은 소리가 나며.
- 1380) 밀구멍.
- 1381) 조총을 쏘니.
- 1382) 八難.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 · 목마름 · 추위 · 더위 · 물 · 불 · 칼 · 병란.
- 1383) 나는.
- 1384) ‘조생모사(朝生暮死)’의 잘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1385) 情.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 1386) 景況.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으로써 일어나는 흥취.
- 1387) ‘거짓말’의 낮춤말.
- 1388) 泰平行樂. 태평한 가운데 삶을 즐겁게 보냄.
- 1389) 터이기에. 것이기에.
- 1390) 火亡煞氣.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1391) 四柱八字. 피치 못할 타고난 운수.
- 1392) 觀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 · 수명 · 길흉 · 성질 등을 판단하는 일.
- 1393) 잘 보시오.
- 1394) 본새요. ‘본새’는 ‘(어떤 것의) 생김새’.
- 1395) 五行.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원기. 곧 금(金) · 목(木) · 수(水) · 화(火) · 토(土).
- 1396) 水剋火. 물이 불을 이김.
- 1397) 대변에. 서슴지 않고 단숨에. 갑자기.
- 1398) 換腸. 환심장(換心腸).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마음이 바뀌어 아주 달라짐.
- 1399) 말하시오.
- 1400) 別天地. 별세계. 속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할 만큼 좋은 분위기의 아주 별다른 세상.
- 1401) 天壤之間에. 하늘과 땅 사이에.
- 1402) 海乃最大. 바다가 제일 큼.
- 1403) 萬物之中에. 세상의 온갖 사물 가운데.
- 1404) 神爲最靈. 신이 가장 신령스러움.

- 1405) 無邊大海. 끝이 없는 큰 바다.
- 1406)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1407) 기둥.
- 1408)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춧돌.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1409) 朱欄畫閣. 단청 칠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 1410) 半空에. 반 공중에. 하늘 높이.
- 1411)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1412) 萬族. 온갖 족속.
- 1413) 貴示하고. 귀하게 여기고.
- 1414) 蒼卒. '창생(蒼生)'과 같은 뜻으로 쓴 듯함. '창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
- 1415) 仰德. 덕을 우러러 봄.
- 1416) 玉母 金瓶 千日酒. 서왕모가 금으로 만든 술병에 담아 보낸,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서왕모(西王母)'는 요지(瑤池)에 산다는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
- 1417) 千賓玉盤. 귀한 손님을 천 명이나 대접할 수 있는 큰 옥쟁반.
- 1418) 不老草.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약초.
- 1419) 不死藥.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약.
- 1420) 醉興.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멋스러운 기분.
- 1421) 滔滔하여. 벅차오르는 감흥을 막을 길이 없어.
- 1422) 美色. 아름다운 여자.
- 1423) 妓樂. 기생과 풍류.
- 1424) 風流. '멋'과 '맛'을 아는 일.
- 1425) 大紅船. 빛깔 고운 큰 놀잇배.
- 1426) 自言居水勝居山.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함.
- 1427) 瑤池. 중국의 전설 속의 선녀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는 연못.
- 1428) 群山. 산의 무리.
- 1429) 三千沙場. 길이가 삼천 리나 되는 긴 모래밭.
- 1430) 弱手에. '약수'는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적인 강으로 길이가 3천리가 되며, 부력(浮力)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서왕모(西王母)의 편지를 청조(靑鳥. 파랑새)가 약수 3천리를 건너서 주목왕(周穆王)께 전했다고 함.
- 1431) 海內太平. 바다 속이 태평함.
- 1432) 月清明. 달은 맑고 밝음.
- 1433) 秋江上에. 가을 강물 위에.
- 1434) 漁笛소리.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435) 和答. (시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1436) 涇水. 중국 감숙성 화평현과 고원현의 두 곳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에서 위수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국에서는 경수(涇水) · 위수(渭水) · 이수(伊水) · 낙수(洛水) · 한수(漢水) · 소수(灤水) · 상수(湘水) · 장수(章水) · 공수(貢水)를 구류(九流)라고 하고, 황하(黃河) · 양자강(楊子江) · 회수(淮水) · 제수(濟水)를 사독(四瀆)이라고 하고, 절

- 강(浙江)과 양자강을 이강(二江)이라 하고, 동정(洞庭)·청초(青草)·단양(丹陽)·팽려(彭蠡)·태호(太湖)를 오호(五湖)라고 한다.
- 1437)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438) 洛水, 섬서성 정변현에서 비롯하여 위수와 합쳐져 황하로 들어가는 강.
- 1439) 淮水, 중국 대별산맥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흘러 양자강으로 들어가는 강.
- 1440) 潁津, 섬서성 반총산에서 비롯하여 흐르는 한수의 상류.
- 1441) 蒲津, 산서성에서 비롯하여 황하로 흘러가는 포수(蒲水)에 있는 나루인 듯하다.
- 1442) 彭蠡(彭蠡), 강서성에 있는 호수인 파양호의 옛 이름.
- 1443) 瀟湘,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 영릉 부근으로, 소수와 상수가 합치는 곳.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소상팔경(瀟湘八景)’으로 유명함.
- 1444) 或去或來,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함. 왔다 갔다 함.
- 1445) 赤壁江, 송나라 때의 문장가 소동파가 귀양가서, 음력 7월 16일 날 밤에 배를 띄우고 놀며 〈적벽부(赤壁賦)〉를 지었다고 하는 강. 호북성 황강현에 있음.
- 1446) 蘇子瞻, 송나라 대문호인 소동파(蘇東坡). ‘자침(子瞻)’은 그의 자(字).
- 1447) 采石江,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이 술에 취해 달을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강.
- 1448) 太白,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은 그의 자(字).
- 1449) 興趣, 마음이 끌릴 만큼 좋은 멋이나 취미.
- 1450) 여기.
- 1451) 塵世間에, 인간이 사는 세상에.
- 1452) 採藥하던, 약을 캐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던 일을 가리킴.
- 1453) 秦始皇, 진나라 시황(BC 259—210). 중국 진나라의 초대 황제. 이름은 정(政), 장양왕(莊襄王)의 아들. 기원 전 246년 열세 살 때에 진나라의 왕이 되어 기원전 233—221년에 동방 여러 나라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했음.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폐하고, 군현제도를 실시했으며, 화폐·도량형·문자·물품의 규격 통일, 무기의 몰수, 사상 통일을 위해 분서갱유(焚書坑儒,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묻어 죽임)를 하는 등 중앙 집권의 확립에 힘썼음.
- 1454) 求仙하던, 신선 되기를 원하던.
- 1455) 漢武帝인들, ‘한 무제(159—87 B.C.)’는 전한(前漢)의 7대 왕으로,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사상의 통일을 꾀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음. 체제를 정비하고, 국토를 넓혀 대제국을 이루어놓기는 하였으나, 만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의 결과 재정이 악화되고 사회불안이 더했음.
- 1456) (보통에서) 벗어난. 뛰어난.
- 1457) 風骨에, 풍채와 골격에.
- 1458) 데리고.
- 1459) 萬歲同樂, 만 년 동안이나 함께 즐김. 오래오래 함께 즐김.
- 1460) 어린아이나 다리가 짧은 짐승이 느리게 걸거나 기어가는 모양.
- 1461) 危邦, 위험한 나라.
- 1462) 壯히, 매우.
- 1463) 三年不成, 삼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함.

- 1464) 雙轎. 말 두 필이 각각 앞채와 뒤채를 메는 가마.
 1465) 가세.
 1466) 或先或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1467) 遠路水邊. 물가까지의 먼 길.
 1468) 여우.
 1469) 오나.
 1470) 실없는. 착실하거나 미덥지 않은.
 1471) 兎公아. '토끼야'를 높여 일컬은 말.
 1472) 碌碌한. 보잘 것 없는.
 1473) 古人. 옛 사람.
 1474) 兔死狐悲.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1475) 巖穴에. 바윗굴에.
 1476) 여기서는 '보금자리를 꾸미고 살다'는 뜻.
 1477) 林泉. 숲 속에 있는 샘. 변하여 자연을 뜻하기도 함.
 1478) 말자고 했더니.
 1479) 自古로. 옛부터.
 1480) 求仕. 벼슬을 구함.
 1481) 誤死. 형벌이나 재난을 당하여 비명(非命)에 죽음.
 1482)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1483) 亂邦不居.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음.
 1484) 나자빠지는데. 하던 일을 못하겠다고 때를 쓰는데.
 1485) 客死. 객지에서 죽음.
 1486) 五臟.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함께 이르는 말. 여기서는 '마음'을 표현한 말.
 1487) 쏘시는 듯이 아프게 상하게 하는.
 1488) (여러 사람 앞에) 태연스럽거나 어엿한 태도를 나타내는 모양.
 1489) 슬그머니.
 1490) 情理. 인정과 도리.
 1491) 질이 좋지 못하거나 나쁜.
 1492) 不可近. 가까이 할 수 없음.
 1493) 떼어놓았더니.
 1494)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않음.
 1495)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양(襄)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1496)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1497) 渭水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강태공은 속칭이며, 성은 강이고, 이름은 상(尚)임. 중국 주나라의 재상으로 무(武)왕을 도와 은(殷)나라를 정벌하고 주(周)나라를 세움.
 1498)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1499) 入周. 주나라에 들어감. 강태공이 문왕을 따라 주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리킴.
- 1500) 漢既渡倉 蜀道難의 黃面將軍 韓信이. ‘한기도장’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창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촉도난’은 ‘험한 촉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1501) 瀟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1502)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1503) 大將壇. 장수가 지휘를 위해 위치하는 단.
- 1504) 少年大將. 젊은 나이의 대장.
- 1505) 江上. 강물 위.
- 1506) 滔滔滔滔. 넘실넘실.
- 1507) 秋江. 가을 강.
- 1508)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 1509) 신고.
- 1510) 十里 長江 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양자강의 푸른 물결 위.
- 1511) 거룻배인가.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
- 1512) 夜泊秦淮近酒家.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깝다.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진회’는 진회수를 가리킴.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513) 洋洋滄波. 끝없이 넓은 푸른 물결.
- 1514) 놀면서 날아다니는.
- 1515) 雙雙白鷗. 짝을 지어 노는 갈매기.
- 1516) 물 위에 흐르며 떠 있네.
- 1517) ‘소소추풍송안군(蕭蕭秋風送雁群)’의 잘못. 쓸쓸한 가을 바람이 기러기떼를 날려보내다. 당나라 시인 유우석(劉禹錫)의 시 〈추풍인(秋風引)〉의 ‘何處秋風送雁群(어디서 오는 가을 바람이 쓸쓸한 기러기떼를 보내는가)’에서 따온 구절.
- 1518) 거기.
- 1519) 잠깐.
- 1520) 한 마디 말을.
- 1521) 들어라.
- 1522)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1523) 놀던.
- 1524) 碧海 龍宮에. 푸른 바다 속 용궁에.
- 1525) 鸚鵡前에. 앵무새에게.
- 1526) 貴히. 귀하게.
- 1527) 잔소리.
- 1528) 하필이면 그날에.
- 1529) 風日. 바람 부는 날.
- 1530) 뒤둥그러져. 마구 뒤틀리고 우그러져서.
- 1531) 찌기까지.
- 1532) '뒤적'보다 약한 말. 물건을 들추어가며 뒤집는 모양.
- 1533)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랄 때 하는 소리.
- 1534) '용대기(龍大旗)'인 듯. '용대기'는 교룡기(蛟龍旗). '교룡기'는 임금의 거동할 때 쓰는 큰 기로, 누른 바탕에 용틀임과 구름을 채색으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형꼴이 달렸음.
- 1535) 자꾸 늘었다 당겼다 한다.
- 1536) '자세(藉勢)를 부린다'라는 의미인 듯. '자세를 부린다'는 무엇을 등대고 세력을 부린다.
- 1537)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538) 켜졌다. '켜다'는 (술·물 따위를) 한 숨에 들이마시다.
- 1539) 丈夫.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1540) 大小成事.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일을 이룸.
- 1541) 모양새. 생김새.
- 1542) 人中. 코와 윗입술 사이의 우묵한 곳.
- 1543) 짧은.
- 1544) 短命格. 목숨이 짧은 데 어울리는 생김새.
- 1545) 火亡煞.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1546) 日暮時. 날이 저물 때.
- 1547) 金砲手. 김씨 성의 포수.
- 1548) 불명. '정구리'는 '정수리'가 아닌가 생각됨. '정수리'는 머리 위 한가운데. '정구리 보고'를 '쨍그려 보고'로 해석하기도 함.
- 1549) 바짝 가져다 대고.
- 1550)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좋은 방안이나 도리.
- 1551) 담가보아서.
- 1552) 목까지 차는 물.
- 1553)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나타나거나 이루어지면. 따라서 '목물만 지면'은 '목까지 물이 차는 상태가 되면'이라는 뜻.
- 1554) 處分대로. 일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나 결정대로. 여기서는 '마음대로'라는 뜻임.
- 1555) 짐승.

- 1556) 片箭. 아기사. 짧고 작은 화살. 일천 보(步) 이상의 거리에 능히 이르며, 날썰고 축이 날카로워 갑옷이나 투구를 능히 뚫음.
- 1557) 울렁울렁.
- 1558) 커면서. 한 숨에 들이마시면서.
- 1559) 대변 후에 밀을 닦는 종이.
- 1560) 얹어져.
- 1561)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1562)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 1563) 茫茫. 넓고 아득함.
- 1564) 滄海. 넓고 큰 바다.
- 1565)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1566)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1567)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1568) 三江. 중국에 있는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 1569)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1570)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1571)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1572) 曲終人不見에.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 1573) 數峯. 몇몇 산봉우리.
- 1574) 푸르려 있다.
- 1575)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1576)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1577)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닛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1578)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중국 전국시대 굴원이 주위의 참소를 당하고 분함을 못 이겨 빠져 죽은 곳.
- 1579)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뱃머리에 빠져 죽었다.
- 1580)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1581)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 1582) 黃鶴樓. 중국 호북성 무장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최호(崔灝)의 〈황학루(黃鶴樓)〉라는 시로 유명한 누대.
- 1583)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는 崔灝의 遺蹟인가.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 준다는 시구는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자취인가.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 1584)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1585) 三山은 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 1586) 놀던.
- 1587)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1588)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1589) 一去後에. 한번 간 뒤에.
- 1590)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1591)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592) 그냥.
- 1593)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1594) 風月. 청풍(淸風)과 명월(明月). 맑은 바람과 맑은 달, 곧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가로 읊음, 혹은 그 지은 시.
- 1595) 依舊히. 옛과 같이.
- 1596)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1597) 一世之雄. 한 시대의 영웅.
- 1598) 而今은 安在哉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1599)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1600) 姑蘇城.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1601)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1602) 쇠로 된 북의 소리. 곧 종소리.
- 1603)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1604)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탄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달은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가 탄 배까지 들린다).
- 1605)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1606) 隔江. 강을 건너서.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음.
- 1607) 商女들. 술 파는 여인들.
- 1608)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

- 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즐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1609)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 1610)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1611) 여기는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를 변형한 것임.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목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는구나).
- 1612) 金鷄소리. 평과에 딸린 화려한 새인 금계의 소리.
- 1613) 白玉. 흰 빛깔의 옥.
- 1614)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 1615) 黃金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 1616) 別有天地. 특별히 다른 세계(별천지)가 있음.
- 1617) 首. 시의 작품 수를 세는 단위.
- 1618) 山中遊客이 到水宮허니, 四海風光이 入眼中을. 산 속에서 놀던 손님이 수궁에 도착하니, 사방의 바다 경치가 눈 안에 들어오는구나.
- 1619) 下官末職. 지위가 낮은 보잘 것 없는 벼슬아치, 또는 그 직위.
- 1620) 그것일랑은. 그것은.
- 1621) 동그랗게.
- 1622) 廳令.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
- 1623) 여기서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가리킴.
- 1624) 같다고 하면. 같으면.
- 1625)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626) 들어오라고 해라.
- 1627) 藍輿. 뚜껑이 없는, 의자 비슷한 작은 가마. 앞 뒤 각각 두 사람이 메게 되어 있음.
- 1628) 그냥.
- 1629) 넓은.
- 1630) 現身.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1631) 반겨하사. 반가와 하시어.
- 1632)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 1633) 三門. 대궐이나 관청의 문. 중앙에 큰 문 하나와 좌우에 하나씩 세 개로 되었기 때문에 이르는 이름.
- 1634) 지시나 명령을 기다림.
- 1635) 左右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의 나졸. ‘나졸’은 조선조 때 포도청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 1636) 別軍職. 조선조 때 왕의 곁에서 호위를 맡아보던 별군직청에 소속된 무관직의 하나.
- 1637) 도루묵. 양도루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15-26cm로, 입이 큼. 몸빛은 등은 황갈색에 불규칙한 흑갈색 흐름 무늬가 있고, 몸 옆과 배 쪽은 은백색임. 몸에 비늘이

- 없음.
- 1638) 禁軍. 조선조 때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동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 하던 말 탄 군사.
- 1639) '승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승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640) 巡令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1641) 靑絲. 푸른색 실.
- 1642) 紅絲. 붉은색 실.
- 1643) 도둑이나 죄인을 묶던 붉고 짧은 줄.
- 1644) 비스듬히.
- 1645) 秦皇. '진황'은 진시황.
- 1646) 萬里長城. 중국의 화북과 내몽고와의 경계선에 동서로 길게 뻗은 성벽으로 된 유적. 산해관에서 감숙성 가옥관에 이름. 전국시대에 현재의 위치보다 훨씬 북쪽에, 흉노를 막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쌓았던 것인데, 진시황이 완성했음. 남북조시대에는 거란을 막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 쌓았으며, 현존하는 것은 명나라가 몽고인에 대비하여 쌓은 것임. 길이 약 2,400km, 높이 약 6-9m, 두께는 4.5m임.
- 1647)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 《삼국지연의》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소설 《산양대전》에,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대군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이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조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는데, 여기서는 이 일을 가리킴.
- 1648) '둘러싸고'의 잘못.
- 1649) 마구 무리하게.
- 1650)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1651) 營門出師. 병영에서 군사를 내보냄.
- 1652) 三伏달임.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기로 국을 끓여 먹는 일.
- 1653)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1654) 烏鷄湯. 김고 작은 닭인 오계를 푹 삶아 고은 탕.
- 1655) (약재나 약초 따위를) 물에 넣고 끓여 우려나게 하여.
- 1656) 곱절.
- 1657) 개잘량.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
- 1658) 만들어.
- 1659) 깎다고 하면. 깎면.
- 1660) 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흔히 무엇에 부딪쳤을 때 생김.
- 1661) 內腫. 내장에 난 부스럼.
- 1662) 血痰. 피 섞인 가래.
- 1663)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1664) 송아지.
- 1665) 塗炭. 진흙과 숯불.
- 1666)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 1667) 잡은 소의 네 다리.
 1668) 胖. 소의 뱃통의 고기.
 1669) 회쳐 먹는 간.
 1670)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잎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1671)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1672) 나누어.
 1673) 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 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1674) 重한. 무거운. 많은.
 1675) 꾸며 만들고, 복을 만들 때는 가족을 끈으로 이어 엮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음.
 1676) 만들고.
 1677) 先看目後看足이라.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1678)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천리마로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좋은 말.
 1679) 燕人. (중국 전국시대의) 연나라 사람.
 1680) 五百金. 오백 냥의 값에 해당하는 금.
 1681) 연나라 소왕(昭王)이 궐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궐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1682) 大王前. 임금님 앞에.
 1683)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1684) 結縛. 몸이나 두 손을 동여 묶음.
 1685) 朱杖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1686) 돌려메니.
 1687)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사랑스런 태도로 대답하는 말.
 1688) 욕의 일종.
 1689) 웅두리뻘.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1690) 넓은.
 1691) 동당이쳐. 무엇을 들어 힘차게 내던져.
 1692) 江漢之將. 큰 강을 지키는 장수.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1693) 川澤之臣. 냇물과 연못에 사는 신하. 냇물과 연못에 사는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1694) 魚兵之卒. 수많은 물고기 병졸들.
 1695)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1696) 羝羊. 양의 수컷.
 1697) 觸藩. 울타리에 부딪침. ‘저양축번’은 뛰기를 좋아하는 숫양이 울타리에 부딪혔다는

- 뜻으로, 숫양의 성질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기나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데서 온 말. 진퇴양난의 난처한 사정에 놓였음을 이르는 말.
- 1698) 進退難谷. 궁지에 다다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어찌할 길이 없음.
- 1699) 龍宮之下에 必死當冤라. 용궁에서는 토끼가 죽을 수밖에 없다.
- 1700) 死境. 죽을 지경.
- 1701) 名醫에게. 이름난 의원에게.
- 1702) 問醫한즉. 의원에게 병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 1703) 史記. 역사의 기록.
- 1704)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 1705) 麒麟閣. 한나라 선제가 세운 누각. 한나라 선제 때에 흉노가 항복해 왔는데, 선제는 그것이 모두 자기 신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로를 오래 기리기 위해 기린 각에 충신 열 사람의 초상과 이름을 새겨놓았음.
- 1706) 능허대에. '능허대'는 누대의 이름이나 불명. 신재효본에는 '능운대(凌雲臺)로 되어있다. '능운대'는 위(魏)나라 명제(明帝)가 세운 누대.
- 1707) 正朝. 설날 아침.
- 1708) 寒食. 명절의 하나. 동지가 지난 뒤 105일이 되는 날인데, 4월 5일이나 6일 쯤 든다. 한식날은 중국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충신 개자추(介子推)가 불에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이 날은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 1709) 端午. 음력 오월 오일.
- 1710) 김에. 어떤 일의 기회나 또는 바람에.
- 1711) (여러 사람 앞에) 태연스럽거나 어엿한 태도를 나타내는 모양.
- 1712) 갈라 보시오.
- 1713) 배 가르는 일을 안 당하려고.
- 1714) 몸을 비틀면서 부스대는 짓.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며 들먹거리는 짓.
- 1715) 必有曲折. 반드시 까닭이 있음.
- 1716) (남의 말을) 고지식하게 참말로 믿고 그대로 듣지.
- 1717) 泰山이 崩頽하고. 태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고 함.
- 1718)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星·金星·水星·木星·土星.
- 1719) 陰陰한데. 어두운데.
- 1720)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곽(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 1721)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 1722)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 1723) 商 紂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 1724)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 1725) 일곱 구명.

- 1726)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 1727) 無故히. 까닭없이.
- 1728) 구멍이.
- 1729) 누구에게.
- 1730) 당치않다.
- 1731) 醫書. 의술을 적은 책.
- 1732) 脾受病則口不能食. 비장(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 1733)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 1734)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 1735)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 1736) 盈虛之理. 달이 차고 기우는 이치.
- 1737) 望前. 보름 이전.
- 1738) 望後. 보름 이후.
- 1739) 別號. 달리 부르는 이름.
- 1740) 玉兔. 달을 달리 이르는 이름.
- 1741) 進退之理. (조수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이치.
- 1742) 潮水. 해와 달, 특히 달의 인력에 의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바닷면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 1743) 조수가 가장 높은 때.
- 1744) 조수가 가장 낮은 때.
- 1745) 적기 때문에.
- 1746) 三兔. 조수를 달리 이르는 이름.
- 1747) 進退盈虛하기 때문에. 조수가 들랑날랑하며 달이 차고 기울기 때문에.
- 1748)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 1749) 病客. 아픈 사람.
- 1750) 요구하여 귀찮도록 조르기 때문에.
- 1751) 칩냉쿨로 꼬아 만든 노끈.
- 1752) 동여.
- 1753) 영주(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1754) 石山. 돌로 된 산.
- 1755) 上上가지. 맨 위의 가지.
- 1756) 맨 끄트머리에다가.
- 1757)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1758) 玉溪邊. 맑은 시냇가.
- 1759) 濯足하리. 발을 씻으리.
- 1760) 玩景次로. 구경하리.
- 1761) 忿. 성이 왈각 치밀어오르는 마음.
- 1762) 一身之內臟. 한 몸 속의 내장.

- 1763) 꺼내고.
- 1764) 任意로. 마음먹은 대로.
- 1765) 徒知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 1766) 太昊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태'는 매우, '호'는 밝다는 뜻. 따라서 덕이 높은 천자로서 매우 밝아 해나 달과 같다는 뜻임.
- 1767)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768) 炎帝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769)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770) 길쭉하옴고.
- 1771)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 1772) '몸'을 높여 이르는 말.
- 1773) 이렇게.
- 1774) 털이 보드랍게 복실복실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775)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776) 어거지로 고집스럽게.
- 1777) 앓습니까.
- 1778) 이치에 그럴싸한 일로 남에게 속느라고.
- 1779) 구멍.
- 1780) 밀구멍.
- 1781) 내기 때문에.
- 1782) 萬物始生. 만물이 비로소 생김.
- 1783)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 1784)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 1785)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 1786)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 1787)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 1788)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 1789) 和하여. 조화를 이루어.

- 1790) 내기 때문에.
- 1791)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나아 다시 살아남.
- 1792) 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 1793) 卽瘥. 병이 곧 나음.
- 1794) 兩主. '양주'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음.
- 1795) 兩舍. 둘이 서로 마음이 일치함.
- 1796) 晚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와하는 탄식.
- 1797) 解縛. 결박을 풀.
- 1798) 푼.
- 1799) 사정하는 말투로.
- 1800) 朕. 임금의 자기자신을 '나'라는 뜻으로 스스로 일컫는 말.
- 1801) 아내.
- 1802) 知面. 얼굴을 보아 알만함.
- 1803) 改嫁. (한 번 시집갔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감.
- 1804) 書房. 남편.
- 1805) 生死與否. 생사의 그러함과 그렇지 아니함. 죽었는지 살았는지.
- 1806) 史記. 역사의 기록.
- 1807) 理致. 사물에 관한 정당한 합리성.
- 1808)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809) 陽界. 사람이 사는 세상.
- 1810) 望前兔. 보름 이전의 토끼, 곧 간이 뱃속에 들어 있는 토끼.
- 1811) 限死決斷. 죽기를 한하고 기어코 결정함. 목숨을 걸고 기어이.
- 1812) 榻前에. 임금의 자리 앞에.
- 1813) 讒訴. (간사하고 못된 말로) 남을 헐뜯어 웃사람에게 꾸며 고해 바침.
- 1814) 所行. 하는 행위.
- 1815) 말씀드리려다가.
- 1816) 情理. 인정과 도리.
- 1817) 開口吐. 입을 열지.
- 1818) 通情. 통사정(通事情). 자기 사정을 남에 털어놓고 말함.
- 1819) 웅담이나 저담(돼지 쓸개)을 셀 때 쓰는 말.
- 1820) 陰凶. (마음속이) 음침하고 흉악함.
- 1821) 이치에 그럴싸한 일로 남을 속여오려고.
- 1822) 危重. 위험하고 중함.
- 1823) 快差. (병이) 깨끗이 다 나음.
- 1824) 隱日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1825)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1826) 局量. 도량이나 궁리.

- 1827) 속이려느냐?
- 1828)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고.
- 1829) 先次. 차례에서의 먼저.
- 1830) 목의 뒤쪽 부분.
- 1831) 뺨.
- 1832) 後次로. 나중의 차례로.
- 1833) 뒤통수로부터 목의 뒤와 등의 뒤에 걸친 부분.
- 1834) 三里. 삼리혈(三里穴). 다리 오금(무릎의 구부리는 안쪽)의 오목한 곳.
- 1835) '걸이'는 씨름에서 다리로 상대방의 오금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재주를 이름. 따라서 '걸이치고'는 '걸이를 하고' 정도의 의미인 듯.
- 1836) 무릎 마디 앞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접시같이 오목한 뼈.
- 1837) 넓적다리. 다리의 무릎 관절 위의 부분.
- 1838) 복사뼈. 발목 위의 안팎으로 등글게 내민 뼈.
- 1839) 후다닥. 갑자기 날쌔게 행동하는 모양. 일을 성급하게 해치우는 모양.
- 1840) 단단한 물건이 별안간 세게 깨지거나 부러지는 모양이나 소리.
- 1841) 妄臣. 망령된 신하.
- 1842) 合當. 딱 알맞음.
- 1843) 當初에. 일의 맨처음에.
- 1844) 卿. 임금이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대하여 이르는 말.
- 1845) 往事. 지나간 일.
- 1846) 勿論하고. 더 말할 것도 없고.
- 1847) 扶腋. 옆에서 부축함.
- 1848) 殿上. 전각이나 궁전의 자리 위.
- 1849) 侍女. 항상 (지체 높은 사람의) 몸 가까이 있어 시중을 드는 여자.
- 1850) 大宴. 큰 잔치.
- 1851)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제구를 벌여 베풀어 놓음.
- 1852) 雲母. 광택이 있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의 한 가지. 화강암 중에 많이 들어 있으며, 얇은 조각으로 잘 갈라지는 성질이 있음. 백운모와 흑운모의 두 가지가 있음.
- 1853) 水晶簾. 수정으로 만든 발.
- 1854) 茶啖床. 손님 대접으로 음식을 차려 내는 교자상(交子床). '교자상'은 긴 네모꼴로 만든 큰 음식상.
- 1855) 八仙女. 여덟 명의 선녀.
- 1856)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 1857)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858) 王子 旣.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859) 鳳靡리.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 1860)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광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광도원은 격구(擊甌)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861) '질장구'의 잘못.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밥을 담는 큰 놋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862) 성련자(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863) 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864) 옥통소. 옥으로 만든 통소.
- 1865)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866) 奚琴. 국악기인 강강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867)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자(字)는 사중(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868) 擊鼗鼓 吹籥笛. 악어 가족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 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869)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870)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871)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872)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릉(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873)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874)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875) 흥겨운 신과 멋을 내어.
- 1876)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 1877)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878)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1879) 門人. 문하생(門下生). 한 스승에게 배운 제자.
- 1880) 于今껏. 지금껏. 지금에 이르기까지.
- 1881) 桃李火棗. 복숭아, 자두, 붉은 대추.
- 1882) 歲饌. 설에 차리는 음식.
- 1883) 奉하고. 바치고.
- 1884) 東方朔. 한나라 무제 때의 신하. 자(字)는 만청(曼倩).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렀으며,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함.
- 1885) 門下人. 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
- 1886) 三千 甲子. 한 갑자가 60년이므로, 삼천 갑자는 180,000년임.

- 1887) 窮八十 達八十. 가난한 80년, 영달한 80년. 강태공이 무왕을 만나기 이전까지 가난하게 80년을 살았고, 후에 영달하여 80년을 살았던 것을 이룸.
- 1888) 千千萬萬歲. 수 천 수 만 년. 아주 오랜 세월.
- 1889) 仙酒. 신선들이 마시는 아주 좋은 술.
- 1890) 醉興.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멋스러운 기분.
- 1891) 滔滔하여. 벽차오르는 감흥을 막을 길이 없어.
- 1892) 감기(感氣).
- 1893) 전혀 없어.
- 1894) 請. 부탁. 청하여 부탁함.
- 1895) ‘그만두라’는 뜻으로 하는 말.
- 1896) 아낙네. 남의 집 부녀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
- 1897) 無嚴. 삼가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음.
- 1898) 歡心. 기쁘고 즐거운 마음.
- 1899) 春秋.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
- 1900) 速히. 빨리.
- 1901) 本是. 본디. 본래.
- 1902) 奸邪하오. 간사합니다.
- 1903) 草木禽獸. 풀이나 나무, 짐승들.
- 1904) 誹笑. 비웃음.
- 1905) 孟獲. 남만(지금의 베트남)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 1906)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 1907) 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및 형제, 사촌형제, 육촌형제, 팔촌형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
- 1908) 滅하여. 사라지게 하여. 처부수어. 여기서는 ‘죽여’라는 뜻.
- 1909) 陵遲處斬. 죄인을 머리, 손, 발, 몸뚱이 따위로 토막을 내는 극형.
- 1910) 餘恨. 남는 한. 못다한 한.
- 1911) 갈라.
- 1912)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913) 무슨.
- 1914) 至重한데. 매우 중요한데.
- 1915) 欺罔하리. 속이리. 속이겠는가.
- 1916) 夏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걸.
- 1917) 虐政. 포악한 정치.
- 1918) ‘용봉(龍逢)’의 잘못. 걸 임금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 1919) 殺害하고. 죽이고.
- 1920) 未久에. 머지 않아. 오래지 않아.
- 1921) 亡國. 나라가 망함.

- 1922) ‘되었으니’로 해야 함.
- 1923) 살 것을.
- 1924) 魂魄. 넋. 정신이나 마음.
- 1925) 邪鬼. 사악한 귀신.
- 1926)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 1927) 沒死. 모조리 다 죽임.
- 1928) 엠타. ‘여기 있다’의 준말. ‘헤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 1929) 大驚하여. 크게 놀라.
- 1930) 定配. 귀양 보낼 장소를 정하고 귀양을 보냄.
- 1931)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 1932)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933) 忽忽하여. 몹시 급하고 바빠서.
- 1934) 萬頃蒼波. 넓고 푸른 바다.
- 1935) 景. 경치.
- 1936) 鳳去臺空江自流. 봉황은 날아가고 누대는 비었는데, 그 아래로 강물만 흐른다. 이백의 시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의 한 구절.
- 1937) 金陵. 중국 남경의 옛 이름.
- 1938)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 동남쪽에 있는, 이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라는 시로 유명한 누대.
- 1939) ‘석인이승황학거(昔人已乘黃鶴去)’의 잘못. 옛 사람은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음. 당나라 때 시인 최호(崔顥)의 시 〈황학루(黃鶴樓)〉의 첫 구절.
- 1940) 煙波江上. 안개 낀 강물결 위. 당나라 때 시인 최호(崔顥)의 시 〈황학루(黃鶴樓)〉의 마지막 구절인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안개 낀 강물결 위에서 시름겨워한다)’에서 따온 구절.
- 1941) 黃鶴樓인데. ‘황학루’는 중국 호북성 무창 서남쪽 양자강가에 있는,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라는 시로 유명한 누대.
- 1942) 鸚鵡洲. 중국 호북성 무창현 서남쪽의 큰 강 복판에 있는 모래섬.
- 1943) 瀟湘江.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을 아울러 이르는 말.
- 1944) 雲霧. 구름과 안개.
- 1945) 隱隱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정도가 알 듯 모를 듯하게.
- 1946) 二十五絃彈夜月. 이십 오현 비파를 달밤에 탄. 죽은 아황과 여영의 님이 이십오현의 거문고를 타는 소리가 들리는 달밤.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의 시 〈귀안(歸雁)〉의 한 구절.
- 1947) 二妃. 순임금의 아내가 된, 요임금의 두 딸인 아황과 여영.
- 1948) 恨. 이비의 한.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이를 슬퍼한 두 비는 상수에 몸을 던져 뒤따라 죽었다고 하는데, 이를 가리킴.
- 1949) 蒼梧山. 순임금이 죽은 곳.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음. 구의산(九疑山)이라고도 함.
- 1950) 皇陵廟. 요임금의 두 딸이자, 순임금의 두 왕후였던 아황과 여영을 모신, 소상강가에 있는 사당.

- 1951) 落霞與孤鶩齊飛. 떨어지는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오기가 난다.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 647-674)의 시 〈등왕각서(滕王閣序)〉의 한 구절.
- 1952)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각. 당 고조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을 때 세운 것으로서, 그가 등왕에 봉해졌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 1953) 滄波煙月夜. 푸른 물 위에 안개 낀 달밤.
- 1954) 范相國. 재상을 지낸 범려(范蠡). '범려'는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 1955) 湖上亭. 호수 위에 있는 정자.
- 1956) '백로주(白鷺洲)'의 잘못.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에 있는 모래섬.
- 1957)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958)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 1959) '범주유(泛舟遊)'의 잘못. 배를 띄우고 놀다.
- 1960) 東山上. 동쪽 산 위.
- 1961)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 1962) 徘徊. 이리저리 정처없이 거닐.
- 1963)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 1964)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 1965) 강 이름인 듯하나 불명.
- 1966)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 1967) 空秋月之團圓. 빈 하늘엔 가을달만 둥글다.
- 1968)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 1969)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이 가까움.
- 1970) 漁釣. 고기를 낚음.
- 1971) 姜太公.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문왕을 만나 등용되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
- 1972)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973)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 1974)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975) 지금.
- 1976) 가지리.
- 1977) 層巖絕壁. 층층이 바위가 쌓인 높은 절벽.
- 1978)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좋은 방안이나 도리.
- 1979) 올가미.
- 1980) 테니까.
- 1981) 그러지.
- 1982) 이치에 그럴싸한 말에 속아.
- 1983) 슬그머니.

- 1984) 힘있게 위로 끌어올려 들고.
- 1985) (무엇을 가볍게) 자꾸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 1986) 落落長松.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 1987) 어찌할 수 없이.
- 1988) 嘲弄. 깔보고 비웃으면서 놀림조로 실없이 대함.
- 1989) 東風. 동쪽에서 부는 바람. 봄바람.
- 1990) 陰乾. 그늘에서 말림.
- 1991) '죽거라'의 속된 말.
- 1992) 자라탕. 자라를 넣고 끓인 탕.
- 1993) 白燒酒. 색깔을 내지 않은 흰 소주.
- 1994) 醋醬. 고추장에 식초를 넣고 깨소금이나 잣가루를 뿌린 양념장의 한 가지.
- 1995) 떨어지거니. 떨어지기도 하고.
- 1996) 맏히기도 하면서.
- 1997) 放聲痛哭. 목을 놓고 큰 소리로 슬프게 울.
- 1998) 祝手. 두 손을 모아 뽐.
- 1999) 서럽지 않으나.
- 2000) 어떻게하더라는.
- 2001) 임금.
- 2002) 十分. 넉넉하게. 충분히.
- 2003) 言約. 말로 하는 약속. 말로 약속함.
- 2004) 虛言. 거짓말.
- 2005) 清熱之材. 열을 내리는 재료.
- 2006) 紅疫.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발진성 전염병. 어린이에게 발병하는데, 한 번 걸리면 다시는 걸리지 않음.
- 2007) 즉효(卽效). 즉시 일어나는 효과.
- 2008) 過하더라. 지나치게 많더라.
- 2009) 鐵丸. 처란. 잘게 만든 총알.
- 2010) 느슨하지 않고 야무지게.
- 2011) 자루. 기름하게 생긴 물건이나, 노력, 노래 등을 세는 단위.
- 2012) 八名唱. 19세기에 활동했던 명창 중에서 뛰어났던 여덟 명 정도를 아울러 일컫는 말. 전기 팔명창과 후기 팔명창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전기 팔명창은 권삼득, 송홍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주덕기, 황해천, 후기 팔명창은 박유전, 박만순, 이남치, 김세종, 송우룡, 정창업, 정춘풍, 김창록, 장자백, 김찬업, 이창운 등이다.
- 2013) 廉季達. 충주 출신의 명창. 현종의 총애를 받아 동지(同知) 벼슬을 제수받았다. 권삼득의 창법을 많이 모방하였다고 한다. <장끼타령>과 <홍보가>를 잘하였다고 한다.
- 2014) 더늠. 판소리에서 자신이 만들거나 특별히 좋게 고쳐 잘 부르는 대목을 일컫는 말.
- 2015) 劉聖俊(1874-1849). 전남 구례 출신, 혹은 전북 남원 출신이라고 한다. 송우룡의 제자인데, 정춘풍, 김세종의 지침을 받아 건문이 높은 명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적벽가>와 <수궁가>를 잘하여, 제자들을 많이 두었다. 임방울, 김연수, 정광수, 박

- 초월, 박동진 등이 그의 제자이다.
- 2016) 東超 金演洙. 호가 동초인 명창 김연수(1907-1974). 전남 고흥군 거금도에서 태어났으며, 중동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송만갑, 김창환, 정정렬, 유성준 등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판소리의 창극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김연수는 근세오명창들의 판소리를 중심으로 자기 나름의 판소리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를 흔히 <동초제(바디)>, 혹은 <김연수제(바디)>라 부른다.
- 2017) ‘발기다(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헤쳐 발리다)에서 나온 욕으로, ‘찢어죽일 녀석’이라는 뜻.
- 2018) 상한 데 없이 본래대로 온전한.
- 2019) 슬기 없기.
- 2020) 나와 같고.
- 2021) 零落없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들어맞게.
- 2022) 밀구멍.
- 2023) 白雲靑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2024) 토가(兔哥)놈. ‘토씨 성을 가진 놈’이라는 뜻으로 토끼를 의인화하여 함부로 일컫은 말.
- 2025)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꺾떼기를 말함.
- 2026) 바위.
- 2027) 부딪쳐서.
- 2028) 웅기집. 웅기 그릇을 짚어진 집.
- 2029) 보추때기 없는. ‘보추(때기)’는 진취성이나, 활발하며 시원한 성질. 여기서는 ‘버릇이나 싸수가 없는’의 의미로 쓰였음.
- 2030) 북.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 2031) 梧子大. 오동나무 열매만큼 큰 덩이.
- 2032) 丸. 환약(丸藥).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작고 둥글둥글하게 빚은 약.
- 2033) 만들어.
- 2034) 和劑. 약화제(藥和劑). 약방문(藥方文).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종류와 분량을 적은 글.
- 2035) 加味虛浪湯. ‘허랑’은 말이나 행동이 허황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고, ‘가미’는 원방에다 다른 약재를 섞은 한약을 말함. ‘가미한 허랑탕’이라는 이름으로 우습게 지어 붙인 이름.
- 2036) 作末. (쩡거나, 갈거나 뺑아서) 가루로 만들.
- 2037) 왼쪽 눈.
- 2038) 아무지개 이를 갈 때 나는 소리. 여기서는 이를 악물고 힘을 쓸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임.
- 2039) 강림使者. 강림도령.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로 염라대왕의 사자라고 함.
- 2040) 토분(兔糞). 토끼똥.
- 2041) 몹시 가볍게 하는 말이나 행동.
- 2042) 項籍. 항우(項羽). ‘적’은 그의 이름, ‘우’는 그의 자.

- 2043) 天下壯士.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힘이 센 사람.
- 2044) 八千子弟. 팔천 명의 젊은이. ‘자제’는 남을 높이어 그 집안의 ‘젊은 사람’을 일컫는 말. ‘팔천 자제’란 항우가 강동에서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곳 젊은이 팔천 명과 함께 했는데, 이를 가리킨 말임.
- 2045) 거느리고.
- 2046) 時不利兮騅不逝.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가지 않네. ‘오추마’는 항우가 타던 명마. 항우가 유방과 해하에서 싸워 패하게 되자,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우(虞)미인을 보면서 지었다는 시의 한 구절.
- 2047) 敗戰之罪. 전쟁에서 진 죄.
- 2048)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강. 유방에게 패한 항우가 자살한 곳인데,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킨 항우가 오강을 건너 천하를 넘보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쫓겨 이 강을 건너 강동으로 달아나려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오강 도로 못 건넜다’고 한 것임.
- 2049) 荊軻. 중국 전국시대 자객.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을 위해 진왕(秦王) 정(政)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진왕에게 죽음. 진왕 정은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진시황으로 고쳐 불렀음.
- 2050) 萬古.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 2051) 俠客. 용맹한 기상이 있는 사람.
- 2052) 三尺劍. 석 자 되는 칼.
- 2053) 易水. 중국 하북성에 있는 강 이름. 형가가 진왕 정을 죽이려고 떠날 때, 태자 단과 친구들이 나와서 전송한 곳.
- 2054) 頃刻間. 눈 깜박할 동안. 아주 짧은 동안.
- 2055) 口辯. 말솜씨.
- 2056) 이치에 그럴싸한 일로 남을 속여놓고.
- 2057) 덩굴과실. 덩굴에 열리는 과일 열매.
- 2058) 위태롭고. 위태하고.
- 2059) 同類. 같은 종류나 무리.
- 2060) 晝夜相逢. 밤낮으로 서로 만남.
- 2061) 신이 나서 버릇없이 굴면서.
- 2062) 차려놓은. 장만하여 갖추어 놓은.
- 2063) 덧에 걸렸것다.
- 2064)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 2065)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깔겨 주면.
- 2066) 天地陰陽之造化. 우주 만물의 이원대립적 관계를 상징하는 음과 양의 이치를 신통하게 꾸며놓은 일, 또는 그 재간.
- 2067) 掌中. 손바닥 가운데.
- 2068) 말할 테니.
- 2069) 얹어놓으면.
- 2070) 뒤집어놓으면.
- 2071) (줄을) 긋거나 접거나 한 자리.

- 2072) 日月. 해와 달.
- 2073) 여기서는 ‘작은 손가락’이라는 의미.
- 2074) 두 마디이기는. 두 마디인 것은.
- 2075)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 2076) 三才요. ‘삼재’는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 2077) 집게손가락.
- 2078) 가운데손가락.
- 2079) 길기는. 긴 것은.
- 2080) 無名指. 약손가락.
- 2081) 小指. 새끼손가락.
- 2082) 짧은 것은.
- 2083)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 2084)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2085) 先天八卦.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2086) 一天祿, 二眼損, 三食神, 사정파(四徵破), 오귀(五鬼), 六合食, 七進鬼, 八官印, 九退食의 後天九宮. 방소의 점을 볼 때 낙서(洛書)의 수에 이름을 붙인 것. 앞의 일, 이, 삼…… 등의 수는 낙서의 수이고, 뒤의 이름은 후천궁의 이름임.
- 2087) 其掌中. 그 손바닥 가운데.
- 2088) 佛道. 불교의 가르침, 이치.
- 2089)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 2090)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 2091)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 2092)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 2093)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 2094) 파리의 알.
- 2095) 조금.
- 2096) 슬어주시오. ‘슬다’는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낳기다.
- 2097)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
- 2098) 메나리 곡조의 소리. ‘메나리 곡조’는 경상도 향토 음악의 선율.
- 2099) 생기고.
- 2100) 생겨날.
- 2101) 厚薄. 후함과 박함.
- 2102) 몽똥그려. 되는 대로 몽치어 써서.

- 2103) 힘껏대로. 힘껏.
- 2104) 위부모보처자(爲父母保妻子). 부모를 위하고, 아내와 자식을 지킴.
- 2105) 極盡恭待.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2106) 깜짝 반가움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
- 2107) 목소리가 매우 높은.
- 2108) 녀석아.
- 2109) 何必. 달리하거나 달리되지 아니하고.
- 2110) 느긋하고 묵중하게.
- 2111) 너희들에게.
- 2112) 묵숨.
- 2113) 몹시 가볍게 하는 말이나 행동.
- 2114)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짐작은 사람.
- 2115)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 2116) 局量. 도량이나 궁리.
- 2117) 나만하며. 나 정도 되며.
- 2118) 운주결승(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쟁가지로 주역의 괘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 2119)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 2120) 意思. 생각.
- 2121) 나만하랴. 나만하겠는가.
- 2122) 亂世奸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사한 영웅.
- 2123)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2124) 六國.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여섯 나라. 진(秦)을 제외한 초(楚)·연(燕)·제(齊)·한(韓)·위(魏)·조(趙)의 여섯 나라.
- 2125) 蘇秦.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낙양 사람으로 연변이 뛰어났다. 진(秦)나라에 대항하는 다른 여러 나라의 동맹책(合從)을 성공시켜 6국의 재상을 겸임하였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15년 동안 진의 세력을 방비하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동서 연횡설(連橫說)을 주장하는 장의(張儀)에 의해 깨졌다.
- 2126) 張儀.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정치가이자 유세가. 소진과 더불어 종횡(縱橫)의 술책을 귀곡(鬼谷) 선생에게서 배웠음. 진나라 혜문왕의 신임을 받아 재상이 되어, 진나라를 중심으로 횡으로 여섯 나라가 진나라를 섬기자고 주장하여, 여러 나라를 진나라에 복종시키려 노력하였음.
- 2127)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 2128) 諸葛先生. 삼국시대 촉의 재상이었던 제갈량.
- 2129) 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재간.
- 2130) 武陵桃源. 이 세상을 떠난 이상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나온 말인데, 한 어부가 배를 저어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오는 곳을

찾아갔더니, 그곳에 이상향이 있었다는 내용임.

- 2131) '아슬아슬하다'는 뜻으로 쓴 듯함.
- 2132) 映山紅綠. 붉고 푸른 산빛이 비침.
- 2133) 넘노는 것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나는 것이.
- 2134) 桃花. 복숭아꽃.
- 2135) 山影江水. 산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
- 2136) 그리고.
- 2137) 春光春興. 봄날에 일어나는 흥.
- 2138)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가 이곳에 터를 잡고 어진 정사를 펴자, 문왕 때에 이르러 봉황이 나와 울었다고 함.
- 2139) 曠野. 넓은 들.
- 2140) '머리'의 비어.
- 2141) 땡굴어졌는데.
- 2142) 보기보다 실속 있게 속이 짝 찼다고.
- 2143) 療飢渴. 시장기를 면할 재료.
- 2144) 八珍味. 중국에서 성대한 음식상에 차린다고 하는 진귀한 여덟 가지의 음식으로 차린 맛 좋은 음식.
- 2145) 다담(茶啖).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차와 과자 따위.
- 2146) 鴻門宴. 진나라 끝 무렵에, 하남성의 상구현(商丘縣)과 우성현(虞城縣)의 경계에 있는 홍구(鴻溝)의 군문(軍門)에서, 항우가 유방을 불러다 죽이려고 벌인 잔치. 항우는 범중(范增)의 권유에 따라 유방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유방은 장량(張良)의 피로 변괘(樊噲)를 데리고 달아나 목숨을 구했음.
- 2147) 竹物床. 대나무로 만든 상.
- 2148) 어찌 할 수 없이.
- 2149) 八難煞氣. 여덟 번 어려운 지경을 당하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2150) 觀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수명·길흉·성질 등을 판단하는 일.
- 2151) 정확하게.
- 2152) 맛있는.
- 2153) 머릿골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 2154) 빠진다.
- 2155) 조금만.
- 2156) 가슴이 애타는 듯하고 구슬픈 태도나 행동.
- 2157) '청승 떴다'는 청승스러운 태도나 행동을 하다.
- 2158) 서럽지 않으나.
- 2159)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2160) 던져두고.
- 2161) 죽기보다도.
- 2162) 意思주머니.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주머니.
- 2163) 퍼놓으면.

- 2164) 구멍.
 2165) 구멍.
 2166) 통기면서.
 2167) 던져두고.
 2168) 슬릅니까?
 2169) 마음이 홀린 것같이 쏘리것다.
 2170) 테니까.
 2171) 療飢.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2172) 石山. 돌산. 돌로 된 산.
 2173) 까마귀.
 2174) 넘나들면서 계속 놀고.
 2175) '머리'의 비어.
 2176) 훔치면서. 비벼대듯이 하면서 세게 갈기거나 치면서.
 2177)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2178)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함'을 높여 이르는 말.
 2179) 한가한 체하느라고.
 2180) 반 이상.
 2181) '배가 고프'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2182) 그 때는.
 2183) 아주 못쓰게 되거나 부서져 버릴.
 2184) 집어낼.
 2185) 깨뜨릴.
 2186) 老境. 늙을 무렵.
 2187) 들어앉아서.
 2188) 그때서야.
 2189) 이치에 그럴싸한 일로 남에게 속은.
 2190) 토분(兔糞). 토끼똥.
 2191) 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2192) 卽瘥하고. 병이 곧 낫고.
 2193) 宛然히.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2194) 月宮. 달나라에 있다는 상상 속의 궁전.
 2195) 搗藥. 약을 찧음.
 2196) 言哉無窮. 말하자면 끝이 없음.
 2197)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 복소리의 의성어인 듯. 대개는 '더질더질'이라고 함.

유성준 바디 수궁가(박복남 창)

Yu Seong-jun Version Sea Palace Song
(Sung by Bak Bok-nam)

1. (용왕 득병) 남해 용왕이 잔치 후에 병을 얻어 나을 가망이 없자, 홀로 탄식을 한다.

[아니리] 갑신년 중하월¹⁾에 영덕전²⁾ 새로 짓고,
사해³⁾ 용왕이 모두 모여 수삼일⁴⁾ 즐긴 후에,
뜻밖에 남해 용왕이 복중에⁵⁾ 과한⁶⁾ 병이 들어서,
사지⁷⁾ 못힐 줄 짐작하고 자탄⁸⁾으로 울음을 우는디,
[진양조] 탐상⁹⁾을 탕탕 두다리며,¹⁰⁾
“천무열풍¹¹⁾ 좋은 시절 해불양과¹²⁾ 태평헌디,
용왕의 기구로되¹³⁾ 괴이한 병이 들어 남해궁에 가 누웠은들,
어느 누가 날 살릴꼬?
의약 만세¹⁴⁾ 신농씨¹⁵⁾와 화타,¹⁶⁾ 편작,¹⁷⁾ 노월인,¹⁸⁾ 그런 수단¹⁹⁾을
만났으면, 나를 구원을 허련마는,
이제는 하릴없구나.²⁰⁾
어화, 내 신세야.”

2. (도사 문병)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용왕의 병세를 살핀다.

[아니리] 이리 한참 설리 올 적에,
[옛모래] 뜻밖에 현운,²¹⁾ 흑운²²⁾이 궁전을 뒤덮고,
표풍세우²³⁾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어떠한 청의 도사²⁴⁾ 학창의²⁵⁾를 떨쳐 입고 궁전에 내려와 재배이진왈,²⁶⁾
“약수삼천리²⁷⁾에 해당화를 구경허고, 백운요지연²⁸⁾의 천년벽도²⁹⁾를
얻으려고 가옵던 차에,

1. (The Dragon King Gets Ill)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ill after a party. He is not likely to recover, so he despairs.

[Aniri] In summer of a certain year,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builds a new palace.

Dragon kings of the four seas have a party together.

All of a sudden,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gets a serious disease in his belly.

The dragon king weeps, thinking he will die.

[Jinyangjo] The dragon king pounds on the table.

“The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for a long period of time.

I was healthy, but I have come down with a strange disease in the palace of the South Sea.

Is there anyone to save me?

Famous ancient doctors - Shen Nong Shi(神農氏), Hua Tuo(華陀) and Bian Que(扁鵲) - could have saved me.

But they are not here now.

How bad my fate is!”

2. (A God Visits) A god comes down from heaven and diagnoses the dragon king.

[Aniri] The dragon king weeps as said above.

[Eonmori] All of a sudden, black clouds cover the palace.

A wind and a drizzle surround it.

A god wearing blue clothes comes down to the palace and bows twice and speaks.

“I have come to the earth to see wild roses and a long river and to pick divine peaches by a pond.

과약풍편³⁰⁾에 듣사오니, 대왕의 병세가 만만위중타기로³¹⁾ 뵈옵고저 왔나니다.”

3. (도사 진맥) 도사가 진맥을 하고 나서 온갖 약을 다 써도 용왕의 병세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리] 용왕이 반기하사,³²⁾

“원컨대 도사는 나의 황황한³³⁾ 병세에 특효지약³⁴⁾을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가 용왕의 맥³⁵⁾을 보는데,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가 맥을 보고,

“간맥³⁶⁾이 경동하야³⁷⁾ 복중³⁸⁾에서 난 병이요,

마음이 슬프고 두 눈이 어둡기는 간경음화³⁹⁾로 난 병이요.

약으로 논지하면은⁴⁰⁾

주사,⁴¹⁾ 영사,⁴²⁾ 구사,⁴³⁾

웅담,⁴⁴⁾ 창출,⁴⁵⁾ 백출,⁴⁶⁾

소엽,⁴⁷⁾ 방풍,⁴⁸⁾ 전피,⁴⁹⁾

진피,⁵⁰⁾ 반하⁵¹⁾이며,

육계,⁵²⁾ 단사,⁵³⁾ 차전,⁵⁴⁾ 연실,⁵⁵⁾

당귀,⁵⁶⁾ 천궁,⁵⁷⁾ 강활,⁵⁸⁾ 독활,⁵⁹⁾

시호,⁶⁰⁾ 전호,⁶¹⁾ 목통,⁶²⁾ 인삼,

가미육군자탕,⁶³⁾ 청서육화탕,⁶⁴⁾ 이원익기탕,⁶⁵⁾

청풍보음탕,⁶⁶⁾ 백사지위령탕,⁶⁷⁾

팔미탕,⁶⁸⁾ 육미탕,⁶⁹⁾

I heard Your Majesty had a serious illness. I came here to see you.”

3. (The God Checks the Pulse.) The god checks the dragon king’s pulse, and says that no medicine will cure the dragon king.

[Aniri] The dragon king welcomes the god.

“I am seriously ill. Please tell me what an effective medicine is.”
The god checks the dragon king’s pulse.

[Jajinmori] The dragon king puts out his arm.
The god checks his pulse.

“An illness occurred in your belly because a blood vessel in your liver is in shock.

You feel sad and your sight became bad because the nerve system in your liver lacks warmth.

Let me talk about a medicine:

natural mercury, boiled mercury,

a bear’s gall bladder, an untangled root, a tangled root,
leaves, a dried root, a tangerine peel,

mercury, a kind of grass

a thick bark, natural mercury, a seed, a lotus fruit,
various herbal roots,

lovage grass, a grass root, a dry stem, a ginseng,

hematic soup, soup for the heart, soup for intestines,

soup for backache, white snake soup,

soup for stamina, common medicinal soup

오가탕,⁷⁰⁾ 사물탕,⁷¹⁾

신농씨 백초약⁷²⁾을 갖가지로 다 써봐도 효험 보지를 못 허리다.”

4. (토끼 간 처방) 도사가 토끼의 간을 처방하니, 용왕은 토끼를 구하기 어렵다며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아니리] “진세산간⁷³⁾에 천년퇴간⁷⁴⁾ 곧 아니면

염라대왕이 동성⁷⁵⁾ 삼촌이요, 강님도령⁷⁶⁾이 외사촌⁷⁷⁾ 남매간이라도
신사이혼,⁷⁸⁾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하시겠소.”⁷⁹⁾

용왕이 왈, “거 어찌 신농씨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옵고, 조그만헌
퇴간이 약이 된단 말이요?”

도사 가로되, “용왕은 진이요,⁸⁰⁾ 퇴끼는 묘라,⁸¹⁾

묘을손은 음목이요,⁸²⁾

간진수는 양퇴요,⁸³⁾

진간사산은 원속목이요,⁸⁴⁾

갑인진술은 대강수라,⁸⁵⁾

수생목하였으니,⁸⁶⁾

그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수궁에서 퇴끼 구할 길이 바이없으니⁸⁷⁾ 자탄
으로 울음을 우는디,

[진양조] 왕왕⁸⁸⁾

“연하다.⁸⁹⁾ 수연이나,⁹⁰⁾ 창망헌⁹¹⁾ 진세간의⁹²⁾ 벽해의⁹³⁾ 만경 밖
의,⁹⁴⁾ 백운이 구만리요,⁹⁵⁾

여산 송백⁹⁶⁾ 울울창창의⁹⁷⁾ 삼천고분이 황제묘인디,⁹⁸⁾

bark soup, and hematic soup.

All sorts of medicinal herbs of Shen Nong Shi(神農氏) are tried in vain.”

4. (Prescription of a Hare's Liver) The god prescribes a hare's liver. The dragon king asks for a different prescription, saying it is hard to get a hare's liver.

[Aniri] “But for a thousand-year-old hare's liver in the human world,

you will die even if the God of Death is your relative, and even if the Grim Reaper is your brother or cousin.”

The dragon king responds, “How come Shen Nong Shi's(神農氏) medicines don't work, but a hare's liver does?”

The god responds, “You are a dragon, and he is a hare.

Wood has negative energy.

Earth has positive energy.

A hare is Earth.

A dragon is Wood.

Earth and Wood create life together.

So how can a hare's liver not be a medicine for you?”

After listening to the god, the dragon king weeps because there is no hare in the sea palace.

[Jinyangjo] The king speaks,

“That makes sense, but the human world is out of this sea, and white clouds are far from here.

There are thousands of imperial tombs in the mountain thick with pine trees and nut pine trees.

퇴끼라 히는 짐생은⁹⁹⁾ 해외¹⁰⁰⁾ 일월의¹⁰¹⁾ 밝은 세상, 백운 청산 무정
 처로¹⁰²⁾ 시비 없이¹⁰³⁾ 다니는 짐승을
 내가 어찌 구하드란 말이오?
 죽기는 쉽사와도, 퇴끼 구할 길은 없나니다.”¹⁰⁴⁾

5. (어전 회의) 용왕이 어전회의를 소집하니 신하들이 들어 온다.

[아니리] 도사 가로되,
 “용왕의 성덕¹⁰⁵⁾으로 어찌 성공지신¹⁰⁶⁾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인홀불견¹⁰⁷⁾ 간 곳 없지.
 그제야¹⁰⁸⁾ 도승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¹⁰⁹⁾한 후에,
 수부조정¹¹⁰⁾ 만조백관¹¹¹⁾을 일시에 차례로 영¹¹²⁾을 놓아노니,¹¹³⁾
 우리 세상 같거든¹¹⁴⁾ 일품¹¹⁵⁾ 재상님네¹¹⁶⁾가 들어올 테이지만은,
 수국이 되고보니 물고기 등물들이¹¹⁷⁾ 각기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¹¹⁸⁾
 들어오는디,

이런 가관¹¹⁹⁾이 없든가 보드라.

[중중모리] 승상¹²⁰⁾은 거북,

승지¹²¹⁾ 도미,

판서 민어,

주서¹²²⁾ 오중어,¹²³⁾

한림¹²⁴⁾ 박대,¹²⁵⁾

대사성¹²⁶⁾ 도루묵,¹²⁷⁾

방첨사¹²⁸⁾ 조개,

해운궁¹²⁹⁾ 방개,¹³⁰⁾

병사¹³¹⁾ 청어,

A hare is an animal that wanders around in mountains and clouds under the sun and the moon in the bright outside world.
How can I obtain one?
It's easier to die than to acquire a hare."

5. (Royal Meeting) The dragon king convenes a royal meeting and his subjects comes.

[Aniri] The god speaks,
"There is sure to be a loyal official because you are a virtuous king."

After finishing speaking, the god suddenly disappears.

The king now realizes he is a god, and bows to the sky numerous times.

He orders all of his officials to come to the palace for a meeting.
If this were the world of the land, the premier would come in first.

But this is a sea world, so fishes come in according to their government titles.

That is quite a show.

[Jungjungmori] A turtle is a minister.

A snapper is an advisor to the king.

A croaker is a minister.

An octopus is a recorder of history.

A shark is a minister of the government record.

A sandfish is a regulator.

A shellfish holds a certain government position.

A diving beetle is a ship captain.

A herring is a general.

군수 해구,¹³²⁾

현감 홍어,

조부장¹³³⁾ 조구,¹³⁴⁾

비변랑청¹³⁵⁾ 장대,¹³⁶⁾ 승대,¹³⁷⁾ 청달개,¹³⁸⁾ 가오리,

좌우 나줄이,¹³⁹⁾ 금군¹⁴⁰⁾ 모조리,¹⁴¹⁾ 상어, 솔피,¹⁴²⁾ 눈치,¹⁴³⁾ 준치,

삼치, 멸치, 가재, 개구리까지

영을 듣고, 빠각 빠각 빠각 빠각,

어전에 복지하고,¹⁴⁴⁾ 대왕에게 절을 꾸벅 꾸벅 꾸벅 꾸벅 꾸벅 하니,

6. (거북 천거) 용왕이 토끼 간을 가져올 신하를 천거하라고 하니, 잉어가 거북이를 천거하는데,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리]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¹⁴⁵⁾ 보시더니,

“오,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오뉴월 생선전¹⁴⁶⁾ 도물주¹⁴⁷⁾가 되었구나.

경들¹⁴⁸⁾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퇴끼를 구해 짐의 병을 구하

리오?”

좌우어두귀면지줄¹⁴⁹⁾이

면면상고¹⁵⁰⁾허며 묵묵부답¹⁵¹⁾이었든가 보드라.

[중모리] 왕이 푹푹¹⁵²⁾ 탄식을 허되,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¹⁵³⁾ 개자초¹⁵⁴⁾와

광초망신 기신이는¹⁵⁵⁾ 죽을 임군¹⁵⁶⁾을 살렸건마는,

우리 나라는 충신이 없어서

어느 뉘기가¹⁵⁷⁾ 날 살릴꼬?”

정언 잉어가¹⁵⁸⁾ 여짜오되, “승상 거북을 내보냄이 어떠하오?”

A seal is a county administrator.
 A skate is a provincial head.
 A yellow corbina is a military officer.
 A sea robin, a purple fish, a blue ray, and a ray are secret agents.
 A cornet fish, a shark, a minnow, a herring, an anchovy, a mackerel, a crawfish, and a frog are soldiers.
 With the king's order, they move fast.
 They kneel down and bow to the king one by one.

6. (Recommendation of a Turtle.) The dragon king tells his subjects to recommend a subject to bring a hare's liver. A carp recommends a turtle. Other subjects object to the recommendation.

[Aniri] The sick dragon king has been sitting back and watching his subjects.

"It looks like I am not a dragon king but a head merchant of the fish market in summer.

Who will go out to the land and bring a hare to cure me?"

His subjects are second-rate.

They are silent, looking at each other's faces.

[Jungmori] The king heaves a sigh.

"There are loyal subjects in other countries.

Jie Zi Tui(介子推) saved his king by giving him his thigh to eat.

Ji Xian(紀信) saved his king by deceiving the enemy.

There is no loyal official in my country.

Who will save me?"

A carp, a debate officer, says, "What about the turtle, a minister?"

“승상 거북은 지락이 널롭삼고,¹⁵⁹⁾
 복판¹⁶⁰⁾이 모도¹⁶¹⁾ 다 대몬고로,¹⁶²⁾
 세상에를 나가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¹⁶³⁾ 밀이개살짜,¹⁶⁴⁾ 탕건¹⁶⁵⁾ 묘또기,¹⁶⁶⁾ 주일쌈지 끈까
 지¹⁶⁷⁾ 대모가 아니면 헐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7. (물메기 천거) 용왕이 메기를 천거하자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리] “그러면 수문장¹⁶⁸⁾ 물메기¹⁶⁹⁾가 어떠하뇨?”
 [자진모리] 정언이 여짜오되,
 “미에기는¹⁷⁰⁾ 장수구대¹⁷¹⁾하고 호풍신¹⁷²⁾하거니와,
 아가리가¹⁷³⁾ 너무 커서 식량이 너룬고로,¹⁷⁴⁾
 세상에를 나가오면 요기감¹⁷⁵⁾을 얻으라고 조그만한 산천수¹⁷⁶⁾ 이러
 저리 다니다,
 사립¹⁷⁷⁾ 쓴 어웅¹⁷⁸⁾들이 사풍세우불수귀¹⁷⁹⁾하야 입감¹⁸⁰⁾ 꿰어서 물
 에다 풍,
 탐식¹⁸¹⁾으로 덜컥 삼켜 단불요대¹⁸²⁾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 복질,¹⁸³⁾ 설사, 배아피¹⁸⁴⁾허는 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허리다.”

“The turtle is smart and knowledgeable.
But his shell is used by humans as an ornament.
If he goes out, humans will catch him and cut his shell off.
His shell will be widely used to make such things as knives,
tools, skullcaps, tobacco pouches, and cords.
So we can’t send him there.”

**7. (Recommendation of a Catfish.) The dragon king
recommends a catfish, and subjects oppose the
recommendation.**

[Aniri] “If so, how about the gatekeeper, the catfish?”

[Jajinmori] The carp speaks.

“The catfish looks good with big mouth and long whiskers.
But his mouth is so big that he needs a lot of food.
If he goes out, he will wander around in small streams, looking
for food.

Old fishermen wearing bamboo hats will cast hooks with baits
into water.

The gluttonous catfish will bite the hook and die without fail.
He will be used as a medicine for dysentery, stomachache,
diarrhea, and belly trouble.

So we can’t send him there.”

8. (방개와 조개) 방개가 자원하자 용왕이 거부하고, 용왕이 조개를 추천하자 신하들이 반대한다.

[아니리] 해운공¹⁸⁵⁾ 방개란 놈이 열 발을 짝 벌려 들고 살살살살 기어 들어오더니만,

[중중모리] “신¹⁸⁶⁾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¹⁸⁷⁾ 산천수¹⁸⁸⁾ 가만히 잠신하야¹⁸⁹⁾ 천봉만학¹⁹⁰⁾을 바라보니,

산중퇴¹⁹¹⁾ · 월중퇴¹⁹²⁾ 안면¹⁹³⁾이 있사오니,

소신¹⁹⁴⁾의 엄지발¹⁹⁵⁾로 퇴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드드득¹⁹⁶⁾ 집어다가 대왕전에¹⁹⁷⁾ 바치리다.”

[아니리] 대왕이 허허 웃고,

“너도 이놈 신¹⁹⁸⁾이란 말이나?

네 저놈 두 엄지발만 똑 떼어 당장 내쫓아라.”

“그럼,

[중모리] 방첨사¹⁹⁹⁾ 조개가 어떠하뇨?”²⁰⁰⁾

“방첨사 조개는 철갑²⁰¹⁾이 굳고,

방신제도는²⁰²⁾ 종사와도,

옛 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허고 좌수어인지공이라’,²⁰³⁾

홀조²⁰⁴⁾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루 펄펄 날아들어,

홀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홀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할 적에,

어부에게 모두 다 잡히어 속절없이²⁰⁵⁾ 죽을 것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8. (A Diving Beetle and A Shellfish) A diving beetle volunteers. The dragon king rejects him. Subjects oppose the dragon king's recommendation of a shellfish.

[Aniri] A diving beetle, a ship captain, steps forward slowly with his ten legs wide open.

[Jungjungmori] "The land is my hometown.

Immersed in a blue stream in a green forest, I watched numerous mountain peaks and valleys.

I am familiar with a hare in the mountain and on the moon.

I will grab the hare's thin waist with my claw and bring him to Your Majesty."

[Aniri] The dragon king laughs.

"You villain. Are you a subject too?"

Cut his fore legs off and drive him away."

"If so,

[Jungmori] How about a shellfish?"

"His body is covered with hard shell.

The shell protects his body.

But an ancient book says a shellfish once fought with a snipe.

The snipe flew at the shell fish vigorously.

The snipe and the shellfish bit each other and refused to release each other.

They were caught by a fisherman and died helplessly.

So we can't send the shellfish there."

9. (별주부 자원) 이 때 별주부가 들어와 토끼 간을 구해오
겠다고 하면서, 토끼 화상을 그려달라고 청한다.

[아니리] 공론²⁰⁶)이 미결혈 적에,²⁰⁷

[진양조] 영덕전²⁰⁸)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죽²⁰⁹)이며, 장경오획²¹⁰)로고나.

호흥배²¹¹) 등에다 방패²¹²)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 들어와서,

국궁재배²¹³)를 허더니마는,

[아니리] 왕에게 상소²¹⁴)를 가만히 올려노니,

상소 받아보니

별주부²¹⁵) 자라였든가 보더라.

용왕이 칭찬 왈, “오, 네 충성은 지극하나, 세상 나가면 인간 진미²¹⁶)

가 된다 하니,

가서 죽으면 그 아니 원통하냐?”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의 수족²¹⁷)이 넷이라 강상에 등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²¹⁸)

인간 봉패²¹⁹)는 없사오나,

본시²²⁰) 해중지소생²²¹)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²²²) 하나 그려주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오, 기특코 고마운지고.

글랑은²²³) 그리 허여라.”

화상을 한번 그려보는데,

9. (Terrapin Volunteers.) Terrapin comes, volunteers
to bring a hare's liver, and asks for a picture of a
hare.

[Aniri] There is no agreement.

[Jinyangjo] An official comes through the back gate of the
palace.

He has small eyes, short legs, a long neck, and a curved mouth.

He comes in slowly with a cloth on his hard shell.

He bows twice to the king.

[Aniri] He gives a formal letter to the king.

The king takes letter.

He is Terrapin, an official.

The dragon king praises Terrapin, "Your loyalty is great, but if
you go out, you will be a great delicacy for humans.

How sad your death is going to be!"

Terrapin answers,

"Having four limbs, I am good at seeing things on the surface
of a river.

I will not fall into disaster.

I was born here, so I am not familiar with what a hare looks
like.

Please draw a picture of a hare for me.

I will bring a hare here without fail."

"I am grateful to you.

I grant your wish."

A picture is drawn.

10. (토끼 화상) 화공을 불러 자라에게 줄 토끼 화상을 그린다.

[중중모리] “화가를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이적선²²⁴ 봉황대 봉 그리던²²⁵ 환공²²⁶이,
동정유리청홍연²²⁷의 금수추파²²⁸ 거북 연적²²⁹ 오징어 불러 먹 같고,
양두화필²³⁰을 덩벽²³¹ 풀어 단청 채색²³²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²³³ 승지강산²³⁴ 경개²³⁵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²³⁶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봉래²³⁷ 방장²³⁸ 운무²³⁹ 중의 내²⁴⁰ 잘 맡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 원갯²⁴¹ 향초²⁴² 꽃 따 먹던 입 그리고,
만화방창화림중²⁴³ 펄펄 뛰든 발 그리고,
백설강산²⁴⁴의 치운²⁴⁵ 날 방풍허던²⁴⁶ 털 그리고,
두 귀는 쫓긋,²⁴⁷
눈은 도리도리,²⁴⁸
허리는 늘씬,²⁴⁹
뽕뎡이²⁵⁰는 묘뚝,²⁵¹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순디,²⁵²
녹수청산²⁵³의 예굽은²⁵⁴ 장송,²⁵⁵
휘늘어진 양류²⁵⁶ 속, 들랑달랑²⁵⁷ 오락가락
앙그조춤²⁵⁸ 기는 토끼
화중퇴²⁵⁹ 얼핏²⁶⁰ 그려,²⁶¹

10. (A Picture of a Hare) An artist is called in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for Terrapin.

[Jungjungmori] “Bring an artist here.”

An artist comes and draws a picture of a hare.

He once drew a picture of an ancient poet on a tower.

He uses a colorful inkstone, a turtle-like bowl, and black ink
from a squid.

He puts a two-sided brush on the ink of various colors and
moves the brush around.

He draws the picture of the eyes which were gazing at the
beautiful scenery,

the ears which were listening to the songs of cuckoos and
parrots,

the nose which was smelling everything in mountains covered
with cloud and fog,

the mouth which was eating fragrant grass and flowers,

the legs which were moving fast through the green spring forest,

and the fur which was protecting him from the cold wind and
snow in winter.

The ears are straight up.

The eyes are round.

The waist is slim.

The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all pine trees hanging down are on the blue mountain and
stream.

A hare appears to move in and out of a willow drooping down.

A hare appears to crawl hesitantly.

A hare is drawn swiftly in the picture.

아미산월이 반류퇴,²⁶²⁾ 이에서²⁶³⁾ 더할쏘냐?

“아나, 옳다,²⁶⁴⁾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11. (별주부 모친 만류) 별주부가 화상을 간직하고 집에 가 니, 모친이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자래가 화상을 받아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넝을 데가 없제.

이놈이 한참 앓아 생각더니, ‘옳다, 넝을 데 있다.’

모가지를 질게²⁶⁵⁾ 빼고,

화상을 요리 접고, 저리 접고, 착착 접어서

목덜미에다 딱 때려 붙이고, 목을 쪽 몰아넣으니,

되끼 화상이 자래 막동창사²⁶⁶⁾에 가 딱 들어붙었제.

‘옳다, 이만허였으면 수로 만리를 다녀와도 물이 일점 묻지 않겠구나.’

어전²⁶⁷⁾에 숙배²⁶⁸⁾허고 본택²⁶⁹⁾으로 돌아올 적에,

그 때여 주부 모친 대부인²⁷⁰⁾ 암자래²⁷¹⁾ 한 마리가 청춘 과부로 늙었
는디,

꼭 여든아홉 살 먹었든가 보더라.

이놈이 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만류로²⁷²⁾ 나오다가,

주부 얼굴을 딱 보더니, 주부를 못 가게 만류하는디,

[진양조]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소상강 손아.²⁷³⁾

이 내 말을 들어 봐라.

네가 세상을 간다고 하니,

무엇허로 갈라느냐?

He looks better than the one on a half moon over a mountain.
“Here you are, Terrapin.
Take this and go out.”

**11. (Terrapin’s Mother Stops Terrapin.) Terrapin goes
home with the picture. His mother tells him not
to go to the land.**

[Aniri] Terrapin takes the picture and ponders for a while.
It seems there is no place to carry the picture.
He thinks for a while and murmurs, “Yes, I’ve a place to put
it in.”
He sticks out his neck.
He folds the picture many times.
He puts the picture on his neck and pulls his neck in.
The picture is attached to his deep place below, viz., his
appendix.
He mumbles, “Good. If the picture is kept like this, there is no
way it will get wet on a long journey in the sea.”
He says goodbye to the dragon king and goes home.
Meanwhile, Terrapin’s mother became a widow when she was
young.
She is now 89 years old.
After hearing that her son will go to the land, she comes out
to stop him.
She sees Terrapin’s face and stops him from going to the land.
[Jinyangjo] “Hello, Terrapin. You were born in a river.
Listen to my words.
I’ve heard you are going to the land.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삼대독자 네 아니냐?

장탄식²⁷⁴) 병이든들 뉘 알뜰히 구환²⁷⁵)을 허며,

네 몸이 죽어져서, 골폭사장²⁷⁶)에 흠어져서²⁷⁷) 오연²⁷⁸)의 밥이 되들,

뉘라 후여 처서²⁷⁹)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인거냐?²⁸⁰)

일일사친십이시로고나.²⁸¹)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간다고 허시더니,

십리 장강²⁸²) 모래 속에 남모르게 잠신²⁸³)을 허였다가,

쇠꼬치²⁸⁴)로 등이 찢려

어복에 장사가 된 연후에,²⁸⁵)

백골안장²⁸⁶)을 뉘 허였느냐?

너마저 가려느냐?

가지를 말어라, 가지를 말어라.

세상이라고 허는 데는 한 번 가면은 못 오느니라.

위방불입²⁸⁷)이니 가지를 마라.”

12. (별주부 부인 작별) 별주부가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모친을 당부한다.

[아니리] “어머니 근심치 마옵시오.

나라²⁸⁸)에 환후²⁸⁹)가 계셔 약을 구허로 가는 봉명²⁹⁰)이오니,

수로 만리를²⁹¹) 다녀와도 걱정 없이 다녀오겠나이다.”

주부 모친 이 말 들으시더니,

“옳다, 내 새끼.

충성이 지극쿠나.

대관절 나라에 환후가 계셔 약을 구하러 가는 몸이라 허는디,

You are the only child for three generations in my family.
When you are sick and feel sad, who will take care of you?
Even if you die and your bones scattered on sand, fall prey to
crows and kites, who will clap his hands and shout out to drive
the birds away?

Your child will think about you all day long.
One day, your father went to the land for sightseeing.
He hid himself in sand of a long river.
His back was pierced by an iron stick.
He became fish's food.
His bones were not buried.
Do you want to join your father?
Don't go. Don't go there.
The land is a place of no return.
We shouldn't go to a dangerous foreign country."

**12.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Terrapin says
goodbye to his wife, asking her to take good care
of his mother.**

[Aniri] "Mother, don't worry.
"The king is ill, so I am leaving to get medicine at his order.
I am taking a long journey on the sea, but I will come back
in one piece."
After hearing Terrapin's words, his mother responds,
"Bravo, my child.
Your loyalty is great.
You are going there to bring a medicine to the sick king.

내가 공연히 눈물바람했구나.²⁹²⁾
 가 잘 다녀오너라.”
 모친께 하직을 하고 침실로 돌아와서,
 부인의 손을 잡고,
 “당상의²⁹³⁾ 백발 모친²⁹⁴⁾ 기체²⁹⁵⁾ 안녕하옵시기는 부인의 정성이오니,
 나 다녀오리다.
 그러나 한 가지 못 믿고 가는 것이 있소.
 저 재 너머 백남생이²⁹⁶⁾란 놈이 꼭 나 닮았어.
 이놈이 나 세상 갔단 말을 들으면, 마누라한테 꼭 근경주²⁹⁷⁾를 헐
 것 같여.
 그러니 그놈 몸에서는 노란내²⁹⁸⁾가 나고,
 내 몸에서는 고순내²⁹⁹⁾와 비력내³⁰⁰⁾ 두 가지 내음³⁰¹⁾이 곁해 나니,
 부디 내음으로 구별 잘 하시오.”
 부탁을 해놓고 세상 나가는데,
 미물 짐생³⁰²⁾이지만은 그냥 나갈 수가 없제.
 수궁 풍경을 들입다³⁰³⁾ 한 번 내젓고 나가는데,
 수정궁³⁰⁴⁾ 밖 썩 나서더니,

13. (고고천변) 별주부가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 경치가 아름답다.

[중중모리] 고고천변일룬홍³⁰⁵⁾ 부상³⁰⁶⁾에 높이 떠,
 양곡³⁰⁷⁾의 잣은³⁰⁸⁾ 안개 월봉으로³⁰⁹⁾ 돌고돌아,
 어장춘³¹⁰⁾ 개 짓고,
 회안봉³¹¹⁾ 구름이 떴다.
 노화³¹²⁾ 날날 눈 되고,

I shouldn't have shed tears.
Take care of yourself."
He says goodbye to his mother and goes to his bedroom.
He grabs his wife's hands.
"The welfare of my old mother rests in your hands now.
I am leaving.
There is one thing that concerns me.
A tortoise over the pass resembles me.
I am afraid if he hears I went to the land he will approach you.
His body gives off a meat smell.
My body gives off two smells: aromatic and fishy smells.
Identify him by the smells."
After asking a favor to her, he goes out to the land.
Even if Terrapin is just an animal, he doesn't go out without
doing something.
He observes the landscape of the sea palace.
He goes out of the sea palace.

13. (Sunrise) Terrapin sees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world of the land.

[Jungjungmori] The red sun rises high above the horizon.
A thick fog in the sun valley moves around the Moon Peak.
A dog barks from a village.
Clouds hang over a peak.
Reed flowers fall down like snow.

부평³¹³)은 물에 등실,
 어룡³¹⁴)은 잠자고,
 잘새³¹⁵)는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으파시추³¹⁶) 금성추파³¹⁷)가 여기로구나.
 앞발로 벽파³¹⁸)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³¹⁹)을 탕탕.
 요리 저리 저리 요리,
 양금³²⁰) 당실³²¹) 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³²²)은 칠백 리요,
 파광³²³)은 천일색인디,³²⁴)
 천외무산 십이봉³²⁵)은 구름 밖에 가 멀어 있고,
 해외 소상³²⁶)은 일천 리 눈 앞에 경개로구나.
 오초난 어이하야 동남으로 벌여 있고,
 건곤은 어이하야 일야에 등실 떠,³²⁷)
 남훈전³²⁸) 달 밝은디 오현금³²⁹)도 끊어지고,
 낙포³³⁰)로 둥둥 가는 저 배,
 쪼각달 무관수의³³¹) 초 회왕³³²)의 원혼³³³)이요.
 모래 속에 가 장신하야³³⁴) 천봉만학³³⁵)을 바라보니,
 만경대³³⁶) 구름 속에 학선³³⁷)이 울어 있고,
 칠보산³³⁸) 비로봉³³⁹)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무울차야³⁴⁰) 산은 칭칭³⁴¹) 높고,
 경수무풍야자파³⁴²) 물은 풍 풍 깊고,
 만산³⁴³)은 우루루루루루루,³⁴⁴)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³⁴⁵)
 장송은 낙락,³⁴⁶) 늘어진 잡목,
 평피진³⁴⁷) 떡갈, 다래몽동,³⁴⁸)

Duck weeds float on the pond.
 Fishes sleep in the water.
 A bird flies vigorously in the sky.
 The breeze and the waves of a wide and clear lake signify
 autumn.
 Terrapin pulls and pushes blue waves of water with his front
 and rear legs.
 He moves around.
 He gazes aroun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The land is wide.
 The color of the water is the same as that of the sky.
 Twelve peaks are above the clouds at a distance.
 A beautiful river stretches for thousands of miles in front of
 Terrapin's eyes.
 Wu(吳) and Chu(楚) countries were to the east and to the south.
 The sky and the earth are reflected on the lake day and night.
 The sound of a pentachord stopped in a palace on the bright
 moon.
 A boat goes to a port.
 It seems to be the revengeful spirit of an imprisoned king, King
 Huai(懷).
 Terrapin hides himself in the sands and sees numerous
 mountains and valleys.
 A crane sings on a tower in clouds.
 A peak rises high into the sky.
 When the fog clears, the mountain looks even higher.
 Clear and deep water creates waves without wind.
 All the mountains are thick with trees.
 Mottled chrysanthemums, fallen leaves,
 drooping branches of a tall pine, stretching scrubs,
 a wide oak trees, a stumpy fruit tree,

칩년출,³⁴⁹⁾ 머루, 다래,
 으름년출,³⁵⁰⁾ 능수버들이, 뱃나무,
 오미자, 치자, 감, 대추,
 갓은³⁵¹⁾ 과목 얼크러지고 뒤틀어졌구나.
 구부³⁵²⁾ 칭칭 감겼고,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³⁵³⁾는 분비,³⁵⁴⁾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³⁵⁵⁾ 원앙새,
 강상³⁵⁶⁾ 두루미, 수많은 떼고니,³⁵⁷⁾
 소호천자 기관허던³⁵⁸⁾ 만수문전의³⁵⁹⁾ 풍년새,
 양양창과점점동³⁶⁰⁾ 사랑허다³⁶¹⁾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이,³⁶²⁾
 목파리, 해오리, 너수,³⁶³⁾ 진검새,³⁶⁴⁾ 아옥따옥³⁶⁵⁾ 요리저리³⁶⁶⁾ 날아
 들 제,
 또 한 경개³⁶⁷⁾를 바라보니,
 치어다보니 만학천봉이요,³⁶⁸⁾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장³⁶⁹⁾이라.
 허리 굽고 늙은 장송 광풍³⁷⁰⁾을 못 이기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천리 시내난³⁷¹⁾ 청산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주루루루루, 저 골 물이 잘잘,³⁷²⁾
 열의 열두 골 물이 한테로³⁷³⁾ 합수쳐,³⁷⁴⁾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³⁷⁵⁾ 방울이 버름저,³⁷⁶⁾
 건네 평풍석³⁷⁷⁾에다 마주 황황 마주 켜려,³⁷⁸⁾
 대해수중³⁷⁹⁾으로 내려가느라고 버름³⁸⁰⁾이 북적,³⁸¹⁾
 울렁거려³⁸²⁾ 뒤통, 우루루루루 꿩 꿩 뒤통그러저서³⁸³⁾ 산이 울렁거
 려 휘돌아간다.

kudzu vines, fruit vines, wild grapes,
 clematises, weeping willows, cherry trees,
 a fruit tree, gardenias, persimmon, jujubes,
 and all sorts of fruit trees are entangled and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ey are bent and coiled with each other.
 A fishing boat comes back.
 Seagulls fly around.
 Seagulls, white herons,
 unknown birds, mandarin ducks,
 cranes on a river, numerous swans,
 a phoenix which used to work for the government at a gate,
 lovely mandarin ducks which drifted on the waves of the wide
 sea,
 crows and magpies which form a bridge in the Milky Way on
 July 7th,
 white herons, ospreys, and other birds come from different
 places.
 Terrapin beholds another place.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The branches of old drooping pine trees dance in the wild wind.
 Streams flow around green mountains.
 Flowing water generat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It bumps head-on into large rocks.
 It heads to the middle of a wide sea while making foam.
 Large waves dance around, make loud sounds, and shake a
 mountain, as they go down.

어디메로³⁸⁴) 가 볼까나? 아마도 예로구나,³⁸⁵⁾

요런 경치가 또 있느냐?

아마도 예로구나,

요런 경치가.

14. (봉황새 상좌다툼) 날짐승들이 모여 상좌다툼을 하는 데, 봉황새가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이렇듯 세상을 나와서

한 곳에 몸을 은신³⁸⁶)하고,

한 곳을 바라보니,

원갓 날짐생들이 모두 날아와 저그끼리³⁸⁷) 상좌 다툼³⁸⁸)을 허는데,
이런 가관³⁸⁹)이 없든가 보드라.

[중모리] “너희들 내 말을 들어봐라.

순임군³⁹⁰) 남훈전³⁹¹)에 오현금³⁹²) 가지시고 소소귀성³⁹³) 노래할 적에,

기산³⁹⁴) 높은 봉의 아침 별에 내가 앉아 울음을 울어,

팔백 년 문물이 울울허여³⁹⁵) 주문무³⁹⁶) 나 계시고,

만고대성³⁹⁷) 공부자³⁹⁸)도 내 앞에서 탄식을 하고,

천 질³⁹⁹)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⁴⁰⁰)허여 있고,

영주산⁴⁰¹) 높은 봉을 기엄기엄 기어올라

소상반죽⁴⁰²)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었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15. (까마귀와 부엉이의 상좌 다툼) 까마귀와 부엉이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툰다.

[아니리] 까마귀 나았으며,

This is the scenery we have been looking for.
What a spectacle this is!
This is the scenery.
What a spectacle this is!

**14. (A Phoenix Vies for a High Seat) The birds compete
for a high seat. A phoenix explains why he deserves it.**

[Aniri] Terrapin is out on the land.
He hides himself in a certain place.
He looks at a certain place.
All sorts of birds compete with one another for a high seat.
This is quite a show.
[Jungmori] “Folks, listen to my words.
King Shun(舜) played a pentachord in a palace, making a dreary
sound.
I sang a song on a peak in the morning sun.
Two great kings were born when the nation prospered for eight
hundred years.
The greatest saint, Confucius, sighed because of me.
I flew high without eating food even if I was hungry.
I crawled up on a paulownia tree in a high legendary mountain.
I fed on the good fruit of variegated bamboo on a river.
Aren’t I older than you?”

**15. (A Crow and an Owl Fight for the High Seat) A
crow and an owl compete for the high seat.**

[Aniri] A crows jumps in.

“그 다음에는 내가 상좌를 할래요.”

부영이 꾸짖으며,

“어라, 이놈. 물렸거라.

전신에 흰 빛 없고,

눈구멍⁴⁰³에 거명창⁴⁰⁴뿐인 놈이

어디 가 상좌를 한단 말이냐?”

[엇중모리] “내 근본 들어라. 네 내 근본을 들어라.

이 주둥이 길기는 월왕 구천⁴⁰⁵이 방불허고,⁴⁰⁶

이 몸이 검기는 산음⁴⁰⁷땅 지내다가 왕희지⁴⁰⁸ 세연지⁴⁰⁹에 풍덩 빠

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삼간⁴¹⁰ 후에 그 물에 다리를 놓아 건우 직녀 건너주고,

오는 길에 적벽강⁴¹¹ 선유⁴¹²혈 적,

남비⁴¹³ 둥둥 떠 삼국홍망⁴¹⁴을 의논할 적,

천하에 반포은⁴¹⁵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의 비금주수⁴¹⁶ 효자는 나뿐이라.

아이고, 설운지고.⁴¹⁷

허허, 아이고, 설운지고.

[자진모리] 부영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대도, 네 심성⁴¹⁸ 불측하야⁴¹⁹

열두 가지 울음을 지어,

과부집 남계⁴²⁰ 앓어 울음으로 동혈 제,⁴²¹

까옥까옥 또락또락 까박까박 껌적껌적 괴이한 음성 소리로 수절 과부

유인혈 제,

네 소리 깉깉 나자 세상 인간들이 미워라 돌을 들어서 날릴 적,

너 날자 배 떨어지니,⁴²²

세상에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I will sit on the high seat next."

An owl scolds the crow.

"You villain. Step back.

Your body doesn't have a white color.

Your eyes are all black.

How can you sit on the high seat?"

[Eot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root.

My beak is long like an ancient Chinese king.

My body is black because I fell into a pond on which an ancient calligrapher washed his ink stone, and was dyed with ink.

Ever since the galaxy was created, I served as a bridge between Herdsman and Vega.

On my way back, I relaxed on a boat on Chibi(赤壁) River.

Hovering in the south sky, I pondered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ancient countries of China.

I take care of my old parents in an empty forest.

I am the only animal supporting its parents.

Alas. How sad I am!

Alas. How sad I am!

[Jajinmori] The owl laughs loudly.

"Even so, you are born wicked.

You make twelve sounds.

You sit in a tree of a widow's house and confuse her.

With a weird voice, you entice a widow faithful to her deceased husband.

If your unpleasant cry is heard, humans pick up stones in hatred and drive you away.

If you fly, a pear falls down.

Who else is so detested?

빈 통이나 찾어가지
이 좌석은 부당허다.”

16. (길짐승 상좌 다툼) 한 곳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한다.

[아니리] “헤헤, 아무리 내 죄상⁴²³이 그럴망정, 이렇게 많이 모인 중
에 내 망신을 그다지 시킨단 말이오?”

저그찌리⁴²⁴ 이렇게 한참 재미있게 노는 판에,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왼갖 길짐생⁴²⁵들이 모두 노는디,
가관이 없제.

[중모리] 공부자⁴²⁶의 작춘추⁴²⁷ 절필⁴²⁸하던 기린인가?⁴²⁹

삼군삼영⁴³⁰ 거동시⁴³¹ 천자 옥련⁴³²의 코끼리,
옥경선관⁴³³ 승필⁴³⁴하는 풍채 좋은 사자로고나.

서백⁴³⁵이 위수⁴³⁶ 사냥할 제 비웅비표⁴³⁷ 꿈이로구나.

창해 박랑사의 저격시황⁴³⁸의 저 다람이,⁴³⁹

강수동유원야성⁴⁴⁰의 슬피 우는 저 잔나비,⁴⁴¹

피 많은 여우,

날랜 토끼,

털 좋은 너구리,

암꿩, 수꿩, 노루, 사슴, 상냥이,⁴⁴² 이러한 모든 동물들이⁴⁴³ 앙금앙
금 내려와서

상좌 다툼을 허는구나.

Go and find an empty stump.
The high seat isn't for you."

16. (Four-legged Animals Fight for the High Seat).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that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competing for the
high seat.

[Aniri] "Even though what you said above is true, how can you
put me to such shame in front of others?"

The birds have fun as said above.

Terrapin looks at another place and finds all sorts of four-legged
animals having fun together.

This is quite a show too.

[Jungmori] Confucius ended his book with a story of hunting
down a giraffe.

An elephant carried a wagon for an emperor.

A god used to ride a large old lion in heaven.

A king came across a bear when he was hunting in a river.

A killer lay down like a squirrel when he tried to kill the King
Shi Huang(秦始皇).

A river flowed constantly to the east, and a monkey wept sadly
at night.

A fox is sly.

A hare is fast.

A raccoon has great fur.

Such animals as a hen pheasant, a cock pheasant, a boar, a roe
deer, a deer and a dhole slowly gather together.

They compete for the high seat.

17. (노루, 너구리의 상좌 다툼) 노루, 너구리가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다툼다.

[아니리] “자, 우리가 연년이⁴⁴⁴) 이렇게 회취하여⁴⁴⁵) 노는 놀음에, 우리 상좌 없어 못쓸레.⁴⁴⁶)

금년보툼은⁴⁴⁷) 상좌를 하나 정허고 노는 것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⁴⁴⁸)은 언제 났소?”

[중모리] 노루가 앉어서 대답허되,

내 나를⁴⁴⁹) 잠깐 셀작시면,⁴⁵⁰)

기경상천⁴⁵¹) 이태백이 날과⁴⁵²) 둘이 동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겼나?”

달파총⁴⁵³) 너구리가 나았으며,

“장도감도 내 아렐세.”

“달파총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동작대⁴⁵⁴) 지은 집이 좌편 옥룡각이요, 우편은 금봉루라.

이교녀⁴⁵⁵)에 뜻을 두고

동작대부 운허던⁴⁵⁶) 조맹덕⁴⁵⁷)의 연갑⁴⁵⁸)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겼나?”

18. (멧돼지와 토끼 등장) 멧돼지와 토끼가 나서며 서로 자신이 상좌에 앉아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아니리] 멧돌⁴⁵⁹)이 나았더니,

꺼시락눈⁴⁶⁰)을 끔적끔적허고,

“달파총 쪽도 내 아렐세.”

**17. (A Quarrel of a Roe Deer and a Raccoon) A roe deer
and a racoon fight for the high seat.**

[Aniri] “We gather together every year to have fun.

We can’t have fun without a boss.

Why don’t we have a party after designating the boss?”

Everyone is persuaded.

“Hi, there, Mr. Roe Deer. When were you born?”

[Jungmori] The roe deer answers, while sitting.

“Let me estimate my age.

I am of the same age as Li Bai(李白) who flew up to heaven,
riding a whal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 racoon steps forward.

“Mr. Roe Deer, you are younger than I.”

“Mr. Raccoon,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Cao Cao(曹操) built a pavilion on the left and a tower on the
right.

The premier had two girls in his mind.

I am of the same age as Cao Cao(曹操) who recited a poem.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18. (A Boar and a Hare Turn Up.) A boar and a hare
show up and say they deserve the high seat.**

[Aniri] A boar jumps in.

He blinks his thorny eyes.

“Mr. Raccoon, you are younger than I.”

“자네 제낭청⁴⁶¹)은 언제 났소?”

[중중모리] “자네들 내 나를⁴⁶²)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⁴⁶³)에 사신 갔다,

주린 충절 십구 년에 수발이 진백하여,⁴⁶⁴)

고국 산천 험한 길을 허유허유⁴⁶⁵) 돌아오던

소중랑⁴⁶⁶)의 연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하겠나?”

토끼 깡짱 뛰어 나왔으며,

“제낭청도 내 아랫세.”

“퇴선군⁴⁶⁷)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한 광무⁴⁶⁸) 시절의⁴⁶⁹) 간의대부⁴⁷⁰)를 마다허고,

부운⁴⁷¹)으로 채일⁴⁷²) 삼고,

동강 칠리탄⁴⁷³)에 시조허던⁴⁷⁴) 엄자룽⁴⁷⁵)과 날과 둘이 동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허겠나?”

19. (호랑이 등장) 호랑이가 등장하여 상좌를 차지한다.

[아니래] “어허. 거, 그러면 퇴선생 상좌 앉으시오.”

퇴끼가 상좌를 앉고

저희끼리 한참 재미 있게 노는디,

이 급살맛을⁴⁷⁶) 놈의 팔자가 그랬든가, 어쨌든가,

저 한쪽 산꼴차기⁴⁷⁷)에서 여러 날 굶은 호랭이 한 마리가, 그 좋은

먹잇감 노는 걸 보고

그저 한 코를 군기총⁴⁷⁸) 방아쇠 괴듯기⁴⁷⁹) 딱 괴고,

“Mr. Boar, when were you born?”

[Jungjung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Su Zhong Lang(蘇中郎) visited an enemy country as a diplomat.
His life was hard but he remained loyal to his country for 19
years, and his hair became gray.

He made an arduous journey back to his country.

I am of his age.

Don't I deserve the high seat?”

A hare jumps in.

“Mr. Boar, you are younger than I.”

“Mr. Hare, when were you born?”

“Listen to my story about my age.

Yan Zi Ling(嚴子陵) declined the offer of a government position
in ancient times.

He instead took clouds as a parasol.

I am of the same age as Yan Zi Ling(嚴子陵) who fished in a
river.

Isn't the high seat mine?”

19. (A Tiger Comes Out.) A tiger comes out and takes the high seat.

[Aniri] “Gee! If so, the high seat is yours, Mr. Hare.”

Hare sits on the high seat.

The animals enjoy themselves together.

The animals are unlucky today.

In a valley, a tiger who had not eaten for several days watches
his preys play together.

His nose makes sounds like a rifle.

‘으르르르르르’하고 달려들어 놓으니,
 이놈들이 어떻게 겁이 나든지 똥 오줌을 찝끔찝끔⁴⁸⁰ 싸고, 한 쪽으
 로 착착 쓰러지면서,
 “아이구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⁴⁸¹ 오시오?”
 “오, 내가 오늘 시장해서 너그찌리⁴⁸² 살 좋은 놈 요구⁴⁸³ 좀 허로
 왔다.”
 멧돌이 나왔더니 끼시락눈을 끄적끔적하고,
 “오늘 신수 불길하고 살진 놈 여러 놈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장군님 언제 났소?”
 “똥이 어찌, 이녀르 저석덜?⁴⁸⁴
 너그들이⁴⁸⁵ 내 나이를 물어봐?”
 [중모레] “요놈덜,⁴⁸⁶ 요놈덜, 말 들어라. 요놈덜, 요놈덜, 말 들어라.
 혼돈미분 태극초⁴⁸⁷에,
 갓없이⁴⁸⁸ 너룬⁴⁸⁹ 하늘 한 편 짝이 모잘서,
 광석⁴⁹⁰을 다듬어서 하늘을 때우시든 여왜씨⁴⁹¹ 동갑이니,
 내가 어른이 아니냐?
 으르르르르릉.”

20. (호랑이 내려옴) 별주부가 토생원을 부른다는 것이 발 음을 잘못하여 호생원을 부르니, 호랑이가 듣고 좋아 하며 내려온다.

[아니레] 이놈들이 어떻게 겁이 나던지,
 “아이고, 장군님. 상좌 앉으시오.”
 호랭이가 상좌를 앉고
 저그찌리⁴⁹² 한참 재미 있게 노는디,

He runs at the animals while roaring.
 The animals are so horrified that they run to the corners while
 shitting and peeing.
 “General, where have you been?”
 “I am so hungry today that I came here to eat the plumpest one
 of you.”
 The board moved forward and blinks his thorny eyes.
 “Many unlucky plump ones of us will die today.
 But when were you born, general?”
 “What? You rats!
 How dare you ask about my age?”
[Jungmori] “You villains. Listen to me. Listen to me.
 When the universe was created, things were in chaos.
 The sky was vast, but the half of it was empty.
 I am as old as Nu Wa Shi(女媧氏) who fixed the sky with an
 iron ore.
 Aren’t I the oldest?
 Come here.”

**20. (The Tiger Comes Down.) Terrapin mistakenly
 calls the tiger by mispronouncing Hare’s name.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Aniri] The animals are petrified.
 “General, the high seat is yours.”
 The tiger sits on the high seat.
 They play together, having fun.

그 때여 별주부가 저 아래 수풀에 몸을 은신하고 거그⁴⁹³⁾를 딱 바라
 보니,
 거그에는 퇴끼가 꼭 들었을 법허그던.⁴⁹⁴⁾
 화상 내서 펴보고
 불렀으면 영락없이 퇴끼가 니를⁴⁹⁵⁾ 것인디,
 영겁절⁴⁹⁶⁾에 그냥 부른 것이,
 “저그, 저그 얹인 거, 몸은 얼썩덜썩허고⁴⁹⁷⁾ 바둑점 백인 것⁴⁹⁸⁾ 퇴,
 퇴생원 아니오?”허고 불러노니,
 방정맞은 퇴끼란 놈이 바우⁴⁹⁹⁾ 틈으로 살짝 내려가더니,
 “호생원 아니오?”
 이 호랭이란 놈이 그 산중에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⁵⁰⁰⁾ 듣고 내로는다,⁵⁰¹⁾
 [엇모래] 범 내려온다. 범 한나⁵⁰²⁾ 내려온다.
 송림⁵⁰³⁾ 깊은⁵⁰⁴⁾ 골로⁵⁰⁵⁾ 한 짐생이⁵⁰⁶⁾ 내려와.
 누에머리⁵⁰⁷⁾를 흔들고,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썩덜썩,⁵⁰⁸⁾
 꼬리는 잔뜩 한 발⁵⁰⁹⁾이나 넘고,
 동개⁵¹⁰⁾같은 앞다리,
 전동⁵¹¹⁾같은 뒷다리,
 새 낫⁵¹²⁾같은 발톱, 엄동설한⁵¹³⁾ 백설격으로⁵¹⁴⁾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 흐들며,⁵¹⁵⁾
 주홍 입 찹 벌리고
 흥앵앵앵 가는 소리 산천이 뒤넘고,⁵¹⁶⁾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래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⁵¹⁷⁾ 가만히 엮여⁵¹⁸⁾ 있다.

Meanwhile, Terrapin hiding himself in the grass looks at the animals.

He thinks a hare must be there too.

He pulls out the picture and looks at it.

He thinks if he calls a hare, Hare might come to him.

He calls a hare carelessly.

He says, "Hi, there. I mean you sitting there. Your body is mottled. Aren't you Mr. Hare?"

The flippant hare goes in between rocks.

"Aren't you Mr. Tiger?"

This is the first time for the tiger to be addressed with such respect.

Pleased, the tiger comes down from the high seat.

[Eonmori] A tiger comes down.

A beast comes down through a deep valley with pine trees.

He shakes his sharp head.

His ears are torn apart.

His body is mottled.

His tail is more than one meter long.

His fore legs are robust.

His hind legs are strong.

With his long claws, he disturbs the thick sand and the roots of the grass as if he splattered snow in cold winter.

He opens his red mouth.

It looks as if a stream and a mountain turn upside down, and the ground collapses.

Terrapin is so scared that he remains motionless with his head pulled in.

21. (호랑이와 별주부 상면)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 잡아먹으려 하자, 별주부가 자신은 자라가 아니라고 둘러댄다.

[아니레] 아, 이놈이 딱 내려와 보니 아무 것도 없고, 누어 말라 비틀어진 쇠똥같은 거뼉에 없제.

‘거 이것이 날 불렀나? 거 묘하게 생겼다.

두리평관⁵¹⁹)에 부쳐논⁵²⁰) 부께미⁵²¹) 같으다마는,

고순내⁵²²)가 안 나 그도 아니요,

나무접시 같기도 허다마는,

굽⁵²³)이 없어 그도 아니요,

옹거니, 요게⁵²⁴) 하나님 똥이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 약된다고 허드라.’

그 지독헌 놈이 별주부 복판⁵²⁵)을 기양⁵²⁶) 양 발로 콧 던어노니, 자래 복판이 콧 막혔제.

저 속에서, “아이쿠, 대체 게⁵²⁷)는 뉘라 하시오?”

호랭이 깜짝 놀래, ‘똥이 어찌? 이것이 나보고 통성명⁵²⁸)허자고 그러네.’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 어른이라고 그러다.”

별주부가 호랭이란 말을 듣더니마는 어간이 병병허여, 그냥 본명대로 가르쳐주는디,

“아이고, 나는 명색⁵²⁹)이 자래새끼라고 그러요.”

호랭이가 자래란 말 듣더니마는,

[중중모리] “얼씨고나 절씨구. 얼씨고 절씨고, 얼씨고 절씨고 기화자 좋네. 얼씨구나 좋을씨고.

내 평생에 원허기를 왕배탕⁵³⁰)을 원일러니,

오늘 보니 반갑구나.

21. (The Tiger and Hare Meet.) The tiger comes down,
sees Terrapin, and tries to eat him. Terrapin tells
a lie that he is not a terrapin.

[Aniri] The tiger has comes down and finds there is nothing but something looking like a dry cow dung.

The tiger murmurs, "Did this thing call me. It looks funny.

It looks like a pancake on a wide round plate.

It isn't a pancake because it doesn't smell good.

It looks like a wood dish.

Having no bottom, it's not a wood dish.

The tiger murmurs, "Oh, this must be God's dung.

God's dung is said to be a good medicine."

This awful villain tramples on the middle of Terrapin's body.

Terrapin can't breathe well.

Terrapin speaks from inside, "My goodness. Who on earth are you?"

Surprised, the tiger mumbles, "What? This thing wants to exchange names with me."

"Oh, I am Mr. Tiger, the ruler of the mountains here."

Terrapin is so petrified at the word 'tiger' that he tells the truth about his name.

"Oh, my name is Terrapin."

The tiger heard Terrapin.

[Jungjungmori] "Hurray! Yippee! Whoopee! Oh boy! What a pleasure! What a pleasure!

I've wanted to eat terrapin soup all my life.

I am glad to meet you today.

맛진⁵³¹ 진미⁵³²를 먹어보자.

얼씨고나 절씨고.”

[자진모리] “아이고, 나 자래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두꺼비요!”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 불에 살라⁵³³ 술에 타 먹었으면은 어혈⁵³⁴ 내중⁵³⁵ 혈
담⁵³⁶에는 만병회춘⁵³⁷의 명약이라,

그저 먹자!”

별주부 기가 맥혀, “어따,⁵³⁸ 이 제기를 할 녀석⁵³⁹이 동의보감⁵⁴⁰을
보았는가 모르는 게 없고, 그저 먹기로만 드는구나.”

22. (별주부 목 내력) 별주부가 목이 늘어난 내력을 말하고, 호랑이 급소를 물자, 호랑이가 겁이 나서 도망한다.

[아니리] ‘오라. 내가 이놈한테 기왕 죽을 테면 패술⁵⁴¹이나 한 번 쓰
고 죽을밖에 수⁵⁴²가 없다.’

목을 질게 빼고 호랑이 앞으로 바짝 기어들며,

“대체 게는⁵⁴³ 뉘라 하셨소?”

호랑이 깜짝 놀래,

“이카,⁵⁴⁴ 이 목 나온다, 목 나와.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수천 발⁵⁴⁵ 나오기 쉽겠소.

대처 게서는⁵⁴⁶ 뉘라 하시오?”

“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⁵⁴⁷ 공신⁵⁴⁸ 4대손 별나리⁵⁴⁹ 별주부라 허오.”

무식한 호랑이가 자래 별 자 몰라보고,

Let me taste this cuisine.”

Hurray! Yippee!”

[Jajinmori] “I am not a terrapin!”

“Then, what are you?”

“I am a toad!”

“A toad is even better.

If I roast you alive and eat you with wine, I will be cured of all the blood and intestine-related diseases.

Let me eat you!”

Horried, Terrapin thinks that the tiger must have read a classic medical book, given that he is knowledgeable and resolved to eat him.”

22. (Story about Terrapin’s Neck) Terrapin narrates a story of how his neck became long, and then bites the tiger’s genitals. The tiger flees away.

[Aniri] Terrapin mutters, ‘Oh well. I am going to die. I cannot but play a trick on him before I die.’

He sticks his neck out and goes at the tiger.

“What on earth did you say you were?”

The tiger is startled.

“Jesus! That neck keeps coming out. Stop coming out.

If your neck comes out at that pace, it might extend a few kilometers a day.”

What on earth are you?”

“Oh, I am Mr. Terrapin, a descendent of a meritorious prison official in the sea world.”

Ignorant, the tiger does not understand what Terrapin says.

‘별나리? 거 조그만헌 것이 직품⁵⁵⁰)이 솔찮히⁵⁵¹) 높은디?’
 “거 어찌 별나리 같으면 목이 들어갔다 나갔다 되움치기⁵⁵²)를 잘 하오?”
 “오, 내 목 우멍거지⁵⁵³) 된 내력을 이리 들어봐라.”
[자진모리] “우리 수국 퇴락⁵⁵⁴)하야,
 천여 간⁵⁵⁵) 되는 집을 내 솜씨로 기와 이다,⁵⁵⁶)
 처마 끝에 뚝 떨어져 뱅뱅 돌려 내로다가,⁵⁵⁷)
 목으로 잘각 거꾸러져 우멍거지가 되었기로,
 우리 수국 도리랑귀신⁵⁵⁸)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왔더니,
 네가 일정⁵⁵⁹) 호랭이냐?
 쓸개 한 점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⁵⁶⁰) 거⁵⁶¹) 있느냐?
 비수검⁵⁶²) 드는 칼로 이 호랭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며, ‘도리랑’하고 달려들어,
 호랭이 불알을 앞니로 꼭 물고 뽕뽕 잡아 돌아노니,
[아니리] 속담에 별주부 이빨에는 못젓구락⁵⁶³)이 꿰어진단 것인디,
 그 말랑말랑헌 불알을 물고 돌아노니 어떻게 아프더니,
 거그서 들압다⁵⁶⁴) 뛰고 굴러논 것이 저 해남 관머리⁵⁶⁵) 가 뚝 떨어졌지.
 그 때 마침 백남생이⁵⁶⁶) 한 마리가 바위 틈에서 딸각딸각허고 놀고
 있든가 보더라.
 “이카, 이놈 여그 왔구나.”
 거그서⁵⁶⁷) 또 뛰고 굴러논 것이 저 의주 두만강⁵⁶⁸) 가에 가 뚝 떨어졌제.
 그 때여 별주부는 범 쫓은 후에 곰곰 앓어 생각을 허더니,
 호랭이라고 허는 것은 산신지영물⁵⁶⁹)이라,
 내가 정성이 부족하여 이런 변화⁵⁷⁰)가 붙었구나.
 산신제⁵⁷¹)나 모실밖에 수가 없구나.

He murmurs, "He is small, but his rank seems to be very high?"
 "Mr. Terrapin, how can you move your neck in and out freely?"
 "Let me tell you why my neck is covered an extra skin."
[Jajinmori] "Our sea palace once collapsed.
 I lifted tiles to the roof with my hands to build a large house.
 I swirled down from the corner of the eaves.
 I fell down with my neck first, crippling it.
 I came here, riding a stream demon, to hunt down a tiger.
 Are you a tiger?
 Give me your gall bladder.
 Is the stream demon there?
 Cut this tiger's belly open with a sharp knife."
 Terrapin moves close at the tiger.
 He bites the tiger's balls hard and turns around.
[Aniri] An old saying holds that a terrapin's teeth can cut brass
 chopsticks into pieces.
 The tiger is in great pain because Terrapin bit his soft balls and
 pulled around.
 The tiger runs fast from there and arrives at the southern most
 part of Korea.
 Just then, a white tortoise plays, making sounds, between rocks.
 "Oh my god. He followed me all the way here."
 The tigers runs from there continuously and reaches the river
 in the northern most part of Korea.
 Meanwhile, Terrapin ponders after driving the tiger away.
 A tiger is a divine animal.
 A god must have appeared to me in the form of the tiger
 because I was not conscientious.
 I cannot but hold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23. (산신제) 별주부가 토끼 만나기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낸다.

[진양조] 계변양류⁵⁷²⁾ 늘어진 반송가지⁵⁷³⁾를 앞니로 잘각⁵⁷⁴⁾ 끊어서
대강 진퇴⁵⁷⁵⁾를 살살 끌고, 암상⁵⁷⁶⁾으로 제반⁵⁷⁷⁾을 삼고,
낙엽으로 먼지⁵⁷⁸⁾를 깔아,
산과목살⁵⁷⁹⁾을 주워다가
방위 찾아서 받쳐를 놓고,
은어 한 마리 잡아다가 어동육서,⁵⁸⁰⁾
홍동백서,⁵⁸¹⁾
좌포우혜⁵⁸²⁾로 갈라놓고,
축문⁵⁸³⁾을 지어서 읊었으되,
[아니레] 우리 세상 사람 같거든면은⁵⁸⁴⁾ 축을 제대로 읽을 테이지만은,
수국 짐승이 되고 보니 축을 읽어 보는디,
[축문] “유세차⁵⁸⁵⁾ 갑신 유월 초십이일
상천일월⁵⁸⁶⁾ 명산 신령님네전⁵⁸⁷⁾ 지성으로 비나니다.
용왕이 우연득병⁵⁸⁸⁾허여
선의도사⁵⁸⁹⁾ 문병⁵⁹⁰⁾허니, 퇴끼 간이 으뜸이라 하오니,
중산⁵⁹¹⁾ 퇴끼를 허급⁵⁹²⁾하야 주옵시기 천만축수⁵⁹³⁾ 상사⁵⁹⁴⁾ 상
향.⁵⁹⁵⁾”

24. (별주부 토끼 상면) 별주부가 토끼를 발견하고 토생원 이냐고 물으니, 토끼가 좋아하며 내려온다.

[아니레] 빌기를 다 한 후에

23. (Ritual to the Mountain God) Terrapin holds a ritual to the mountain god so that he can meet a hare.

[Jinyangjo] Terrapin cuts a drooping willow branch off by a stream with his front teeth.

He brushes dirt off a flat rock with the branch and uses it as a ritual table.

He puts fallen leaves on the rock.

He picks up mountain fruits.

He puts the fruits in the right direction.

He catches a fish and places it to the east and red meat to the west.

He puts red fruits to the east, and white fruits to the west.

Dried meat to the left, and a sweet rice drink to the right.

He writes a ritual prayer and recites it.

[Aniri] A human would recite a ritual prayer correctly.

Terrapin, an animal from the sea country, recites it as follows:

[Ritual Prayer] "This ritual prayer begins on June 12..

I pray to the gods of the sun, the moon, and famous mountains.

The dragon king got sick suddenly.

A god from heaven came and said a hare's liver is the best medicine.

Please grant me a hare from a mountain and take this offering."

24. (Terrapin Meets a Hare.) Terrapin spots a hare and asks him whether he is a hare. Hare happily comes to Terrapin.

[Aniri] Terrapin finishes the ritual.

[중중모리] 한 곳을 바라보니, 묘한 짐생이 앉었구나.

두 귀는 종곳,

두 눈은 도리도리,⁵⁹⁶⁾

허리는 늘씬,⁵⁹⁷⁾

꼬리는 묘뚝,⁵⁹⁸⁾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⁵⁹⁹⁾로고나.

토끼 보고 화상⁶⁰⁰⁾ 보니, 산중퇴⁶⁰¹⁾ 화중퇴⁶⁰²⁾라.

자래 보고 좋아라고,

“저기 앉은 것 퇴생원 아니시오?”

[아니리] 허고 불리노니,

그 때에 퇴끼는 그 산중에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⁶⁰³⁾ 듣고 내려오는다,

[중중모리] “게 뉘기가⁶⁰⁴⁾ 날 찾아? 게 뉘기가 날 찾아?

날 찾을 이 없건만은, 거 뉘기 날 찾아?

기산⁶⁰⁵⁾ 영수⁶⁰⁶⁾ 소부⁶⁰⁷⁾ 허유⁶⁰⁸⁾ 피세가자고⁶⁰⁹⁾ 날 찾나?

완월장취⁶¹⁰⁾ 강남 태백⁶¹¹⁾이 기경상천⁶¹²⁾ 하는 길을 함께 가자고 날 찾아?

도화유수⁶¹³⁾ 무릉⁶¹⁴⁾ 가자 거주속객⁶¹⁵⁾이 날 찾나?

차산중 운심헌디 부지처 오신 손님⁶¹⁶⁾이

게 뉘라서⁶¹⁷⁾ 날 찾나?

백화심처일승귀라, 춘풍석교화림중⁶¹⁸⁾의 성진⁶¹⁹⁾ 화상⁶²⁰⁾이 날 찾나?

건넌산 과부 퇴끼가 연분⁶²¹⁾을 땃자고 날 찾아?”

요리로 깡쭙, 저리로 깡쭙, 깡쭙깡쭙으⁶²²⁾ 내려온다.

[Jungjungmori] Terrapin spots a strange animal sitting in a place.
 His two ears are long.
 His two eyes are round.
 His waist is thin.
 His tail is short.
 A green mountain is on the left.
 A blue stream is on the right.
 Terrapin takes a look the picture of Hare and realizes that he
 is a hare.
 Terrapin is pleased.
 “Hi, there! Aren’t you Mr. Hare?”
[Aniri] Terrapin speaks to Hare as said above.
 This is the first time Hare is addressed with such respect.
 Pleased, Hare comes to Terrapin.
[Jungjungmori] “Who is looking for me? Who is looking for me?
 I am expecting nobody. Who is looking for me?
 Are ancient hermits asking me to join them to live in a mountain
 and by a river?
 Is the ancient poet who enjoyed wines and the moon asking
 me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heaven riding a whale?
 Did a person from a paradise where peach blossoms flow in
 a river come here to offer wine to me?
 Did somebody visit me when I am in deep mountains covered
 with clouds?
 Who is looking for me?
 Are you the Buddhist monk who came back to a place where
 there are all sorts of flowers, a spring wind, and a stone bridge?
 Is the widow hare from the neighboring mountain proposing a
 date?”
 Hare jumps here and there unsteadily, and comes to Terrapin.

25. (녹수청산) 토끼가 자신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아니리] 이놈이 한참 방정을 떨고 내려오다가,
반석⁽⁶²³⁾에 앞발이 짝 미끌어져 때그르르르르 굴굴엎졌다.⁽⁶²⁴⁾
별주부 코허고 퇴끼란 놈 이마뺨허고 탁 들이받아논⁽⁶²⁵⁾ 것이,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뺨이야!”
“거 게서는 뉘라신디,⁽⁶²⁶⁾ 이렇게 최면에⁽⁶²⁷⁾ 남의 코를 들이받소?”
“그런디 우리 통성명⁽⁶²⁸⁾이나 허고 삼시다.
게서는 뉘라 하시오?”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⁶²⁹⁾ 공신⁽⁶³⁰⁾ 4대손 별나리⁽⁶³¹⁾ 별주부라 하오.
게서는 뉘라시오?”
“예, 나는 이 산중에서 예부상서⁽⁶³²⁾ 월톨러니,⁽⁶³³⁾
도약주⁽⁶³⁴⁾ 대취하야⁽⁶³⁵⁾
장생약⁽⁶³⁶⁾ 그릇 짓고
적하중산⁽⁶³⁷⁾하야 오래 지내는데,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⁶³⁸⁾ 퇴선생이라고 부르지요.”
별주부 함소왈,⁽⁶³⁹⁾
“퇴선생 존함⁽⁶⁴⁰⁾ 들은 지는 오래 되었으나,
오늘날 상봉키는 만만무고불측⁽⁶⁴¹⁾이로소이다.
몰라 그리 허시지, 우리 수국을 들어가시면 훈련대장은 틀림없이 허
실 것이고,
미인미색⁽⁶⁴²⁾을 밤낮으로 다리고⁽⁶⁴³⁾ 만세동락⁽⁶⁴⁴⁾을 허실 텐디,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시오?”
“내 재미는 무쌍이나,⁽⁶⁴⁵⁾

25. (Blue River and Green Mountain) Hare brags about his life.

[Aniri] Hare comes to Terrapin joyously.

His fore legs slide on a wide flat stone and he rolls over.

Hare's forehead collides with Terrapin's nose.

"Ouch, my nose!"

"Ouch, my forehead!"

"Who are you to collide with my nose when we just met?"

"Let's exchange names.

Who are you?"

"I am Mr. Terrapin, the fourth descendent of a loyal official in the sea world."

Who are you?"

"I am a hare, a ceremonial officer in this mountain.

I was drunk by a medicinal wine.

I made an elixir incorrectly.

I have been relegated to the earth for long time.

People on the earth call me Mr. Hare."

Terrapin smiles and speaks.

"I heard of your name long time ago.

I didn't expect it would take so long to meet you today."

You may not know this, but if you go to the sea country, you will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What is your fun in this world?"

"I have a lot of fun here.

나 지내는 흥미나 한 번 들어 보시오.”

“어디 한 번 들어봅시다.”

[중모레] “임자 없는 녹수청산⁽⁶⁴⁶⁾

일모황혼⁽⁶⁴⁷⁾ 저문 날에 월출동령⁽⁶⁴⁸⁾ 잠을 깨니,

청림벽계⁽⁶⁴⁹⁾ 집을 삼고,

값이 없는 산과목실⁽⁶⁵⁰⁾을 양식을 삼어서 감식⁽⁶⁵¹⁾하고,

신여부운⁽⁶⁵²⁾ 일이 없어 명산 찾아서 완경⁽⁶⁵³⁾헐 적,

여산 동남⁽⁶⁵⁴⁾ 오로봉⁽⁶⁵⁵⁾과

진국명산⁽⁶⁵⁶⁾의 만장봉⁽⁶⁵⁷⁾과

천외무산십이봉과,⁽⁶⁵⁸⁾ 봉래, 방장, 영주 삼산이며,⁽⁶⁵⁹⁾

태산, 숭산, 영산, 화산⁽⁶⁶⁰⁾ 만학천봉,⁽⁶⁶¹⁾

구월산⁽⁶⁶²⁾과 삼각,⁽⁶⁶³⁾ 계룡,⁽⁶⁶⁴⁾ 금강산, 아미산,⁽⁶⁶⁵⁾ 수양산⁽⁶⁶⁶⁾을 아

니 본 곳 없이 모도⁽⁶⁶⁷⁾ 놓고,

영주 삼산봉⁽⁶⁶⁸⁾에 완완히⁽⁶⁶⁹⁾ 기어 올라,

흑운을 박차고, 백운을 무릅쓰고,

여산의 낙조경⁽⁶⁷⁰⁾과 위수⁽⁶⁷¹⁾의 일출경⁽⁶⁷²⁾을 안하에⁽⁶⁷³⁾ 삼렬허니,⁽⁶⁷⁴⁾

등태산소천하⁽⁶⁷⁵⁾의 공부자⁽⁶⁷⁶⁾의 대관⁽⁶⁷⁷⁾인들 이에서 더하드란 말
이냐?

밤이면은 완월⁽⁶⁷⁸⁾ 구경,

낮이면은 유산⁽⁶⁷⁹⁾헐 적,

강산풍경 흥미간의⁽⁶⁸⁰⁾

지상 신선이 나뿐이라.

적송자⁽⁶⁸¹⁾ 안기생⁽⁶⁸²⁾을 나의 제자를 삼어두고,

이따끔 심심허면은 종아리 땡땡 치며 놀았습네.⁽⁶⁸³⁾

강산 구경을 다 헐 양이면 몇 날이 될 줄을 모르겠으니,

대강만 알고서 가사이다.”

Please listen to me about my joys.”

“Okay. Let me listen to you.”

[Jungmori] “A blue river and a green mountain are ownerless.
I get up at twilight, when the moon rises over a peak in the east.

I take green forests and streams as my home.

I take the delicious fruit in the mountains as my food and eat it for free.

I visited famous mountains leisurely like clouds.

I visited the five peaks which look like old men,
the high peak on which the future of a country depends,
Twelve Peaks, the three divine mountains,
numerous valleys and other peaks.

There is not a famous mountain in Korea or China that I didn’t visit.

I slowly climbed three divine peaks.

I kicked away a black cloud and faced a white cloud.

I watched the sunset over a mountain and the sunrise over a river below me.

I felt better than Confucius who said the world looked small from the top of Tai Shan(泰山) Mountain.

I watch the moon at night.

I visit mountains by day.

I enjoy the beautiful mountains and rivers.

I am the only living god on land.

I treat two legendary gods as my students.

When bored, I have fun, lashing their calves.

It will take forever to see all the beautiful scenery.

So I told you just a little.”

26. (토끼의 험난한 생활) 별주부가 토끼의 험난한 생활을 말하며 겁을 준다.

[아니리] 그 때에 별주부가,

“진세⁶⁸⁴)에서 지내시기는 잘 지내시오마는,

내가 퇴선생 관상을 보아하니,

밭은 선비 밭이나 이마에 화망 살기⁶⁸⁵)가 비쳐서,

진세에 오래 계시면은 죽을 뻔을 꼭 여덟 번 당허겠소.”

“아, 거, 그 분이 방정맞게, 최면에⁶⁸⁶) 방정맞인 소리 허고 있어,
어찌 그렇단 말이오?”

“내 이를게 들어보시오.”

[자진모리] “일개 한퇴⁶⁸⁷) 그대 신세

삼춘구추⁶⁸⁸)를 다 보내고,

대한⁶⁸⁹) 엄동⁶⁹⁰) 설한풍⁶⁹¹) 만학⁶⁹²)에 눈 쌓이고

천봉⁶⁹³)에 바람 칠 적,

화초목실⁶⁹⁴)이 없어지고

앵무원앙⁶⁹⁵)이 끊쳤다.⁶⁹⁶)

어둑한 바우 밑에 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더진 듯이⁶⁹⁷)
앉은 거동

초희왕⁶⁹⁸)의 원혼,

일월 고초 북해상의 소중랑⁶⁹⁹)의 원혼이라.

거의 주려서 죽을 퇴끼 삼동⁷⁰⁰) 고생 겨우 지내,

벽도홍행⁷⁰¹)의 춘이월⁷⁰²)에 주린 구복⁷⁰³)을 채우려고, 심산궁곡⁷⁰⁴)

을 찾고찾어 이리 저리 기대 갈 적,

골골이 묻힌 건 목다래⁷⁰⁵) 엄찰개,⁷⁰⁶)

봉봉이⁷⁰⁷) 섰는 건 매 받은⁷⁰⁸) 응사⁷⁰⁹)라.

26. (Hare's Hardships) Terrapin threatens Hare, telling him about Hare's hard life.

[Aniri] Terrapin responds,

"You seem to be fine in this world.

Let me look at your face and tell your fortune.

Your feet are those of a scholar, but your forehead indicates you will die by fire.

If you stay in this world, you go through eight crises."

"We just met, but you dare make such a rude remark.

What makes you think so?"

"Let me explain to you."

[Jajinmori] "You are just a hare with a trivial fate.

Spring and autumn go.

In cold winter, snow piles up on numerous valleys.

A wind blows hard on numerous peaks.

Flowers, grass, and fruit are gone.

The parrot and the Mandarin duck disappear.

Under a dark rock, you hold your hungry belly and lick the bottom of your feet feebly, while sitting weakly.

Your f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ncient king who died in prison.

Your life is as hard as that of the ancient diplomat who lived in a hut near the Caspian Sea.

You almost starve to death and manage to hang on in winter with your backbone bent.

When peach and apricot blossoms bloom in spring, you wander around deep mountains and valleys to fill your empty stomach.

Snares and traps are hidden in every valley.

Hunters stand up, holding up hawks on every peak.

목다래 채거드면 결항치사⁷¹⁰)가 대랑대랑 제수⁷¹¹) 고기가 될 것이고,
 청천에 뗏는 건, 퇴끼 대구리⁷¹²) 덮치려고 웅크리고 드는 수리⁷¹³)
 지슌으로⁷¹⁴) 휘어들고,
 물이꾼 사냥개 엄산골⁷¹⁵)로 기어들어 퍼긋퍼긋⁷¹⁶) 뛰어갈 적에,
 퇴끼 놀래 호다닥⁷¹⁷)
 수알치⁷¹⁸) 매 놓아라.
 해동청⁷¹⁹) 보라매⁷²⁰) 짓두루미⁷²¹) 빼짓⁷²²) 공작우⁷²³) 마루⁷²⁴) 도래
 장스치 바까치 떨쳐,⁷²⁵)
 쭉지 치고 수루루루루루,
 그대 낚전 양 발로 당그랑게⁷²⁶) 집어다가,
 꼬부랑헌 주둥이로 양미간⁷²⁷) 골치 대목⁷²⁸)을 콕 콕콕!”
 “어, 그 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허는디.
 그러면 누가 거그⁷²⁹) 있가디요?”⁷³⁰)
 “그럼 어테로 갈까?”
 “산 중등⁷³¹)으로 돌지.”
 “중등으로 가는 퇴끼,
 송하에⁷³²) 숨은 포수,
 오는 퇴끼를 놓으라고⁷³³) 불 채리는⁷³⁴) 도포수⁷³⁵)라.
 풀감투⁷³⁶) 푸삼⁷³⁷)을 입고,
 상사방물에⁷³⁸) 왜물⁷³⁹) 조총⁷⁴⁰) 화약 덮사실⁷⁴¹)을 얼른 넣어,
 반달같은 방아쇠,
 고초같은⁷⁴²) 불을 엮어,⁷⁴³)
 한 눈 찌그리고⁷⁴⁴) 반만 일어서며,
 닫는 퇴끼 징구리 보고,⁷⁴⁵) ‘탕!’”
 “어, 그 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허는디.
 그러면 누가 거기 있가디요?”

If you are caught in a snare, you will be strangled to death and
be served on a ritual food table.

From the high sky, an eagle intending to grab your head swoops
down on the foot of a mountain.

Hunters and hunting dogs run to a dark valley, panting heavily.
Petrified, you move fast.

A hunter releases a hawk.

The young hawk has a tag of a crane's feather, a decoration of
a peacock's feather, an iron ring, and a leather cord on its leg.
It flaps its wings and flies.

It catches you around your ears with two legs

With the curved beak it punches the bone between your two
eyebrows!"

"My goodness. I told you to stop the rude talk.

If so, who would stay there?"

"Then, where would you go?"

I would run to the middle of a mountain."

"You go to the middle of the mountain.

A hunter hides under a pine tree.

Ready to fire a rifle at you, he waits for you.

He wears a hat and clothing made of grass.

He loads a Japanese rifle with powder and a bullet right away.

The trigger looks like the half moon.

He kindles fire as red as pepper.

He squints his eye and stands half way up.

You run, but he aims at your head. Bang!"

"Gosh, I told you to cut out this unpleasant talk.

If so, who would stay there?"

“그럼 어디로 갈까?”

“흰현 들로 내리지.”⁷⁴⁶⁾

“들로 내리면, 초동 목수⁷⁴⁷⁾ 아이눔들이 몽둥이 드리메고⁷⁴⁸⁾

없는 개 호구리며,⁷⁴⁹⁾ ‘들퇴끼 잡으로 가자!’ ‘위리’⁷⁵⁰⁾ 후두둑⁷⁵¹⁾ 쫓는
양 선술⁷⁵²⁾ 먹은 초군⁷⁵³⁾이라.

그대 간장⁷⁵⁴⁾ 생각허면은 백등칠일곤곤 한태조 간장,⁷⁵⁵⁾

적벽강상화진중의⁷⁵⁶⁾ 조맹덕⁷⁵⁷⁾ 정신이라.

거의 잡혀 죽을 퇴끼

층암절벽⁷⁵⁸⁾ 석간⁷⁵⁹⁾ 틈을 기운 없이 올라갈 제,

짜룬⁷⁶⁰⁾ 꼬리를 살에⁷⁶¹⁾ 찌고⁷⁶²⁾ 요리 깡쭙, 저리 깡쭙, 깡쭙접동⁷⁶³⁾

뛰놀 제

콧궁기⁷⁶⁴⁾ 쓴 내⁷⁶⁵⁾ 나고,

밑궁기⁷⁶⁶⁾ 조충 노니⁷⁶⁷⁾

그 아니 팔난⁷⁶⁸⁾이오?

팔난 세상 나는 싫네.

조생모사⁷⁶⁹⁾ 자네 신세

한가허다고 뉘 이르며,

무슨 정황⁷⁷⁰⁾에 완월,

무슨 경황⁷⁷¹⁾에 유산?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단

그런 거짓뿌렁이⁷⁷²⁾를 위 앞에다가 허라시오?

수궁을 가게 되면 태평행락⁷⁷³⁾허졌기에 모셔갈까 허였더니,

화망 살기⁷⁷⁴⁾ 사주팔자라 못 간다 허시오니,

범려⁷⁷⁵⁾ 편지 안 믿다가 월나라 종⁷⁷⁶⁾의 죽음,

괴철⁷⁷⁷⁾이 말 안 듣고 종신 원혼⁷⁷⁸⁾ 한신⁷⁷⁹⁾ 죽음,

선생 신세를 생각허니 불쌍허기 짝이 없소.”

“Then, where would you go?”
 “I would run to the open field.”
 “If you go down to the field, young woodcutters and cow-herds
 carry sticks on their shoulders.
 They say to a dog, “Let’s go to hunt down hares!” and chase
 you fast like drunk woodcutters.
 You feel like the ancient king surrounded by an enemy for seven
 days.
 You feel like the ancient premier Cao Cao(曹操) defeated by a
 fire attack in Chibi(赤壁) River.
 You almost starve to death.
 You weakly climb a rugged cliff through the spaces between the
 rocks.
 Your short tail is attached to your groin, and you jump around
 here and there.
 A bad smell comes out of your nose.
 You fart like a rifle.
 These are the eight hardships.
 I don’t like the eight hardships.
 Your life is always in jeopardy.
 Who says you have any leisure time?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enjoy the moon?
 How can you feel like you can visit mountains for fun?
 A few minutes ago, you said you lashed the calves of gods.
 How can you tell such a blatant lie to me?
 I wanted to take you to the sea palace because you will be
 happy there.
 You say, however, you can’t go there because you are fated to
 die by fire.
 An ancient politician did not trust his friend’s letter, and he died.
 An ancient general did not take his friend’s advice, and he died.
 Think about your fate. How pathetic it is!”

27. (수궁 흥미) 별주부가 수궁의 삶을 자랑하며 토끼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아니리] “아닌 게 아니라, 관상⁷⁸⁰ 잘 보요.

그런디 수궁 가면은 그런 일은 없소?”

“수궁 가면은 어족⁷⁸¹들만 사느디 무신⁷⁸² 그런 꼴이 있겠소?”

“그런디 대관절 수궁 흥미가 어땡소?”

“내 이를게 들어보시오.”

[진양조] “우리 수궁 별천지라.

주란화각⁷⁸³이 반공에 솟았는데,

우리 수궁 지을 적에 유리 지둥⁷⁸⁴ 호박주추⁷⁸⁵

천여 간⁷⁸⁶ 집을 짓고,

백모⁷⁸⁷ 병풍 백 님⁷⁸⁸을 좌우로 둘러치고,

천여 명 미색⁷⁸⁹들은 전후좌우로 웅위⁷⁹⁰허여,

천빈옥반⁷⁹¹ 담은 안주 기린포⁷⁹²를 곁들이고,

유리잔⁷⁹³ 앵무배⁷⁹⁴에다 천일주⁷⁹⁵를 가득 부어서 취토록 먹은 후에,

우리 용왕이 즉위허여 정사를 다스릴 적,

선정⁷⁹⁶으로 베푸시니

남해 용궁 어족들은 그 은혜를 찬양하야 격양가⁷⁹⁷를 부르니,

원컨대 퇴선생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훨씬 벗은⁷⁹⁸

저 풍골⁷⁹⁹에 소년대장을 헐 짓이고,

미인미색⁸⁰⁰들을 주야로 다리고⁸⁰¹ 만세동락⁸⁰²을 헐 짓이니,

나를 따라감이 어떠허오?”

27. (Good Things about the Sea Palace) Terrapin
boasts of the sea palace, proposing to Hare that
he go with him.

[Aniri] “You are good at reading somebody’s fate by his appearance.

Can I avoid the eight hardships if I go to the sea palace?”

“There are only fishes in the sea palace. How can you suffer from the eight hardships?”

“By the way, how is the life in the sea palace?”

“Let me explain.”

[Jinyangjo] “My sea palace is a paradise.

Multicolored towers rise to the sky.

Glass pillars are built upon jade cornerstones.

My sea palace is wide.

It is surrounded by hundreds of tortoiseshells.

There are thousands of beautiful girls in it.

Food that can serve a thousand valuable guests is on a jade tray along with dry giraffe meat.

We pour a thousand-day-old wine into glasses and shells, and drink them until we become drunk.

My dragon king came to the throne and ruled the sea palace. He is a virtuous king.

All the fishes of the South Sea praise him and sing a happy song.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general given that you look stately.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How about following me?”

28. (여우 만류) 토끼가 별주부에게 속아 수궁을 따라가는 데, 여우가 가지 말라고 만류한다.

[아니리] 퇴끼란 놈이 이 말 듣더니 제 속으로 좋아갖고,

“아, 여보시오, 주부.”

“왜 그러시오?”

“아니, 수궁 가면은 탕 소리⁸⁰³⁾는 없소?”

“허허, 여보시오. 수궁 가면 어족들만 사는데, 무슨 탕 소리가 있겠소?”

“그러면 내 따라가리다.”

“갈 테면 어서 나서시오.”

[중모리] 자래는 앞에서 앙곰앙곰,⁸⁰⁴⁾

퇴끼는 뒤에서 깡쨍깡쨍

원로수변⁸⁰⁵⁾을 내려갈 적,

건넌산 바우 밑에 여우란 놈이 나왔더니,

“여봐라, 퇴끼야.”

“와야.”⁸⁰⁶⁾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수궁은 무엇허로 가느냐?”

“별주부 따라 훈련대장 살러⁸⁰⁷⁾ 간다.”

“허허, 자식 실없는⁸⁰⁸⁾ 놈.

녹록한⁸⁰⁹⁾ 네놈 마음 말려 무엇허라마는,

고인⁸¹⁰⁾이 이르기를 토사호비⁸¹¹⁾라고 허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⁸¹²⁾에 질들이고,⁸¹³⁾

임천⁸¹⁴⁾에 같이 늙어,

28. (Fox's Dissuasion) While Hare follows Terrapin to the sea palace, a fox shows up and tries to dissuade Hare from going.

[Aniri] Hare is pleased to what Terrapin said.

"Hello, Terrapin."

"What?"

"Is there a 'bang' sound in the sea palace?"

"Look, there are only fishes in the sea palace. How can there be a bang sound?"

"Then, I will follow you."

"If so, let's go now."

[Jungmori] Terrapin toddles ahead of Hare.

Hare scampers behind Terrapin.

They take the long journey to the shore.

A neighboring fox comes out from the lair between rocks.

"Hello, hare!"

"Yes."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sea palace."

"What are you going there for?"

"I am going there to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My goodness. You are a fool.

You are worthless, so it is of no use to try to stop you,

A proverb says, however, that if a hare dies, a fox mourns.

We lived together in a burrow under a rock in this mountain.

We had fun together in nature.

풍월⁸¹⁵)로 벗을 삼고,
 비 오고 안개 낀 날 발자취 서로 찾아
 동성 삼아 동기상통⁸¹⁶) 일시 이별을 마셨더니마는,
 내가 저 지경이 웬 일이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국이라고 하는 데는 한번 가면은 못 오느니라.
 위방불입⁸¹⁷)이니 가지를 마라.”

29. (토끼와 별주부 강가 당도) 별주부가 토끼를 달래어 산에서 내려와 강가에 당도한다.

[아니리] 퇴끼란 놈이 뒤로 발랑 나자빠지더니,
 “아이고, 나 안 갈라요.
 내가 저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으면 수궁 들어가서 영락없이 못 나오
 고 내가 죽을 것인디,
 우리 여우 사촌이 용케 가르쳐 주었구만.
 나 못 갈라요.”
 별주부 기가 맥히지.
 한 피를 얼른 생각더니,
 “을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
 그러나 저 여우란 놈 심술이나 좀 듣고 가시오”
 “아니, 심술이 어땡단 말이오?”
 “저 여우란 놈이 즐기고 풍악⁸¹⁸) 속에서 잘 먹고 놀 데는 제가 앞장서고,
 내일 아침에 저 재너머 김포수 외톨이⁸¹⁹) 잘 가는⁸²⁰) 놈 들고 이곳
 장사니 사냥⁸²¹)에 나왔다가,

We took nature to be our friend,
We depended on each other on rainy and foggy days.
We were good friends and promised not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emporarily.
I can't believe what is happening now.
Don't go. Don't go. Don't go.
The sea palace is a place of no return.
A dangerous country is not to be trodden upon."

**29.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Riverside) Terrapin
persuades Hare, and they come down from a
mountain and arrive at a riverside.**

[Aniri] Hare falls over on his back.
"I won't go there.
But for my cousin, fox, I would go to the sea palace and die
there without fail.
Luckily, my cousin, fox, told me not to go there.
I won't go there."
Terrapin is struck dumb.
He hits upon a good idea.
"If you come with me or stay there.
You can leave after listening to my story about the fox's
perversity."
"Is he perverse?"
"He goes ahead of others when the destination involves music,
food, and fun.
Tomorrow morning, however, a hunter over the mountain pass
will go hunting, carrying a rifle.

그저 퇴끼 징구리 보고⁸²²) ‘꾸루루루루루 탕’ 헐 적에 당신 앞장 세워.”

“아이구, 탕 소리 좀 빼시오. 징그랍소, 징그라.

그런다고 내가 안 갈 리가 있겠소?

별주부 말대로면, 수궁 가면 내 만세동락⁸²³)할 테니 내 따라가리다.

그런디 대관절 수궁이 여기서 몇 천 리나 되오?”

[중모레] “수궁 천 리 멀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⁸²⁴) 양혜왕⁸²⁵)도 가 보았고,

위수⁸²⁶)의 어부 강태공⁸²⁷)도 문왕⁸²⁸) 따라서 입주⁸²⁹)를 허고,

한기도창축도난의 황면장군 한신이⁸³⁰)도 소하⁸³¹) 따라 한중⁸³²)을 가
서 대장단⁸³³)에 올랐으니,

퇴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을 들어를 가면,

훔썬 벗은⁸³⁴) 저 풍골⁸³⁵)에 소년대장⁸³⁶)을 헐 것이고,

미인미색을 밤낮으로 다리고⁸³⁷) 만세동락을 헐 것이니,

나를 따라감이 어떠허오?”

“그러면 가세.”허고

강상을 바라보니,

도용도용⁸³⁸) 뗏는 배는

한가헌 추강⁸³⁹) 어부 술 사 실러⁸⁴⁰) 가는 뱃가?

십리장강벽과상⁸⁴¹)에 왕래하던 거룻뱃가?⁸⁴²)

양양창과⁸⁴³)에 노니난 건⁸⁴⁴) 쌍쌍백구⁸⁴⁵)만 흘러뗏네.⁸⁴⁶)

“소소추풍송안군⁸⁴⁷)의 슬피 울고 가는 저 기러기.

너 가는 곳 어디메냐?

거기 잠깐 머물렀다가 나의 한 말을⁸⁴⁸) 듣고 가거라.

백운청산⁸⁴⁹) 놀던 퇴끼가 벽해용궁⁸⁵⁰)을 가드라고,

우리 벗님 앵무전에⁸⁵¹) 그 말 한 마디만 전하여 주소.”

잔말⁸⁵²)을 허고 내려갈 적에,

The fox will put you ahead of him, and the hunter will shoot you. 'Bang.'"

"My goodness. Cut out the shooting sound. I hate it.

How can I not follow you to the sea palace?

You said I would be happy in the sea palace forever, so I will follow you.

By the way, how far is the sea palace from here?"

[Jungmori] "Don't say the sea palace is far.

Mencius visited his king, taking a long journey.

An ancient fisherman followed his king and became his premier.

An ancient military officer who led his soldiers to a muddy road followed a politician and became a general.

If you follow me to the sea palace,

you will become a young general because you look stately,

you will be happy with beautiful girls day and night forever.

How about following me?"

Hare says, "Then, let's go."

He looks at the surface of the river.

A boat moves gently by the waves.

Is it going to carry a fisherman's poem in the quiet autumn river?

Is it the barge that traveled back and forth in the wide blue river?

Sea gulls fly in pairs over the endlessly wide blue water.

"Wild geese, you sing sadly in a lonely autumn wind.

Where are you headed?

Stay there for a moment and listen to me.

A hare who lived in a mountain and a cloud is going to the sea palace under the blue sea.

Please tell my friend, a parrot, about that."

Hare whines as he walks along.

그 날사 말고⁸⁵³⁾ 풍세⁸⁵⁴⁾가 사나와
물결은 워르르르르르르 출렁 뒤둥.⁸⁵⁵⁾
“저 물 무서워서 못 가졌네.”

30. (범피중류) 별주부가 토끼를 업고, 소상팔경을 구경하 며 수궁으로 들어간다.

[아니리] 별주부, 이놈이 수변⁸⁵⁶⁾ 가를 당도허더니,
“아이고, 저 물 좀 보라.
에이, 오사⁸⁵⁷⁾헐 것. 내가 수궁 가서 용왕 된다고 해도 못 가졌다.”
이놈이 캥쭈캥쭈 뛰어가더니, 저 건네 금잔디밭에 가서
요리 뛰고, 저리 뛰고, 그 긴 귀를 탈탈 떨고 생방정⁸⁵⁸⁾을 막 떨고
있으니,
별주부 기가 맥히제.
한 피를 얼른 내더니,
물로 풍덩 들어가서 통당통당⁸⁵⁹⁾ 떠서 놀것다.
토끼란 놈이 별주부를 가만히 보더니만,
“아, 거 물이 그밖에 안 되요?”
“아이가, 이놈의 물이 뭐 어쨌다고 그랬싸?”⁸⁶⁰⁾
“아, 물이 보기보단 실없기는⁸⁶¹⁾ 실없구나.
그러고 저러고, 내가 안 갈 리가 없고,
주부 따라 내가 수궁 갈 테니,
내가 저 건너 버들가지를 물고 뒷발 점거봐서⁸⁶²⁾
목물질만허면⁸⁶³⁾ 가고,
더 깊으면 나 못 가겠소.”

Of all days, it is a windy day.
Waves of water are strong and large.
“The water is scary. I won’t go there.”

**30. (On the Sea). Terrapin goes to the sea palace with
Hare on his back as they see the eight beautiful
sites.**

[Aniri] Terrapin arrives at the shore.
“Gosh, look at that water.
Forget it. I won’t go to the sea palace even if I were to become
a king.”
Hare runs and jumps over to the golden grass.
Hare jumps around and brushes his long ears, behaving
flippantly.
Terrapin is speechless.
He thinks up a good idea.
He gets into water and moves around on the surface.
Hare has been watching Terrapin.
“Is the water that deep?”
“What’s wrong with this water?”
“That water is less scary than it looks.
Okay. I will go there.
I will follow you to the sea palace.
I will bite that willow branch and put my hind legs in the water.
If water stays below my neck, I will go.
If it is deeper than that, I won’t go.”

“거 당신 알아 하시오.”

이놈이 좋은 피 낸 체허느라고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버들가지를 앞니로 꼭 물고 뒷발 막 점글라고⁸⁶⁴ 허는디,
자래라고 허는 것은 물 속에선 편전⁸⁶⁵ 살이것다.⁸⁶⁶

우루루루 달려들어서

퇴끼 뒷발을 딱 앞니로 물고 울룩울룩⁸⁶⁷ 잡아넣으니,
토끼 물에 통덩⁸⁶⁸ 떨어져,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나 좀 놓아라. 날 좀 놓아라.

나 숨 맥혀 죽겠다.”

“야, 이 녀석아. 아구지⁸⁶⁹ 벌리지 말어.

목에 짤 물 들어가면 간 녹는다, 이 녀석.”

“아이고 이놈아, 나 똥 좀 누고 가자.”

“똥 누어라.”

“야 이놈아, 물에다 똥 누면 벼락 맞는다고 허드라.”

“사공은 벼락만 맞느라고 볼 일 못 보겠다, 이 녀석아.

잔소리 말고 내 등에 얹어서⁸⁷⁰

소상팔경⁸⁷¹ 귀경⁸⁷²이나 하고 가자.”

별주부가 퇴끼를 등에다 딱 얹고 소상팔경을 지내가는디,

내 소상팔경은 간단허든가 보더라.

[진양조] 범피중류⁸⁷³ 등덩실⁸⁷⁴ 떠나간다.

망망⁸⁷⁵헌 창해⁸⁷⁶이며,

탕탕한⁸⁷⁷ 물결이로고나.

백빈주⁸⁷⁸ 갈매기는 홍요안⁸⁷⁹으로 날아들고,

삼강⁸⁸⁰의 기러기는 한수⁸⁸¹로 돌아든다.

요량헌⁸⁸² 남은 소리 어적⁸⁸³이 이언마는⁸⁸⁴

“That’s fine with me.”

Hare jumps forward, thinking he had a smart idea.

Holding the willow branch with his front teeth, he is about to put his hind legs in water.

A terrapin is faster than an arrow in water.

Terrapin moves to Hare.

He holds Hare’s hind leg with his front teeth and pulls Hare down.

Hare falls into water.

“You bastard. You scoundrel.

Let go of me. Let go of me.

I can’t breathe.”

“You rat. Don’t open your mouth.

If salty water gets in, your liver will melt down. You villain.”

“You rascal. Let me take a shit first.”

“Take a shit in that state.”

“You villain. There is a saying that if you take a shit in water, you will be hit by lightning.”

“If that is right, a boatman can’t take a shit at all. You fool.

Cut the noise out and stay on my back.

Let’s watch eight beautiful sites on the way to the sea palace.”

Terrapin carries Hare on his back and passes by the eight beautiful sites.

The eight beautiful sites are as follows:

[Jinyangjo] Terrapin and Hare go slowly in the wide sea.

The sea is endlessly wide.

The large waves are strong.

Sea gulls fly from the island of white flowers to the hill of red reeds.

Wild geese return from three rivers to another river.

A far-reaching sound seems to be from a fisherman’s flute.

곡중인불견⁸⁸⁵)에 수봉⁸⁸⁶)만 푸르렀다.⁸⁸⁷
 장사⁸⁸⁸)를 지내갈 적 가태부⁸⁸⁹)는 간 곳이 없고,
 굴삼려⁸⁹⁰) 어복충훈⁸⁹¹)이 무량⁸⁹²)도 허시든가?
 애내성중만고수⁸⁹³)는 나를 두고 이름인가?
 황학루⁸⁹⁴)를 당도하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의 사인수는 최호의 유적이라.⁸⁹⁵
 봉황대⁸⁹⁶)를 다다르니 삼산은 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⁸⁹⁷)난 이태백이 놀던 데요,
 심양강⁸⁹⁸)을 들어가니, 백락천⁸⁹⁹) 일거후에⁹⁰⁰) 비파성⁹⁰¹)도 끊어졌다.
 적벽강⁹⁰²)을 당도하니,
 소동파⁹⁰³) 놀던 풍월⁹⁰⁴)이 의구⁹⁰⁵)히여서 있다마는,
 조맹덕⁹⁰⁶) 일세지웅⁹⁰⁷)은 이금에 안재재오?⁹⁰⁸
 월락오제 깊은 밤에 고소성에다가 배를 매니,
 한산사 쇄북 소리는 객선에 텅텅 떨어진다.⁹⁰⁹
 진회수⁹¹⁰)를 바라보니,
 격강⁹¹¹)의 상녀들⁹¹²)은 망국한⁹¹³)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에⁹¹⁴) 후정화⁹¹⁵)만 부르더라.
 소상강 들어가니 악양루⁹¹⁶) 높은 집은 호상에⁹¹⁷) 높이 뻗다.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 척⁹¹⁸) 부상⁹¹⁹)까지 일륜홍⁹²⁰)이 어려 있고,
 바다가 뒤틀리며 어룡⁹²¹)이 출몰⁹²²)허고,

When the song is over, only a few green peaks are seen.
 Terrapin and Hare pass a place where a famous politician and
 poet lived in ancient times.
 They say hello to a loyal official who became food for fish in
 the river in ancient times.
 The oar sounds seem to express anxiety.
 They arrive at a tower where an ancient poet said, "The sun
 sets. Where is my hometown?
 A fog rising up from the river intensifies my anxiety.
 They reach another tower and see clouds hanging around the
 middle of three divine peaks.
 A river flows around the island where another ancient poet
 enjoyed himself.
 They enter another river where a lute sound stopped after
 another ancient poet had gone.
 They reach another river.
 The beautiful site remains the same as when another ancient
 poet enjoyed himself.
 In ancient times a hero was here, but he has gone.
 A boat casts an anchor near a castle at night when the moon
 sets and a crow cries.
 A drum sound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boat with
 a traveler.
 Terrapin and Hare see a canal.
 Bar girls across the river did not know of the fall of their
 country.
 They only sang a song when thick fog hung over the cold river
 and the moonlight was shiny on the sandy field.
 They enter a river and see a high pavilion on a lake.
 They see the sun on the horizon in the east.
 A fish and a dragon appear and disappear in the twisted sea.

한 곳을 당도하니 금계소리⁹²³)가 쟁그랑쟁 들리거늘,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백옥⁹²⁴) 현관⁹²⁵)에 황금 대자⁹²⁶)로 ‘남해 용
궁 수정문’이라 하고 뚜렷이 새겼거늘,
퇴끼가 보고서 좋아라고 한다.

31. (토끼 잡아들임) 나졸들이 토끼를 잡아들이려고 하자, 토끼가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아니래] “내가 들어올 적에 물은 몇 모금 먹기는 먹었다마는,
대체 좋기는 좋다.
여보시오, 주부. 어서 들어가서 나 하관말석⁹²⁷)이라도 좀 시켜주시오.”
“글랑은⁹²⁸) 염려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만일 ‘퇴끼 잡아들여라’허는 영⁹²⁹)이 내리드래도 놀래지는 마시오.”
“거, 어찌 그렇단 말이오?”
“진세⁹³⁰)와 수궁과는 언어상통⁹³¹)이 틀려서,
‘훈련대장 입시⁹³²)시켜라’허는 말이니,
그리 꼭 알고 가만히 앉아 계시시오.”
“거 글랑은 그리하시오마는 법인즉은 패리⁹³³)허요.
내가 만일 훈련대장만 되면, 이 법 당장 뜯어고치지요.”
“건⁹³⁴)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나 안에 들어가 남여⁹³⁵) 내보내리다.”
그 때에 별주부 어전⁹³⁶)에 숙배⁹³⁷)허고,
“진세에 나갔던 주부 현신⁹³⁸)이오.”
용왕이 반겨하사,
“오, 수륙 이만 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Terrapin and Hare arrive at a place and hear the sound of a golden pheasant.

They raise their eyes and see a white jade board with clear and large golden letters, 'the Main Gate to the Sea Palace.'

Hare is delighted to see it.

31. (The Arrest of Hare) Guards try to arrest Hare, and Hare denies he is a hare.

[Aniri] "I drank a little water when I got into the water.

Now I feel water is good.

Hello, Terrapin. Let's hurry. I would be happy even if I am given a low government position."

"Don't worry about that.

Stay here and don't go anywhere.

Don't be surprised even if you hear the order 'Arrest Hare.'"

"What is that?"

"The language of the lan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sea palace.

The order means 'Please bring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here.'

Keep that point in mind, and stay here."

"That's fine with me, but the law doesn't make sense.

If I become the general of military academy, I will change the law right away."

"That's fine with me.

I will go inside and send a carriage to you."

Terrapin reports to the dragon king.

"Terrapin has come back from the land."

The dragon king is pleased.

"How was the long trip on the sea and the land?"

대관절 퇴끼는 어찌하였느냐?”

“예, 퇴끼를 생금⁹³⁹⁾해서 쥔문 밖에 대령하였사옵니다.”

“오오, 기특코 고맙다.”

퇴끼를 잡으러 나오는데,

이런 가관⁹⁴⁰⁾이 없제.

[자진모리] 좌우 나줄,⁹⁴¹⁾ 금군⁹⁴²⁾ 모조리,⁹⁴³⁾ 순령수⁹⁴⁴⁾ 일시에 내달
아⁹⁴⁵⁾

퇴끼를 에워쌀 제

진황⁹⁴⁶⁾ 만리장성 싸듯,

산양 싸움에 마초 싸듯⁹⁴⁷⁾ 겹겹이 둘러싸고,

퇴끼 들입다⁹⁴⁸⁾ 잡는 거동⁹⁴⁹⁾ 영문출사⁹⁵⁰⁾ 도적 잡듯,

퇴끼 두 귀를 꼭 잡고,

“이놈, 네가 퇴끼냐?”

퇴끼 기가 맥혀, “나 퇴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달음⁹⁵¹⁾에 너를 잡아 약개정⁹⁵²⁾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⁹⁵³⁾ 달여 먹고,

네 겹줄⁹⁵⁴⁾ 벗겨내어 잘량⁹⁵⁵⁾ 무어⁹⁵⁶⁾ 깔거드면⁹⁵⁷⁾,

어혈⁹⁵⁸⁾ 내종⁹⁵⁹⁾ 혈담⁹⁶⁰⁾에는 만병회춘⁹⁶¹⁾의 명약이니,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퇴끼가 기가 맥혀, “나 개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송아지새끼요!”

“소같으면은 더욱 좋다.

What can you say about a hare?"

"I brought one alive. He is waiting outside the gate."

"That's wonderful."

They come out to arrest Hare.

This is quite a show.

[Jajinmori] Soldiers and royal guards on the left and right run forcefully.

They surround Hare,

as if an ancient emperor constructed the Great Wall,

and as if soldiers surrounded an ancient warrior in a battle.

They treat Hare harshly as if they were arresting a bandit.

They grab Hare by his ears tightly.

"Are you a hare, bastard?"

Stunned, Hare says, "I am not a hare."

"Then, what are you?"

"I am a dog."

"A dog is even better.

A dog is a good material for a tonic soup in hot summer.

Your liver will be boiled down with a black chicken.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as a mat.

It is an effective medicine for slow blood flow, sore organs, and bloody phlegm.

Let's take this puppy to the king."

Dumfounded, Hare says, "I am not a dog either!"

"Then, what are you?"

"I am a calf!"

"A cow is far better.

도탄⁹⁶²)에 너를 잡아
 두피,⁹⁶³ 족,⁹⁶⁴ 살찐 다리,
 양, 횃간,⁹⁶⁵ 처넙,⁹⁶⁶ 콩팔
 후박없이⁹⁶⁷ 노뇌⁹⁶⁸ 먹고,
 네 뿔 빼어 활도 매고,⁹⁶⁹
 네 속에 든 우황⁹⁷⁰ 값 중한⁹⁷¹ 약이 되고,
 네 껌줄⁹⁷² 벗겨내어 신도 짓고,⁹⁷³ 복도 매고,
 똥 오줌은 거름허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를 몰아가자!"
 퇴끼가 기가 맥혀, "내가 언제 송아지라고 했가디오?"⁹⁷⁴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나 좀 노시오.⁹⁷⁵ 생각해 갖고⁹⁷⁶ 갈쳐주께.⁹⁷⁷
 나 망아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후간족이라,⁹⁷⁸
 요단향장천리마로다.⁹⁷⁹
 연왕도 오백금으로 죽은 뻘 사갔으니,⁹⁸⁰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에⁹⁸¹ 바쳤으면 천금상⁹⁸²을 아니 주랴?
 이 망아지를 몰아가자!"
 퇴끼를 결박⁹⁸³하야 빨그란 주장대⁹⁸⁴에 쿵 찢러 드러메고,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달려가며,
 "어따,⁹⁸⁵ 이놈의 별주부야!"
 "와야!⁹⁸⁶"
 "나 탄 게 무엇이나?"
 "오냐. 그게 바로 수궁 녀머라고 허는 것이다!"

We will paste you with mud and put you in a charcoal fire.
 Your head, skin, feet, plump legs,
 stomach flesh, liver, fourth stomach, and kidney,
 will be evenly distributed among us.
 Your horn will be used as a bow.
 The bile in your gall bladder is an expensive medicine.
 Your skin will be peeled and used to make shoes and drums.
 Your dung and urine will be used for manure.
 No part of your body will be useless.
 Let's take this calf to the king!"
 Stuck dumb, Hare says, "When did I say I am calf?"
 "Then, what are you?"
 "Let go of me. Let me think. I will let you know.
 I am a colt!"
 "A horse is much better.
 You have good eyes and legs.
 You must be a fine horse.
 An ancient king paid a lot of money to buy the bones of a dead
 horse.
 Since you are alive, the king will give us more money if we
 take you to him.
 Let's take this colt to the king!"
 They tie Hare with a rope, push a red stick between his legs,
 and carry him on their shoulders.
 Hare moves left and right, hanging on the red stick.
 "Gosh! You scoundrel! Terrapin!"
 "Yes!"
 "What is this thing I am on?"
 "Oh, that is a carriage in this sea palace."

“어따, 이 제기럴 깔 놈의⁹⁸⁷⁾ 남여 두 번만 타고보면 옹두리뻘⁹⁸⁸⁾도 안 남겠다.”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다랑 들어다가,
동대청⁹⁸⁹⁾ 너룬⁹⁹⁰⁾ 뜰에 동댕이쳐 후닥딱,

32. (토끼의 껍) 토끼가 껍을 내어 뱃속에 간이 없다고 둘러댄다.

[아니리] 썰러⁹⁹¹⁾ 붙여노니,⁹⁹²⁾

이놈이 그 빠런⁹⁹³⁾ 눈을 뜨고 깜작깜작 한참 좌우전후를 살펴보니,
무수헌 수병제졸⁹⁹⁴⁾들은 겹겹이 둘러싸여 있제.

용왕이 토끼를 물금허니⁹⁹⁵⁾ 바라보더니,

“어, 그 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얼름⁹⁹⁶⁾ 기양⁹⁹⁷⁾ 배 따고 간 내 먹었으면 혈 판인디,⁹⁹⁸⁾

수궁서는 생전 처음 본 짐생⁹⁹⁹⁾이 되어와서

말을 한 번 시켜보는다,

“퇴끼 너 듣거라.

내가 우연히 득병해서¹⁰⁰⁰⁾

명의다려¹⁰⁰¹⁾ 물어보니,

네 간이 으뜸 약이 된다고 그려.

그래서 수국 충신 어진 신하를 내보내서 너를 여까지¹⁰⁰²⁾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한¹⁰⁰³⁾을 마라.

그러고 사람이나 짐생이나 죽을 때에는 혈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혈 말이 있그덩¹⁰⁰⁴⁾ 말이나 좀 허고 죽어라.”

퇴끼란 놈 이 말 들어보니,

용궁지하에 필사당토라.¹⁰⁰⁵⁾

“Ouch. If I ride this darn carriage twice, my body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Hare moves left and right, hanging on the red stick.

Hare is thrown down on the wide yard of the sea palace.

32. (Hare's Trick) Hare thinks up a trick and tells a lie that there is no liver in his belly.

[Aniri] Hare is treated roughly.

He blinks his red eyes and takes a look around for a while.

He is surrounded by numerous guards in rows.

The dragon king looks at Hare vacantly.

“There must be a big liver in his belly.”

The dragon king should cut Hare's belly, take out his liver, and eat it without hesitation.

Hare is a foreign animal in the sea palace.

The dragon king speaks to Hare.

“Hare, listen to me.

I happened to catch a disease.

I consulted a renowned doctor.

He said your liver is the best medicine.

So I sent a loyal and virtuous official to the land and brought you here.

Don't resent your death.

One, whether an animal or a human, has something to say before he dies.

So you can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before you die.”

Hare has been listening to the dragon king.

He realizes he is bound to die in the sea palace.

꼭 죽을 데 찾아왔지.

이 놈이 한 피를 얼름¹⁰⁰⁶ 생각더니¹⁰⁰⁷ 배아지¹⁰⁰⁸를 착¹⁰⁰⁹ 내놓고,
“자, 내 배 따시오.”¹⁰¹⁰

용왕이 의심이 나제.

‘저 놈이 배를 안 때일라고¹⁰¹¹ 방색¹⁰¹²을 헐 것인디,
의심없이 배아지를 따라고 허니 이상시러.’¹⁰¹³

“아, 이놈아. 네 배 따는 것은 일도 없어.

그러니 어서 말이나 해봐.”

“아니 뭐 말할 것도 뭇헐 것도 없고,

내 배만 착 따보면 알 것이오.”

“아, 이놈아, 말이나 혀.”

[중모레]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

태산이 봉되허고¹⁰¹⁴ 오성¹⁰¹⁵이 음음헌디,¹⁰¹⁶

시일갈상¹⁰¹⁷ 노래 소리 억조창생¹⁰¹⁸ 원망 중의,

탐학한¹⁰¹⁹ 상 주임금¹⁰²⁰이 성현¹⁰²¹의 뱃속에 가 칠구무¹⁰²²가 있
다기로

비간¹⁰²³의 배를 갈라 무고히¹⁰²⁴ 죽였으나 일곱 궁기가¹⁰²⁵ 없었으니,
소퇴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헌 퇴명¹⁰²⁶만 끊사옵고,

뉘를 다려¹⁰²⁷ 달라고 하며,

어찌 다시 구허리까?

당장의 배를 갈라서 보옵소서.”

용왕이 화를 내어,

“이놈! 네 말이 모도¹⁰²⁸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의서¹⁰²⁹에 이르기를 비수병즉구불능식¹⁰³⁰허고,

담수병즉설불능언¹⁰³¹허고,

He has come to his place of death.
 He hits upon a trick, and sticks out his belly.
 "Open my belly."
 Puzzled, the dragon king mumbles,
 "Hare should go wild, refusing to have his belly opened.
 It is strange he boldly tells us to open his belly."
 "You villain. It is no sweat to open your belly.
 Just say your last word."
 "I don't have to say a word.
 You will know what I want to say if you open my belly."
 "You bastard. Just speak your last word."
[Jungmori] "Let me say what I want to say, Your Majesty.
 A mountain collapsed, and five stars became dark.
 Resentful, the people sang a song, wishing for the death of their
 king.
 An atrocious king believed there were seven holes in a wise
 man's belly.
 He opened his good official's belly only to learn there were not
 seven holes.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f you open my belly but can't find a liver, you will only kill
 a poor hare.
 Whom would you ask to give you a liver?
 How would you get a liver?
 Open my belly right away."
 The dragon king is infuriated.
 "You rat! What you said is nonsense.
 A medical book says if your spleen is ill, you can't eat.
 If your gall bladder is ill, you can't speak.

신수병즉이불능칭¹⁰³²)허고,
 간수병즉목불능시¹⁰³³)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세상 만물을 보겠느냐? 어이?”
 “예, 소퇴가 아뢰리다.
 소퇴의 간인즉은¹⁰³⁴) 월륜정기¹⁰³⁵)로 삼졌삽더니¹⁰³⁶)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덜이내다.¹⁰³⁷)
 세상에서 병객¹⁰³⁸)들이 소퇴 곧 얼른허면¹⁰³⁹) 간을 달라고 보채기
 로,¹⁰⁴⁰)
 간을 내어서 파초 앞에다 꼭 꼭 싸,
 칩노¹⁰⁴¹)로 칭칭 동여,
 영주¹⁰⁴²) 석상¹⁰⁴³)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가지¹⁰⁴⁴) 끝끝터리에다
 가¹⁰⁴⁵) 달아두고,
 도화유수¹⁰⁴⁶) 옥계번¹⁰⁴⁷)에 탁족차로¹⁰⁴⁸) 내려오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로¹⁰⁴⁹) 왔나니다.¹⁰⁵⁰)”
 용왕이 더욱 화를 내어,
 “이놈! 네 말이 모도 당찮허다.¹⁰⁵¹)
 사람이나 짐생이나 일신지내장¹⁰⁵²)은 다를 바가 없는데,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세상 만물을 보겠느냐?”
 퇴끼가 당돌히 여짜오되,
 “대왕은 지기일이요, 미지기이로소이다.¹⁰⁵³)
 복희씨¹⁰⁵⁴)는 어이허여 사신인수¹⁰⁵⁵)가 되어 있고,
 신농씨¹⁰⁵⁶) 어쩐 일로 인신우수¹⁰⁵⁷)가 되어 있고,
 대왕은 어이하야 비늘이 번쩍번쩍허웁고,

If your kidneys are ill, you can't hear.
 If your liver is ill, you can't see.
 If you don't have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r Majesty.
 My liver was created by the energy from the moon.
 On the full moon, I take it out.
 On the end of the month, I put it back in.
 Sick people of the world pester me for my liver if I don't take
 great care.
 I wrap my liver in a plantain leaf.
 I tie it tightly with a vine.
 I hang it at the end of the top branch of a cinnamon tree in
 a divine rocky mountain.
 I came down to wash my feet in a clear stream carrying peach
 blossoms.
 I met Terrapin by chance.
 I heard there is a lot of fun in the sea palace.
 I came here for sightseeing."
 The dragon king is indignant.
 "You bastard! What you said is all nonsense.
 For humans and beasts, a liver is an internal organ.
 Without a liver, how can you see things?"
 Hare dares to say as follows.
 "Your Majesty, your knowledge is incomplete.
 Why did a legendary king have a snake's body and a man's
 head?
 Why did another legendary king have a man's body and a cow's
 head?
 Why does Your Majesty have a shiny scales?

소퇴는 어이하야 털이 요리 송살송살,¹⁰⁵⁸⁾
 까마구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쓸개 있고, 오후 까마구 쓸개 없사오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¹⁰⁵⁹⁾가 한 가지라고 그저 뻑뻑¹⁰⁶⁰⁾ 우기니 답답하
 지 않나니까¹⁰⁶¹⁾?”
 용왕이 이 말을 옳게 여기어,
 “그리하면 간 내고 달이고¹⁰⁶²⁾ 임의로¹⁰⁶³⁾ 출입허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그란 궁기¹⁰⁶⁴⁾가 셋이 늘어¹⁰⁶⁵⁾ 있으니,
 “저 궁기가 모도¹⁰⁶⁶⁾ 다 어떠한 내력이냐?”
 “예, 소퇴가 아뢰리다.
 한 궁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을 들이고 내고 임의로 출입허나니다.¹⁰⁶⁷⁾”
 “그러하면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¹⁰⁶⁸⁾로 내웁기에¹⁰⁶⁹⁾
 만물시생¹⁰⁷⁰⁾의
 동방삼팔목,¹⁰⁷¹⁾
 남방이칠화,¹⁰⁷²⁾
 서방사구금,¹⁰⁷³⁾
 북방일육수,¹⁰⁷⁴⁾
 중앙오십토,¹⁰⁷⁵⁾
 천지음양,¹⁰⁷⁶⁾ 오색광채,¹⁰⁷⁷⁾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을 화하야¹⁰⁷⁸⁾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웁기에,¹⁰⁷⁹⁾

What made my fur thick and soft?
 Let's talk about a crow.
 It has a gall bladder before noon, and not after noon.
 Isn't it frustrating you insist flying and walking animals are of
 the same kind?"
 The dragon king is persuaded by Hare.
 "If so, do you have a hole for taking your liver in and out at
 your will?"
 "Yes, I have."
 "Let me take a look."
 "Here you are!"
 There are three red holes in a row.
 "What do you have the three holes for?"
 "Let me tell you, Your Majesty.
 I use one to take a shit and another to take a pea.
 I take my liver out and put it back in at my will through the
 last hole."
 "Which holes do you use to take your liver in and out?"
 "I swallow my liver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When things were first created,
 Wood was in the east,
 Fire was in the south,
 Gold was in the west,
 Water was in the north,
 and Earth was in the middle.
 I harmonized with the earth, the sky, negative energy, and
 positive energy, the five brilliant colors, the morning fog, and
 the evening dew.
 I put my liver in through my mouth and take it out through
 my anus.

만병회생¹⁰⁸⁰)의 명약¹⁰⁸¹)이라.

으뜸 약이 되나니다.”

용왕이 이 말을 옹개 여기어,

“그러하면 세상에서 병객들이¹⁰⁸²) 네 간을 묵고¹⁰⁸³) 효험본¹⁰⁸⁴) 징거¹⁰⁸⁵)가 있느냐?”

“예, 있지요! 징거를 낚낚이 아뢰리다.

소퇴 부용¹⁰⁸⁶) 소년시절에 통정차로¹⁰⁸⁷) 내려가다가 벽파수¹⁰⁸⁸)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한무제신¹⁰⁸⁹) 동방삭¹⁰⁹⁰)이가 구선허로¹⁰⁹¹) 계¹⁰⁹²) 왔다가 텃병¹⁰⁹³) 건져 살려주기로,

그 은혜를 갚노라고 간을 내어 팔난만치¹⁰⁹⁴) 떼냈더니,

동방삭이 탄복하고

그 간을 먹더니마는 삼천 갑자¹⁰⁹⁵)를 살으시고,

그 후에 위수변¹⁰⁹⁶)으로 돌아들다 간을 내어서 위수 여울에 씻겼더니,¹⁰⁹⁷)

궁팔십¹⁰⁹⁸) 여상¹⁰⁹⁹)이가 뉘시질 게 왔다가

기갈에¹¹⁰⁰) 표자¹¹⁰¹) 끌러 그 물 조금 떠 마시고 달팔십¹¹⁰²)을 살아 있고,

안기생¹¹⁰³) 적송자¹¹⁰⁴)가 우리 간을 나수¹¹⁰⁵) 먹고 장생불사¹¹⁰⁶)허였단 말 못 들었소?”

자래를 돌아다보며,

“에이 요 승헌¹¹⁰⁷) 미련헌 저석,¹¹⁰⁸) 이너르¹¹⁰⁹) 저석.

네 콧구멍¹¹¹⁰)이 그렇게 담뱃배 무초리¹¹¹¹) 뽀나게¹¹¹²) 생겼으니, 네가 안 미련허졌냐,

이너르 저석아?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허였으면,

My liver is a famous panacea.
 It is the best medicine.”
 The dragon king is persuaded.
 “Do you have evidence that sick people in the land were cured
 after they ate your liver?”
 “Yes, let me tell you about all the evidence.
 When I was a boy, I visited a place for sightseeing, fell into
 water, and almost died by drowning.
 A subject to an ancient king visited there to see a god, jumped
 into the water, and saved me.
 To return his favor, I cut a little piece off my liver and gave
 it to him.
 He was thankful to me.
 After he ate the little piece, he lived for 180,000 years.
 Afterwards, I went to a river, took out my liver, and washed
 it in the river.
 An ancient politician who lived a hard life for eighty years was
 fishing in the river.
 Thirsty, he drank a little water from the river with a gourd dipper
 and lived another eighty years.
 Didn’t you hear that two legendary gods ate a hare’s liver and
 became immortal?”
 Hare turns around and sees Terrapin.
 “How pathetic and stupid you are! You bastard.
 Your nostril looks like the end of a tobacco pipe, so you cannot
 but be stupid.
 You bastard.
 You should have told me the truth.

내 간 말고라도 우리 사돈네 간이 일만칠천여 부¹¹¹³)가 계수나무에
 걸렸으니,
 한 보¹¹¹⁴)만 들어왔으면 너도 충성이 나타나고, 나도 공로가 있을 텐디,
 미련허드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¹¹¹⁵)이 쓸 데가 없다.”

33. (수궁 풍류) 용왕은 토끼의 말에 속아 토끼를 살려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한다.

[아니리] “어, 자칫했드라면 큰 인물을 여그서¹¹¹⁶) 그냥 없애버릴 뻔
 했구나.
 네 여봐라. 퇴공¹¹¹⁷)을 상좌¹¹¹⁸)에 모시고 음식 준비를 허도록 허여라.”
 수궁 제신들이,¹¹¹⁹) 왕명이 지중¹¹²⁰)허니 퇴끼를 상좌에 앉혀놓고 음
 식 준비를 허는디,
 우리 세상 음식허고 비슷허든가 보더라.
 자하주,¹¹²¹) 천일주,¹¹²²) 기린포¹¹²³)로 안주 놓고,
 유리잔¹¹²⁴) 앵무배¹¹²⁵)에다가 천일주를 가득 부어서,
 용왕이 주인지도리허니라고¹¹²⁶) 먼침¹¹²⁷) 먹고,
 퇴끼를 주어노니,
 이놈이 맛보니라고 한 삼십 잔 퍼먹고,
 먹어보니라고 한 오십 잔 먹고,
 그저 주는 대로 받아 먹어논 것이
 일백 한 오륙십 배¹¹²⁸) 했든갑드라.¹¹²⁹)
 이놈이 술이 답북¹¹³⁰) 취해가지고
 저 건네¹¹³¹) 반석¹¹³²) 우에 딱 쪼구리고¹¹³³) 앉더니,
 제 손수 용왕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디,

In addition to my liver, about 17,000 livers of my relatives by marriage are hanging on cinnamon trees.

If we had brought just one of them here, your loyalty would stand out and I would be praised.

How stupid you are, terrapin!

It is of no use to regret the opportunity you missed.”

33. (Having Fun in the Sea Palace) Fooled by Hare, the dragon king throws a big party for him.

[Aniri] “We almost killed a great figure here for no reason.
Subjects! Take Mr. Hare to a high seat and bring food here.”
With the king’s grim order, all the subjects of the sea palace put
Hare on the high seat and prepare food.

The food of the sea palace is similar to that of the land.

There are a wine of purple cloud, a thousand-day-old wine, and
giraffe meat.

The thousand-day-old wine is poured into a shell glass up to
the brim.

The dragon drinks a glass of wine as a host.

He offers a glass of wine to Hare.

Hare drinks about thirty glasses of wine in order to know the
taste of the wine.

He drinks about fifty glasses of wine in order to see what
happens.

He drinks as he is offered.

In total, he drank 150 or 160 glasses of wine.

He is drunk to the fullest extent.

He squats on the wide and flat rock.

He speaks to the dragon king in an informal manner.

“아, 여보게 용칠이!”

용왕이 어떻게 얼척이¹¹³⁴ 없어 왔던지,

“하하하하. 아, 거 퇴공이 지금 나를 뭐하러 그렇게 부르시는가?”

“아, 내가 세상에서 동의보감¹¹³⁵을 많이 보았으되,

퇴끼 간 약된단 말은 금시초문¹¹³⁶이오.

그리고저러고, 세상에서 듣자허니 수궁 풍류¹¹³⁷가 좋답디다.

거 수궁 풍류나 한 번 들어 봅시다.”

[엇모레] 왕자 진¹¹³⁸의 봉피리,¹¹³⁹

곽처사¹¹⁴⁰ 죽장구,¹¹⁴¹ 성연자¹¹⁴² 거문고, 장량¹¹⁴³의 옥통수,¹¹⁴⁴

비파사,¹¹⁴⁵ 보허사,¹¹⁴⁶

혜강¹¹⁴⁷의 해금¹¹⁴⁸이며,

완적¹¹⁴⁹의 휘파람,

격타고 취용적,¹¹⁵⁰

능파사,¹¹⁵¹ 보허사,¹¹⁵² 우의곡,¹¹⁵³ 채련곡¹¹⁵⁴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¹¹⁵⁵헌 풍악¹¹⁵⁶소리 수국이 진동한다.

퇴끼도 신명내어¹¹⁵⁷,

34. (토끼 방정) 토끼가 출랑거리며 춤을 추고 놀다가 간이 들었다고 의심받자, 급히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

[아니레] 이놈이 한번 놀아보는디,

앞발을 번쩍 드니 꼭 뽕 산자¹¹⁵⁸ 뽕나게¹¹⁵⁹ 생겼제.

이놈이 언제 들었는고,¹¹⁶⁰

그 전에 저 경기도 여주 땅 사시던 염계달¹¹⁶¹ 씨 추천목¹¹⁶²으로

한 번 놀아보는디,

“Hello, Dragonie!”

The dragon king is struck dumb.

“Hahaha. Mr. Harie. Why do you call me like that?”

“I read a classic medical book on the land carefully.

This is the first time I’ve heard a hare’s liver is medicine.

By the way, I heard on the land that the music of the sea palace is great.

Let me listen to the music of the sea palace.”

[Eonmori]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owl-shaped drum, a six-stringed zither, and a jade flute.

They sing a divine song and a religious song.

They play a Korean fiddle.

They blow a whistle.

They hit a drum made of alligator skin and a dragon pipe.

They sing a pond song and a divine song along with two ancient songs.

The music spreads and shakes the sea palace.

Hare is exuberant.

34. (Hare’s Flippancy) Hare dances frivolously. Others think there must be a liver in his belly. He says he wants to go back to the land immediately.

[Aniri] Hare sings and dances.

Hare holds up his fore legs to form a Chinese character 山.

He must have heard a celebrated Pansori singer.

He sings in an exciting rhythm like Yeom Gye-dal who lived in Yeosu, Gyeonggi-do.

[중중모리] 앞내 버들은 초록장¹¹⁶³ 두르고,
 뒷내 버들은 청포장¹¹⁶⁴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평퍼져,¹¹⁶⁵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 흔들 흔들 흔들 춤을 출 적에,
 어머니는 동우¹¹⁶⁶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¹¹⁶⁷를 지고,
 노고지리¹¹⁶⁸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추켜들고 출랑출랑으¹¹⁶⁹ 잘 논다.
[아니레] 이놈이 한참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디,
 대장 범치¹¹⁷⁰란 놈이 퇴끼 뒤를 살살 따라댕기다가,¹¹⁷¹ 퇴끼 뺏속
 에서 출랑출랑 소리가 나니,
 “예끼, 여¹¹⁷² 퇴끼놈 뺏속에 간 들었다!”
 퇴끼란 놈 깜짝 놀래 뒤로 팍 자빠져 술이 팍 깨부렸단 말여.¹¹⁷³
 “어떤녀르¹¹⁷⁴ 저석이¹¹⁷⁵ 고자성음¹¹⁷⁶으로 그렇게 내 뺏속에 간 들
 었다고 그러냐?
 빈 뺏속에 술잔이나 먹어노니,
 빈 똥덩어리 떠노는 소리를 듣고 간 들었다고 그러?”
 이놈이 이렇게 하기는 해왔으나 얼름¹¹⁷⁷ 세상을 나가야 되겠그
 던.¹¹⁷⁸
 그러니 어전에 복지¹¹⁷⁹허고 대왕께 여짜오되,
 “대왕 병세 점점 위중¹¹⁸⁰해지니, 소퇴가 세상을 나가서 간을 한
 보¹¹⁸¹가지고 얼름¹¹⁸² 들오겠습니다.”
 용왕이 반기하사,
 “오, 기특코 고마운지고.
 그럴 테면 그리허여라.”

[Jungjungmori] Green willows are along the front stream,
 Blue willows are along the back stream,
 A branch is torn off,
 Another hangs down.
 I dance, letting myself move by the wind and by the water waves.
 My mother carries a water jar on her head.
 My father carries an iron pot on his back.
 A skylark sings a song.
 Hare holds up his fore legs and dances flippantly.
[Aniri] Hare sings and dances as said above.
 Following Hare furtively, a goby hears sounds from Hare's belly.
 "Look! There is a liver in Hare's belly!"
 Petrified, Hare falls over on his back and becomes sober in an instant.
 "Who dares shout there is a liver in my belly in a loud voice?
 My stomach was empty when I drank wine.
 Some dung floats in my belly, making sounds."
 Hare said so, but he thinks he needs to go back to the land.
 He kneels down in front of the king and speaks.
 "Since Your Majesty is getting worse, I will go out to the land
 and bring a liver here immediately."
 The king is pleased.
 "How praiseworthy you are!
 Suit yourself."

세상에 나갔던 주부를 다시 불러,
“네, 여봐라, 주부야.
퇴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서
간을 주시거든 속히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여라.”

35. (별주부 애원) 별주부가 토끼의 배를 가르자고 용왕에게 애원하니, 토끼가 배를 가르라고 큰소리친다.

[창조] 어명을 내려노니,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토끼란 놈 본시¹¹⁸³ 간사하와,¹¹⁸⁴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내면 초목금수¹¹⁸⁵라도 비소¹¹⁸⁶할 것이요,
맹획¹¹⁸⁷을 칠종칠금¹¹⁸⁸허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의 배를 따 보옵시고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¹¹⁸⁹을 멸하여¹¹⁹⁰ 주옵시고,
소신을 능지처참¹¹⁹¹허드래도 여한¹¹⁹²이 없사오니,
당장의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 듣고 기가 맥혀,
“야, 요놈, 별주부야!
네 말이 모두 다 당참허다.¹¹⁹³
옛일을 모르느냐?
하걸¹¹⁹⁴이 학정¹¹⁹⁵으로 용봉¹¹⁹⁶을 살해해¹¹⁹⁷ 미구에¹¹⁹⁸ 망국이
되었으니,

The king calls Terrapin who has been to the land.
“Hello, Terrapin.
Take Mr. Hare to the land.
If he gives you a liver, bring it here quickly.”

35. (Terrapin’s Entreaty) Terrapin entreats the dragon king to open Hare’s belly. Hare boldly tells them to open his belly.

[Song Mode] The royal order is given.
[Jungjungmori] Terrapin speaks in tears.
Terrapin speaks in tears.
“A hare is originally a wicked animal.
If we don’t take the liver out of Hare’s belly now, grass, trees,
and animals will laugh at us.
I am not th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who captured and
released his enemy king seven times.
How will I be able to get Hare once we set him free?
Cut his belly open now. It would be good if a liver is in it.
If there is no liver, you can kill all of my family and relatives.
I will not resent you even if you chop my body into pieces.
Please cut Hare’s belly open immediately.”
Hare is struck dumb.
“Hey you villain. You bad terrapin!
All you said doesn’t make sense.
Don’t you know the old story?
An atrocious king in ancient times killed his good official, and
his country collapsed before long.

너도 이놈 내 배를 따서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헌 나의 목숨 너의 나라의 사귀¹¹⁹⁹⁾ 되어,
 너그¹²⁰⁰⁾ 용왕 십 년 살 데¹²⁰¹⁾ 하루도 못 살게 할 것이고,
 너희 수궁 만조백관¹²⁰²⁾을 한 날 한 시에 모도¹²⁰³⁾ 다 몰사¹²⁰⁴⁾시키
 리다.
 아나 옳다,¹²⁰⁵⁾ 배 갈라라!
 아나 옳다, 배 갈라!
 아나 옳다, 배 갈라라!
 똥밖에 든 것 없다.
 아나 옳다, 배 갈라라!”

36. (토끼 생환) 토끼가 별주부 등에 업혀 세상으로 나온다.

[아니리] 이놈이 어떻게 아그리 붙여놓았던지¹²⁰⁶⁾ 용왕이 그만 영 떨
 어졌든가¹²⁰⁷⁾ 보드라.
 “네 여봐라, 주부야.
 퇴공을 잠깐 꺾어보니
 그럴 바가 아니니,
 네 어서 퇴공을 모시고 나가서 간을 주시거든 꼭 가지고 들어와.
 그러하되 퇴공을 꼭 모시고 들어오도록 허여라.”
 왕명이 지중¹²⁰⁸⁾허니
 별주부 하릴없어¹²⁰⁹⁾
 퇴끼를 다리고 수변¹²¹⁰⁾으로 슬슬 내려오며, 퇴끼를 물그름허니¹²¹¹⁾
 바라보더니,

It would be nice if you open my belly and find a liver in it.
 If there is no liver in it,
 my poor soul will become an evil spirit of this country,
 your dragon king will die in a day, instead of living for 100
 years,
 and my evil spirit will massacre all the officials in the sea palace
 at one time.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Only shit is in my belly.
 Here you go. Open my belly!"

36. (Hare Returns Alive) Hare comes back to the land on Terrapin's back.

[Aniri] Hare is so eloquent that the dragon king is taken in
 completely.
 "Hello, Terrapin.
 I watched Mr. Hare for a while.
 He is not telling a lie.
 Take Mr. Hare to the land and bring his liver here without fail.
 Be sure to bring Mr. Hare back here."
 The king's order is grim.
 Terrapin has no choice.
 While Terrapin sets out for the beach slowly, he looks at Hare
 vacantly.

“너 이녀석 용케¹²¹² 살아가기는 간다마는,
 너 이놈 양심은 있을 것이다.”
 퇴끼를 다시 등에 업고 세상을 나가는디,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를 가자.
 이수¹²¹³를 지내어 백로주¹²¹⁴를 어서 가자.
 고국 산천을 바라보니 구름 밖에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허니
 부지하처조상군교?¹²¹⁵
 한 곳을 바라보니¹²¹⁶ 한 군자¹²¹⁷가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 쓰고
 문왈,¹²¹⁸ “퇴공은 하지지차허오?”¹²¹⁹
 토끼가 좋아라고,
 “회족청산허니
 관불과제관이요.
 탁족무림하니
 태불과봉황이라.
 소무지식하여
 유매평생이라.”¹²²⁰
 한 곳을 다다르니,
 오호창과연월야¹²²¹의 돛대를 치는 저 사공은 월범려¹²²² 이 아니드
 란 말이냐?
 함외장강공자류¹²²³는 등왕각¹²²⁴이 여기로고나.
[중중모리] 백로주¹²²⁵를 바빠 지내 적벽강¹²²⁶을 당도허니,
 소자침¹²²⁷ 범주유¹²²⁸로다.
 동산상¹²²⁹ 달 떠오고,
 두우간¹²³⁰에 왕래허여

“You are lucky to go back alive.
 You must have qualms of conscience.”
 Terrapin departs for the land with Hare on his back.
[Jinyangjo] Let’s go. Hurry.
 Let’s hurry up to the sandy island in a river.
 My country is below the blue sky far from here.
 The sun sets on the long sandy field, and a mountain with the
 autumn color is far from here.
 It is not clear where a tribute should be paid to the ancient
 queen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place where a scholar stands.
 He wears blue clothing and a black hat.
 He asks, “Mr. Hare, what brought you here?”
 Hare is pleased.
 “I came back to the green mountains.
 I can’t just pass by them because I missed them so much.
 They were not trodden upon by dirty feet.
 It is so peaceful that even a phoenix will not just go by them.
 I was not knowledgeable.
 I almost became a wandering ghost.”
 Hare and Terrapin reach a place.
 The boatman setting up a sail on a foggy blue lake in the
 moonlight must be an ancient politician.
 A river flows incessantly below a tower.
[Jungjungmori] Hare and Terrapin hurriedly pass by a sandy
 island and get to a river.
 An ancient poet amused himself on a boat in the river.
 The moon rises over a mountain in the east.
 The moon moves between the Big Dipper and the Herdsman.

백로횡강¹²³¹)을 함께 가자.
 소지노화월일선¹²³² 추강¹²³³ 어부가 빈 배.
 기경선자¹²³⁴ 간 연후에 공추월지단단¹²³⁵)이라.
 자래 등에다 저 반달 실코¹²³⁶)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¹²³⁷)
 원해근산¹²³⁸)이 여기라.
 기수¹²³⁹)로 돌아들 제
 어조¹²⁴⁰)허던 강태공¹²⁴¹)은 위수¹²⁴²)로 돌아들고,
 은린옥척¹²⁴³)뿐이라.
 벽해수변¹²⁴⁴)을 당도하여,
 깡깡 뛰어 내려 모르는 체하고 가는구나.

37. (토끼 별주부 조롱)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별주부를 욕하며 산 속으로 들어간다.

[아니래] 이 놈이 깡깡깡깡 뛰어가니,
 별주부 하도 얼척없어서¹²⁴⁵) 가던 퇴끼를 무뚜뚜름허니¹²⁴⁶) 바라보
 더니,
 “아, 여보시오, 퇴공!
 세상에 수로만리¹²⁴⁷)를 내 등에다 업어다 준 공을 생각드래도,
 그렇게 잘 가잔 말 한 마디 없이 가요?
 당신 거짓말 잘 허는 줄은 내 아니,
 그러지 말고 나 그 간 파리 대그뺨¹²⁴⁸)만치만 떼어주고 가시오.”
 가던 퇴끼가 화닥닥 돌아서더니 욕을 한 번 내썰려퍼붓는다,¹²⁴⁹)
 이놈이 욕도 그냥 허는 것이 아니라,

A white heron crosses a river.
With a smile, the heron points to a boat loaded with white reed
flowers and moonlight.
After a god flew up on a whale, there is nothing but the full
moon in the sky.
Put that half moon on Terrapin's back.
Let's hurry to my hometown.
Let's enjoy watching the bright moon in mountains.
It is good that mountains are close and the sea is far.
Hare and Terrapin reach a river.
An ancient politician fished in a tributary of this river.
There are large shiny fishes.
Hare and Terrapin arrive at a blue beach.
Hare jumps down and goes off without saying anything.

**37. (Hare Mocks Terrapin.) After arriving in the land,
Hare curses Terrapin and goes to the mountain.**

[Aniri] Hare goes off.
Struck dumb, Terrapin vacantly watches Hare going.
“Hello, Mr. Hare!
I traveled a long distance on the sea with you on my back.
How can you go off without saying anything?
I know you are good at telling a lie.
Please go after you give me just a little bit of your liver.”
Hare turns around swiftly and curses Terrapin.
He does not speak a curse word in a ordinary way.

경드름제¹²⁵⁰)로 막 썰러퍼붓것다.

[중모리] “에유, 천하에¹²⁵¹ 발기를 갈 녀석.¹²⁵²)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냐?

미련허드라. 미련허드라. 너의 용왕이 미련허드라.

너그¹²⁵³) 용왕 실겁기¹²⁵⁴) 날갯고,¹²⁵⁵) 내 미련키 너의 용왕 갓고보
면 영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밑궁기¹²⁵⁶) 서이¹²⁵⁷) 아니었드라면, 내 목숨이 어찌 살어서 올거나?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¹²⁵⁸)으로 내 돌아간다.”

**38. (토끼 그물에 걸림) 그물에 걸려 죽게 된 토끼가 쉬파
리들에게 쉬를 슬어달라고 부탁하자, 쉬파리가 사람의
내력을 이르며 사람의 손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
한다.**

[아니리] 이래놓고¹²⁵⁹) 그냥 갔으면 헐 텐디,

이놈이 욕을 다시 한 번 퍼붓는다,

“네 요 숭헌¹²⁶⁰) 보추때기 없는¹²⁶¹) 호로자식¹²⁶²)갓으니라고.

내가 네 소행을 생각허면은,

옴폭헌¹²⁶³) 바우¹²⁶⁴) 틈에 너를 탁 썰러엮어놓고,¹²⁶⁵)

내 뒷발로 네 복판¹²⁶⁶)을 팍 썰리뵈아서,¹²⁶⁷)

네 복판 부서지는 소리가 칠팔월 대목장날¹²⁶⁸) 꼭 옹구짐¹²⁶⁹) 부서지
는 소리가 나게 맨들¹²⁷⁰) 터이로되,

내가 원청¹²⁷¹) 충성이 지극허¹²⁷²) 그릴 수는 없고,

내 수국 가서 보니 복쟁이¹²⁷³) 췌드라.¹²⁷⁴)

그놈을 하루에 꼭 일만오천 마리씩만 잡아서 큰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물은 은하수 물을 붓고,

He throws it at Terrapin in a fast rhythm.
[Jungmori] “You are a villain to be torn apart to death.
How can I take my liver in and out of my belly?
How stupid! How stupid! Your dragon king was stupid.
I would surely be dead now if your dragon king were as smart
as I, or if I were as foolish as your dragon king.
How would I come back alive if I didn’t have three holes in
my body?
I am going back to the green mountain covered with snow.”

**38. (Hare Gets Caught in a Net.) Caught in a net, Hare
asks flesh flies to lay eggs on him. The flesh flies
talk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 beings and
say that Hare cannot defeat them.**

[Aniri] Everything would have been all right if Hare had left after
cursing Terrapin.
Hare throws curse words at Terrapin again.
“You ugly, stupid, and shameless bastard.
Thinking about your behavior,
I feel like putting you face down on the concave part of the
rock,
and kicking you in the shell with my hind legs.
Your shell will be broken into pieces, making sounds, as if a
pot in a market before a big holiday were broken into pieces.
However, I won’t do that because you are loyal to your king.
I saw a lot of blowfish in the sea country.
Catch fifteen thousand blowfish a day and put them in a large
iron pot.
Pour water of the Milky Way in it.

번갯불에 바싹 고아서,¹²⁷⁵⁾
 그림자 수건으로 아드득 짜서
 먹여버려라.
 그러면 무슨 수판¹²⁷⁶⁾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안 듣거든,”
 이놈이 씨를 말리려고 그랬든가 몰라,
 “너그 수궁 간개¹²⁷⁷⁾ 암자래 이뻔¹²⁷⁸⁾ 놈 췌드라.¹²⁷⁹⁾
 요놈을 하루에 꼭 일만오천 마리씩만 잡아서 팍팍 고아서 그냥 처먹
 여버려라.
 그러면 돼지든지, 살든지 무신 수판이 생길 것이다.”
 그래 놓고, 이놈 퇴끼란 놈이 세상 나왔다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생방정¹²⁸⁰⁾을 떨고 있는데,
 별주부 하릴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퇴끼란 놈 생방정 떨다가,
 저 재 너머 둠병굴¹²⁸¹⁾ 양반이 오리 잡을라고 그물을 놔든가 보드라.
 이 오리 그물에 가서 퇴끼 뒷발이 딱 걸려노니,
 이놈이 인자¹²⁸²⁾ 날도 뛰도 못 허고 또 죽제.
 “아이고, 내가 또 죽네!
 차라리 수궁서 죽었으면, 정조¹²⁸³⁾ 한식¹²⁸⁴⁾ 단오¹²⁸⁵⁾ 추석 명절이라
 도 받아먹고,¹²⁸⁶⁾
 석비¹²⁸⁷⁾는 안 세워주어도, 썩은 고목나무 목비¹²⁸⁸⁾라도 세워줄 것인디,
 삼재팔난¹²⁸⁹⁾도 분수¹²⁹⁰⁾가 있지,
 이런 급살맞을¹²⁹¹⁾ 놈의 팔자가 어디가 있당가?”¹²⁹²⁾
 이렇게 자탄¹²⁹³⁾허고 있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쉬파리떼 한 뭉텅이¹²⁹⁴⁾가 웅당그르르르르르
 르¹²⁹⁵⁾허고 달려드니,

Boil them hard with lightning.
 Squeeze water out of the boiled blowfish with a shadow towel.
 Serve the water to your king.
 And something good will happen to your king.
 If that doesn't work."
 Hare intends to exterminate all terrapins.
 "I saw a lot of beautiful female terrapins in the sea palace.
 Catch fifteen thousand of them a day, cook them, and serve
 them to your king.
 And your king will die or something good will happen to him."
 After saying that, Hare jumps around joyously and flippantly
 because he came back alive.
 Terrapin cannot help going back to the sea palace.
 Hare acts frivolously.
 A man living in a village with a pond over a pass set up a net
 to catch ducks.
 Hare's hind legs are caught in the net.
 He can neither fly nor run, so he is bound to die.
 "I am bound to die again!
 If I had died in the sea palace, a ritual would be held for me
 every big holiday.
 They would build a rotten wood monument, if not a stone
 monument, for me.
 My bad fate cannot turn out this bad.
 My bad fate should die a sudden death."
 He laments over his lot.
 A group of flesh flies come to Hare fast.

“아이고, 쉬낭청¹²⁹⁶ 사촌들, 어디 갔다 인자¹²⁹⁷ 오시오?”

“오, 나 오늘 장날이라 어물전에 가서 요구¹²⁹⁸ 좀 허고 오ندي,
너 어찌다 이렇게 되었냐?”

“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해 용왕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 병을 좀 고쳐놓고 나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걸렸으니
살 도리가 없소.”

“너 못 살어.”

“아니, 못 살다니오?”

“사람의 손이라 하는 건 천지조화,¹²⁹⁹ 음양이치¹³⁰⁰를 가지고 있고,
오행팔괘법¹³⁰¹을 가지고 있느니라.”

“거, 오행팔괘가 무엇이다요?”¹³⁰²

“내 이를게 한 번 들어볼래?”

이놈의 쉬과리떼가 언제 그렇게 오행팔괘를 좇아배웠는지,¹³⁰³
해보는디,

[자진모리] “사람의 내력¹³⁰⁴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손이라 허는 건 엮어노면¹³⁰⁵ 하늘이요,

뒤세노면¹³⁰⁶ 땅인디,

요리저리 금¹³⁰⁷이 있기는 일월 다니는 길이요,

엄지손가락이 두 마디기는¹³⁰⁸ 천지인¹³⁰⁹ 삼재¹³¹⁰요,

집가락¹³¹¹이 장가락¹³¹²만 못허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이 그 중에 질기는¹³¹³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¹³¹⁴가락이 장가락만 못허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Flesh flies! My cousins! Where have you been?"

"Oh! I have been to a fish market. I relieved myself of hunger there.

How were you caught in the net?"

"Let me tell you how.

I went to the sea palace in the South Sea.

I cured the dragon king of his disease and left the sea palace.

I came back here.

I am caught in the net.

There is no possibility I will live."

"You will die."

"What makes you think so?"

"In a human hand, there are the wonders of heaven and earth, the principles of the negative and the positive, and the principles of fortunetelling."

"What are the principles of fortunetelling?"

"Let me tell you about them."

The flesh fly must have heard about the principles of fortunetelling.

He talks about them.

[Jajinmori] "Listen to my story about the background of humans.

The principles of heaven can be seen on the palm.

The principles of earth can be seen on the back of the hand.

The lines of the palm are the paths of the sun and the moon.

The two knuckles in the thumb stand for heaven, earth, and humans.

The index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signifi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The middle finger is the longest because it denotes April, May, and June.

The ring finger is shorter than the middle finger because it indicates July, August, and September.

소지¹³¹⁵)가 저릅고¹³¹⁶) 저릅기는 시월, 동지, 설달인디,
 자오묘유¹³¹⁷)가 여가¹³¹⁸) 있고,
 건감간진손이곤태¹³¹⁹) 선천팔괘¹³²⁰)가 여가 있고,
 불도¹³²¹)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¹³²²) 간상연,¹³²³) 여가¹³²⁴) 있고,
 육도기문¹³²⁵)에 대장경¹³²⁶)이라, 천지가 모도¹³²⁷) 일장중이라.¹³²⁸)
 네 아무리 피를 헌들¹³²⁹) 사람 손 하나 못 당허리라.
 두 말 말고 너 그냥 죽어버려라.”

39. (초동목수 신세타령) 토끼가 죽은 채하고 있을 때, 풀 베는 아이들이 신세타령을 하며 올라온다.

[아니리] “아니, 사람의 손이 그렇게 무섭기는 무섭소마는,
 내 몸뚱이에 쉬¹³³⁰)나 좀 몽땅 실어주시오.¹³³¹)
 그러면 내가 살 도리가 있소.”
 “아, 우리가 있는 것인개¹³³²) 몽땅 슬어주마.”
 수수백¹³³³) 마리가 달려들어서 퇴끼란 놈 귀 새,¹³³⁴) 눈 새, 코 새,
 주둥팽이¹³³⁵)같은 등속¹³³⁶)으로 몽땅 슬어놓고,
 저 밑에 내려가서 구성없는¹³³⁷) 데¹³³⁸)까지 몽땅 슬어놓았제.
 이놈이 쉬 한 짐 짊어지고 대랑대랑 달려¹³³⁹) 있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초동목수¹³⁴⁰) 아이들은 마찬가지라.
 때를 지어서 심심산곡¹³⁴¹)으로 나무를 가면서,
 신세타령을 허고 올라오는디,
 [중모리] “어이 가리 너,¹³⁴²) 위이 가리 너, 어이 가리 넘차 너화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낼 적으,¹³⁴³) 별로 후박¹³⁴⁴)은 없건만은,

The little finger is short because it means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The four directions are in the palm.

The eight direction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Buddhist principles used in fortunetelling are in the palm.

Even some Buddhist teachings about the world are in the palm.

However clever you might be, you can't beat a human hand.

Shut up and accept your death."

39.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Bewail Their Lot) While Hare pretends to be dead,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pproach him as they bewail their lot.

[Aniri] "Oh, a human hand is scary. It is really scary.

Please lay a lot of eggs on my body.

And I might escape from death."

"We have a lot of eggs. We can give you plenty."

Hundreds of flesh flies sit on Hare, laying a lot of eggs on his ears, eyes, nose, mouth, and so on.

The eggs cover all over Hare's body including his anus.

Hare hangs on the net with a lot of eggs on his body.

The past and present young grass-cutters and cow-herds are similar.

They go to deep valleys in a group to cut trees.

They come to Hare while lamenting over their lot.

[Jungmori] "Where should we go? Where should we go?

When God created humans, there was not much inequality.

우리놈의 팔자는 무삼너르¹³⁴⁵⁾ 팔자로서,
 날 곧 새면은 지게 갈퀴를 짊어지고 심심산곡이 웬일인가?
 여보아라, 친구들아.
 너는 이 꼴을 베고,
 나는 저 꼴을 베어
 떨어진 낙엽, 부러진 잡목을 굽고,
 베고, 엉뚱그려¹³⁴⁶⁾ 힘껏대로¹³⁴⁷⁾ 짊어져다
 위부모처자¹³⁴⁸⁾들을 극진공대¹³⁴⁹⁾를 하여 볼거나?
 어이 가리 넘자 너화로구나.”

40. (토끼 살아남) 토끼가 기지로 살아나서, 잘난 체하며 좋아한다.

[아니리] 이놈들이 한참 이렇게 재미있게 노래를 부르고 올라오니,
 제일로 앞에 온 놈이,
 “야, 이 자식들아! 거 신세타령 그만하고,
 저그¹³⁵⁰⁾ 가서 나무 갖다 모닥불 피워라.
 우리 저 놈 빼다 구워 묵고¹³⁵¹⁾ 가자.”
 그 총중¹³⁵²⁾에 여들없는¹³⁵³⁾ 놈이 징검징검¹³⁵⁴⁾ 건너오더니,
 얼른 빼서 들고 본개¹³⁵⁵⁾ 미끈덕한¹³⁵⁶⁾ 쉬를 몽땅 슬어놓았지.
 “아, 이놈의 것 쉬를 몽땅 슬어왔다.”
 그 통¹³⁵⁷⁾ 중에서 묵¹³⁵⁸⁾ 오관청¹³⁵⁹⁾으로 고자성음¹³⁶⁰⁾을 내던 이놈이,
 “야, 이 저석아. 거 쉬 슬었으면 썩었는가 냄새나 맡아봐라. 냄새나
 맡어봐.”
 아, 이놈을 퇴끼 대구리에다¹³⁶¹⁾ 냄새를 맡아봤으면 꼬습게¹³⁶²⁾ 구워
 묵고 갈 텐디,

But our fate is detestable,
If a day break, we wander around in deep valleys, carrying
A-frame carrier and rakes.
Hello, my friends.
You work in this valley.
I will work in that valley.
Let's rake fallen leaves and broken scrubs.
Let's cut down, wrap up, and carry as much as we can.
Let's support our parents, wives, and children as best as we can.
Where should we go?"

40. (Hare Survives) Wits save Hare, and he dances arrogantly and joyfully.

[Aniri] The boys come up to the mountain as they sing the song.
A boy in the front says,
"Hey boys! Stop singing the song.
Bring wood and make a bonfire.
Let's pull that hare off the net and roast it."
Of the boys, a naive-looking boy strides up to Hare.
He picks up Hare and sees it covered with slippery eggs.
"This thing is full of fly eggs."
Of the boys, one speaks in a loud and brusque voice.
"You fool. If it is covered with fly eggs, smell it and check
whether it is rotten or not."
If the boy had smelt Hare's head, they would have roasted it,
eaten it, and left.

그 날 그놈들이 식복¹³⁶³)이 없든가,
 퇴끼 궁텅이다¹³⁶⁴) 딱허니 코를 대고 싸근싸근¹³⁶⁵) 말아노니,
 이 께 많은 퇴끼가 그냥 말 수가 없제.
 삼년 묵은 도토리 방구를 시르르르르르허니 꾸어노니,
 시쑤.¹³⁶⁶)
 “이거 썩어도 여러 달 썩었는가 보다.”
 “내부러라,¹³⁶⁷) 이 저석아.¹³⁶⁸) 내부러.”¹³⁶⁹)
 휘딱¹³⁷⁰) 던져노니
 퇴끼 죽을 배 만무허고,¹³⁷¹)
 저 건네 금잔디밭에 가서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생방정¹³⁷²)을 떨고,
 진¹³⁷³) 귀를 탈탈 떨고,
 “야, 이놈들아. 내가 수궁 들어가서 남해 용왕도 내가 속이고 나왔는디,
 느그한테¹³⁷⁴) 죽을 성싶으냐?
 너그¹³⁷⁵) 나 못 먹어서 속 아프지?
 나 노는 구경 좀 헐래?”
[중중모레] “관대장자¹³⁷⁶) 한고조¹³⁷⁷) 국량¹³⁷⁸) 많기가 날만허며,¹³⁷⁹)
 신출귀몰¹³⁸⁰) 제갈량이 조화 많기가 날만허며,
 운주결승¹³⁸¹) 장자방¹³⁸²)이 의사¹³⁸³) 많기가 날만허랴?¹³⁸⁴)
 타향 수궁을 갔든 벗님이 고국산천을 찾아오니,
 어찌 이리 아니 좋을쏘냐?”
 요리로 깡쭙, 저리로 깡쭙, 깡쭙깡쭙 잘 논다.

They are not lucky to eat food today.
 The boy gets his nose close to Hare's ass and smells it hard.
 The smart Hare doesn't miss out on the opportunity.
 He slowly releases an acorn fart he has been holding back for three years.
 A sour smell spreads.
 "This thing must have been rotten for several months."
 "Throw it away. You fool. Throw it away."
 He throws Hare away.
 Hare escapes death.
 He jumps around frivolously on the golden grass distant from the boys.
 He brushes his long ears.
 "You villains. I fooled the dragon king of the South Sea and came back alive.
 Do you think I will die in your hands?
 Do you feel bad because you can't eat me?
 Do you want to watch me sing and dance?"
[Jungjungmori] "I am more broad-minded than a virtuous ancient king.
 I can work out more miracles than an elusive ancient military strategist.
 I have more ideas than an ancient military planner.
 I have been to the sea palace and came back to my country.
 How great this is!"
 Hare jumps around joyously.

41. (토끼 독수리에게 잡혔다 살아남)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독수리를 속이고 살아난다.

[아니리] 아, 여러 날 굶은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좋은 먹잇감 노는 걸 보고 그냥 말 수가 없제.

사정없이 그저 수루루루루루¹³⁸⁵)하고 달려드니,
토끼란 놈 대갈통¹³⁸⁶)을 두 발로 딱 집어가지고 훨훨 날아가는디,
“아이구, 내가 또 죽네!

아이고, 장군님. 나 어디서부터 잡술라요?”

“아, 시끄러, 이너르 저석아.¹³⁸⁷)

저 대그뻑¹³⁸⁸)에서부터 콕콕 좇아서¹³⁸⁹) 그냥 통창까장¹³⁹⁰) 다 묵어 버릴란다.”

“삼재팔난¹³⁹¹)도 분수¹³⁹²)가 있지,

이런 급살맛을¹³⁹³) 놈의 팔자가 어디가 있다는가?

아이고 장군님.

나 죽는 건 상관 없는디,

내가 좋은 의사춤치¹³⁹⁴)를 하나 갖다가 저 무주공산¹³⁹⁵)에다 더쳐두고,¹³⁹⁶)

소풍차¹³⁹⁷) 나왔다가 장군님한테 이렇게 들켰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야, 임마! 의사춤치가 뭇이여?”

꼭 잡것¹³⁹⁸)이 독수리 좋아하는 것만 갖고 말허던가 보드라.

“아, 그것을 한 귀통이를 탁 텅김서,¹³⁹⁹) ‘병아리 새끼나 오리 새끼나 나오니라’ 그러면은,

그저 일만오천 마리가 꾸역꾸역 나오고,

41. (Hare is Caught by an Eagle and Escapes.) Hare is caught by an eagle, but deceives the eagle and escapes from him.

[Aniri] An eagle who hasn't eaten for several days wouldn't leave the good prey having fun alone.

He mercilessly flies at Hare.

He swiftly grabs Hare's head with his legs and flies up.

"Alas. I am dying again!

General, which part of my body would you eat first?"

"Cut the noise out, bastard.

I will peck at your head first and all parts of your body, including the intestines."

"My bad fate cannot turn out this bad.

My bad fate should die a sudden death.

Oh, general.

I don't mind my dying.

I got Wish-Granting Bag and left it in the empty mountain over there.

I was out on a picnic when you caught me.

What should I do?"

"You rat! What is Wish-Granting Bag?"

Being a smart scoundrel, Hare speaks only about what an eagle likes.

"Hit a corner of Wish-Granting Bag and say 'Come out chicks or ducklings.'

Fifteen thousand of them will come out continuously.

또 한 귀퉁이를 톡 톡김서, ‘썩은 개 창시¹⁴⁰⁰)나 뒤야지¹⁴⁰¹) 창시나
좀 나오니라’ 그러면

그저 수수백¹⁴⁰²) 보¹⁴⁰³)가 꾸역꾸역 나오는

이런 보물을 무주공산에 더져두고 내가 죽으니,

그것이 원통해서 그러요.”

독수리란 놈이 가만히 생각해본개,¹⁴⁰⁴)

퇴끼 그놈 한 마리 먹으면 한 때 요기¹⁴⁰⁵)밖에 안 되는데,

그놈을 지가¹⁴⁰⁶) 딱허니¹⁴⁰⁷) 뺏아가면은 일년 삼백육십일 하나도 그
리울¹⁴⁰⁸) 것이 없어.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내가 너 살려 줄게 그것 줄래?”

“아이구, 장군님. 그러시오, 그러.

아, 내가 그것 뭇힐 것이오?

나한테는 소용 없는 것인다.”

“어디 있냐?”

“저그¹⁴⁰⁹) 저그 저 저 반석¹⁴¹⁰) 틈에 움푹헌¹⁴¹¹) 굴 속에다가 넣어놔
소.”

“그러면 가자, 이 녀석.”

훅훅 달고 바우 앞에다 딱 놓고,

“어서 내갓고 오니라.”

“장군님. 나를 막 놓으라고 하면 장군님이 나를 못 믿어.

그렇게¹⁴¹²) 나를 딱 내려놓고, 내 뒷다리를 잡고

내가 ‘노시오,¹⁴¹³) 노시오’ 하면 투전판¹⁴¹⁴) 죄이득기¹⁴¹⁵) 뽀도독¹⁴¹⁶)

뽀도독 죄아서¹⁴¹⁷) 놓으시오.

그러면 내갓고 나오리다.”

“그래. 아, 어서 갓고 나오니라.”

“쫓끔 더 노시오.”

Hit another corner of it and say 'Come out, rotten dog's intestines or pig's intestines.'

And hundreds of them will come out continuously.

I am dying, leaving this marvelous treasure in an empty mountain.

How sad this is!"

The eagle ponders for a moment.

This hare is just a one time meal.

If he takes the bag from Hare, he will want nothing more three hundred sixty days a year.

"You villain. I will set you free. Will you give it to me?"

"General, suit yourself.

The bag is of no use to me.

It is a useless thing to me."

"Where is it?"

"It is on a concave part of a burrow under the wide and flat rock over there."

"Let's go. You rat."

The eagle holds Hare and flies to the rock.

"Bring the bag out immediately."

"General, you don't release me because you don't trust me.

So put me on the ground and hold my hind leg.

If I say, 'Release me,' please release me little by little while you hold my hind leg tight.

Then, I will bring the bag out."

"Good. Bring it out right away."

"Release me a little more."

"You villain. Bring it out now. I am hungry."

"Release me a little more."

“아, 이놈아, 어서 갖고 나와. 시장해 죽겠어.”

“아, 쪼끔만 더 노시오.”

퇴끼 뒷발목 딱 걸리지 않게 발로 탁 차버리고 쪽 들어가부렀제.¹⁴¹⁸⁾

“아, 이리 와. 어서 갖고 와.”

“내가 뭇허로¹⁴¹⁹⁾ 거그¹⁴²⁰⁾ 나가겠냐?

인자¹⁴²¹⁾ 안 나가제.”

“너 이놈 내일도 안 나올래?”

“내가 뭇허로 나갈 것이냐?

인자 늙은 몸이 몸 보신¹⁴²²⁾이나 허고,

우리 손자나 보고 놀란다.”

이래노니,

독수리란 놈 혈 수 없이 그놈한테 속은 줄 짐작허고 날아가는디,

42. (후일담) 독수리는 날아가고, 용왕은 병이 낫고, 토끼는 산중에서 늙도록 살아간다.

[엇중모리] 독수리란 놈은 그제야¹⁴²³⁾ 돌린¹⁴²⁴⁾ 줄 알고 훨훨 날아가고,

토끼는 그 산중에 완전히¹⁴²⁵⁾ 늙었으니,

그 뒤야 뉘 알겠느냐?

넌실넌실.¹⁴²⁶⁾

Hare kicks the eagle, getting him off the eagle, and goes deep inside.

“Come out. Bring the bag out.”

“What would I go out there for?

I won’t come out now.”

“You villain. Won’t you come out by tomorrow?”

“I have no reason to leave here.

Being old, I will take care of myself.

I will kill time, taking care of my grandchildren.”

So Hare says.

The eagle flies away, having realized that he is fooled by Hare.

42. (Subsequent Story) The eagle flies away. The dragon king gets cured. Hare grows old in mountain.

[Eotjungmori] The eagle flies away, having finally realized that he was fooled by Hare.

Hare clearly grows old in the mountain.

Who knows what happens thereafter?

Let me finish.

- 1) 仲夏月. 한여름에 해당하는 음력 오월을 가리키는 말.
- 2) 靈德殿. 궁전 이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 속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영덕전' 앞에 '남해 광리왕이'를 넣어야 함.
- 3) 四海. 동서남북의 네 바다. 곧, 모든 바다.
- 4) 數三日. 여러 삼일. 여러 날.
- 5) 腹中에. 배속에.
- 6) 過한. 지나친. 심한.
- 7) 살지.
- 8) 自歎. 스스로 탄식함.
- 9) 榻床. 걸상이나 침대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 10) 두드리며.
- 11) 天無熱風. 하늘에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음.
- 12) 海不揚波.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음. 중국 주나라 성왕 때, 성왕이 어려서 섭정을 맡은 주공이 나라를 잘 다스리므로, 바다에 큰 파도가 일지 않고 나라가 평화로웠다는 데서 비롯되어, 성인이 나서 나라가 태평스러움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음.
- 13) 奇軀로되. 기이한 몸이지만.
- 14) 醫藥 萬歲. 의약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름이 높음.
- 15) 神農氏.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으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약초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6) 華佗.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 약제의 조제, 침술, 뜸질에 두루 통했으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을 쓰기도 했다고 함. 조조의 병을 치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오지 않자, 조조의 노여움을 사 죽임을 당했음.
- 17) 扁鵲. 이름은 진월인(秦越人). 중국 전국 시대의 의학자. 명의로서 전설적 명성을 남겼으며, 그의 저서라고 하는 의서가 많음.
- 18) 老越人. 늙은 월나라 사람. 곧, 편작.
- 19) 手段. 여기서는 신농씨, 화타, 편작의 능력이나 솜씨를 가리킴.
- 20) 어찌할 수 없구나.
- 21) 玄雲. 검은 구름.
- 22) 黑雲. 검은 구름.
- 23) 飄風細雨. 회오리바람이 불고 가는 비가 내림.
- 24) 青衣道士. 푸른 옷을 입은 도사.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학창의'와 연결지어 보면, '선의(仙衣) 도사'로 해야 함. '선의 도사'는 신선의 옷을 입은 도사.
- 25) 鶴氅衣. 옛날 옷옷의 한 가지로, 뒷술기가 터지고 소매가 넓으며,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광을 넓게 대었음.
- 26) 再拜而進曰. 두 번 절하고 나와 말하기를.
- 27) 弱水三千里. 삼천 리나 되는 약수.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강물로, 곤륜산에서 시작하여 여국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는 2,700리이며, 부력이 약하여 기러기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28) 白雲 瑤池宴. 흰 구름 속의 요지에서 열리는 잔치. ‘요지’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인 서왕모가 산다고 하는, 곤륜산에 있다는 연못.
- 29) 千年碧桃. 천 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신선 세계의 복숭아. 반도(蟠桃).
- 30) 寡弱風便. 매우 약한 소문.
- 31) 萬萬危重타기로. 매우 위태하고 심하다고 하기로.
- 32) 반가와 하시어.
- 33) 遑遑한.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지둥하는.
- 34) 特效之藥. 특효약.
- 35) 脈. 손목이나 발목의 맥박.
- 36) 肝脈. 간에 있는 핏줄.
- 37) 驚動하여. (뜻밖의 일에) 놀라서 움직여.
- 38) 腹中. 배속.
- 39) 肝經陰火. 간장에 붙은 신경 계통에 열이 부족하여 생기는 병.
- 40) 論之하면. 따져 말하면.
- 41) 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42) 靈砂. 수은을 고아서 결정체로 만든 약재.
- 43) 狗砂. 구보(狗寶). 병든 개의 쓸개에 들어 있는 황. 구황(狗黃)이라고도 함.
- 44) 熊膽. 곰 쓸개.
- 45) 蒼朮. 한약재로 쓰는 삼주(영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의 멍치지 않은 뿌리. 백출보다 땀을 내는 힘이 강하여 소화기를 범한 외감(外感).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병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감기.)을 푸는 데 많이 씀.
- 46) 白朮. 삼주의 양파처럼 덩어리진 뿌리.
- 47) 蘇葉. 차조기(꿀풀과에 딸린 한해살이풀)의 잎. 성질이 따뜻하여 땀을 내며 속을 조화시키는 약재로 씀.
- 48) 防風. 방풍나물의 딸린 뿌리. 고뿔, 풍병 등에 약으로 씀. 방풍나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세해살이풀.
- 49) ‘진피(陳皮)’의 잘못된 듯. ‘진피’는 오래 묵은 귤껍질로, 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약효가 있음.
- 50) 陳皮. 오래 묵은 귤껍질로, 위를 튼튼하게 하고, 땀을 내게 하는 약효가 있음.
- 51) 半夏. 천남성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땅속에 등근 뿌리가 있으며, 꽃줄기는 높이 30cm 안팎임. 등근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담, 구토, 습증, 해수 등에 쓰임.
- 52)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 53) 丹砂. 주사(朱砂).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한약재로 사용함.
- 54) 차전자(車前子). 이노제로 쓰이는 질경이의 씨앗.
- 55) 蓮實. 연꽃의 열매.
- 56) 當歸. 승검초의 뿌리.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피를 돕는 약으로 쓰임. 강장제, 진정 제로도 쓰임.
- 57) 川芎.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뿌리를 약으로 씀.

- 58) 羌活. 미나리과에 딸린 두해, 세해살이풀. 깊은 산골짜기에 절로 나는데, 그 뿌리를 해열 및 진통제로 씀.
- 59) 獨活. 한약재의 한 가지로, 땀두릅의 뿌리. 감기나 습증으로 팔다리의 근육이 쭈시고 아픈 데에 씀.
- 60) 柴胡. 미나리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 그 뿌리를 발한, 해열제로 씀.
- 61) 前胡. 한약재의 한 가지로, 바디나물의 뿌리. 성질이 약간 차며, 외감에서 오는 두통·담·해소·해열 따위에 씀.
- 62) 木通.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 또는 말린 뿌리의 목질부. 성질은 차고, 임질과 부증(몸이 통통하게 붓는 병)에 쓰임.
- 63) 加味六君子湯. 보혈제로 쓰이는 탕약.
- 64) 清暑六和湯. 더위에 상한 심장을 다스리는 데 쓰는 탕약.
- 65) 二元益氣湯. 내장을 다스리며 기력을 다스리는 탕약.
- 66) 清風補陰湯. 보음탕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보음탕'은 인삼, 백작약, 숙지황 따위를 넣어서 만드는 탕약으로 노인이나 허약자의 요통, 신경통 따위에 쓴다.
- 67) '백사(白蛇)'가 '흰 뱀'이므로 흰 뱀을 넣고 끓인 탕인 듯하나 불명.
- 68) 八味湯. 육미탕에 육계와 부자를 더한 약으로 정력을 돕는 데 쓰임.
- 69) 六味湯. 숙지황·산약·산수유·백복령·목단피·택사 따위로 된 가장 흔히 쓰는 보약.
- 70) 五加湯. 오가피나무의 껍질을 끓인 탕약.
- 71) 四物湯. (주로 아이들이나 여자에게) 보혈로 쓰이는 탕약. 숙지황·백작약·천궁·당귀를 각각 같은 양으로 넣어서 지음.
- 72) 百草藥. 온갖 풀로 지은 약.
- 73) 塵世山間. 인간이 사는 세상의 산 속.
- 74) 千年兔肝. 천 년 된 토끼의 간.
- 75) 同姓. 성씨가 같음.
- 76) 강님도령.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
- 77) 外四寸. 외삼촌의 아들이나 딸.
- 78) 身死離魂. 몸이 죽어 혼이 떠남.
- 79) 누를 황(黃), 샘 천(泉), 돌아갈 귀(歸)하시겠소.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겠다는 말.
- 80) 龍王은 辰이요. 용은 십이지(十二支)에서 진이요. 辰은 십이지의 하나로 용을 나타내기 때문임.
- 81) 토끼는 卯라. 토끼는 십이지의 묘임. 卯는 십이지의 하나로 토끼를 나타냄.
- 82) 卯乙巽은 陰木이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묘와 십간의 을은 오행으로는 목(木)에 속하는데, 팔괘의 손(巽)이 소음(少陰)이므로, 셋이 합하여 음의 목이 된다.
- 83) 辰辰戌은 陽土요. 주역의 점술법에 의하면, 십이지의 진과 십간의 술은 오행의 토(土)에 해당되는데, 팔괘의 간은 소양(少陽)이므로 셋이 합하여 양의 토가 된다는 말.
- 84) 辰辰巳山은 元屬木이요. (점술이나 택일에 쓰이는 흥범 오행에) 진과 간과 사와 산은 원래 목에 속하고.
- 85) 甲寅辰戌은 大江水라. 십간과 십이지의 갑과 인과 진과 술은 큰 강의 기운을 나타낸다. 육십갑자 병납음(並納音)에는 '갑인을묘(甲寅乙卯) 대계수(大溪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의 잘못으로 생각됨.

- 86) 水生木하였으니. 오행으로 보았을 때, 용은 진이고, 진은 원래 목에 속하며, 토끼는 묘이고, 묘는 대계수에 속하므로, 상생이 되어 수생목이 된다는 말.
- 87) 어찌할 수 없으니.
- 88) 王曰. 왕이 말하기를.
- 89) 然하다. 그렇다.
- 90) 雖然이나. 비록 그러하지만.
- 91) 蒼茫한. 넓고 멀어서 아득한.
- 92) 塵世間的. 이 세상의.
- 93) 碧海의. 푸른 바다의.
- 94) 萬頃 밖에. 만 이랑이나 되게 넓은 푸른 바다 밖에.
- 95) 白雲이 九萬里요. '흰 구름이 구만리나 뻗어 있는 먼 곳이에요'라는 의미로 쓰였음.
- 96) 驪山 松栢.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섬서성에 있는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 97) 鬱鬱 蒼蒼의. '울울창창'은 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무성하여 푸른 모양. 따라서 여기서는 '울울창창한 속에'로 해야 옳음.
- 98) 三千古墳이 皇帝墓인데. 3천 개나 되는 옛 무덤이 황제의 묘인데. 곧 황제도 죽어 무덤이 그렇게 많다는 말.
- 99) 짐승은.
- 100) 海外. 바다 밖. 곧, 육지.
- 101) 日月의. 해와 달의. 여기서는 '해와 달이 있는'이라는 뜻.
- 102) 無定處로. 정한 곳 없이. 정처 없이.
- 103) 是非 없이. 본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없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가리지 않고'라는 의미 정도로 쓰였음.
- 104) 없습니다.
- 105) 聖德. 훌륭한 덕.
- 106) 成功之臣. 성공할 신하.
- 107) 因忽不見. 갑자기 보이지 않음.
- 108) 그때에서야.
- 109) 謝禮. 감사의 예를 올림.
- 110) 水府朝廷. 물을 다스리는 조정.
- 111)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신하.
- 112) 令. 명령.
- 113) 명령을 내려 놓으니.
- 114) 같다고 하면.
- 115) 一品. 옛날 벼슬아치의 최고 급수인데, 무관과 문관의 구별이 있고, 종일품과 정일품이 있다.
- 116) 宰相님네. 재상님들.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 117) 等物들이. 여러 사물들이.

- 118) 얻어가지고.
- 119) 可觀. 구경거리가 될 만함. 꼴 보기 좋음.
- 120) 丞相. 옛날 중국의 벼슬인데, 우리 나라의 정승에 해당한다.
- 121) 承旨.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던 정삼품의 벼슬아치.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관.
- 122) 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역사 자료를 기록하던 정7품 벼슬.
- 123) 오징어.
- 124) 한림학사(翰林學士). 조선시대 예문관에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보던 정9품 벼슬.
- 125) '박죽상어'인 듯. '박죽상어'는 중간 크기의 상어를 말함.
- 126) 大司成.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3품.
- 127)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15~26cm에 입이 큼.
- 128)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 129) 해운공(蟹運公). 방개가 떠다니는 모습이 배와 같으므로 해운(海運)에서 바다 '해'자와 음이 같은 방개 '해(蟹)'자를 써서 만들어본 말임.
- 130) 물방개. 곤충의 일종으로 몸은 평평한 타원형이고, 길이 30~40mm이며, 몸빛은 흑갈색에 녹색 광택이 남. 뒷다리는 길고 크며, 털이 많고, 물 속을 헤엄쳐 다님.
- 131) 兵使. 병마절도사.
- 132) 海狗. 물개.
- 133) 曹部將. 부장 벼슬의 초기. '조기'의 '조'자를 성으로 하여 만든 말임. 부장은 조선시대 종6품의 무관 벼슬.
- 134) 조기.
- 135) 비변랑(備邊郞). 낭청(郞聽)이라고도 하는, 나라 안팎의 군사기밀을 다루던 종6품 벼슬.
- 136) '달강어'의 방언.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는 크고 검은데, 등은 고운 주홍빛을 띤 바닷물고기.
- 137) 성대. 몸길이 40cm 안팎으로 가늘고 길며, 주둥이가 뾰족하고 몸빛이 붉은 바닷물고기.
- 138) 청가오리. '청분'이라고도 함. 가오리의 한 종류로, 꼬리에 가시가 있음.
- 139) 좌우(左右) 나졸(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에 딸린 하급 병졸. 나졸은 맑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 체포를 담당했음.
- 140) 禁軍. 조선시대 금군청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말 탄 군사.
- 141) '송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송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142) 불명.
- 143) 누치. 잉어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잉어와 비슷하며, 몸길이는 20~30cm이나 큰 것은 50cm에 이름.
- 144) 伏地하고. 땅에 엎드리고.
- 145) 몸을 뒤로 조금 젖히고 멀찍이서.
- 146) 生鮮塵. 생선을 파는 가게.
- 147) 都物主.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밀친을 대어주고 장사를 시키는 우두머리.

- 148) ‘경’은 임금의 신하를 가리키는 데 쓰는 말.
- 149) 左右魚頭鬼面之卒. 좌우에 있는 물고기 머리에 귀신 얼굴을 한 병졸. 곧 어중이떠중이, 지리지 못난이들.
- 150) 面面相顧. 서로 얼굴만 쳐다봄.
- 151) 默默不答.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음.
- 152) ‘돌돌(咄咄)’을 강하게 발음한 것. ‘돌돌’은 괴이하게 여겨서 놀라는 모양.
- 153) 割股事君.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여 임금을 섬김. 춘추시대 진(晉)의 개자추는 문공(文公)이 조나라 망명시에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허벅지의 살을 베어 먹었다고 함.
- 154) 개자추(介子推). 춘추시대 진(晉)의 선비로 문공(文公)이 망명시에 19년을 모셨으나, 문공이 귀국 후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면산(綿山)에 숨어버렸는데, 후에 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불렀지만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나오도록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한식(寒食)날은 개자추가 타 죽은 날이라 하는데, 충신 개자추를 기려 불을 멀리하여 더운 음식을 먹지 않음.
- 155) 광초망신(誑楚亡身) 기신(紀信)이는. 초나라를 속이고 죽은 기신. ‘기신’은 한나라 고조 때 충신. 한 고조 유방이 하남성에서 초나라의 항우에게 포위되었을 때, 여자들에게 갑옷을 입혀 뒤를 따르게 한 뒤, 유방의 수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유방을 피신토록 하고 대신 죽었음.
- 156) 임금.
- 157) 누가.
- 158) 정언(正言) 벼슬을 하는 잉어. ‘정언’은 조선조 때 사간원(司諫院)에 딸린 벼슬. 정원은 2명이고, 품계는 정6품이었음.
- 159) 넓사웁고.
- 160)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꺾대기를 말함.
- 161) 모두.
- 162) 대모(玳瑁)인고로. 대모이기 때문에. ‘대모’는 바다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공예품이나 장식품의 고급 재료로 쓰임.
- 163) 玳瑁韃刀. 대모로 손잡이와 칼집을 만든 장도. ‘장도’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로, 주머니나 옷고름 따위에 차고 다니면서 주머니칼처럼 썼음.
- 164)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 살쩍을 망건 밑으로 밀어 넣는 데 쓰는 도구. ‘살쩍’은 귀 밑에 난 털.
- 165)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뜨는데,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턱이 졌음. 집안에서는 이것만 쓰기도 했음.
- 166) 탕건에 붙이는 장식물인 듯하나 불명.
- 167) 쥘쌔지의 끈까지. ‘쥘쌔지’는 담배를 넣어서 옷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쥘쌔지의 하나. 장방형(長方形)의 형식으로 한 쪽에만 넣을 자리가 있는데,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음. 혹, 끈을 달아 묶기도 함.
- 168) 守門將.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 169) 민물에 사는 메기.
- 170) 메기는.
- 171) 長鬚口大.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172) 好風身. 풍채가 좋음.
 173) 주둥이가.
 174)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들기 때문에’의 뜻.
 175) 시장기를 면할 재료.
 176)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177) 蓑笠. 도롱이나 삿갓.
 178) 漁翁. 고기 잡는 늙은이. 어부.
 179) 斜風細雨不須歸. 비스듬히 부는 바람과 가는 비에도 (세월을 잊고) 돌아갈 줄을 모름.
 당나라 시인 장지화(張志和)의 시 〈어부(漁夫)〉의 한 구절.
 180) 미끼.
 181) 食食. 먹을 것을 탐냄.
 182) 斷不饒貸.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숨에 꼼짝없이’라는 뜻.
 183) 腹疾. 배를 앓는 병.
 184) 배앓이.
 185) 海運公. 바다의 운송을 맡은 관리라는 뜻인데, 방개를 한자로 ‘해(蟹)’라고 하므로, 이와
 음이 같은 ‘해’ 자로 지어 붙인 관직 이름임.
 186) 臣.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일컫는 말.
 187) 靑林碧溪. 푸른 숲 속 푸른 시내.
 188) 山川水. 산 속의 작은 시내.
 189) 潛身하여. 몸을 잠그고.
 190)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
 191) 산중토(山中兔). 산 속의 토끼.
 192) 월중토(月中兔). 달 속의 토끼.
 193) 顔面. 서로 얼굴이나 알만한 친분.
 194) 小臣. 신하가 임금에게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95) 개이 집게발을 가리킴.
 196) 단단하고 질기거나 반드러운 물건을 되게 문지를 때 나는 소리.
 197) 大王前에. 대왕 앞에.
 198) 臣. 신하.
 199) 蚌僉使. 내시부의 종3품 벼슬인 첨사 벼슬을 가진 조개. 조개를 의인화한 표현.
 200) 어떠한가?
 201) 鐵甲. 쇠붙이를 겹에 붙여 만든 갑옷.
 202) 防身制度는. 제 몸을 지키는 방법은.
 203) 觀蚌鷸之勢하고 坐收漁人之功이라. 홀조(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으며 싸
 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어부가 둘 다 손쉽게 잡는다는 뜻으로, 둘이서 다투다
 가 마침내는 엉뚱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말함.
 204) 鷸鳥. 도요새.
 205)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 할 도리 없이.

- 206) 公論. 일반의 공통된 의견.
- 207) 未決할 적에. 아직 결정하지 못할 적에.
- 208) 靈德殿. 남해 용왕인 광리왕(廣利王)이 지었다는 궁전. 명나라 사람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옴.
- 209) 隱目短足. 눈이 작고 다리가 짧음.
- 210) 長頸鳥喙. 목이 길고,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와 같음.
- 211) 虎胸背. 호랑이를 수놓아 무관의 관복의 배와 등에 붙이던 천조각.
- 212) 자라의 등껍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213) 鞠躬再拜. 몸을 굽혀 두 번 절함.
- 214) 上疏. 임금에게 올리는 글.
- 215) 鼈主簿. 주부 벼슬의 자라. 자라를 의인화한 표현.
- 216) 珍味. (음식의) 아주 좋은 맛.
- 217) 手足. 손과 발. 여기서는 네 다리.
- 218) 잘하여.
- 219) 逢弊. 폐해를 당하는 일.
- 220) 本是. 본디. 사물이 전하여 내려온 그 처음.
- 221) 海中之所生. 바다 속에서 태어남.
- 222) 畫像. 그림으로 그린 초상.
- 223) 그것일랑은.
- 224) 李謫仙. 이태백을 귀양온 신선이라는 뜻으로 이태백을 가리키는 말.
- 225) 그리던.
- 226) 화공(畫工)의 잘못.
- 227) 洞庭琉璃青紅硯. 동정호의 유리창(琉璃廠)에서 나는 푸른 색과 붉은 색이 나는 고운 벼루.
- 228) 錦水秋波.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여기서는 '금수추파를 담은'으로 해야 함.
- 229) 거북 硯滴. 거북 모양을 한 벼루물을 담는 그릇.
- 230) 兩頭畫筆. 양 쪽에 화필이 달린 붓.
- 231) 덩석. 무엇을 넣음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 232) 丹青 彩色. 붉고 푸른 여러 가지 빛깔.
- 233) 天下名山. 온 세상의 이름난 산.
- 234) 勝地江山. 경치 좋은 강산.
- 235) 景概. 경치.
- 236) 지저귀어 울 제.
- 237) 봉래산(蓬萊山). 중국에서 상상하던 삼신산(三神山). 신선이 산다는 세 산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산)의 하나.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238) 방장산(方丈山). 삼신산의 하나.
- 239) 雲霧. 구름과 안개.
- 240) 냄새.

- 241) 온갖.
 242) 香草. 향기나는 풀.
 243) 萬化方暢花林中. 봄이 되어 온갖 사물이 한창 피어나는 꽃수풀 속.
 244) 白雪江山. 흰 눈 내린 강산.
 245) 추운.
 246) 防風하던. 바람을 막아주던.
 247) (입술이나 귀 따위를) 뻣뻣하게 치켜세우거나 뽀족이 내미는 모양.
 248) 동글동글함.
 249) 늘씬. 미끈하게 긴 모양.
 250) 꼬리.
 251) 뭉뚱. 끝이 짧고 무딘 모양.
 252) 녹수(綠水)인데. 푸른 물인데.
 253)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254) 조금 휘어져 굽은.
 255) 長松. 키가 큰 소나무.
 256) 楊柳. 버드나무.
 257) 들락날락. 연거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258) 엉거주춤.
 259) 畵中兔. 그림 속의 토끼.
 260) 얼른.
 261) 그려 놓으니.
 262) 아미산월(峨眉山月)의 반륜토(半輪兔)가.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에 보이는 토끼가.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으로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이 구절은 이백의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의 첫 구절인 ‘아미산월반륜추(峨眉山月半輪秋)’의 변형임.
 263) 이에서. 이보다.
 264) ‘여기 있다.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265) 길게.
 266) 막창자. 맹장.
 267) 御前. 임금의 앞.
 268) 肅拜.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던 일.
 269) 本宅. 본집. 자기 가족이 있는 집.
 270) 大夫人.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일컫는 말.
 271) 자라 암컷.
 272) 만류하러.
 273) 瀟湘江. 孫아. 소상강에서 낳은 자손아.
 274) 長歎息.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함.
 275) 救患. 어려움에서 구함.
 276) 骨曝沙場. 죽어서 모래밭에 뼈가 드러남.
 277) 흩어져서.

- 278) 烏鳶. 까마귀와 솔개.
- 279) ‘후여’하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솔개를 소리를 질러 내쫓는 것을 말함.
- 280) 말인가?
- 281) 一日思親十二時로구나. 하루 열두 시를 부모님을 생각하는구나. 옛날에는 하루를 열두 시로 나누었기 때문에, 열두 시는 하루 종일을 뜻함. 이 구절은 〈적벽가〉에 있는 구절인데, 실수로 끼어든 듯함.
- 282) 十里長江. 폭이 십 리나 되는 큰 강. ‘장강’은 양자강을 가리키기도 함.
- 283) 潛身. 몸을 나타내지 아니함. 몸을 숨김.
- 284) 쇠꼬챙이.
- 285) 魚腹에 葬事가 된 然後에.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를 지낸 후에. 물고기의 밥이 된 후에. 굴원의 〈어부사〉에 있는 ‘차라리 물고기의 뱃속에 장사지낼 지언정……’이라는 구절을 이용한 표현.
- 286) 白骨安葬. 뼈를 편안히 장사지냄.
- 287)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아니함.
- 288) 여기서는 나랏님, 곧 임금을 말함.
- 289) 患候. 어른의 병.
- 290) 奉命. 명을 받듦.
- 291) 水路萬里. 물길 만 리. 멀고 먼 물길.
- 292)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했구나.
- 293) 堂上의. 당상에 계시는. ‘당상’은 늙은 부모가 거처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
- 294) 白髮 母親. 머리가 허엿게 늙으신 어머니.
- 295) 기체후(氣體侯). 웃어른께 문안을 드릴 때 쓰는 존댓말로, ‘기력과 몸의 상태’라는 뜻.
- 296) 흰 남생이. ‘남생이’는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불룩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297) 불명. 여기서는 ‘추근대다’는 의미로 쓴 듯함.
- 298) 누린내.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기의 냄새.
- 299) 고소한 냄새.
- 300) 비린내.
- 301) 냄새.
- 302) 微物 짐승. 하찮은 짐승.
- 303) 세차게 마구. 또는 무리하게 힘을 들여서.
- 304) 水晶宮. 용궁의 이름.
- 305) 杲杲天邊一輪紅. 동틀 무렵 하늘가에 떠 있는 붉은 해.
- 306) 扶桑. 해가 돋는 곳, 혹은 그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307) 暘谷. 해가 돋는 골짜기.
- 308) 자욱하게 긴.
- 309) 月峰으로.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 310) '예장촌(豫章村)'의 잘못된 듯. 중국 회남과 강북의 경계에 있는 마을.
- 311) '회안봉(回雁峯)'의 잘못. '회안봉'은 중국 호남성에 있는 형산의 으뜸가는 봉우리. 기러기가 겨울에 이곳까지 왔다가, 봄이 되면 북으로 간다 해서 붙은 이름.
- 312) 蘆花. 갈대꽃.
- 313) 浮萍. 개구리밥과에 딸린 물풀.
- 314) 魚龍. 물고기류를 통틀어 일컫는 말.
- 315) 잠을 자려고 하는 새. '자고새'로 볼 수도 있는데, '자고'는 꿩과에 딸린 작은 새로, 모양은 메추라기와 비슷하나 조금 큼.
- 316) 동정여천파시추(洞庭如天波始秋). 하늘처럼 맑고 넓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알린다.
- 317) 金聲秋波. 가을바람 소리와 물결소리.
- 318) 碧波. 푸른 물결.
- 319) 滄浪. 맑은 물결.
- 320) 작은 동작으로 느리게 걷거나 가는 모양.
- 321) 등실.
- 322) 地廣. 땅 넓이.
- 323) 波光. 물 빛갈.
- 324) 天一色인데. 하늘과 같은 색깔인데.
- 325) 天外巫山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326) 海外瀟湘. 바다 멀리까지 뻗은 소장강.
- 327) (동정호를 중심으로) 오나라는 동쪽으로, 초나라는 남쪽으로 넓게 자리잡았고, (호수에는) 이 세상이 밤낮 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두보의 시 〈등악양루(登岳陽樓)〉의 한 구절로, 원문은 '오초동남탁(吳楚東南坼) 건곤일야부(乾坤日夜浮)'이다.
- 328) 南薰殿. 순임금이 짓고 살았다는 궁전.
- 329) 五絃琴. 줄이 다섯 개가 있는 옛날 중국의 현악기로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함.
- 330) 洛浦. 낙수 강가에 있는 포구. 낙수의 북쪽에 낙양이 있는데, 낙양에서 무관은 하루나 이틀 걸리는 거리임.
- 331) '무관수(武關四)'의 잘못. '무관수'는 무관에 갇힌 사람, 곧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 소왕이 초나라 회왕을 무관에서 만나자고 속여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 332) 楚懷王.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고 한 말을 믿고 갔다가 잡히고 말았음. 진나라는 회왕을 무관에 가둔 뒤 낙양으로 쳐들어갔음. 굴원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입은 것이 이때임.
- 333) 冤魂.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 334) 藏身하여. 몸을 숨기어.
- 335) 千峰萬壑.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336) 萬鏡臺.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불명.
- 337) 鶴仙.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
- 338) 七寶山. 중국 안휘성 무위현에 있는 산.

- 339) 崑蘆峯. 산봉우리 이름.
- 340) 稽山罷霧鬱嵯峨. 안개가 걷히니 계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당나라 시인 하지장의 〈채련곡(採蓮曲)〉의 일절.
- 341) 층층(層層). 층층으로.
- 342) 鏡水無風也自波. 거울같이 맑은 물이 바람도 없이 저절로 물결이 일다.
- 343) 萬山. 수많은 산. 모든 산.
- 344) ‘울울(鬱鬱)’을 표현한 말인 듯. ‘울울’은 나무가 뻥뻥이 우거진 모양.
- 345) 가볍게 물 위에 떠내려가는 모양.
- 346) 落落. 가지가 늘어진 모양.
- 347) (가로 퍼진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넓적하거나 평평하게 널찍한.
- 348) 몽뚝한 다래나무.
- 349) 칠평굴.
- 350) 으뜸덩굴.
- 351) 온갖.
- 352) 구부러져.
- 353) 白鷗. 갈매기.
- 354) 奔飛. 이리저리 날아다님.
- 355) 새의 일종인 듯하나 불명.
- 356) 江上. 강물 위의.
- 357) 때로 다니는 고니.
- 358) 少昊天子 紀官하던. ‘소호천자가 벼슬의 이름에 새의 이름을 붙이던 때와 같은 태평성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소호천자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소호 금천씨(金天氏). ‘소호 금천씨’는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현원씨(軒轅氏)의 아들로, 황제의 위에 오르자 봉황이 날아와 춤을 추었으므로 관직 이름에 새이름을 붙였다고 함.
- 359) 萬壽門前의. 만수문 앞의.
- 360) 洋洋滄波點點動. 넓고넓은 바다 물결에 점점이 떠서 움직이다.
- 361)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 362) 烏鵲이. 까마귀와 까치.
- 363) 녀새. 기러기와 비슷하나 몸이 크고 부리가 짧음.
- 364) 징경이. 물수리라고도 하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 365) 새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 366) 이리저리.
- 367) 景概. 경치.
- 368) 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 369) 白沙之場. 흰 모래사장.
- 370) 狂風. 사나운 바람.
- 371) 千里 시내는. 천리나 될 정도로 긴 시내는.
- 372)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약하게 흐르는 소리.
- 373) 한 곳으로.

- 374) 합수(合水)저. 물이 합쳐져.
 375)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376) 거품이 일어.
 377) 병풍석(屏風石). 병풍처럼 생긴 바위.
 378) 때려.
 379) 大海水中. 큰 바다 물 가운데로.
 380) 거품.
 381) 술 식혀 등이 괴어 끓어오르는 모양. 여기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모양을 표현한 것임.
 382) 물결이 자꾸 흔들리는 모양.
 383) 뒤틀려서 우그러져서.
 384) 어느 곳으로.
 385) 여기로구나.
 386) 隱身. 몸을 숨김.
 387) 저희끼리.
 388) 上座 다툼.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
 389) 可觀. 구경거리로 될 만함.
 390) 舜 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
 391) 南薰殿.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
 392) 순임금이 탔다는 줄이 다섯인 비파.
 393) 蕭蕭鬼聲. 쓸쓸한 귀신 소리.
 394) 岐山. 주나라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단보가 도읍을 삼은 곳.
 395) 鬱鬱하여. ‘울울’은 나무가 매우 배게 들어서 무성함. 여기서는 ‘매우 융성하여’라는 의미로 쓰였음.
 396) 周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이며, 무왕은 은나라 폭군 주(紂)를 치고, 천하를 통일하여 주나라를 세웠음.
 397) 萬古大聖. 세상에 다시 그 유례가 없는 대 성인.
 398) 孔夫子.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399) 길. 사람의 키만한 길이.
 400) 飢不啄粟.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음.
 401) 瀛洲山. 신선이 산다는 중국의 삼신산의 하나.
 402) 瀟湘斑竹. 중국 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무늬가 있는 대.
 403) 눈구멍. 눈을 속되게 이르는 말.
 404) 검은 창. 검은 자위. 눈알의 검은 부분.
 405) 越王 句踐.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을 했음. 그 후 명신 범려와 와신상담(臥薪嘗膽) 20년에 마침내 부차를 죽여 회계의 치욕을 씻고, 패자(霸者)가 되었음.
 406) 彷彿하고. 비슷하고.
 407) 山陰. 중국의 지명.

- 408) 王羲之(307?-365?). 중국 동진(東晉)의 서예가. 자는 일소(逸少). 그의 전아하고 힘차며 품위 있는 서풍은 일찍부터 안팎의 존경을 받았음.
- 409) 洗硯池. 벼루를 씻은 연못.
- 410) 생긴.
- 411)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412) 船遊. 배를 타고 놀.
- 413) 南飛. 남쪽으로 날아감.
- 414) 三國興亡. 위·오·촉 세 나라의 흥망.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지은 시 〈단가행(短歌行)〉의 “月明星稀 烏鵲南飛 遶樹三匝 無枝可依(달은 맑고 별은 희미한 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 하나 없다.)”를 두고 한 말임. 〈단가행〉은 패하여 도망칠 유비를 조롱하여 지은 것임.
- 415) 反哺恩. 까마귀의 새끼가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잡아다 주어, 길러준 은혜를 갚는 일.
- 416)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417) 슬프구나.
- 418) 心性.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
- 419) 不測하여. 미리 헤아릴 수 없어서. 엉금하고 껄뻘하여.
- 420) 나무에.
- 421) 動할 제. 움직이게 할 때.
- 422) ‘鳥飛梨落’을 가리킴. ‘오비이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 423) 罪狀. 죄의 구체적인 사실.
- 424) 저희끼리.
- 425) 길짐승.
- 426) 孔夫子. 공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
- 427) 作春秋에. 《춘추》를 지을 적에. 《춘추》는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
- 428) 絕筆. 붓을 놓고 글쓰기를 그만둠.
- 429) 공자가 《춘추》를 엮을 적에, “노나라 애공이 사냥을 가서 …… 기린을 잡다(획린(獲麟))”라는 구절로 끝을 낸 데서 나온 말임. ‘획린’은 절필, 혹은 임종의 뜻으로 쓰임.
- 430) 三軍三營. ‘삼군’은 군대의 좌익, 우익, 중군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삼영’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
- 431) 舉動時. 임금님이 나들이를 할 때에.
- 432) 天子 玉輦. 임금이 타고 다니는 수레.
- 433) 玉京仙宮.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의 벼슬아치. ‘옥경’은 도교에서 옥황상제가 있는 곳.
- 434) 乘匹. 타고 다님.
- 435) 西伯. 주나라의 문왕.
- 436)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437) 非熊非豹.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님.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기에 앞서 짐을 쳤는데,

-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임금을 모실 훌륭한 신하를 만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는데, 이 점괘대로 문왕은 위수 북쪽에서 강태공을 만났음.
- 438) 滄海 博浪沙의 狙擊始皇. (장량(張良)이) 창해군을 만나 (사람을 얻어) 박랑사에서 진 상황을 습격함.
- 439) 다람쥐.
- 440) 江水東流猿夜聲. 강물은 하염없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원숭이만 밤에 구슬피 운다. 이태백의 시 <양양가(襄陽歌)>의 한 구절.
- 441) 원숭이.
- 442) 승냥이. 이리와 비슷한 산짐승.
- 443) 등등의 것들이.
- 444) 年年이. 해마다.
- 445) 會聚하여. 모여서.
- 446) 못쓸 것이네.
- 447) 금년부터는.
- 448) 獐都監. '도감 벼슬을 하는 노루'라는 뜻으로, 노루를 의인화한 표현.
- 449) 나이를.
- 450) 센다고 하면.
- 451)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 452) 나와.
- 453) 獐把摠. '파총 벼슬을 하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너구리를 의인화한 표현임.
- 454) 銅雀臺. 조조가 위나라 수도 업도에 세운 누대.
- 455) 二喬女. 중국 삼국시대에 강동에 살던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가리키는데, 매우 예뻐했다고 한다.
- 456) 銅雀臺賦 韻하던. <동작대부>를 읊던. <동작대부>는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자건(曹子建)이 지은 시.
- 457) 曹孟德. 조조. '맹덕'은 그의 자(字).
- 458) 年甲. 동갑. 나이가 같음.
- 459) 멧돼지.
- 460) 거스러미 눈. '거스러미'는 나무의 결 같은 것이 얇게 터져서 일어난, 가시처럼 된 부분. '거스러미 눈'은 멧돼지의 눈썹이 가시처럼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일컫는 말임.
- 461) 저낭청(猪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돼지'라는 뜻으로, 돼지를 의인화한 표현.
- 462) 나이를.
- 463) 匈奴國. 흉노족이 세운 나라. '흉노'는 기원 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몽고 지방에서 세력을 떨쳤던 유목민족.
- 464) 주린 忠節 十九年에 首髮이 盡白하여. 굶주리면서 충성스런 절개를 지킨 지 19년 만에 머리털이 모두 희어져.
- 465) 허위적허위적. (벗어나거나 헤어나려고)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유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 466) 蘇中郎. 중랑장 벼슬의 소무(蘇武). '소무'는 한나라 때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잡혀서,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충절을 지키다, 19년만에 백발 노인이 되어

- 돌아왔음.
- 467) 兎仙君. '신선 토끼'라는 뜻으로, 토끼를 의인화한 표현.
- 468) 漢 光武. 한나라 광무제. 후한을 세운 유수(劉秀).
- 469) 시절에.
- 470) 諫議大夫. 중국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정치의 득실을 논하던 벼슬아치.
- 471) 뜰구름.
- 472) 차일(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 473) 동강(桐江) 칠리탄(七里灘). 중국 절강성 동로현에 있는 여울. 한나라 때 엄광(嚴光)이 여기서 낚시질을 하였다고 함.
- 474) 始釣하던. 낚시질을 시작하던.
- 475) 嚴子陵. 이름은 광(光)이고, 자릉은 그의 자(字)임. 후한을 세운 유수와 어려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후에 유수가 광무제가 되어 간의대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숨어 살았음.
- 476) 急煞맛을. 갑작스럽게 죽을.
- 477) 산골짜기.
- 478) 軍器銃. 군대에서 병기로 쓰는 총.
- 479) 괴듯이.
- 480) 절끔절끔. 액체 따위가 조금씩 자꾸 새어 흐르거나 나왔다 그쳤다 하는 모양.
- 481) 이제.
- 482) 너희끼리.
- 483) 요기(療飢).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484) 자식들.
- 485) 너희들이.
- 486) 이놈들.
- 487) 混沌未分 太極初에. 우주가 생겨서 혼돈이 아직 태극으로 나뉘어지기 전의 태초에.
- 488) 가없이. 끝없이.
- 489) 넓은.
- 490) 鑛石. 쇠붙이를 유리하게 채취할 수 있는 광물이나 또는 그 집합체.
- 491) 女媧氏. '여왜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동생으로, 복희씨 다음으로 임금이 되었는데, 제후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하늘 한 쪽이 부서져서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자, 돌을 다듬어 부서진 곳을 메우고, 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방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 492) 저희끼리.
- 493) 거기를.
- 494) 들어 있을 법하거든.
- 495) 내려올.
- 496) 영겁결.
- 497) 얼룩덜룩하고.
- 498) 바둑점 박힌 것. 바둑처럼 검은 점과 흰 점이 섞여 박힌 것.
- 499) 바위.

- 500) 반겨.
 501) 내려오는데.
 502) 하나.
 503) 松林. 소나무 숲.
 504) 깊은.
 505) 골짜기로.
 506) 짐승이.
 507) 잠두(蠶頭). 보통 산의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특 불거진 모양을 가리킴.
 508) 얼룩덜룩.
 509) 두 팔을 벌려서 편 거리.
 510) 활과 화살을 넣어 등에 메는 기구.
 511) 箭筒. 화살을 넣는 통.
 512) 날을 세운 낫.
 513) 嚴冬雪寒. 눈 내리는 아주 추운 겨울.
 514) 白雪格으로. 흰 눈처럼.
 515) 흩어 뿌리며.
 516) 뒤집혀 넘어지고.
 517) 움츠리고.
 518) 얹드려.
 519) 둥글고 평평한 판.
 520) 부쳐 놓은.
 521) 부꾸미, 찹쌀·밀·수수 등의 가루를 반죽하여 번철(지짐질을 하는 데 쓰는 무쇠 그릇)에 지진 음식.
 522) 고소한 냄새.
 523) 그릇 따위의 밑바닥에 붙은 나지막한 받침.
 524) 이것이.
 525) 한 가운데.
 526) 그냥.
 527) 상대자를 얹잡아 부르는 말.
 528)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529) 名色. 어떠한 명목으로 불리는 이름.
 530) 자라탕.
 531) 맛있는.
 532) 珍味. 음식의 아주 좋은 맛. 또는 그런 맛이 나는 음식.
 533) 불에 태워.
 534) 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535) 內腫. 내장에 난 부스럼.
 536) 血痰. 피가 섞여 나오는 가래.

- 537)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538)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539) 욕의 한 가지.
- 540) 東醫寶鑑.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한 데 모아 편찬한 조선조 때의 으뜸가는 의서. 조선조 선조 30년(1597) 허준이 왕명으로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됨.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 정연한 책으로 총 4권 2책, 활자본.
- 541) 悖術. 사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는 술수.
- 542)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 543) 거기는.
- 544) 이크. 몹시 놀랐을 때에 갑자기 지르는 소리.
- 545) 길이의 단위로,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 546) 거기는. 당신은.
- 547)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548)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549) 鼯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550) 職品. 벼슬의 품계.
- 551) 수월치 않게. 상당히.
- 552) (비교적 큰 동작으로) 몸의 일부를 내밀었다가 갑자기 오그려 들여보내는 동작을 반복하기.
- 553) 끝에 거죽이 덮인 어른의 자지. 포경.
- 554) 頽落. (건물 따위가) 무너지고 떨어짐.
- 555) 間. 건축물에서 사방 일곱 자(약 210cm) 내지 아홉 자(약 270cm) 평방의 넓이를 이르는 단위.
- 556) 지붕 위를 뒹다.
- 557) 내려오다가.
- 558)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559) 정해져 있는 것.
- 560) 도랑귀신. 도랑은 '작은 개울'이므로, '작은 개울에 있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쓴 듯. 자라는 민물 물고기이므로 도랑과 연관을 지은 것임.
- 561) 거기에.
- 562) 匕首劍. 날카로운 단도.
- 563) 낫젓가락. 낫쇠로 만든 젓가락.
- 564) 들입다. 계속 세차게.
- 565) 지명인 듯하나 불명. '관문'의 의미로 보기도 함.
- 566) 흰 남생이. '남생이'는 남생이과에 딸린, 민물에 사는 파충류. 거북과 비슷하나 작으며,

등은 평평하며 매우 굳은 딱지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볼록한 줄이 꼬리 쪽에서 목에까지 이어졌음. 길이는 18cm 가량이고, 등딱지는 흑갈색, 배딱지는 누름.

- 567) 거기에서.
568) ‘의주 두만강’은 ‘의주 압록강’이라고 해야 옳음.
569) 山神之靈物. 산신령과 같은 신령스러운 것.
570) 變化. 술법을 써서 제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함.
571) 山神祭.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
572) 溪邊楊柳. 시냇가의 버드나무.
573) 盤松가지. 키가 작고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게 자란 소나무의 가지.
574) 작고 단단한 쇠붙이나 나무 등이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
575) 진토(塵土). 먼지와 흙.
576) 巖床. 상처럼 생긴 바위.
577) 祭板(祭板). 제물을 차려놓는 상.
578) 面紙. 제사 때 제사상 위에 까는 종이.
579)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580) 魚東肉西.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581) 紅東白西. 붉은 과실은 동쪽에, 흰 과실은 서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582) 左脯右醢.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 제사상 차림법.
583)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584) 같다고 한다면.
585) 維歲次.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 말.
586) 上天日月. 하늘에 있는 해와 달.
587) 神靈님前. 신령님들 앞에. 신령님들께.
588) 偶然得病. 우연히 병을 얻음.
589) 仙醫道士. 신선 세계의 의사와 도사.
590) 問病. 앓는 사람을 찾아보고 위로함.
591) 中山. 깊은 산 속.
592) 許給. 요구하거나 베풀어 달라는 대로 허락하여 줌.
593) 千萬祝手. 천만 번 축수함. 천만 번 두 손 모아 빌.
594) 常事.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떳떳한 일이라는 뜻으로 《예기》에 나오는 말. 제문이나 축문의 끝에 상투어로 씀.
595) 尙饗. 신명이 제물을 받아 드시기를 비는 말. 흠향하시옵소서.
596) 동글동글.
597) 미끈하게 긴 모양.
598) 뭉뚝. 끝이 짧고 무딘 모양.
599) 綠水. 푸른 물.
600) 畫像.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
601) 山中甕. 산 속의 토끼.
602) 畫中甕. 그림 속의 토끼.

- 603) 반겨. 반가와하며.
- 604) 누구가. 누가.
- 605) 箕山. 중국 하남성에 있는 산. 요 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숨어 산 곳.
- 606) 潁水.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강.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허유가 못 들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귀를 씻은 곳.
- 607) 巢父. 중국 요임금 때의 고사(高士). 속세를 떠나서 산의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임.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함.
- 608) 許由. 중국 요임금 때의 은사(隱士).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고, 도리어 못 들은 말을 들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영수에서 귀를 씻었다고 함.
- 609) 避世가자고. 세상을 피해 숨자고.
- 610) 玩月長醉. 달을 즐기면서 늘 술에 취해 있음.
- 611) 太白. 당나라 현종 때 시인인 이태백.
- 612) 騎鯨上天.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이태백은 신선이 되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함.
- 613) 桃花流水. 흐르는 물 위에 뜬 복숭아꽃.
- 614) 武陵.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園記)>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별천지. <도화원기>에 복숭아꽃잎이 흘러오는 곳으로 거슬러 가니 별천지가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도화유수 무릉 가는’이라는 표현이 가능함.
- 615) 舉酒屬客. 술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는 사람.
- 616) 此山中 雲深한데 不知處 오신 손님. 당나라 때 시인 가도(賈島)의 시 <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에 나오는 ‘지재차산중(只在此山中) 운심부지처(雲甚不知處)(이 산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구름이 깊어서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의 변형임.
- 617) 누구이기에.
- 618) 百花深處一僧歸라, 春風石橋花林에. 온갖 꽃이 피어 있는 곳에 한 중이 돌아온다, 꽃수풀 속 봄바람 부는 돌다리에. 김만중이 지은 <구운몽>에서 성진이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을 다녀오다가, 온갖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돌다리에서 여덟 선녀를 만나게 된 일을 가리킨 것임.
- 619) 性眞. <구운몽>의 남자 주인공의 천상계에서의 이름.
- 620) 和尚. 중을 높여 부르는 말.
- 621) 緣分.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622) 깡충깡충하면서.
- 623) 盤石. 넓고 편편한 큰 돌.
- 624) 덩굴엮겠다.
- 625) 들이받아 놓은.
- 626) 누구라고 하시는데.
- 627) 초면(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 628) 通姓名.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줌.
- 629) 典獄主簿. 감옥 일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 630) 功臣. (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

- 631) 鼃나리. 자라를 의인화하여 부른 이름. ‘나리’는 아랫사람이 당하관(堂下官)을 높여 부르던 말.
- 632)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633) 月兔일러니. 달 속의 토끼이더니(토끼인데).
- 634) 搗藥酒. 약초를 넣어 빻은 술.
- 635) 大醉하여. 크게 취하여.
- 636) 長生藥. 먹으면 오래 산다는 약.
- 637) 謫下重山. (하늘에서) 깊은 산으로 귀양을 음.
- 638) 名色. 어떤 부류에 넣어 부르는 이름.
- 639) 含笑曰. 웃음을 머금고 말하기를.
- 640) 尊銜. 남의 이름을 높여 이르는 말.
- 641) ‘하상견지만만 무고불측(何相見之晚晚無故不測)’의 잘못된 듯. 이렇게 늦게서야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음.
- 642) 美人美色.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 643) 데리고.
- 644) 萬歲同樂.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즐겁.
- 645) 無雙이나. 더없이 좋으나.
- 646) 綠水青山. 푸른 물과 푸른 산. 곧, 자연.
- 647) 日暮黃昏. 날이 저무는 황혼.
- 648) 月出東嶺. 동쪽 산봉우리에 달이 뜸.
- 649) 靑林碧溪. 푸른 숲과 푸른 시내.
- 650) 山果木實. 산에서 나는 과일과 나무 열매.
- 651) 甘食. 달게 먹음. 맛있게 먹음.
- 652) 身如浮雲. 몸이 뜬구름과 같음. 곧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돈다는 뜻.
- 653) 玩景. 경치를 즐길.
- 654) 廬山. 중국 강서성 북부에 있는 지명. 여산의 동남쪽에 오로봉(五老峯)이 있음.
- 655) 오로봉(五老峯). 여산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다섯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유래하였다고 함.
- 656) 鎮國名山. 나라의 서울이나 성 뒤에 자리잡은 나라의 운수가 매여 있는 산.
- 657) 萬丈峰. 높이가 만 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
- 658) 天外巫山十二峯. 하늘 높이 솟은 무산의 열두 봉우리. 무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며, 무(巫)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함.
- 659) 三山이며. ‘삼산’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660) 중국에서 높은 산으로 일컬어지는 다섯 산인 오악(五嶽)을 가리킨 듯한. ‘오악’은 동악(東嶽) 태산(泰山, 산둥성에 있음), 서악 화산(華山, 섬서성에 있음), 남악 형산(衡山, 호남성에 있음), 북악 향산(恆山, 산서성에 있음), 중악 숭산(嵩山, 직례성에 있음)을 이름. 따라서 ‘영산’은 ‘형산’의 잘못된.

- 661) 萬壑千峰.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
- 662) 九月山.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에 있는 산.
- 663) 삼각산(三角山). ‘북한산’의 다른 이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른다.
- 664) 계룡산(鷄龍山). 충청남도에 있는 산 이름.
- 665) 蛾眉山. 중국 사천성 서부에 있는 산. 중국 4대 명산의 하나임.
- 666) 首陽山. 중국 산서성의 남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백이와 숙제가 여기서 굶어 죽었음.
- 667) 모두.
- 668) 瀛洲 三山峰에. 영주산의 삼산 봉우리에. ‘삼산’은 중국에서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세 산. 동쪽 바다 가운데 있어 신선이 살며,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함.
- 669) 緩緩히. 천천히.
- 670) 落照景. 해가 지는 광경.
- 671)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672) 日出景을. 해 뜨는 경치를.
- 673) 眼下에. 눈 아래에.
- 674) 森列하니. 뻣뻣히 늘어서니. 여기서는 ‘뻣뻣이 늘어선 것을 바라보이니’라는 뜻.
- 675) 登泰山小天下.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는 말로, 《맹자》에 나옴.
- 676) 공자를 높여 일컫는 말.
- 677) 大觀. 천하를 한 눈에 훑어 봄.
- 678) 玩月. 달을 바라보면서 구경함.
- 679) 遊山. 산으로 놀러 다님.
- 680) 江山風景 興味間에. 강산 풍경의 흥미를 즐기는 중에.
- 681) 赤松子. 중국의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682)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683) 놀았습니다.
- 684) 塵世. 불교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일컫는 말.
- 685) 火亡煞氣.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686) 初面에. 처음 얼굴을 대하는데.
- 687) 一介 寒毳. 한 마리의 보잘 것 없는 토끼.
- 688) 三春九秋. 봄 석 달과 가을 석 달.
- 689) 大寒. 24절기 중의 마지막 절후. 양력 1월 21일 경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임.
- 690) 嚴冬. 아주 추운 겨울.
- 691) 雪寒風.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추위.
- 692) 萬壑. 수많은 골짜기.
- 693) 千峰. 수많은 산봉우리.
- 694) 花草木實. 꽃, 풀, 나무열매.
- 695) 鸚鵡鴛鴦. 앵무새와 원앙새.

- 696) 끊어졌다.
- 697) 던진 듯이. 내던져진 듯이.
- 698) 楚懷王.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 진나라의 소왕(昭王)이 회왕을 무관(武關)에서 만나자고 해놓고는 회왕을 잡아 가두었으며, 회왕은 진나라에서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때 굴원은 회왕이 무관에 가면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진언하였으나, 회왕의 아들 자란(子蘭)이 가도록 권하여 결국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 699) 日月苦楚北海上 蘇中郎. 흉노 땅의 북해(카스피해)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는 한나라의 소무(蘇武). 소무는 흉노땅에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갇은 고생 끝에 19년만에 늘어 돌아옴. ‘중랑’은 소무가 중랑장이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
- 700) 三冬. 겨울 석 달.
- 701) 碧桃紅杏. 복숭아꽃과 붉은 살구꽃.
- 702) 春二月. 봄 2월달.
- 703) 空腹. 배속.
- 704) 深山窮谷. 깊은 산 속 깊은 골짜기.
- 705) 올가미.
- 706) 엄착귀.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덫.
- 707) 峰峰이. 산봉우리마다.
- 708) 매를 받쳐 들고 있는.
- 709) 鷹師. 매사냥꾼. 고려, 조선 시대에 매사냥을 위해 응방이라는 기관을 두었는데, 그곳에 소속된 매사냥꾼을 응사라고 하였음.
- 710) 結項致死. 목이 졸려 죽음.
- 711) 祭需.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이나 음식.
- 712) 대가리. ‘머리’의 속된 표현.
- 713) 독수리.
- 714) 기슭으로. 산기슭으로.
- 715) 불명. 혹 ‘음산(陰森)골’이라면, 나무가 우거져 어두침침한 골짜기.
- 716) 지쳐서 힘들게 뛰어가는 모양.
- 717) 짐승등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소리.
- 718) 매사냥에서 매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왈치’ 혹은 ‘수할치’라고도 한다.
- 719) 海東靑. 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색깔이 푸른 매.
- 720) 그 해에 잔 새끼 매로, 길이 잘 든 매. 가슴의 깃이 보라색임.
- 721) 불명. ‘빼깃은 가벼운 새의 깃털로 만들기 때문에, ‘두루미의 깃털’을 가리킬 수도 있음.
- 722) 빼깃. 닭이나 기러기 깃에다가 각을 붙인 것. ‘각’은 ‘시치미’라고도 하는데, 매가 날아가 버렸을 때 매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매의 꼬리에다 주인의 주소와 이름, 매의 이름을 적어 달아두는 꼬리표.
- 723) 孔雀羽. 공작의 깃털. 공작의 깃털로 장식을 만들어 매의 꼬리에 단다.
- 724) 불명.
- 725) ‘바까치’는 매의 발목을 맨 가죽끈. ‘도래’는 매의 발목을 묶은 바까치와 장스치를 연결하는 쇠고리. 회전이 자유스러워 줄이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음. ‘장스치’는 도래

- 에 연결된 가죽 줄.
- 726) 덩그렇게. 높이 솟아 당당하게.
- 727) 兩眉間. 두 눈썹 사이.
- 728) 머릿골이 있는 부분.
- 729) 거기.
- 730) 있나요?
- 731) 중턱.
- 732) 松下에. 소나무 밑에.
- 733) 불을 놓으려고. 총을 쏘려고.
- 734) 불을 차리는. 총을 쏘 준비를 하는.
- 735) 都拍手. 포수 중의 우두머리.
- 736)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풀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 737)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입는, 풀을 꿇은 적삼.
- 738) 불명. 혹 '상사(相思) 밤을'로 보아, '토끼를 생각하며 지새는 밤을'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함.
- 739) 倭物. 일본 물건.
- 740) 鳥銃. 구식 화승총의 옛 이름.
- 741) 덮사슬. 이중 탄환.
- 742) 고추같은.
- 743) 여기서는 불을 붙인다는 뜻.
- 744) 쟁그리고.
- 745) 불명. '징구리'는 '정수리'가 아닌가 생각됨. '정수리'는 머리 위 한가운데. '징구리 보고'를 '쟁그려 보고'로 해석하기도 함.
- 746) 내려가지.
- 747)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와 목동.
- 748) 둘러메고.
- 749) '서로 부르며'의 뜻인 듯하나 분명치 않음.
- 750) 개를 부르는 말.
- 751) 후드득. 의성어.
- 752) 술칭 앞에 서서 마시는 술.
- 753) 樵軍. 나무꾼.
- 754) 肝腸. 마음.
- 755) 白登七日困困 漢太祖 肝腸. 백등이라는 곳에서 흉노에게 포위 당해 7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나라 태조의 마음. 기원 전 200년 흉노가 한나라에 침입해 왔는데, 이 때 한 고조 유방은 친히 3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에 나섰다가, 흉노의 모돈선우(冒頓單于)의 40만의 군사에 의해 백등에서 포위당하였다. 7일이 지난 후에 진평이 밀사를 보내어 모돈에게 뇌물을 주어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
- 756) 赤壁江上火陣中の. 적벽강 불 속의. 조조가 적벽강에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 불로 공격을 당해 대패했음. '적벽강'은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으로,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757)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자(字).
- 758) 層巖絶壁. 바위가 층층이 쌓인 높은 절벽.
- 759) 石間. 돌 사이. 바위 사이.
- 760) 짧은.
- 761) 사타구니에.
- 762) 끼고.
- 763)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양.
- 764) 콧구멍.
- 765) 쓴 냄새. 힘든 일을 표현하는 말.
- 766) 밑구멍.
- 767) 조충을 쏘니.
- 768) 八難.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란.
- 769) 朝生暮死. 아침에는 살아 있으나, 저녁에는 죽음.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를 가리키는 말.
- 770) 景況(景況).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으로써 일어나는 흥취.
- 771) 景況. 정신적, 시간적 여유나 형편.
- 772) ‘거짓말’의 낮춤말.
- 773) 泰平行樂. 태평한 가운데 삶을 즐겁게 보냄.
- 774) 火亡煞氣. 불에 의해 죽게 될 모질고 독한 기운.
- 775) 范蠡.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 776) 種. 월나라의 대부(大夫). 오나라를 멸망시킨 후 범려가 벼슬을 사직하면서 대부 종에게 편지를 보내, 월나라 왕의 인상을 보니 환난을 같이 할 수는 있으나, 안락을 같이 할 수는 없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벼슬을 사직하지 않는냐고 했다. 이에 종은 아프다고 핑계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았는데, 종이 반란을 꾀한다는 참소를 받아 결국 죽고 말았다. 여기서는 이를 가리킨다.
- 777) 剷徹. 한신의 신하.
- 778) 終身 冤魂. 죽을 때에 원통하게 죽은 영혼.
- 779) 韓信. 한나라 때의 장군. 한 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 건국에 공이 컸으나, 후에 모반을 꾀한다는 참소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 때 한신이, “나는 일찍이 독립하라고 한 괴철의 계획을 쓰지 않았다가 죽는다.”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이런 사정을 가리킨다.
- 780) 觀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그의 운명·수명·길흉·성질 등을 판단하는 일.
- 781) 魚族. 물고기 부류.
- 782) 무슨.
- 783) 朱欄畫閣. 단청 칠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민 누각.
- 784) 기둥.
- 785) 원주형으로 다듬어 만든 주추. 둥근 기둥 밑에 받침.

- 786) 間. 집에서 넓이를 재는 단위로, 대개 일곱 자(210cm) 평방, 또는 여덟 자(240cm) 평방, 아홉 자(270cm) 평방을 이룸.
- 787) 玳瑁. 바다거북의 등껍질.
- 788) 쇠붙이로 만든 돈이나 가마니, 먹서리 따위와 같은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
- 789)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 790) 擁衛. 부축하여 호위함.
- 791) 千賓玉盤. 천 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넓은 옥쟁반.
- 792) 麒麟脯. 기린의 고기를 얇게 저며서 양념하여 말린 고기.
- 793)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794) 鸚鵡盃.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잔.
- 79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맛 좋은 술.
- 796) 善政.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
- 797) 擊壤歌. 요임금 시절에 늙은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워하며 땅을 치면서 부른 노래. 그 내용은, ‘일출이작(日出而作) 일입이식(日入而息) 착정이음(鑿井而飲) 경전이식(耕田而食) 제력우아하유재(帝力于我何有在)(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자면 쉰다네. 우물과 물 마시고, 논밭 갈아 밥 먹는다. 황제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 있으리?)’이다.
- 798) 벗어난. 뛰어난.
- 799) 風骨. 풍채와 골격.
- 800) 美人美色.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 801) 데리고.
- 802) 萬歲同樂. 오랜 오래 즐거움을 함께 누림.
- 803) ‘당’하는 총소리를 가리킴.
- 804) 앙금앙금.
- 805) 遠路水邊. 물가 까지의 먼 길.
- 806) 오나.
- 807) 어떤 직책을 받아 활동하러.
- 808) 착실하거나 미덥지 않은.
- 809) 碌碌한. 보잘 것 없는.
- 810) 古人. 옛 사람.
- 811) 토사호비(兔死狐悲).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
- 812) 巖穴. 바위 굴.
- 813) 길들이고. 여기서는 ‘보급자리를 꾸미고 살다’는 뜻.
- 814) 林泉. 숲 속에 있는 샘. 변하여 자연을 뜻하기도 함.
- 815) 風月. 청풍(淸風, 맑은 바람)과 명월. 곧, 자연의 아름다움.
- 816) 同性 삼아 同氣相通. 여기서 ‘동성’은 ‘같은 부류’의 의미로 쓰임. ‘동기상통’은 같은 종류끼리 서로 통합.
- 817) 危邦不入.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음.
- 818)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819) ‘탄환이 하나로 된 총알’을 가리킨 말인 듯.

- 820) 잘 나가는.
- 821) 노루 사냥.
- 822) 불명. '징구리'는 '정수리'가 아닌가 생각됨. '정수리'는 머리 위 한가운데. '징구리 보고'를 '쨍그려 보고'로 해석하기도 함.
- 823) 萬歲同樂. 오래오래 같이 즐기며 삶.
- 824) 不遠千里. 천리를 멀다 않음.
- 825) 梁惠王. 중국 전국시대에 위(魏) 나라의 제후 앵(鶯)은 서울을 대량으로 옮기고 왕이 되었는데, 이가 혜왕이다.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천하의 인재를 불러들였는데, 맹자도 그를 찾아간 적이 있다.
- 826)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827) 渭水 漁父 姜太公.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위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강태공을 가리킴.
- 828) 文王.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 이름은 창(昌). 강태공을 모사로 삼고 국정을 바로잡아 국력을 길러 천하의 반을 통일하였음.
- 829) 入周. 주나라에 들어감. 강태공이 문왕을 따라 주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리킴.
- 830) 漢既渡會 蜀道難의 黃面將軍 韓信이. 한나라 군사를 이끌고 험한 길인 진창을 건넜던 얼굴색이 누렇던 한신 장군. '한기도창'은 '한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진창을 이미 건너'라는 뜻. 한신이 진나라와 싸울 때 수령이 많은 진창 지방으로 군대를 끌고 나온 일을 말함. '촉도난'은 '험한 촉나라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후에는 '험한 길'을 뜻하게 되었다. '황면장군'은 한나라 유방의 장수인 한신을 가리키는데, 한신의 얼굴이 누렇다하여 붙인 이름.
- 831) 蕭何. 한 고조 유방의 참모로, 한신을 천거하여 도원수로 삼게 했다.
- 832) 漢中. 중국 섬서성 남서쪽 한강(漢江) 북쪽의 땅으로, 사천·호북에 이르는 요충인데, 한 고조 유방이 항우로부터 한왕(漢王)에 책봉된 곳임.
- 833) 大將壇. 장수가 지휘를 위해 위치하는 단.
- 834) 벗어난. 뛰어난.
- 835) 風骨. 풍채와 골격.
- 836) 少年大將. 젊은 나이에 된 대장.
- 837) 데리고.
- 838) 滔滔滔滔. 넘실넘실.
- 839) 秋江. 가을 강.
- 840) 실려.
- 841) 十里長江碧波上. 폭이 십 리나 되는 긴 강의 푸른 물결 위.
- 842)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인가?
- 843) 洋洋滄波. 끝없이 넓은 푸른 물결.
- 844) 놀면서 날아다니는 것은.
- 845) 雙雙白鷗. 짝을 지어 노는 갈매기.
- 846) 물 위에 흐르며 떠 있네.
- 847) 蕭蕭秋風送雁群. 쓸쓸한 가을 바람이 기러기떼를 날려보내다. 당나라 시인 유유석(劉

- 禹錫)의 시 <추풍인(秋風引)>의 '何處秋風送雁群(어디서 오는 가을 바람이 쓸쓸한 기러기떼를 보내는가)'에서 따온 구절.
- 848) 한 마디 말을.
- 849)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 850) 碧海龍宮. 푸른 바다 속 용궁.
- 851) 鸚鵡前에. 앵무새에게.
- 852) 잔소리.
- 853) 하필이면 그날에.
- 854) 風勢. 바람의 세력.
- 855) 마구 뒤틀리고 우그러지는 모양.
- 856) 水邊. 물가.
- 857) 誤死. 형벌이나 재앙을 입어 비명에 죽음.
- 858) 억지 방정.
- 859) 발로 물을 구르는 모양.
- 860) 자꾸 그러는가?
- 861) 착실하거나 미덥지 않기는.
- 862) 담가보아서.
- 863) 목까지 물이 찰 만하면.
- 864) 담그려고.
- 865) 片箭. 축이 날카롭고 짧은 화살.
- 866) 화살이겠다. 곧, 그렇게 빠르다는 말.
- 867) 울렁울렁.
- 868) 풍덩. 크고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에 떨어지거나 빠질 때 무겁게 한 번 나는 소리.
- 869) '입'을 속되게 일컫는 말.
- 870) 옆드려서.
- 871) 瀟湘八景. 양자강의 두 지류인 소수와 상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이름난 여덟 가지의 경치. 평사낙안(平沙落雁. 평평함 모래밭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습.)·원포귀벌(遠浦歸帆. 멀리서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산시청람(山市晴嵐. 멀리 보이는 산에 떠오르는 푸르스름한 기운)·강천모설(江天暮雪. 강에 내리는 저녁눈)·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뜬 가을달)·소상야우(瀟湘夜雨.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연사만종(煙寺晚鐘. 안개에 싸인 절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어촌석조(漁村夕照. 어촌의 저녁 노을).
- 872) 구경.
- 873)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874) 물건이 공중이나 바다에 떠 있는 모양.
- 875) 茫茫. 넓고 아득함.
- 876) 滄海. 넓고 큰 바다.
- 877)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878)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879)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880) 三江. 중국에 있는 송강, 전당강, 포양강의 세 강.
- 881)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882)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883)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소리.
- 884) 이것이지만.
- 885) 曲終人不見. 노래가 끝나고 사람은 보이지 않음.
- 886) 數峯. 몇몇 산봉우리.
- 887) 푸르러 있다.
- 888) 長沙. 중국 호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889)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사람으로, 여러 제도를 개혁하고, 장사왕(長沙王)과 양(梁) 나라 회왕(懷王)의 태부가 됨. 굴원의 닛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890)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을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경〉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891) 魚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892)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인사말로 쓰임.
- 893)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894)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장현의 서쪽의 황학산에 있는 누각.
- 895) 日暮鄉關何處是?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는 崔灝의 遺蹟이다.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시름만 더해 준다'는 시구는 당나라 때 시인 최호가 남긴 차취로다. 최호가 쓴 〈황학루〉의 끝 구절. 최호는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 896)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897) 三山은 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 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이수'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 데 있는 섬.
- 898)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늪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899)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900) 一去後에. 한 번 간 뒤에.
- 901)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902)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903) 蘇東坡. 송나라 시인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 이름은 식(軾), 동파(東坡)는 호임. 〈적벽부(赤壁賦)〉로 유명함.

- 904) 風月. 청풍명월(淸風明月).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905) 依舊. 옛과 같은.
- 906)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호임.
- 907) 一世之雄. 한 시대의 영웅.
- 908) 而今에 安在哉.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909)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딴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달은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 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가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감숙성 오향에 있는 소주(蘇州).
- 910)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911) 隔江. 강을 건너서.
- 912) 商女들. 술 파는 여인들.
- 913)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914)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의 한 구절.
- 915)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916) 岳陽樓. 중국 호남성 악양현에 위치한 누대. 당나라 때에 세워졌으며, 아름다운 동정호의 조망으로 유명한 곳임.
- 917) 湖上에. 호수 위에.
- 918) 三百尺. 삼백 자. 약 90m.
- 919) 扶桑. 해 뜨는 곳. 혹은 해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뽕나무.
- 920) 一輪紅. 해.
- 921) 魚龍. 물고기와 용.
- 922) 出沒. 나타났다 사라짐.
- 923) 金鷄소리. 평과에 딸린 화려한 새인 금계의 소리.
- 924) 白玉. 흰 빛깔의 옥.
- 925) 懸板. 글씨나 그림을 새겨 벽이나 문 위에 다는 널조각.
- 926) 黃金大字. 황금색의 큰 글자.
- 927) 下官末席. 지위가 낮은 보잘 것 없는 벼슬아치, 또는 그 직위.
- 928) 그것일랑은. 그것은.
- 929) 명령.
- 930) 塵世. 티끌이 있는 세상, 곧 이 세상을 이르는 말.
- 931) 言語相通. 말이 서로 통함.
- 932)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933) 悖理. 도리나 이치에 어그러짐.
- 934) 그건. 그것은.

- 935) 藍輿. 뚜껑이 없는, 의자 비슷한 작은 가마. 앞 뒤 각각 두 사람이 메게 되어 있음.
- 936) 御前. 임금의 앞.
- 937) 肅拜. 서울을 떠나 임지로 향하는 관원이 임금에게 작별을 아뢰던 일.
- 938) 現身.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 939) 生擒. 산 채로 잡음. 사로잡음.
- 940) 可觀. 볼 만함. 구경거리로 될 만함.
- 941) 左右邏卒. 좌포청과 우포청의 나졸. '나졸'은 조선조 때 포도청의 하급 병졸. 자기가 맡은 구역 안의 순찰과 죄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았음.
- 942) 禁軍. 조선조 때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둥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 하던 말 탄 군사.
- 943) '승어'의 방언인 듯. 경기도 지방에서는 승어를 그 자라는 시기에 따라 '모치', '모장이' 따위로 부름.
- 944) 巡令手. 대장의 전령(傳令). 호위를 맡거나, 순시기(巡視旗), 영기(令旗)를 드는 군사.
- 945) 내달려. 갑자기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
- 946) 秦皇. 진시황.
- 947) 불명. 마초(馬超)가 조조를 포위하고 싸운 싸움은 장안성에서의 싸움인데, 마초는 서량 태수(西涼太守) 마등(馬騰)의 아들로, 아버지 마등이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자, 군사를 일으켜 장안성을 열흘 동안 포위했다가 함락시키는 등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무찔렀으므로, 혹 이를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948) 막 무리하게.
- 949) 舉動. 행동하는 짓이나 태도.
- 950) 營門出師. 병영에서 군사를 내보냄.
- 951) 三伏달임. 복날에 그 해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고기로 국을 끓여 먹은 일.
- 952) 약개장. 약을 넣어 끓인 개장국.
- 953) 烏鷄湯. 검고 작은 닭인 오계를 푹 삶아 고은 탕.
- 954) 곱질.
- 955) 개갈랑. 방석처럼 깔려고 털이 붙어 있는 채로 가공한 개가죽.
- 956) 만들어.
- 957) 간다고 하면. 갈면.
- 958) 瘀血. 몸에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한 곳에 맺혀 있는 증세, 또는 그 피. 흔히 무엇에 부딪쳤을 때 생김.
- 959) 內腫. 내장에 난 부스럼.
- 960) 血痰. 피 섞인 거래.
- 961) 萬病回春. 모든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돌이킴.
- 962) 塗炭. 진흙과 숯불.
- 963) 頭皮. 잡은 소의 머리와 가죽.
- 964) 잡은 소의 네 다리.
- 965) 회쳐 먹는 간.
- 966) 되새김질하는 위의 세 번째 것으로, 앞 모양의 많은 조각이 있음.

- 967) 厚薄없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공평하게.
- 968) 나누어.
- 969) 꾸며 만들고.
- 970) 牛黃.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노란 색깔의 단단한 물체. 한약재로 쓰임.
- 971) 重한. 무거운. 많은.
- 972) 껌질.
- 973) 만들고.
- 974) 했던가요?
- 975) 놓으시오.
- 976) 생각해 가지고.
- 977) 가르쳐 줄게.
- 978) 先看目後看足이라. 먼저 눈을 보고, 뒤에 발을 본다는 말로, 말을 고르는 방법.
- 979) 腰短項長千里馬로다. 허리가 짧고 목이 긴 것이 하루에 천 리를 간다는 천리마로다.
- 980) 연나라 소왕(昭王)이 콕외에게 어진 신하를 구하는 법을 묻자, 콕외가 말하기를, “옛날 어느 왕이 신하에게 천금을 주면서 천리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는 오백금을 주고 죽은 말 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연유를 묻자, 죽은 말의 뼈도 오백금을 준다는 소문이 나면, 살아있는 천리마라면 얼마를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져 천리마를 세 마리나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고 싶으시면 우선 저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자 과연 인재들이 연나라로 몰려들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임.
- 981) 大王前에. 임금님 앞에.
- 982) 千金賞. 많은 돈을 주는 상.
- 983) 結縛. 몸이나 두 손을 동여 묶음.
- 984) 朱杖대. 주릿대나 무기로 쓰이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 985)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986) 대답하는 말.
- 987) 욕의 일종.
- 988) 짐승의 정강이에 튀어나온 뼈.
- 989) 동쪽에 있는 대청.
- 990) 넓은.
- 991) 때려.
- 992) 붙여놓으니.
- 993) 빨간.
- 994) 水兵諸卒. 수많은 물고기 병졸들.
- 995) 물끄러미.
- 996) 얼른.
- 997) 그냥.
- 998) 텐데.

- 999) 짐승.
 1000) 得病해서. 병을 얻어서.
 1001) 名醫에게.
 1002) 여기까지.
 1003) 恨. 한탄.
 1004) 있거든.
 1005) 龍宮之下에 必死當罷라. 용궁에서는 토끼가 죽을 수밖에 없다.
 1006) 얼른.
 1007) 생각하더니.
 1008) '배'의 비어.
 1009) 서슴지 않고 선뜻 행동하는 모양.
 1010) 가르시오.
 1011) '딸라고'의 피동형.
 1012) 防塞. 남의 청을 완강하게 거절함.
 1013) 이상스러워.
 1014) 泰山이 崩頽하고. 태산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면 임금에게 재앙이 있다고 함.
 1015) 五星. 풍수지리설에서 하늘의 형체를 이룬다는 다섯 별인 火星·金星·水星·木星·土星.
 1016) '陰陰한데'의 잘못. 어두운데.
 1017) 時日曷喪. 해가 언제 사라질까. 《서경》에 나오는 말인데, 폭군인 걸(桀)이 자기를 해라고 했으므로, 폭정을 못 이긴 백성들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함.
 1018)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들.
 1019) 貪虐한. 욕심이 많고 포악한.
 1020) 상(商)나라의 주(紂) 임금. 상나라, 곧 은(殷)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를 말함.
 1021) 聖賢. 성인과 현인.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1022) 일곱 구멍.
 1023) 比干. 은나라 때의 충신. 주(紂)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다 죽임을 당했음.
 1024) 無故히. 까닭없이.
 1025) 구멍이.
 1026) 토명(兎命). 토끼의 목숨.
 1027) 누구에게.
 1028) 모두.
 1029) 醫書. 의술을 적은 책.
 1030) 脾受病則口不能食. 지라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1031) 膽受病則舌不能言.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1032) 腎受病則耳不能聽. 신장(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함.
 1033) 肝受病則目不能視.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 못함.
 1034) 肝인卽은. 간은 곧.

- 1035) 月輪精氣. 달의 정기.
- 1036) 생겼사옵더니. 생겼기 때문에.
- 1037) 들어나이다. 집어넣습니다.
- 1038) 病客. 아픈 사람.
- 1039) 언뜻하면. 무엇이 잠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 1040) 요구하여 귀찮도록 조르기 때문에.
- 1041) 침녕쿨로 꼬아 만든 노끈.
- 1042) 瀛州. 영주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
- 1043) 石上. 바위 위.
- 1044) 上上가지. 맨 위의 가지.
- 1045) 맨 끄트머리에다가.
- 1046) 桃花流水. 복숭아꽃이 떠오르는 시내.
- 1047) 玉溪邊. 맑은 시냇가.
- 1048) 濯足次로. 발을 씻으러.
- 1049) 玩景次. 구경하러.
- 1050) 왔습니다.
- 1051) 당치 않다.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 1052) 一身之內臟. 한 몸 속의 내장.
- 1053) 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 1054) 伏羲氏. 중국 고대의 제왕으로, 팔괘(八卦)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함.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은 뱀이고, 얼굴은 사람으로, 소의 머리와 범의 꼬리를 가졌다고 함.
- 1055) 蛇身人首. 몸은 뱀이고, 머리는 사람의 형상.
- 1056) 神農氏. 중국의 옛 전설에 나오는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이며, 성은 강(姜)임. 불의 덕으로 임금이 된 까닭에 염제(炎帝)라고 일컬으며, 백성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므로 신농씨라고 일컬음. 의료와 약사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 교역의 법을 가르쳐 상업의 신으로 되어 있다.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졌다고 한다.
- 1057) 人身牛首.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형상.
- 1058) 털이 보드랍게 복실복실 난 상태를 이르는 말.
- 1059) 飛禽走獸. 날짐승과 길짐승.
- 1060) 어거지로 고집스럽게.
- 1061) 않습니다까.
- 1062) 들이고. 들여 넣고.
- 1063) 任意로. 마음대로.
- 1064) 구멍.
- 1065) 줄을 지어 죽 벌여.
- 1066) 모두.
- 1067) 出入합니다. 내고 들이고 합니다.

- 1068) 밑구멍.
- 1069) 내기 때문에.
- 1070) 萬物始生. 만물이 처음 생김(생겼을 때에).
- 1071) 東方三八木. 풍수지리설에서 오행의 하나인 목(木)은 천수(天數) 3과 지수(地數) 8이 모여서 생겼으며, 동쪽을 가리킨다.
- 1072) 南方二七火. 오행의 하나인 화(火)는 천수(天數) 2와 지수(地數) 7이 모여서 생겼으며, 남쪽을 가리킨다.
- 1073) 西方四九金. 오행의 하나인 금(金)은 천수(天數) 4와 지수(地數) 9가 모여서 생겼으며, 서쪽을 가리킨다.
- 1074) 北方一六水. 오행의 하나인 수(水)는 천수(天數) 1과 지수(地數) 6이 모여서 생겼으며, 북쪽을 가리킨다.
- 1075) 中央五十土. 오행의 하나인 토(土)는 천수(天數) 5와 지수(地數) 10이 모여서 생겼으며, 중앙을 가리킨다.
- 1076) 天地陰陽. 온 세상의 음양.
- 1077) 五色光彩. 다섯 가지 색깔의 찬란한 빛.
- 1078) 和하여. 조화시켜.
- 1079) 내기 때문에.
- 1080) 萬病回生. 모든 병이 나아 살아남.
- 1081) 名藥. 이름난 약.
- 1082) 病客들이. 아픈 사람들이.
- 1083) 먹고.
- 1084) 效驗本. 어떤 작용의 효과를 얻은.
- 1085) 증거(證據).
- 1086) 附庸. 남의 힘에 의지하여 독립하지 못함.
- 1087) 通情次로. 세상일의 사정이나 인정을 알아보려.
- 1088) 碧波水. 질푸른 물.
- 1089) 漢武帝臣. 한나라 무제의 신하. ‘무제’는 전한의 7대 왕으로, 유교를 국교로 하여 사상의 통일을 꾀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했음.
- 1090) 東方朔. 한나라 무제 때의 신하. 자(字)는 만청(曼倩).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렀으며,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죽지 않고 오래 살았다고 함.
- 1091) 求仙하러. 신선을 구하러.
- 1092) 거기.
- 1093) 크고 무거운 물건이 물에 떨어져 잠기는 소리.
- 1094) 팔 한 개만큼.
- 1095) 三千 甲子. 한 갑자는 육십 년이므로, 삼천 갑자는 180,000년임.
- 1096) 渭水邊. 위수의 물가. ‘위수’는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097) 씻었더니.

- 1098) 窮八十.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을 만나 등용되기 이전 80년을 가난하게 살고, 등용된 후에 출세하여 호화롭게 80년을 살았는데, 가난하게 산 80년을 ‘궁핍십’, 호화롭게 산 80년을 ‘달팔십’이라고 한다.
- 1099) 呂尙. 강태공.
- 1100) 飢渴에. 목이 말라.
- 1101) 瓢子. 표주박.
- 1102) 達八十. 호화롭게 산 80년.
- 1103) 安期生. 본디 약을 팔던 진(晉)나라 사람인데,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술을 배워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104) 赤松子. 고대 신농씨 때 비를 맡았다는 신선.
- 1105) 나우. 약간 많은 듯하게.
- 1106) 長生不死. 죽지 않고 오래 삶.
- 1107) 흥한.
- 1108) 너석.
- 1109) 이놈의.
- 1110) 콧구멍.
- 1111) 물부리. 담뱃대의 끝 입에 물고 빠는 자리에 끼운 물건. 쇠나 옥 등으로 만들.
- 1112) 모양처럼.
- 1113) 臍.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장의 수효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음.
- 1114) 웅답이나 저담(돼지 쓸개)을 썰 때 쓰는 말.
- 1115) 晚時之歎.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1116) 여기서.
- 1117) 토공(兎公). 토끼를 의인화하여 높여 이른 말.
- 1118) 上座. 윗자리, 또는 높은 자리.
- 1119) 諸臣들이. 여러 신하들이.
- 1120) 至重. 매우 중함.
- 1121) 紫霞酒. 신선 세계에 떠도는 자줏빛 구름으로 담은 술.
- 1122) 千日酒. 담근 지 천 일만에 먹는 좋은 술.
- 1123) 麒麟脯. 기린의 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을 하여 말린 고기.
- 1124) 琉璃盞. 유리로 만든 잔.
- 1125) 鸚鵡盃. 앵무조개의 껍데기를 가공하여 만든 술잔.
- 1126) 主人之道理하느라고. 주인으로서의 도리를 하느라고.
- 1127) 먼저.
- 1128) 盃. 잔.
- 1129) 했던가 보더라.
- 1130) 담뱃. 넘칠 정도로 가득하게.
- 1131) 건너.
- 1132) 盤石. 넓고 평평한 바위.
- 1133) 쪼그리고.

- 1134) 어이가.
- 1135) 東醫寶鑑. 조선조 광해군 때 허준이 지은 의학서.
- 1136) 今時初聞. 지금 처음 들음.
- 1137) 風流. 음악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
- 1138) 王子 旆. 주나라 영왕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뒤에 신선이 되어 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전함.
- 1139) 鳳피리. 왕자 진이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 듯함.
- 1140) 郭處士. 당나라 무종 때의 곽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곽도원은 격구(擊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141) '질장구'의 잘못. 당나라 대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나라 질장구와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듯함.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밤을 담은 큰 돛고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서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142) 성려자(成蓮子).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인.
- 1143) 張良. 한나라 고조 유방의 모사. 해하 싸움에서 달밤에 옥통소를 구슬프게 불어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겼음.
- 1144) 옥통소. 옥으로 만든 통소.
- 1145) '능파사(凌波詞)'의 잘못. '능파사'는 당나라 현종이 꿈에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146)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147) 嵇康. 진(晉)나라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며, 죽림칠현(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
- 1148) 奚琴. 깡깡이를 아악에서 이르는 이름.
- 1149) 阮籍.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시인으로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 자(字)는 사중(嗣宗)이며, 하남(河南) 사람이다.
- 1150) 擊鼙鼓 吹龍笛. 악어 가죽으로 만든 북을 치고, 용의 울음소리를 내는 피리를 불다. 당나라 때 시인 이하(李賀)의 시 〈장진주(將進酒)〉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는 '취용적 격타고'로 되어 있다.
- 1151) 凌波詞. 당나라 현종이 꿈속에서 능파못에 사는 선녀의 부탁을 받고, 꿈을 깬 뒤에 지었다는 노래.
- 1152) 步虛詞. 선교(仙敎)에서 부르는 노래의 하나. 신선인 보허자(步虛子)에서 딴 이름.
- 1153) 羽衣曲. 당나라 현종이 지은 노래.
- 1154) 採蓮曲. 중국 양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당나라 24악곡 중의 하나인 〈강남동(江南弄)〉 속에 들어 있는 악곡.
- 1155)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함부로 흩어져 있음.
- 1156) 風樂. 우리나라 고유의 옛 음악.
- 1157) 흥겨운 신과 멋을 내어.
- 1158) 岵 산(山) 자(字). 岵 '산(山)'이라는 글자.
- 1159) 모양처럼.
- 1160) 들었는지.

- 1161) 관소리 명창으로, 전기 8명창 중의 한 사람.
- 1162) 관소리 악조의 한 가지. 중중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흥겨움.
- 1163) 草綠帳. 초록의 휘장. 우거진 녹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임.
- 1164) 靑布帳. 푸른색의 포장. 버들가지가 우거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임.
- 1165) 둥그스름하게 넓적해지거나, 평평하게 널찍해져.
- 1166) 동이.
- 1167) 노구술. 아무데나 옮겨서 걸고 쓸 수 있는 술.
- 1168) '노고지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동시에 '노구술을 지리'라는 뜻을 담고 있음.
- 1169) 출랑출랑하면서. 체신없이 까불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면서.
- 1170) 망둥이.
- 1171) 따라다니다가.
- 1172) 여기.
- 1173) 깨버렸단 말이야.
- 1174) 어떤 놈의.
- 1175) 자식이.
- 1176) 警者聲音. '고자'는 소경. '고자성음'은 소경의 목소리.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에 빗대어 '무뚝뚝한 큰 목소리'라는 의미로 쓴 듯함.
- 1177) 얼른.
- 1178) 되겠거든.
- 1179) 伏地. 땅에 엎드림.
- 1180) 危重. (병세가) 위험할 만큼 매우 중함.
- 1181) '부(臍)'의 잘못.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장의 수효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음.
- 1182) 얼른.
- 1183) 本是. 본디. 본래.
- 1184) 奸邪하여.
- 1185) 草木禽獸. 풀이나 나무, 짐승들.
- 1186) 誹笑. 비웃음.
- 1187) 孟獲. 남만의 왕으로, 서기 225년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익주를 침입하였으나, 제갈량이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제갈량에게 항복하였다.
- 1188) 七縱七擒.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
- 1189) 九族. 고조, 증조,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및 형제, 사촌형제, 육촌형제, 팔촌형제를 아울러 일컫는 말.
- 1190) 滅하여. 사라지게 하여. 쳐부수어. 여기서는 '죽여'라는 뜻.
- 1191) 陵遲處斬. 죄인을 머리, 손, 발, 몸뚱이 따위로 토막을 내는 극형.
- 1192) 餘恨. 남는 한. 못다한 한.
- 1193) 당치 않다.

- 1194) 夏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걸.
 1195) 虐政. 포악한 정치.
 1196) 龍逢. 걸 임금의 충신. 옳은 일을 간하다 죽임을 당함.
 1197) 殺害해. 죽여서.
 1198) 未久에.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1199) 邪鬼. 사악한 귀신.
 1200) 너희.
 1201) 십 년 살 것을.
 1202) 滿朝百官. 조정의 모든 관리.
 1203) 모두.
 1204) 沒死시키리다.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1205) ‘여기 있다’의 준말. ‘해라’ 할 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1206) ‘얼마나 억지로 우겨 악을 써 놓았던지’ 정도의 의미로 쓴 듯.
 1207) 속아 넘어갔던가.
 1208) 至重. 매우 중함.
 1209) 어찌할 수 없어.
 1210) 水邊. 물가.
 1211) 물끄러미.
 1212) 기특하고 장하게.
 1213) 二水. 양자강의 지류인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키는 말.
 1214)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1215) 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弔湘君고. 해는 긴 모래밭에 떨어지고 가을 산빛은 아득한데, 어디서 상군을 조문해야할지 모르겠다.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에 있는 구절.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1216) 바라보니.
 1217) 君子.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1218) 問曰. 물어 말하되.
 1219) 何以至此하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십니까?
 1220) 回足青山하니 觀不過諸觀이요, 濯足無臨하니 殆不過鳳凰이라. 素無知識하여 流魅平生이라.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세상이라. 본디 아는 게 없어 (별주부에게 속아 용궁에 갔다가)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뻔했다.
 1221) 五湖滄煙月夜. 오호의 푸른 물결 위에 안개가 자욱한 달밤. ‘오호’는 동정호 또는 태호라고 하기도 하고, 공호·유호·서호·매량호·금정호의 다섯 호수라고 하기도 함.
 1222) 越范蠡. 월나라의 범려. ‘범려’는 중국 전국시대 월(越)나라의 재상.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쳐 멸망시켰으나, 후에 벼슬을 버리고 스스로 도주공(陶朱公)이라 일컬으며 부자로 살았음.
 1223) 檻外長江空自流. 당나라 때의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藤王閣)〉의 마지막 구

- 절. 난간 밖의 강물만이 부질없이 흐른다.
- 1224) 藤王閣. 중국 강서성 남창현에 있는 누대로, 당 고조의 아들 이원영(李元嬰)이 홍주도독(洪州都督)으로 있을 때 세웠는데, 그가 등왕에 봉해졌으므로 등왕각이라고 부른다.
- 1225) 白鷺洲. 양자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
- 1226) 赤壁江. 중국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赤壁賦)〉를 지으며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1227) 蘇子瞻. 송나라 때 문인인 소동파(蘇東坡). 〈적벽부〉를 썼음.
- 1228) 泛舟遊. 배를 띄우고 놀다.
- 1229) 東山上. 동쪽 산 위.
- 1230) 斗牛間. 북두칠성과 견우성 사이.
- 1231) 白鷺橫江. 백로가 강을 가로질러 감.
- 1232) 笑指蘆花月溢船. 웃으며 손가락으로 흰 갈대꽃과 달빛이 가득찬 배를 가리킴.
- 1233) 秋江. 가을 강.
- 1234) 騎鯨仙子. 고래를 탄 신선, 곧 이태백을 가리킴. 이태백은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 1235) 空秋月之團圓. 빈 하늘엔 가을달만 둥글다.
- 1236) 신고.
- 1237) 還山弄明月.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보며 즐김.
- 1238) 遠海近山. 바다는 멀고, 산이 가까움.
- 1239) 沂水. 중국에 있는 강 이름. 산동성에서 발원하여 사수(泗水)로 들어감.
- 1240) 漁釣. 고기를 낚음.
- 1241) 姜太公. 주나라 때 사람으로, 문왕을 만나 등용되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음.
- 1242) 渭水. 중국 감숙성 동부에서 시작하여 섬서성을 관류하는 황하의 큰 지류.
- 1243) 銀鱗玉尺. 비늘이 은빛처럼 번쩍번쩍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 1244) 碧海水邊. 푸른 바닷가.
- 1245) 어이가 없어서.
- 1246) 물끄러미.
- 1247) 水路萬里. 머나먼 물길.
- 1248) '머리'의 속된 표현.
- 1249) 내때려 퍼붓는데. 사정없이 퍼붓는데.
- 1250) 흔히 '경드름', '경제'라고도 함.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악조(樂調)로, 경기도 민요조로 되어 있음. 경쾌하며 흥겨운 느낌이 남.
- 1251)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 1252) '발기다(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헤쳐 발리다)에서 나온 욕으로, '찢어죽일 녀석'이라는 뜻.
- 1253) 너희.
- 1254) 슬기롭기.
- 1255) 나와 같고.

- 1256) 밑구멍.
 1257) 셋이. 세 개가.
 1258) 白雲青山. 흰 구름 속에 싸인 푸른 산.
 1259) 이렇게 해놓고.
 1260) 흥한.
 1261) '보추(때기)'는 진취성이나, 활발하며 시원한 성질. 여기서는 '버릇이나 싹수가 없는'의 의미로 쓰였음.
 1262) 후례자식. 막되게 자라서 버릇이 없는 놈.
 1263) 움푹한.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서 오목한.
 1264) 바위.
 1265) '엮어놓고'를 강하게 한 말.
 1266) 몸뚱이의 한 가운데. 여기서는 등의 꺾대기를 말함.
 1267) '뺏아서'의 강한 말.
 1268) 큰 명절을 앞두고 서는 장날.
 1269) 웅기짐. 웅기 그릇을 짚어진 짐.
 1270) 만들.
 1271) 워낙.
 1272) 지극해서.
 1273) 복.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일컫는 말. 몸이 뚱뚱하고 등지느러미가 작으며, 이가 날카로움. 고기는 맛이 좋으나 내장에 독이 있어 중독될 염려가 있음.
 1274) 많더라.
 1275) (고기나 고기뼈 따위) 단단한 것을 덩어리가 몽그러지거나 진액이 잘 빠지게 쪼아 삶아서.
 1276) 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좋은 방안이나 도리.
 1277) 가니까.
 1278) 이뿐. 예뿐.
 1279) 많더라.
 1280) 억지 방정.
 1281) 둥병골. '둥병'은 웅덩이. 따라서 '둥병골'은 웅덩이가 있는 골짜기나 동네를 가리키는 이름.
 1282) 이제.
 1283) 正朝. 설날 아침.
 1284) 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자손들이 저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높고 큰 은덕을 추모하며 제사를 지내고, 묘지에 손질을 하는 날임.
 1285) 端午. 음력 오월 오일.
 1286) 제사를 받아 먹는다는 말.
 1287) 石碑. 돌로 만든 비.
 1288) 木碑. 나무로 만든 비.
 1289) 三災八難. 삼재와 팔난. '삼재'는 수재(水災)·풍재(風災)·화재(火災)의 세 가지 재앙. '팔난'은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

칼·병란.

- 1290) 分數.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자기 신분에 알맞은 한도.
1291) 急煞맛을. 갑작스럽게 죽을.
1292) 있다는가?
1293) 自歎. 스스로 탄식함.
1294) 몽덩이.
1295) 작은 날벌레나 돌팔매 따위가 빠르게 날아가는 모양.
1296) 쉬郎廳. 낭청 벼슬을 하는 쉬파리라는 뜻으로 쉬파리를 의인화한 표현.
1297) 이제.
1298) 療飢.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1299) 天地造化. 온 세상을 신통하게 꾸며놓은 일, 또는 그 재간.
1300) 陰陽理致. 우주 만물의 이원대립적 관계를 상징하는 음과 양의 이치.
1301) 五行八卦法. 오행과 팔괘를 가지고 길흉을 점치는 방법. '오행'은 우주 만물을 형성하는 다섯 원기(元氣)인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를 가지고, 상생과 상극을 따져 길흉을 따짐. '팔괘'는 중국 고대 시대에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여덟 가지의 괘(卦)로, 《주역》에서 자연계 및 인사계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여덟 가지의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으로 길흉을 점침.
1302) 무엇이겠습니까?
1303) 주위배웠는지. '배웠는지'를 알잡아서 속되게 일컫는 말.
1304) 來歷. 지금까지 지내온 경로나 경력.
1305) 얹어놓으면.
1306) 뒤집어놓으면.
1307) (줄을) 굿거나 접거나 한 자리.
1308) 두 마디이기는. 두 마디인 것은.
1309) 天地人. 하늘과 땅과 사람.
1310) 三才. 음양설에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일컫는 말.
1311) 집게손가락.
1312) 가운데손가락.
1313) 길기는. 긴 것은.
1314) 無名指. 약손가락.
1315) 小指. 새끼손가락.
1316) 짧고.
1317) 子午卯酉.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네 요소. 곧, 자는 북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유는 서쪽.
1318) 여기에.
1319) 乾坎艮震巽離坤兌. 《주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음양을 겹쳐서 나타내는 팔괘의 상(象).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1320) 先天八卦. 주나라 문왕이 만든 후천팔괘와 함께 주역의 근본이 되는, 복희씨가 만든

팔괘. 건(乾)은 남쪽, 곤(坤)은 북쪽, 이(離)는 동쪽, 감(坎)은 서쪽, 태(兌)는 동남쪽, 간(艮)은 서북쪽, 진(震)은 동북쪽, 손(巽)은 서남쪽을 가리킨다.

- 1321) 佛道. 부처의 가르침.
- 1322) 坎中連. 팔괘의 하나인 감의 상형.
- 1323) 艮上連. 팔괘의 하나인 간의 상형.
- 1324) 여기에.
- 1325) 六道記文. 불교에서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곧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에 대해 적은 글.
- 1326) 大藏經. 일체의 불경을 모두 모아놓은 것.
- 1327) 모두.
- 1328) 一掌中이라. 손바닥 하나 속에 있다.
- 1329) '넌들'로 해야 의미가 통함.
- 1330) 파리의 알.
- 1331) 슬어주시오. '슬다'는 (벌레나 물고기 따위가) 알을 낳기다.
- 1332) 것이니까.
- 1333) 數數百. 여러 백.
- 1334) 사이.
- 1335) '주둥이'의 비어.
- 1336) 等屬. 명사 다음에 쓰이어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일컫는 말.
- 1337) 몇 없는.
- 1338) 여기서는 '항문'을 가리킴.
- 1339) 매달려.
- 1340) 樵童牧豎. 나무하는 아이들과 목동.
- 1341) 深深山谷. 깊고 깊은 산골짜기.
- 1342) 어떻게 갈까?
- 1343) 적에. 때에.
- 1344) 厚薄. 후함과 박함.
- 1345) 무슨너르. '너르'는 사물이나 대상을 낮추어 함부로 일컬을 때 쓰는 말조각.
- 1346) 몽똥그려. 되는 대로 몽치어 싸서.
- 1347) 힘껏대로. 힘껏.
- 1348) 爲父母妻子. 부모와 아내 자식을 위함.
- 1349) 極盡恭待. 그 이상 더할 수 없이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350) 저기.
- 1351) 먹고.
- 1352) 叢中. 여럿 있는 가운데.
- 1353) 행동이 멋없고 우직한.
- 1354)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1355) 보니까.
- 1356) 건드러지게 미끄러지는 맛이 있는.

- 1357) 어떤 일에 한 속이 되어 이룬 무리나 모임.
 1358) 목소리.
 1359) 五管絃. 시나위 대금에서 중심이 되는 음. 대금의 여섯 구멍 중에서 제일 윗 구멍만 열고 나머지는 모두 막고 내는 음.
 1360) ‘瞽者聲音’이 아닌가 생각됨. ‘고자’는 소경. ‘고자성음’은 소경의 목소리. 소경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이에 빗대어 ‘무뚝뚝한 큰 목소리’라는 의미로 쓴 듯함.
 1361) 대가리에다.
 1362) 고소하게.
 1363) 먹을 북.
 1364) 궁둥이에다.
 1365) 쉼쉼. 숨소리를 계속해서 거칠고 가쁘게 내는 소리.
 1366) 시름하다. 웅숭깊게 시름하다.
 1367) 내버려라.
 1368) 너석아.
 1369) 내버려.
 1370) 갑작스레 거꾸로 뒤집히는 모양.
 1371) 萬無하고. 절대로 없고.
 1372) 억지 방정.
 1373) 긴.
 1374) 너희들에게.
 1375) 너희들.
 1376) 寬大長者.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사람.
 1377) 漢高祖. 한나라를 세운 유방(劉邦).
 1378) 局量. 도량이나 궁리.
 1379) 나만하며. 나 정도 되며.
 1380) 神出鬼沒.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로 출몰하여 쉽사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음의 비유.
 1381) 運籌決勝.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셈가지로 주역의 패를 뽑아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함.
 1382) 張子房. 한 고조를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던 모사. 이름은 량(良). 자방은 그의 자(字).
 1383) 意思. 생각.
 1384) 나만하랴. 나만하겠는가.
 1385) 천천히 부드럽게 날아드는 모양.
 1386) ‘머리’의 비어.
 1387) 이너르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1388) ‘머리’의 비어.
 1389) 깨서. 쪼아서.

- 1390) 똥창까지. '똥창'은 소의 창자의 한 부분인데, 국을 끓이기도 하고, 소금을 발라 구워 먹기도 한다. 여기서는 그저 '창자'의 뜻으로 쓰였음.
- 1391) 三災八難. 삼재와 팔난. '삼재'는 수재(水災)·풍재(風災)·화재(火災)의 세 가지 재앙. '팔난'은 여덟 가지의 어려운 재난. 곧, 배고픔·목마름·추위·더위·물·불·칼·병란.
- 1392) 分數.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자기 신분에 알맞은 한도.
- 1393) 急煞맞을. 갑작스럽게 죽을.
- 1394) 意思주머니. 생각주머니.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듯함.
- 1395) 無主空山. 주인 없는 빈 산.
- 1396) 던져두고.
- 1397) 消風次. 소풍하려고.
- 1398) 잡되고 상스러운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 1399) 통기면서.
- 1400) 창자.
- 1401) 돼지.
- 1402) 數數百. 여러 백. 많은 수.
- 1403) 부(腑).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장의 수효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음.
- 1404) 생각해보니까.
- 1405) 療飢.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 1406) 제가.
- 1407) 틀림없이.
- 1408) 없어서 그리워 할.
- 1409) 저기.
- 1410) 盤石. 넓고 편편한 큰 돌.
- 1411) 움푹한. 가운데가 약간 들어가서 오목한.
- 1412) 그러니까.
- 1413) 놓으시오.
- 1414) 鬪牋판. 투전을 하는 장소. '투전'은 노름에 쓰는 제구의 한 가지, 또는 그 노름. 두꺼운 종이로 작은 손가락 넓이만하고 길이 13cm쯤 되게 만들어, 그 위에 사람, 새나 짐승, 벌레나 물고기 등의 형태, 또는 문자나 시구 따위를 그림으로 그리고, 꽃수를 표시하는 부호를 넣어 기름으로 걸어 만든 것.
- 1415) 죄돗이. 오락이나 노름에서 뽑은 패를 마음을 줄이며 젓혀 보듯이. 따라서 앞의 '투전판'은 '투전', 혹은 '투전패'로 해야 됨.
- 1416) 뽕드득. 단단하고 질기거나 만드러운 물건을 아무지게 문지르거나 비빌 때 나는 소리.
- 1417) 죄어서.
- 1418) 들어가버렸지.
- 1419) 무엇하리.
- 1420) 거기.

- 1421) 이제.
1422) 保身. 자기의 한 몸을 잘 보전함.
1423) 그때서야.
1424) 이치에 그럴싸한 일로 남에게 속은.
1425) 宛然히.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1426) 판소리의 맨 끝에 오는 말로 대개는 '더질더질'이라고 함.